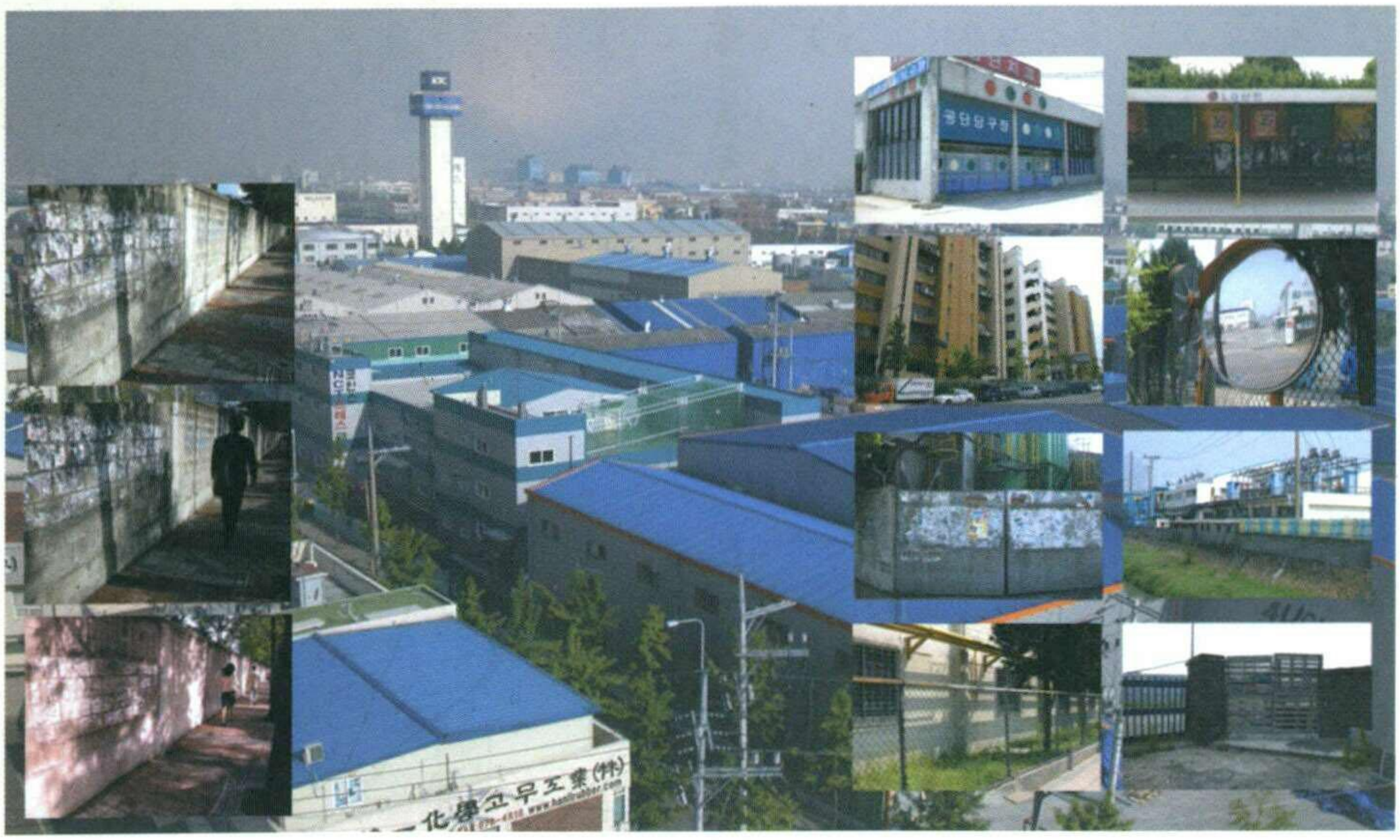
| 학산문화총서 1 |



朱安

역사 · 공간 · 일상

| 학산문화총서 기획위원회 |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朱安

역사 · 공간 · 일상

| 학산문화총서 기획위원회 |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 축사 |

줄기가 베어지고 남은 그루터기에 연한 새 순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땅 위에 푸르름이 사라졌을지라도 때가 이르면 살아있는 땅 속의 뿌리는 다시 푸른 잎과 줄기를 냅니다.

그루터기는 '좌절' 보다는 '뿌리 깊음' 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관문인 인천은 향토문화가 지난날 거센 바람에 가지가 꺾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새 가지를 내고 그늘을 이루어 안과 밖의 만남을 이어주고 또 발전시켜온 우리 겨레 문화의 정자나무 같기도 합니다.

그 인천 역사와 문화의 뿌리 - 남구, 이 곳의 天, 地, 人, 三才가 빚어낸 향토문화와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학산문화총서 첫번째로 『주안 - 역사 · 공간 · 일상』이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에 참여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해오신 류제환 학산문화원장님과 이재숙 사무국장님 그리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 12.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박 우 섭

| 발간사 |

크고 작은 일들로 분주했던 갑신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마당에 모쪼록 훈훈한 소식들이 넘쳐나야 할 텐데, 우리 주변 사정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IMF 환란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이었지만, 다시 찾아온 어려운 경제 사정에 흉흉한 소식들만 주변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웃들과 조금씩 나누고 베푸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훈훈하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출범하여 올 한 해,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해왔던 남구학산문화원에 있어 2004년은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어려웠던 올해의 세태와 달리, 학산문화원의 무모한 출발에 인천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남구 구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출범 첫 해치고는 작지 않은 문화의 결실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원사 없이 출범하였던 학산문화원은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도 구민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저변 확대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큰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갖가지 문화 사업들이 과연 튼실한 과실로 결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시도했던 여러 문화 사업들이, 과거 인천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구도심이라 칭해지는 남구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남구가 인천 지역 전체가 살맛나는 문화로 충만한 도시가 되는 구심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학산문화총서〉 시리즈는 올해 사업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지난여름 멸실되어 가는 문화유적의 위치를 찾아서 〈학산서원터〉 표석을 비롯한 세 개의 표석을 세웠던 것이 남구 지역의 과거를 조명하는 사업이었다면, 이번에 출간되는 〈학산문화총서〉 제1권 『朱安 - 역사 · 공간 · 일상』은 현재에 대한 탐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려 한 학술적 시도입니다. 이 또한 첫 시도 치고는,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준 것을 구민과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아울러 2권, 3권으로 계속 이어질 〈학산문화총서〉가 오늘의 남구 지역을 진단하고 내일의 남구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시민토론의 길잡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집필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과 책의 출간을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 12월

남구학산문화원 유 제 환

| 머리말 |

오늘날 인천광역시 남구의 중심인 주안은 지역은 다른 어느 도시공간보다도 철저한 근대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도심지역이다. 근대 이전의 주안 지역은 길고 너른 갯고랑을 따라 바닷물이 들고나는 전형적인 해안 인근지역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곳에 철도가 지나가게 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지대로 바뀌더니, 해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도시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경인고속도로의 개통 및 사통팔달의 도로가 건설되고, 이에 발맞추어 대규모의 공장 및 주거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도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건설되고 이에 따라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상권이 발달하고 여기에 교육, 업무, 문화, 소비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기능이 더해지면서 주안 지역은 한동안 인천의 새로운 도심지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인천시의 도시영역이 재차 시 외곽으로 확장되고, 1988년에 남구로부터 분구된 남동구 지역의 구월동에 시청이 이전한 것을 기화로 새로운 신도심으로 도약하자, 남구와 주안 지역은 도시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멈추고 한동안 지체하는 듯 보인다.

2002년의 통계를 보면, 남구의 전체 면적 중에서 주안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5%에 달하여 나머지 7개의 법정동인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도화동, 관교동, 문학동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에 있어서도 주안은 남구 전체의 인구 43만여 명 중 약 38%에 달하는 16만 명 정도가 살고 있

는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공간이다. 그러나 남구 전체가 그런 것처럼 신도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에 비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지역이 온존하고 있는 도시환경과, 점차 열악해져가는 주거 및 생활환경,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교육, 업무기능의 이전과 반비례하여 성장하고 있는 오락 및 문화기능의 확대 등으로 도시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큰 혼돈을 겪고 있다.

철저히 구도심 지역으로 낙후하고 있는 중 · 동구 지역 및 숭의동과 같은 남구의 일부 지역과,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남동구, 연수구 등지의 신도심 지역 사이에 위치한 주안이라는 도시공간은, 이제 도시공간으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겪으면서 미래의 도시공간으로 변모할 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 책은 주안이라는 도시공간이 처한 시공간적 맥락을 되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연차적으로 발간할 〈학산문화총서〉의 제1권에 해당하는 이 책은, 주안이라는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투사하고 이로부터 재발견된 미래도시상을 탐색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역사, 공간, 일상이라는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분야의 젊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주안이라는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어린 탐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 도시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획해본 것이다.

그러나 애초의 기획의도가 그리 튼실한 것이 못되었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

라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나마 이나마의 모습으로 이 총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편집자의 막연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고 주안 일대를 누비면서 살아있는 글을 써 보내준 공동 집필자들의 노고 덕분이다. 각기 다른 개성과 특장을 보여주는 여러 편의 글을 통해서 독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도시공간이 새롭게 둘러보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 믿는다. 집필에 참여해준 김영경, 김락기, 이영민, 전진삼, 이형복, 오남규, 조혁신, 이현식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책의 기획과 진행과정에서 끝없는 후원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이재숙 학산문화원 사무국장님의 노고와, 유제환 문화원장님, 박우섭 남구청장님의 후의, 그리고 민운기님을 비롯한 여러 조언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나마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모쪼록 이 조그맣고 서툰 책이 주안이라는 도시공간을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으로,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004년 12월 10일에

공동집필자를 대신하여 이 희 환 씀

contents

축사 ····· 박우섭 3

발간사 ····· 유제환 4

머리말 ····· 이희환 6

사진으로 보는 주안 ····· 김영경 11

갯고랑 위에 생긴 산업화의 도시공간
— 주안의 역사와 문화 ····· 이희환 37

주안 염전의 건설과 변천 ····· 김락기 63

주안의 거주지 경관과 인구특성 ····· 이영민 81

주안의 도시경관과 거리, 건축 ····· 전진삼 117

주안의 도시구조와 공간
— 주안역세권의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 이형복 141

2004년 봄, 주안의 사회생태
— 자기선용의 물질 조건 탐구 ····· 오남규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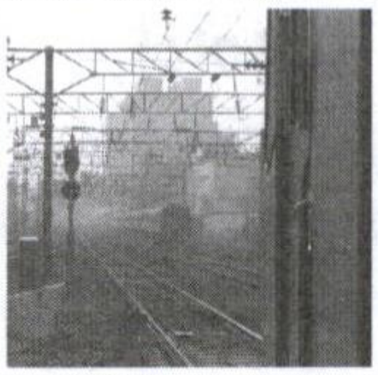
〈소설〉 똥막대 한 자루
— 주안 신기촌 조동팔전 ····· 조혁신 205

〈구술〉 주안에서의 삶과 기억
— 유제환 문화원장과 중앙극장 ····· 이재숙 239

주안이라는 도시공간의 현재와 미래 ····· 이현식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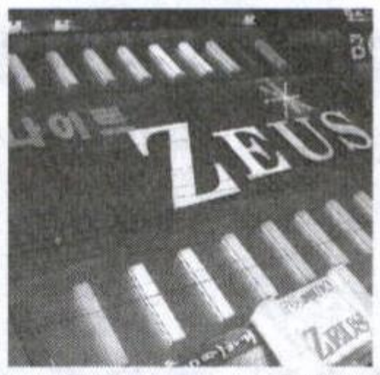
사진으로 봔 朱安

김영경 (사진가)



I

주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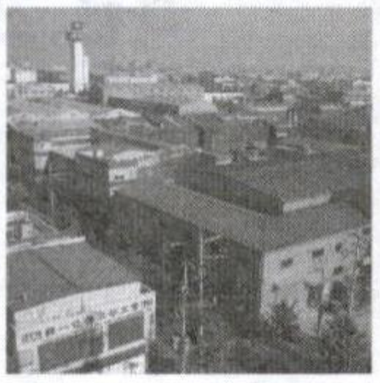
III

2030
거리



II

지하상가



IV

주안공단

I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달은 이동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 사람들을 예전에는 가기 힘든 곳까지 빨리 데려다 줄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그만큼 멀리까지 가야 할 필요 또한 양산해냈다.

이제 사람들은 일하러 공부하러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러 먼 곳까지 가야한다. 이때 사람들은 인간의 걸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른 기계 – 자가용이나 버스, 전철을 이용한다.

주안역은 그런 사람들이 거쳐 가는 길목이다.

물론 표준화된 하루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이후에 더욱 붐비기는 하지만,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 가고자 사람들은
이곳을 무수히 지.나.쳐.간.다.




④ 제물포 인천
Jemulpo Incheon
타는곳
Tracks
③ 당역종착
Terminal Station
(급 행 열 차)
4
3


156 주 안 朱安 Juan


BRT
TRANSMILENIO


LINE

II



철로는 한 도시를 다른 도시와 연결시켜주지만,
다른 길과의 교차를 허락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양편을 가른다.

경인선은 1899년 완공되었을 때부터 전철로 바뀌고도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을 남북으로 길게 자르고 있다.
갈라진 양편을 잇는 길은 공중을 날거나 땅 속으로 낼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전철역을 낀 지하통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상점이 들어선다.
그래서 생겨난 것인 지하통로 양편에
규칙적으로 분할된 방들로 이루어진 지하상가이다.

바쁘게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
그 방들은 화려하게 치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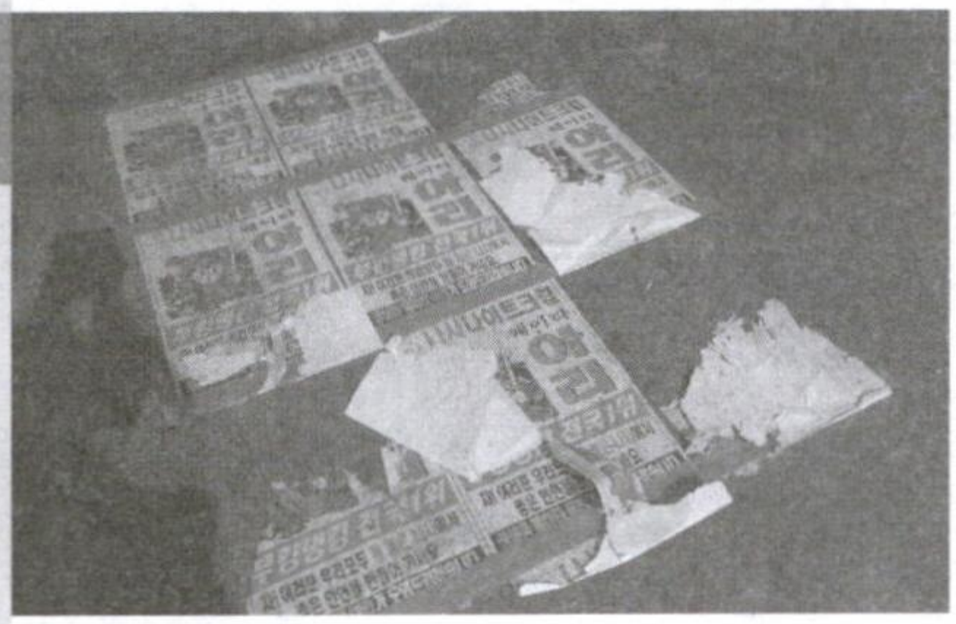



5000
3000
7000
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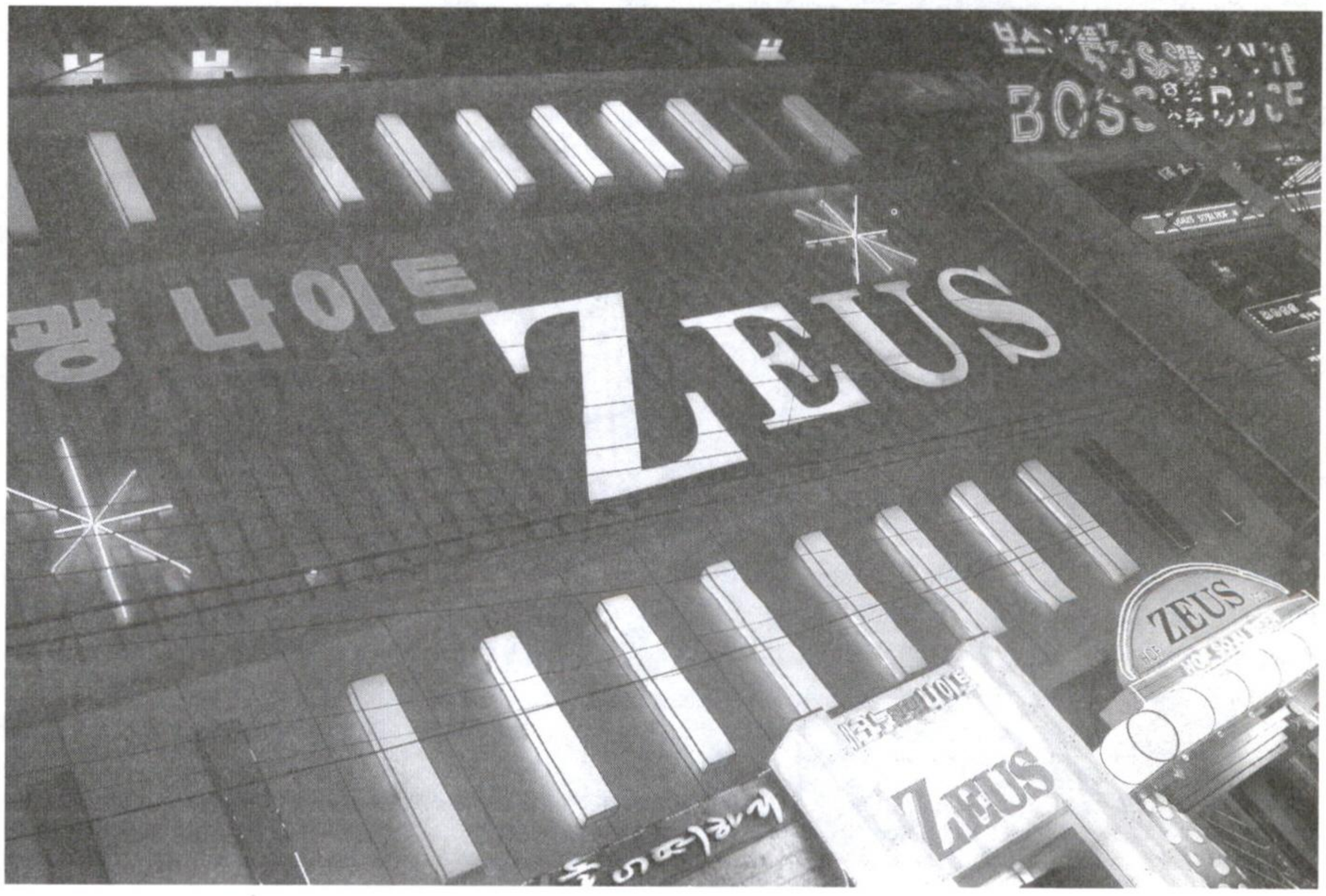



SOCK

III



사람들은 일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니어서,
교통이 편리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는
자연히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노는 유흥공간이 들어서기 마련이다.
주안역 남쪽, 길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는 2030거리가 그곳이다.
음식점, 술집, 카페, 당구장,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나이트클럽, 여관, 모텔,
늘어선 빌딩에 빽빽이 들어찬 간판들.
사람들의 일과가 끝나고 난,
일몰 이후에야 흥청거린다.


ZEUS
ZEUS
ZEUS


노래방
GM
노래방
GM
노래방
영화관
노래방
고인돌
아구
꽃게
ZOOM
Pool Top
Again
어게인엔
꽁짜가있다!
호프&소주


24시
인테넷
전화
노래방
노래
호프&소주
호프&소주
MOTEL


ONE+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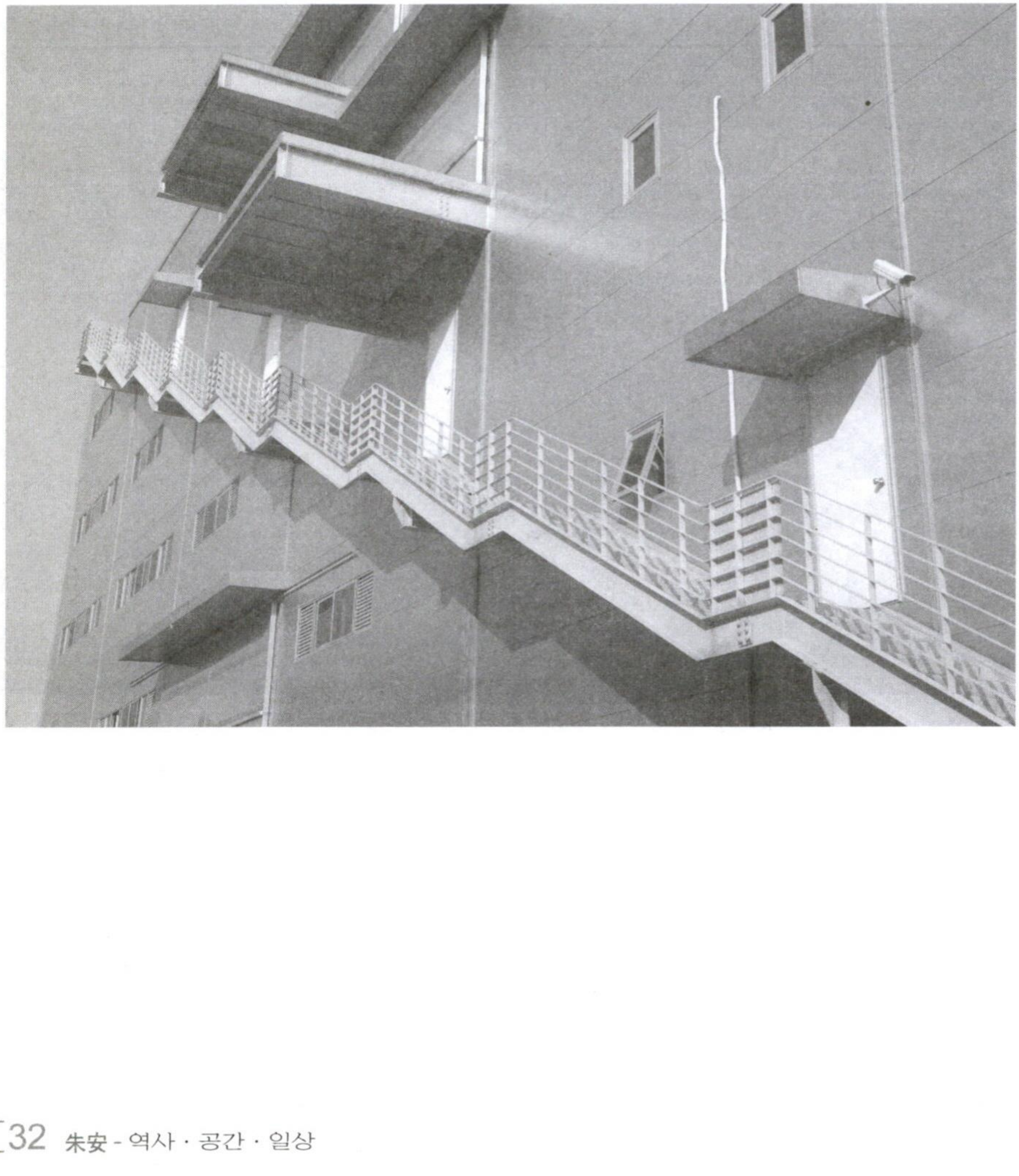

황해장 여관 주차장
주차하시고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세요
모 텔 숙 박 주 차 장
황 해
황해장여관
황해장여관 신장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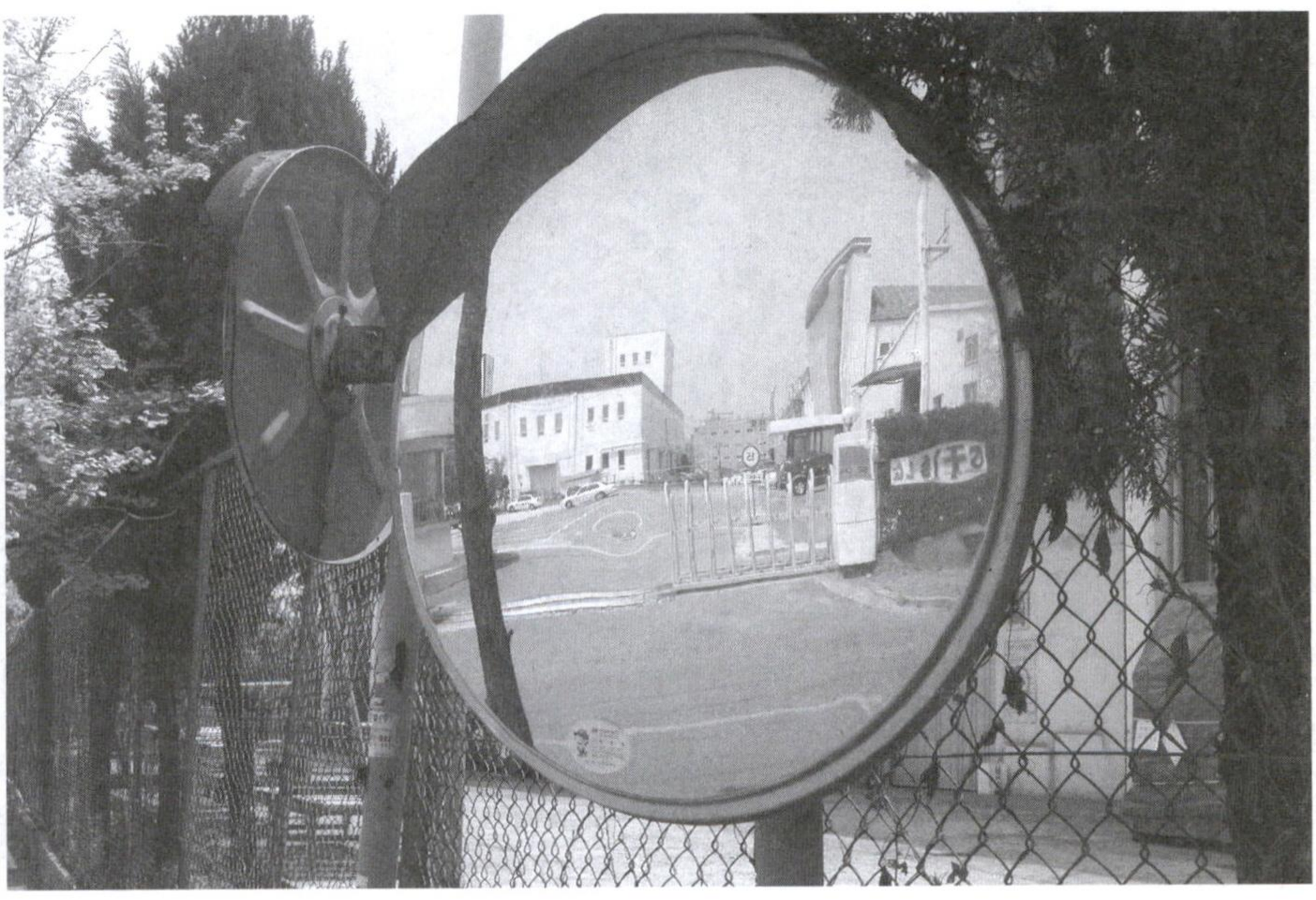
IV



주안역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공단이 자리잡고 있다.
주안국가산업단지.
한때 국내 소금 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던 염전이
1960년대 후반 산업화와 수출 진흥을 위해 공업단지로 변모된 곳이다.
공단은 그 기능에 충실하다.
이곳의 가로와 건물들은
오직 '생산'만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회사의 로고뿐이다.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들도 주안역을 거쳐서 오겠지만–
대부분 어느 공장의 직원이기 때문에
단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너무 기계적이다.
한때 산업화의 심장이었던 이곳은
산업구조 개편에 밀려 쇠락해가고 있다.


HANIL
韓一化學고무工業(株)
TEL.032.874-4811~5 FAX.576-4816 www.hanilrubber.com






신장개업
동명
428-7807
부원안마
부원안마


공단당구장
공단당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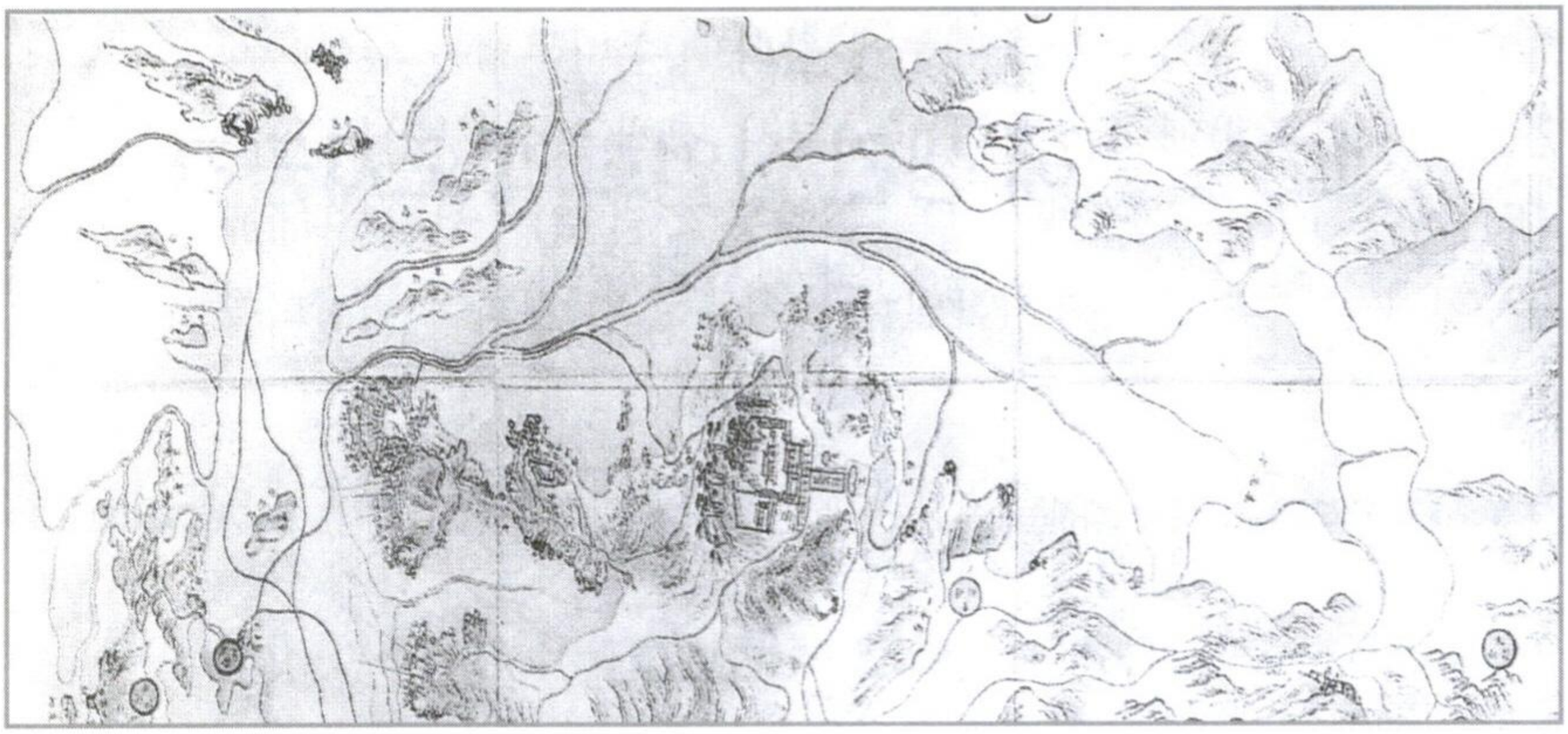
갯고랑 위에 생긴 산업화의 도시공간

— 주안의 역사와 문화

이희환 (학산문화원 기획위원,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주안' 이라는 낯선 지명

오늘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안' 이라는 지역은 근대 이전엔 길고 너른 갯고랑을 따라 바닷물이 들고나는 전형적인 해안 인근 지대였다. 인천부 다소면多少面 관할의 충훈부忠勳府와 사미士美, 시미라고도 불렀다고 한다라는 마을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었다. 우물이 많다는 의미의 다소면 관할 지역은 지금의 주안동을 비롯하여 용현동, 숭의동뿐만 아니라 멀리 제물포를 포함한 오늘날의 중 · 동구에 이르는 너른 지역이었다.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되고 그 일대가 개항장으로 변모하자 1903년 8월에 다소면 관할의 선창리船倉里, 오늘날의 중구 일대, 고잔리古棧里, 만석동 일대, 송림리松林里 , 송림동 일대를 떼어 부내면府內面을 신설하였고, 원 인천의 중심지역이었던 문학산 지역의 부내면은 구읍면舊邑面이라 개칭되었다.



〈화도진도〉(1878)에 그려진 주안 일대

이훈익 선생의 『인천지명고』(1993)에 따르면, 다소면 관할의 충훈말과 사미마을은 그런 와중인 1903년 8월 인천부가 동리면을 확정하면서 충훈부리와 사미리로 불리우다가 1906년 5월 동리명의 개정으로 충훈리, 사미리로 확정되었다. 그러다 일제 치하에서 1914년 3월 1일 단행된 행정구역 변경에서 부천군이 신설되고 다소면과 주안면朱雁面이 통합되어 다주면多朱面이 신설되면서 다주면 관할에 들어갔다. 그해 11월 20일에는 충훈리와 사미리를 통합하여 사충리士忠里라 불리게 되었다. 이후 1936년 10월 1일자로 사충리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간석동과 관교동의 일부까지 편입되면서 주안정朱安町이라 개칭된다. 그후 해방 직후인 1946년 1월 9일자로 일본식 정명을 주안동이라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변경과 그 명칭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주안이라는 낯선 지명은 원래 이 지역을 일컫는 재래의 고유 지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농사를 짓는 곳이라 물이 많다' 는 의미의 '다수多水' 에서 비롯된 지명인 다소면 관할의 충훈리와 사미리라는 지명은 어느덧 사라져버린 것이다. 충훈리는 바닷가였던 이곳에 정부 기구인 충훈부忠勳府의 방죽이 놓여 있어 붙은 지명이라고 한다. 사미리는 이곳에 관찰사와 판서를 지낸 부평 이씨 헌경과 그 후손들이 살아온 마을이라서 '선비의 마을' 이란 의미로 그렇게 부른 것이라 한다. 오늘날의 주안 지역에 해당하는 원래의 우리 지명인 충훈부나 사미리라는 지명은 간 데 없고, 바로 옆의 지역에 해당하는 주안면朱雁面, 오늘날의 간석동, 구월동, 십정동 일대의 지명이 (일제 시대의 작위적인 첫글자 합자식合字式 지명인 사충리를 거쳐 경인선 주안역 신설을 기화로) 주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주안면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주안朱安' 이라는 지명은 그 유래가 주안산朱雁山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 『인천광역시사』에 따르면,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에 보이는 주안산은 지금의 간석동과 만수동, 부평동 사이에 위치한 만월산滿月山일 것으로 추정한다. 글자 그대로 흙이 붉고[朱] 산의 모양이 기러기[雁]가 내려앉은 것 같아 주안산이라 불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는 주안산朱岸山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음의 〈동여도〉에도 이 일대의 지역을 '朱岸' 으로 표기하고 있으니 분명치 않다.

전통시대부터 내려오는 원래의 지명 주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의 남동구 간석 · 구월 · 십정동 일대의 지역이었다. 1899년 경인철도가 만들어질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시대의 통신 · 교통 요충지였던 역마가 머무는 자리도 간석리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문물을 실어 나르는 근대 철도가 생기고 나니 역마는 필요 없게 되었고, 그 대신에 충훈리 지역에 1903년 새 기차역이



'朱岸' 이라는 지명이 보이는 〈동여도〉(1860)

생겼고 그 이름을 주안역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충훈리에 주안역이 생긴 데 이어 1906년에 근처에 생긴 염전까지도 '주안염전' 이라 불리면서 결국은 충훈리 일대가 '주안' 이라는 지명을 빼앗아 오게 되었다. 주안은 그 뒤 일제에 의해 한동안 '주안朱岸' 으로도 불리다가 지금과 같은 '주안朱安' 으로 한자 표기가 바뀌게 되었다. 원래 주안의 한자 '雁' 이 너무 복잡하여 전통의 지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安' 자를 대신 갖다 붙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지만, 전통시대에도 더러 '朱安' 이나 '朱岸' 이 쓰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보다 섬세한 고증을 요한다 하겠다.

오늘날의 주안은 인천의 법정동 중에서는 가장 많은 8개의 행정동을 구성하

고 있고 여기에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작지 않은 도시지역이다. 그러나 멀리 신석기 시대의 유적인 주안지석묘 2기가 남아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았던 고장이었을 터이다. 지명의 유래가 된 주안산에는 주안사朱雁寺라는 절도 있었다. 오늘날의 만월산 약사사藥師寺는 바로 이 주안사지 위에 세워진 사찰이다. 주안사는 출토유물로 보아 고려말이 아니면 조선시대 초에 있었던 사찰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주안산 일대는 이미 전통시대 인천 행정의 중심이었던 문학산 일대에서 수도 한성을 잇는 자리목에 위치한 그나름 전통이 맥맥한 지역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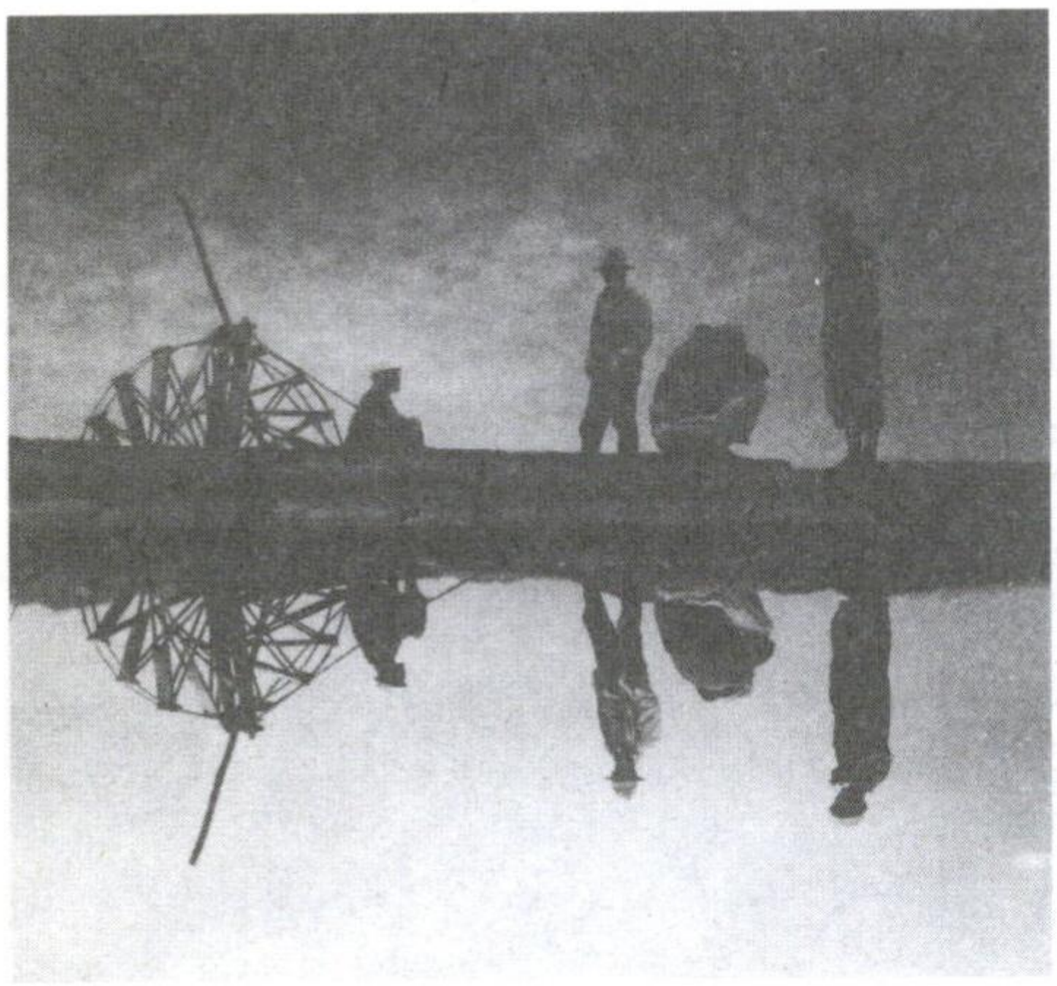
전통시대의 서정을 담고 있는 '朱雁' 이라는 지명은 온 데 간 데 없다. 대신에 종작없는 '滿月山' 과 '朱安' 으로 남았다. 지명의 잦은 개변이 말해주듯이 이 지역은 근대 이후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길을 걷게 된다.



만월산에서 바라본 주안 일대의 전경

2. 주안포 개간사건과 주안염전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속에서 청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통감부를 세우고 조선에 대한 침탈을 본격화한다. 1905년 주안에서 일어난 황무지 개간사건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1905년 2월 조선인 이희열이 인천군 주안면 주안포와 부평군 가자포의 황무지를 영친왕궁에 부속시키고 개간 3년 뒤부터 영친왕궁에 납세하는 것을 약조하고 개간특허권을 받아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인 송전행장松田行藏이라는 자가 이희열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며 꾸민 불법적인 토지침탈이었다.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감부의 힘에 의지하여 이를 침탈하고자 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된 이후 통감부와 한국정부의 궁내부, 농상공부, 그리고 인천군 사이에 개간권의 인정여부, 환수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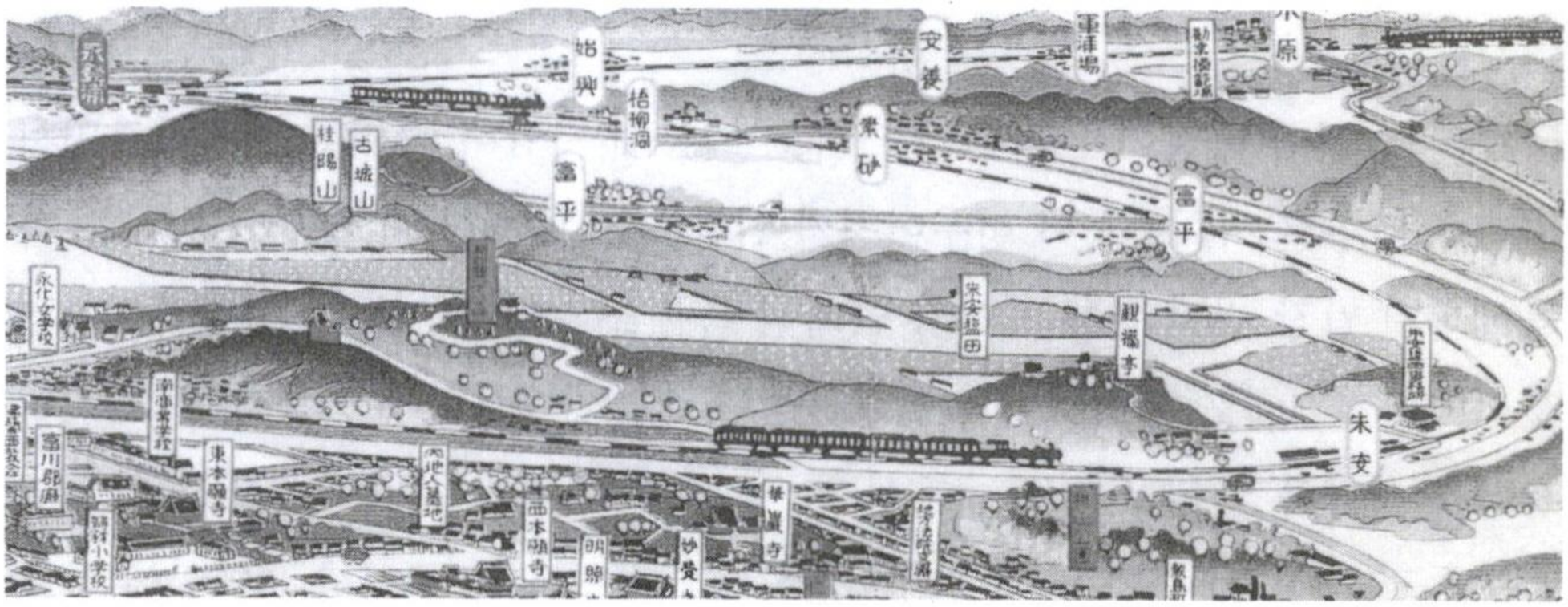


주안염전의 옛모습(김명철 사진집 중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안 일대에는 바닷물이 많았다. 간척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오늘날 그 해안선을 더듬을 염조차 낼 수 없지만, 지금의 간석동과 십정동 일대까지가 모두 바닷가요 갯벌이었다. 일본인에 의한 황무지개간 사업이 추진된 것도 바로 이 일대인 주안포 지역이었다. 이곳

에서 19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염전天日鹽田 지대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주안염전' 지대이다.

최초의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이 생긴 뒤 근대식으로 품질 좋은 소금을 다량으로 생산하게 되자 국가적 차원에서 소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염전을 계속 확장시킨다. 이에 따라 소래 지역에 남동염전이 생겼고, 곧이어 시흥 지역에 군자 염전이 만들어졌다. 멀리 평안도 광양만에서부터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까지도 염전지대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인천에 특히 염전이 많아 1930년대에는 인천 관내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이 전국 소금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하였다 한다. 이 무렵 인천항은 호렴胡鹽이라 불리던 중국 산동山東산 천일염의 수입항으로도 유명한 터였다. 인천시내 곳곳에 천일염을 정제하여 새하얀 곤소금을 만드는 공장도 당연히 많았을 터이다. 1937년 개통한 수원~인천간의 수인선 열차도 소금을 많이 실어 날라서 흔히들 '소금열차'라 불렀다 한다. 인천과 소금과의 이 같은 인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인천사람을 일컬어 흔히 '짠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까닭이 있을 터이다.



1930년대 제작된 인천 관광지도에 보이는 주안염전 일대

염전추경鹽田秋景

물빛엔 흰 뫼지고 고범孤帆은 아득하다.

천주天柱는 맑게 높아 적운赤雲만 야자파也自波를

어즈버 옛날의 뜻을 그 님께 아뢰과저.

위 시조는 한국 고고미술사 연구의 개척자인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1905-1944 선생이 경성제국대학 예과 1학년생으로 경인선 기차를 타고 통학하던 때의 서경을 노래한 연시조 「경인팔경」(『동아일보』, 1925)의 제6연이다. 어느 가을날 해질녘의 주안염전 풍광을 옛스런 시조가락에 풀어놓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연과 인공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아득하였던 주안염전 지대. 바다의 물빛과 하늘의 적운이 저절로 굽이치는, 아름다운 자연의 물결 속에서 뭍의 소금밭에서는 흰 소금 뫼가 두둑하게 솟아오르고…….

3. 개척지의 교회와 맹꼬이소리

주안 염전이 나날이 호황을 구가하고 인근에 사람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다양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개항 이후 구석진 작은 마을에까지 가장 먼저 찾아 들어가 근대의 복음을 전파한 이들이 선교사들이었듯이, 이 지역에도 감리교회의 선교사들이 1920년대부터 교회를 세우고 전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기독교 대한감리교 주안교회에서 발간한 『주안교회 70년사』(1995)에 따르

면, 주안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25년 음력 8월 15일 추석날인데, 이 날 주안 역전에 기도처가 설립되었다. 당시 인천 내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신홍식申洪植 목사는 1885년부터 1927년까지의 내리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인천내리교회역사』를 남겼는데, 그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一千九百二十五年 舊 八月 十五日 陽 九月 日에 朱安驛前에 祈禱會를 設立하고 洪카밀나 傳道婦人 宅에서 禮拜 始作하다.

최초의 예배장소라고 하는 홍카밀라 전도부인의 댁이란 당시의 사충리에 위치한 허름한 초가였다고 한다. 이 초가가 위치한 대지는 인천부 외리 177번지에 살고 있던 정형석이 소유한 대지였다. 홍카밀라 부인의 남편인 그는 미두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자 교인을 통해 이 대지를 내리교회가 매입해줄 것을 호소하였고, 내리교회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250원에 정형석의 땅을 매입하고 교회재산으로 1932년에 등록하였다. 이때 등기된 땅은 다주면 사충리 144번지의 60평 대지와 149번지의 126평 대지였다. 현재의 주안1동 파출소 앞의 도로에 해당하는 이곳에 교회 기도처가 마련되면서 오늘날 인천시민회관 바로 옆에 위치한 주안감리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주안교회는 내리구역에 소속된 기도처였기에 당시 내리교회 담임자인 신홍식 목사와 임원들이 주안교회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주안교회의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추우나 더우나 인천 시내에서 주안까지 걸어가서 예배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사가를 빌려 예배처로 삼았던

이들은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여 1932년 무렵에는 주안정 144번지에 60평 대지 위에 건평 20.3평의 목조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예배당을 새로 마련한 주안교회는 활기를 띠며 왕성한 전교활동을 벌였는데, 특히 새로운 예배당에서 거행하기 시작한 신식결혼식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주안교회는 교육사업에도 힘써 유년부 주일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1934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청년운동 단체의 효시에 해당하는 엡웟청년회가 주안교회에 전도대를 조직하고 일주일간 저녁마다 전도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주안교회에서 열린 신식 결혼식

한편 1938년에는 주안교회 인근 지역인 사미리에도 사미교회가 설립되었다. 주안교회에 출석하던 이의경, 이한라 권사 부부가 비가 많이 오면 개울을 건널 수 없어 교회에 나갈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들의 집에 기도처를 개설하고 예배를 보기 시작한 것인데, 1940년 9월 2일 주안정 764번지 사미마을에 예배당을 준공하였다. 이 교회는 1963년에 성덕교회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주안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서 교육기관이 간절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천부에서 1934년 2월 19일 인천주안공립보통학교를 인가하고, 같은 해 6월 1일을 기하여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1938년 4월 1일 인

천주안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고 다시 일제 말인 1941년 4월 1일 인천주안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가 오늘날의 주안초등학교로 70년의 역사를 이어내려오고 있다.


개벌 너머의 공장지대(김명철 사진집 중에서)

허턱 주안朱安 쪽을 향해 걷는다. 얼마 안 걸어 시가지는 끝나고 길은 차츰 어두워진다. 길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세차진다. 홱 비를 몰아붙이며 우산을 떠받는다. 황서방은 우산을 뒤집히지 않으려 바람을 따라 빙그르 돌아본다. 그러면 비는 아이 얼굴에 홈박 쏟아진다. 그래도 아이는 별로 소리가 없다. 권서방더러 성냥을 그어 대라고 한다. 그어 대면 얼굴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나 빗물 흐르는 비비 틀린 목줄에서는 아직도 발랑거리는 것이 보인다. 바람이 또 친다. 또 빙그르 돌아본다. 바람은 갑자기 반대편에서도 친다. 우산은 그예 뒤집히고 만다. 뒤집힌 지우산은 두번 세번 만에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다. 또 성냥을 켜보려 한다. 그러나 성냥이 눅어 불이 일지 않는다. 하늘은 그저 먹장이다. 한참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아야 희끄무레하게 아이 얼굴이 떠오른다.

"이거, 왜 얼른 뒈지지 않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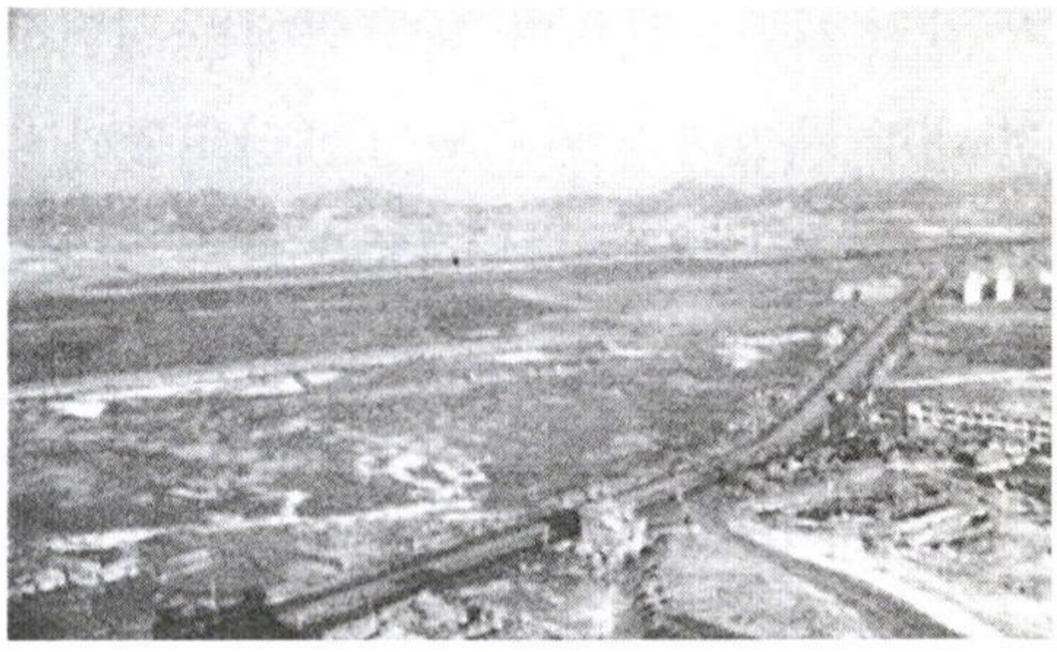
위의 소설은 단편소설의 명수로 불리는 소설가 이태준의 단편 「밤길」(『문

장』, 1940. 5-6)의 한 장면이다. "월미도月尾島 끝에 물에다 지어놓은, 용궁각인가 수궁각인가는 오늘도 운무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 벌써 열나흘째 줄곧 그치지 않는 비."로 시작하는 소설은 서울 청계천변에서 살던 권서방이 월미도가 바라다 보이는 인천의 공사장에서 일하다 장마를 만나 공돈을 까먹는 정경으로 시작된다. 급기야 아내가 가난을 못 견뎌 어린 남매만을 남겨두고 가출해버리고, 황서방은 어렵게 얻은 사내아이마저 죽어가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린다. 그나마 잡고 있는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쏟아지는 빗속에서 아이기 죽기를 기다리며 주안 인근의 야산 언저리에 묻으러 가는 처연한 장면, 이를 작가 이태준은 애수에 찬 시선으로 묵묵히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에 묘사된 주안 일대의 모습은 큰 길과 연하여 "소 등허리처럼 거무스름한 산"이 위치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전히 교외의 어둠에 갇혀 있는 "개구리, 맹꽁이 그리고도 무슨 날짐승 소리"로 가득한 죽음의 공간으로 「달밤」에 묘사되었던 주안은 해방 이후 크게 변모한다.

4. 산업화시대, 5공단과 택지개발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보면 주안염전에 대한 기사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1910년대부터 지속적인 확장을 거듭한 주안염전 지대에는 소금공장 주변으로 수많은 염전 인부들이 모여 사는 신흥마을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주안소학교가 개교하고 버스노선도 신설되었다. 일제 말에 이르면, 향차 더 많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공업 공장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매일신보』의 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



선인학원에서 본 경인철도(1917년)

그러나 1945년의 해방과 정치적 격변과 혼란, 그리고 그에 뒤이은 3년간의 한국전쟁은 인천뿐만 아니라 주안염전 일대에도 막대한 파괴의 후유증을 남겼을 터이다. 사진가 김명철은 스러져가는 주안염전 지대의 풍광과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을 깊은 우수가 깃든 흑백사진들로 남겨놓았다.

1950년대의 전후복구기를 거치면서도 한적한 염전지대로 방치되었던 이 일대에 본격적인 근대화의 물결이 당도한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1960년대 이후의 수출주도형 산업화정책이 그것이다. 1961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인지구가 특정지역으로 공고되고 1965년에 도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1967년 송도와 간석, 주안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시 전역에 대한 각종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주안에서는 1967년에 이어 1969년, 1976년, 1979년에 연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어 근대적인 계획도시 조성이 이루어졌다. 대규모의 계획적인 공업단지 및 주택단지가 조성됨으로 시가지의 교외 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시기 주안 지역의 도시발달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되는 교통수단이 확충이었다. 1965년에 경인선철도가 복선화 되었고, 1969년에 경인고속도로

가 완전 개통되었으며, 1974년에는 경인선이 전철화되었다. 그리고 1976년 인천 내항 개발까지 완료되어 해상교통까지 구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의 발달은 한편으로 인천 지역을 서울 중심의 대도시권으로 종속되도록 촉진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화시켰다.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가 주안에 조성된 것도 이때이다. 인천수출공단은 부평수출공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5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근로자 1만 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인천수출 제2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1969년에 시작되어 1971년을 준공 목표로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였다. 단지 내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배치 계열화하여 인천항개발계획과 연계한 초현대적인 임해공단을 건설, 연간 1억 달러의 수출을 실현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1973년 7월 15일 한국수출공단 제5단지, 일명 주안 5공단이 준공된 것이다. 오늘날 송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논리의 '70년대판' 이 주안 5공단에서 펼쳐졌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안 5공단은 그 가팔랐던 산업화의 흔적만을 큰 몸체로 간직한 채 슬럼화하고 있다.

나날이 슬럼화하고 있는 주안 5공단 지역과는 반대로, 경인선 건너편의 신도시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천이 수도권 임해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된 택지개발 지구였다. 인천에서의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에 의해 숭의지구와 송림지구, 부평



주안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의 모습

지구 등이 고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해방 후에는 사회적 혼란, 재원 및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였고 6 · 25 전쟁으로인한 피난민의 무단점유와 지주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1962년 1월 20일에 드디어 도시계획법이 공포되고, 1966년 8월 3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공포됨으로서 1967년부터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바둑판을 그어놓은 것 같은 도로와 그 사이에 똑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처마를 맞추고 들어서 있는 단독주택단지로 개발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6층 높이의 주안주공아파트가 지어진 것이 30여 년 전 그 어름이다. 1980년대 초까지 도시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도시개발수단의 주종을 이루어 왔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러나 이후 토지 투기조장 및 지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85년 승기천이 복개되고 그 위로 큰 대로가 뚫리고, 1988년에는 주안지하상가가 민자유치로 건설되면서 주안 지역은 정점에 다다른다. 주안 지역의 상주인구가 불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교육과 금융, 각급 행정기관이 주안에 밀집하게 되어 한동안 주안 일대는 인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동인천, 부평과 함께 주안 지역은 전철역과 시내버스 노선이 결절을 이루는 산업화시대의 신흥 도심지역으로 특화되었던 것이다.

5. 인천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

주안 일대가 도시 지역으로 개발되면서 문화적 변모를 본격적으로 보여준 것은 1970년대 들어서이다. 인천고등학교의 이전 또한 주안의 도시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인천고등학교가 이전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주안 4동 일대의 풍광은 이러하였다.

당시만 해도 아주 한적하고 쓸쓸한 곳이었다. 교통편은 부평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서울을 다니는 시외버스 노선과 가끔씩 구월동을 통해 소래를 오가는 시외버스 등만 이었을 뿐…. (중략) 그때는 거의 모든 버스 노선이 동인천을 기준으로 다녔던 관계로 이를 기준 삼아 등교하던 기억을 되새겨 보면 부평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 노선을 타던지 제물포역 앞과 주안 중앙극장 앞을 지났으며, 학생들은 석바위 사거리(지금 경기은행 건너편)에서 버스를 내려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다. 왜냐하면 당시 학교가 있는 곳이 막다른 길이라서 버스 노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략) 학교 입구 바로 위 (지금 주안도서관 입구 쪽)에는 화교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고, 약간의 공동묘지가 있어 지각생들이 숨을 수 있는 은폐물의 구실도 했다. 또 지금 체육관이 서 있는 운동장 너머는 클로버와 풀이 자연스럽게 자란 천연 잔디가 있어 점심때나 수업이 끝난 뒤로 자율 학습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은 그곳이 쉼터가 되었다. 그 뒤로 펼쳐진 논은 생물실습 시간에 쓸 해부용 개구리의 넉넉한 공급처가 되었다.

또한 지금 법원 쪽이나 학교 실습관 바깥 쪽 너머로는 배밭과 포도밭 등 과수원이 펼쳐져 있어 전원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었다.

-「오창근 동문의 회고」, 『인고백년사』, 1995, 407면.

경인가도를 따라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와 부평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잠시 머무르던 석바위 언저리, 기껏해야 작은 화교학교와 공동묘지만 위치했던 그런 지역에 유서 깊은 인천고등학교가 이전하려고 하니, 동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하기야 법원이 위치했던 지역마저도 배밭과 포도밭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다고 하니, 율목동의 아늑한 학교에서 이처럼 낙후된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여졌을 리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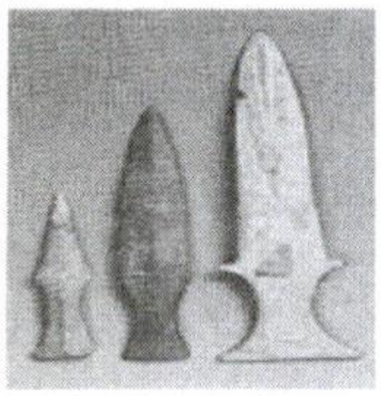
그러나 이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는 공단의 조성 및 택지개발에 뒤이어 1968년 1월 1일자로 남구청이 개청되고 법원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속속 개설되면서 예견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 지역이 인천 지역의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을 보여준 것이 인천시민회관의 개관이다.

인천시민회관의 개관은 60~70년대의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천 지역의 도시 확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1974년 4월 13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190-4번지의 2,003평 대지 위에 1,350석의 객석을 갖추고 탄생한 인천시민회관은 그동안 일본인에 의해 개척된 개항장이 위치한 중구일대가 인천의 중심지였던 것이, 도심이 확장되면서 시의 외곽지역이었던 주안 일대가 인천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시민회관의 건설에 앞서 중구 율목동에서 속칭 '석바위' 라고 부르는 주안동 345번지로 인천고등학교가 이전한 것과 함께 상징적이다.

1974년 개관한 인천시민회관은 이후 20여 년간 인천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한 인천문화의 산실이었다. 중구 사동에 위치한 공보관에서도 더러 전시회 같

고대

○ 신석기시대이후



돌칼-문학산 출토

○ 청동기시대

학익동, 주안동, 문학동



지석묘-학익동 발굴

○ 삼국시대초기

미추홀



문학산성-비류백제관련

○ 고구려시대

매소홀현

○ 통일신라시대

소성현

중세

○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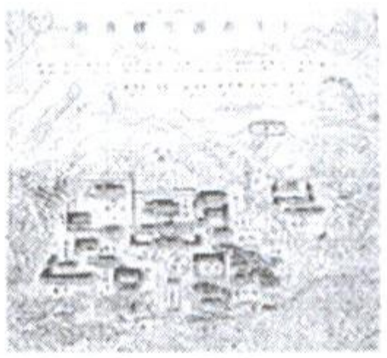
경원군(숙종원년)
인주(인종11년)
경원부(공양왕2년)



인천 옛 옵지도

○ 조선시대

인주(태조1년)
인천군(태종13년)
인천도호부(세조6년)



인천도호부 지도



인천도호부 전경



인천향교

근대

○ 인천부(고종32년)

○ 경기도 인천부(건양원년)



1890년대 인천항



조선기상대

○ 인천시



인천공설운동장(1930년대)

○ 남구개청(1968년)



선인학원에서 바라본 모습.
도화동 일대(1970. 01. 01)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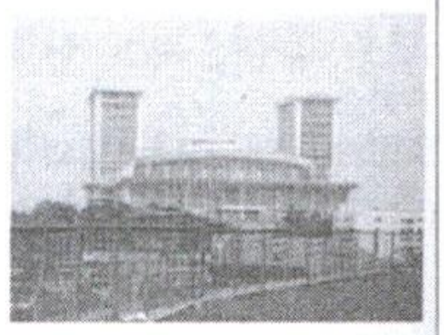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과 남구일대



2030거리 주변



시립인천대,인천전문대학



문학월드컵경기장(문학동)



남구의 역사 연표

은 것이 열리기는 하였지만, 인천 지역의 공공집회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대개 인천시민회관에서 활발히 개최되었다. 그간 이곳에서 공연된 규모 있는 문화예술 행사만해도 총 145회, 기타 공공행사가 327회 개최되었다는 통계가 『인천광역시사』에 남아 있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각종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었을 터이다.

그런데 비교적 근년에 설립된 인천시민회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1966년 창단된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인천시민들에게 다채로운 클래식 선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었던 것도 인천시민회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인천교향취주악단 같은 민간 연주단이 1975년 3월 3일에 창단하여 동년 6월 7일 인천시민회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시절에 인천시민회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81년 4월 1일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 나란히 창단된 인천시립무용단의 주요한 활동무대도 인천시민회관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민회관은 비단 음악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실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의 산실 노릇을 하였다. 1974년 개관 이후 1981년에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하기 이전까지 인천시민회관은 경기도 전통문화예술의 온상이기도 하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던 인천시민회관의 전경

는데, 제1회 경기도예술제 국악부문 무대가 인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직할시 승격 이후에는 제물포예술제가 인천시민화관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인천의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는 축제 무대도 인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981년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시민회관에서 합창제, 무용제, 연주제, 국악제, 가곡 발표회, 미술 · 사진작가 초대전, 시화전, 교양 강좌, 시민 서예 공모전을 열어 입상 작품 시상식도 성대하게 베풀었다.

해방 후 한동안 침체했던 인천연극의 부흥을 이끌었던 곳도 인천시민회관이었다. 극단 극우회가 윤조병 극작, 연출로 〈도시의 나팔소리〉 〈휘파람새〉를 시민회관 무대에서 공연하였으며, 이러한 공연은 이후 연극 전문소극장 시대의 밑거름이 되었다. 1990년 7월 1일, 시립예술단 중에서는 제일 늦게 탄생한 인천시립극단의 초창기 활동무대가 된 곳도 시민회관이다. 전국연극제 1회, 2회 대회에서 인천극단들이 〈도시의 나팔소리〉와 〈휘파람새〉로 연이어 수상한 것을 계기로 추진된 인천시립극단의 창단 또한 인천시민회관을 무대로 가능했던 것이다. 인천시민회관은 1994년 구월동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기 이전까지, 아니 2000년 철거되기 직전까지도 인천시민들에게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

6. 역사의 무대, 5 · 3 인천사태(?)

1986년 인천시민회관 앞에서는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름하여 '5 · 3인천사태' 가 그것이다. 당시 신한민주당은 1986년 2월 12일 직



5 · 3 인천사태의 현장

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재야 세력의 호응 속에 3월 11일 서울시지부를 결성하고 연이어 부산, 대구, 대전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4월 29일 당고문인 김대중 민추협공동의장이 소수 학생의 과격한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신한민주당에서도 급진적인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에 분개한 재야와 운동권 세력은, 5월 3일 신한민주당 인천 및 경기지부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 집결하기로 한다.

5월 3일 날이 밝으면서 온갖 정파의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인천으로 모여들었다. 신민당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정오 무렵부터 이미 대회장인 주안 시민회관 앞 사거리는 시민 · 학생들로 가득 찼다. 대회 시작 전부터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결국 공권력 투입으로 당 지도부가 대회장으로 입장하지도 못한 채 무산되었다. 1만여 명의 시위대는 도로를 장악하고 시위를 계속 하다가 오후가 되면서 스크럼을 짜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하였다. 시위대는 신한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원집정二元執政 개헌 반대를 외치며 국민헌법 제정과 헌법제정민중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후 5시까지 계속된 시위는 제물포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 사태로 319명이 연행되었고 129명이 구속되었으며, 이후 전두환 정권의 운동권 탄압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3 인천사태는 80년 5월 이후 최대의 시위였다. 그동안 크고 작은 투쟁을 통해 역량을 키워온 민주화운동권은 수도권 일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날의 결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운동권 내부의 분열로 이날 시위는 대규모 폭동 이상의 아무런 의의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다. 관념적 급진주의는 오히려 대중을 등 돌리게 만들었고 탄압의 빌미만 제공했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면이 반전될 때까지 민주화운동은 수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5·3사태를 계기로 운동권 내부에서 반성의 기운이 싹트기에 이르렀다. 관념적 급진주의와 소아병적 헤게모니론이 비판대에 오르면서 현실에 뿌리박고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6월항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실록민주화운동 69 - 5·3인천사태」,『경향신문』 2004. 9. 5.

최근에 한 신문은 이 사건을 「실록민주화운동」이라는 기획에서 위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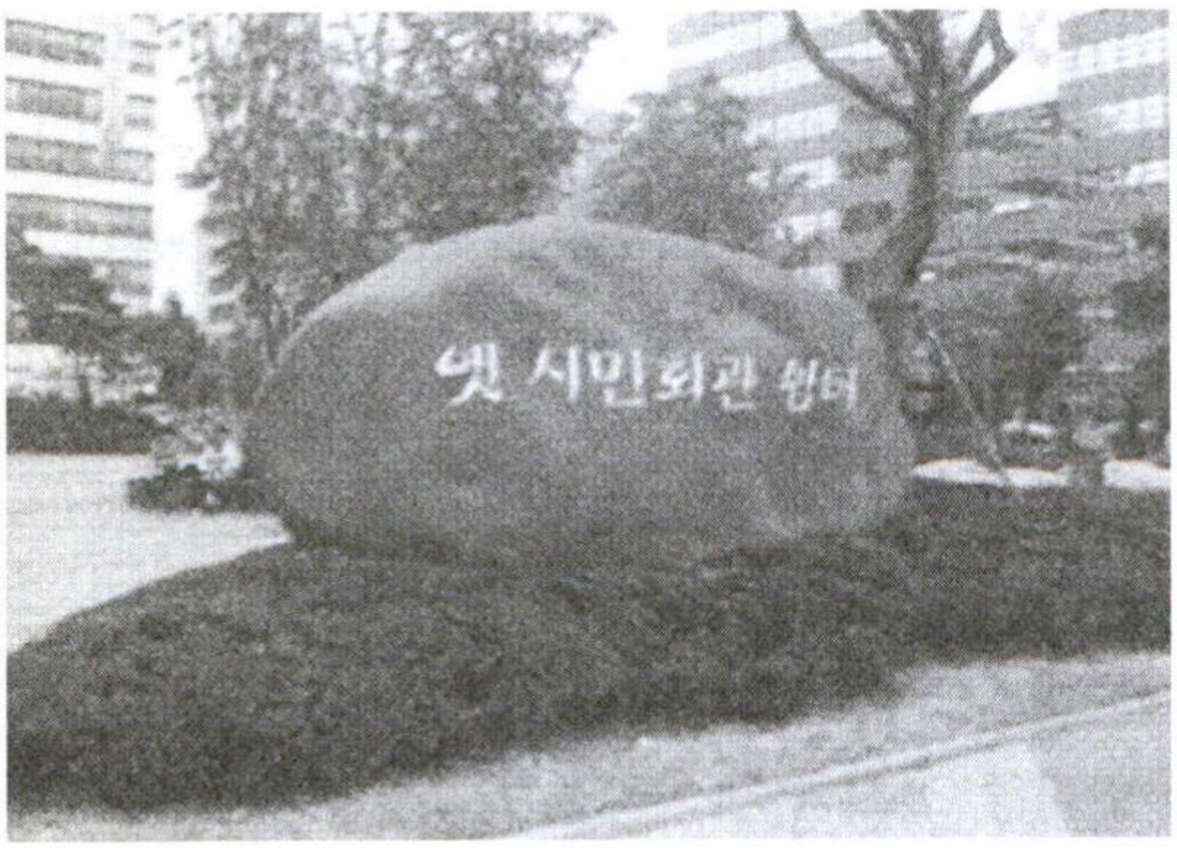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그 명칭에서부터 그 역사적 의의까지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는 2003년 5월 2일을 맞아 '5 · 3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위위원회' 를 구성하고 〈5 · 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심포지엄을 열고 그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지켜보고 그 무대를 제공했던 인천시민회관의 길지않은 역사에 있어, 5 · 3인천사태는 그 정점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1980년대까지 인천문화의 중심공간이었던 시민회관은, 이후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1985년 10월 25일 인천직할시 신청사가 구월동에 완공되어 12월 시청이 개관하기에 이르자 인천 지역의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남동구 일대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연이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설 역시 구월동 지역에 입지를 확정하고, 1990년 공사에 착공해 1994년 1월 1만6천여 평의 부지에 대소 공연장 및 전시장을 갖추고 개관하였다. 1992년에 시민회관에 지하전시실을 설치하여 각종 전시를 개최하는 복합공간을 꾀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노후화된 인천시민회관은 전성기를 지나서 1990년대 쇠락의 길을 걷는다.

7. 극장은 사라져도 공간만은 남아

숨 가빴던 산업화 시대에 인천시민들과 고락을 함께 했던 인천시민회관은 1999년 지역 사회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노후화된 인천시민회관을 헌 자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었다.

결국 인천의 시민사회는 1년여간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시민회관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어렵사리 이곳을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쉼터로 바꾸기로 합의하였다. 지역사회의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인천시민회관은 2000년 9월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11억의 예산을 들여 오늘날과 같은 공원형 '옛시민회관 쉼터'로 바꿔놓았다.



현재의 '옛시민회관터 쉼터' 공원의 풍경

그런데 최근 이 공간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이곳에 3층 높이까지는 녹지로 사용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공연시설, 미술관, 전시장, 소극장 등을 두루 갖춘 종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때마침 남구에서도 시민회관 부지를 포함한 주안역 일대를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하니, 주안역과 시민회관터로 이어지는 미추홀길 일대를 새로운 문화의 중심으로 꾸미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과는 별도로 일각에서는 5·3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이곳에 민주공원을 조성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편중된 도시의 기능을 다핵화하고 아울러 도시공간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 담긴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생산적 토론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민과 관이 어렵게 이룬 합의를 통해 마련한 쉼터

공원을 3년 만에 재론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더 큰 문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다. 혹시나 이 공간이 아직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남아 있고 게다가 시 소유의 부지이고 하니, 민간자본만 끌어드리면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약은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옛시민회관 쉼터는 다른 어떤 도시공간이 담지 못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고밀도의 도시공간 속에서 이만큼의 개방된 녹지공간이 주는 쾌적함과 해방감을 기능적 효용성만으로 측정할 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그저 녹색의 잔디가 깔려있는,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을 떠올려본다. 하기야 현재의 옛시민회관터 쉼터는 너무 오밀조밀한 인공시설로 치장되어 있는 점이 아쉽기는 하다.

8. 주안, 도시공간의 미래

1990년대 이후 인천의 광역화와 함께 도시의 주거기능이 연수, 만수, 계산, 연희 등 도시 외곽으로 분산되고, 행정이나 금융기능은 구월동의 시청 일대로 옮아가면서 주안의 옛 명성은 점차 퇴색하고 있다. 옛 주안면 지역이었던 구월동 일대는 시청과 교육청 등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 · 종합병원 · 복합영화관 · 문화예술회관 · 농수산물 도매센터 그리고 대형백화점까지 입지하여 최대의 기능집적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버스종합터미널과 인천도시전철이 개통되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교통 결절지를 형성하면서 명실상부

한 인천광역시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반해 주안 지역은 나날이 쇠락하는 구도심으로 끝내 낙후할 것인가?

문학산을 버리고 제물포 포구를 강제 개항한 일제나, 동인천을 버리고 다시 주안공단을 직조한 산업화 권력이나, 주안을 두고 구월동, 송도신도시로 내닫는 자본의 무한한 도시탐욕에는 인간과 문화가 깃들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낡고 오래된 것을 품어 간직하면서 새로운 것과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일이야말로, 그리하여 인간다운 도시, 문화가 생생히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주안이라는 도시공간에서 새롭게 시도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주안염전朱安鹽田의 건설과 변천

김락기 (인하대 사학과 강사, 시흥시 문화재 전문위원)

소금과 인천

소금이 인류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필요한 것이긴 하되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에 얽힌 이야기도 가지각색이다.

고구려의 15대 왕으로서, 낙랑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낸 미천왕美川王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소금장사를 한 적이 있다. 소금이 귀해서 그랬는지 조금 더 달라는 한 할머니의 청을 거절하고 주지 않았다가 할머니가 앙심을 품고 미천왕의 소금 속에 신발을 숨겨놓고 도둑으로 모는 바람에 관청에 끌려가 볼기를 맞고 소금도 빼앗겼다.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삼림지대에서 산 말갈족은 소금 대신에 나무

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美川王 즉위년 조.

를 태워 만든 재를 물에 섞어 먹으며 부족한 염분을 보충하기도 했다.

동생 온조溫祚와 신하들의 간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인천에 도읍을 세우고자 했던 비류沸流의 고집 아닌 고집을 소금과 연결시켜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천일염을 생산하기 전에는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 등을 끓여서 소금을 얻었는데, 이것을 전오염煎熬鹽이라 한다. 전오염은 들이는 비용에 비해 얻는 결과가 낮았으므로 20세기 초에 중국의 값싼 소금이 들어오자 경쟁력을 잃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전 축조가 시도되는 계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천일염전의 축조에 적당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우선 지형은 평탄한 간척지가 유리하며 인근에 큰 하천이나 높은 산 등이 없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으며, 간척지의 지반고는 삭망의 간조시 수면보다 약 2~2.5m의 수심을 갖는 곳이 적당하다. 또 소금의 반출과 관련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고, 토질은 점토질이 40% 내외, 미사토질이 60%로 혼합된 상태가 가장 적당하며, 연평균 기온이 25도 내외로 연간 강수량 증발률이 3,000mm 이상인 곳이 좋다고 한다.

천일염전의 축조를 시작하면서 위의 여러 조건에 두루 부합하는 대상지로 선택된 곳이 바로 주안이다. 인천 서해안은 잘 알려져 있듯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데다가, 주안염전이 위치한 당시 주안면 십정리 일대는 육지와 육지 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내만갯벌로서 염전을 축조하기 위한 제방을 쌓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내만갯벌에 염전을 축조한 것은 현재 시흥시 월곶동 · 장곡동

2) 朴彦坤 · 金興燮, 「천일 염전의 공간구성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환경개발연구논문집』 2,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1997), 46쪽 참조.

과 방산동 · 포동 사이의 갯벌에 만들어진 소래염전도 마찬가지이다. 또 당시로서는 드물게 철도가 놓여있어 주안역을 이용한 소금의 수송에도 유리했다.

염전의 최적지 주안

주안이 천일염전의 대상지로 주목받은 것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7년 무렵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오염에 비해 값이 싼 중국 소금이 1902~1903년경에 수입되기 시작했고, 매년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었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전오염의 생산은 위축되었고,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 천일염전의 시험 축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천일염전 축조 이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조선의 해안海岸은 곳곳에 염전鹽田이 산재散在하지만 그 제염방법製鹽方法은 전오법煎熬法에 의존하는 일본의 제염법과 비슷하여 유치하며 규모도 작고, 대부분은 농가의 부업副業이다. 조선 재래염업이 왕성할 때에는 염전면적이 3,700정보町步, 생산액은 3억근을 헤아리는 중요 산업의 하나였다.[3]

또 주안에 천일염전이 들어서게 된 계기에 대해선 이렇게 서술하였다.

3) 中村進吾, 『朝鮮施政發展史』(朝鮮發展社, 1936), 606쪽. 앞으로 인용하는 자료의 고어표기는 현대식으로 고쳐 표기함.



〈그림 1〉 주안염전 위치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 地形圖』, 朝鮮總督府, 1917)

메이지明治 35 · 6년 경, 즉 일본의 보호정책 실시 전후에는 값싼 중국 소금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매년 거액의 수입초과에 이르게 되어, 자연 전오염煎熬鹽은 그것에 압도되어 도저히 발달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구 한국정부는 경기도 주안에 염업시험장을 세우고 메이지 40년 이래 천일제염의 시험을 행함과 아울러 염정鹽政의 확립을 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못 양호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고, 천일제염은 그것을 관영으로 하여 염전축조계획을 수립하여 착착 실시하였으며, '일한병합日韓併合' 후에도 그것을 답습하여 점차 확장

을 계획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서 소금의 소비량은 때에 따라 증감이 있지만 매년 약 5억7천만근인 것에 대해서 관염官鹽공급량은 대체로 2억4천만근 내외였으니 그것에 민영民營의 재래 전오염의 생산 약 6천만근을 더해도 늘 2억 7천만근의 부족분은 조선 밖에서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4]

이렇게 해서 당시 주안면 십정리(현재의 5 · 6공단 자리)에 염업시험장, 즉 천일염전을 만들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은 1908년 3월 5일자로 고시된 농상공부 고시 제3호를 통해 알 수 있다.

農商工部 告示 第三號[5]

農商工部 所管 鹽業試驗場 及 鹽業試驗場出張所를 左같이 定홈

隆熙 二年 三月 五日

農商工部大臣 臨時署理 法部大臣 趙重應

位置 名稱

農商工部內 鹽業試驗場

京畿 仁川 朱安面 十井里 鹽業試驗場 朱安出張所

慶尙南道 東萊 石南面 龍湖里 鹽業試驗場 龍湖出張所

또 소금을 최종적으로 얻는 장소인 결정지**結晶池**를 만들기 위해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에서 석재의 운송 입찰공고도 잇달아 나오게 된다.

---

4) 中村進吾, 앞의 책, 601쪽.

5) 『官報』 隆熙 2年(1908) 3월 11일 수요일.

○ 公 告[6]

一鹽田結晶池 用平石壹萬八千平方坪 此重量參千噸 入札保証金 見積價格百分의五以上

採取地 黃海道 豐川郡 遊山面 係岩浦 及 同道長淵郡 薪北面 東嶺浦

運送地 採取地에서 京畿道 仁川府 朱安面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朱安出張所까지

受渡地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朱安出張所

右採取 及 運送請負를 入札에 附하니 希望者는 本局 又는 鎭南浦稅關에 前往하고 入札人心得書, 契約書案, 石標本, 及 現場 等을 熟覽한後 四月 十六日 午后一時 本局에 入札함이 可홈. 卽時 開札홈.

但書留 郵便으로써 入札하는 者는 營業証明書, 經歷書. 及 保証金과 共히 送付를 要홈.

此契約은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長鈴 木穆이 担任홈.

隆熙 三年 四月 九日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위 내용은 황해도의 계암포와 동령포 등에서 채취한 석재를 주안의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 주안출장소까지 운반하기 위한 입찰 공고인데, 한 번의 공고로 여의치 않았는지, 4월 14일 수요일과 4월 15일 목요일 관보에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실려 있다.

주안염전에서 소금이 생산되자, 소금 가격을 알리는 고시가 1909년 3월 31일 자로 나오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일염 1등품은 65전이고, 2등품은

6) 『官報』 隆熙 3년(1909) 4월 9일 금요일.

55전이었다.

臨時財源調査局 告示 第一號[7]

一朱安出張所 製鹽幷龍湖出張所 製鹽賣渡價額을 左記와 如히 定홈

朱安出張所分

天日製鹽 一等 撒鹽百斤當 金六拾五錢

天日製鹽 二等 撒鹽百斤當 金五拾五錢

但 朱安出張所에서 撒鹽으로써 出給홈

右 告示홈

隆熙 三年 三月 三十一日

臨時財源調査局長 鈴木穆

이어 같은 해 6월 23일자로 이미 공고된 소금 가격에 한 번에 10만근 이상의 소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소금 100근당 5전을 깎아 주는 일종의 할인가격이 고시된다.

臨時財源調査局 告示 第二號[8]

本年 三月 告示 第一號 中 朱安出張所 製鹽幷龍湖出張所 製鹽賣渡 價額을 左記와 如히 定함이라한 下에 左記의 但書를 加함

但 一時에 拾萬斤 以上의 賣渡를 請求하는 者에게는 各鹽百斤에 對하야 金五錢을 低減함

---

7) 『官報』 隆熙 3년(1909) 4월 12일 월요일.

右 告示함

隆熙 三年 六月 二十三日

臨時財源調査局長 鈴木穆

다음해인 1910년 1월 25일자로 탁지부령 제4호로 주안출장소의 정식 설치가 이루어진다.

度支部令 第四號[9]

臨時財源調査局出張所를 左와 如히 設置홈.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홈.

隆熙 四年 一月 二十五日

度支部大臣 高永喜

名稱	臨時財源調査局 廣梁灣出張所	臨時財源調査局 朱安出張所	臨時財源調査局 龍湖出張所
位置	平安南道 三和府 乃 谷面	京畿道 仁川府 朱安面	慶尙南道 東萊府 石南面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은 비록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주의에 강제병합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1905년 을사5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일이라 사실상 일본측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나간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염전의 관리 및 생산을 담당한 탁지부 산하 임시재원조사국의 책임자가 일본인 스즈끼(**鈴木穆**)라는 점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8) 『官報』 隆熙 3년(1909) 6월 28일 월요일.

9) 『舊韓國官報』 隆熙 4年(1910) 1월 26일 수요일.

그러나 염전의 축조에 대한제국정부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이전인 1900년 무렵이다. 1900년에 이미 탁지부에서는 제염시험장의 설치를 시도하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2만백25원 40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고종황제의 허가를 얻은 바 있다.


〈그림 2〉 초창기의 주안염전(『인천개항100년』사진집, 인천시, 1983)

○官廳事項[10]

度支部에서 請議한 製鹽場試驗 費二萬一百二十五元四十六錢

預備金 中 支出事로 議政府會議를 經한 後 上奏하와 制曰可라 하심

以上 四月 四日

度支部主事	受勅及受牒
金台東	
五月五日	

비록 이때 바로 염전을 축조하고 생산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오염煎熬鹽을 대체하는 천일염天日鹽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점만은 분명하다.

10) 『官報』 光武 3년(1900) 5월 10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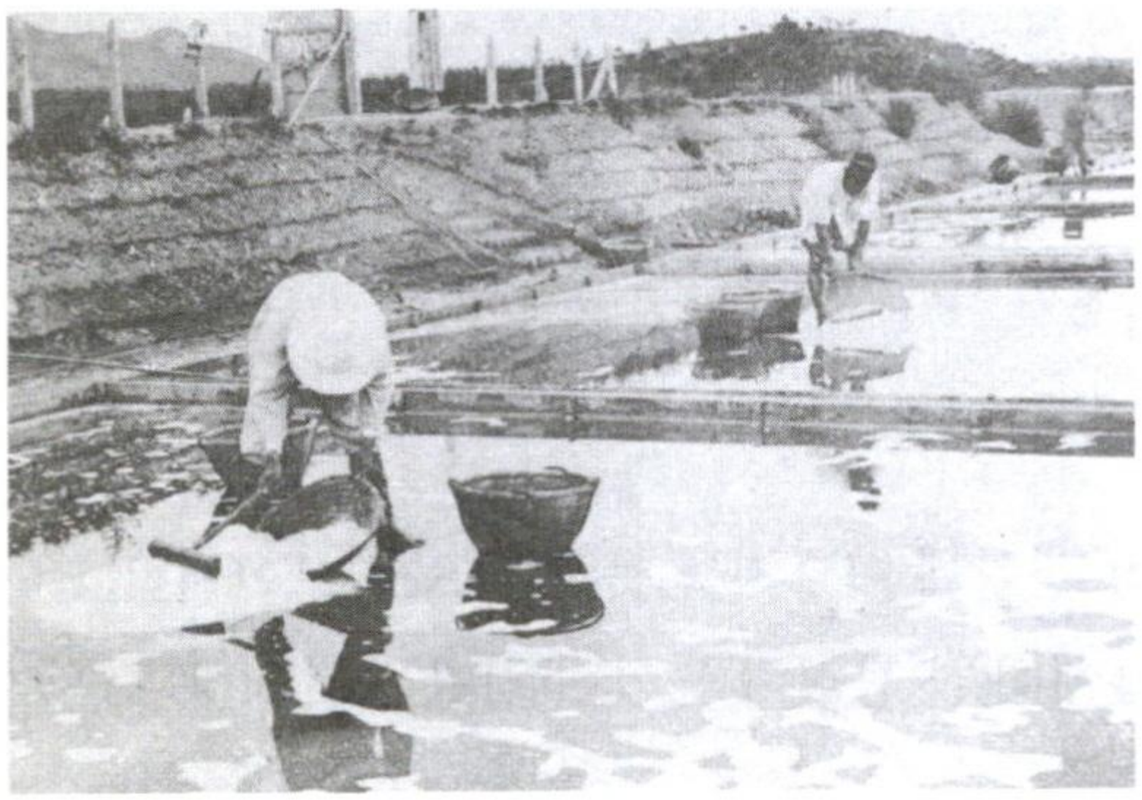
한편 주안천일염전의 효용성이 높게 평가되자 일본은 본격적으로 소금을 생산함과 동시에 염전 확장에 나서게 된다. 이런 사정은 아래의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 대강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朱安製鹽 開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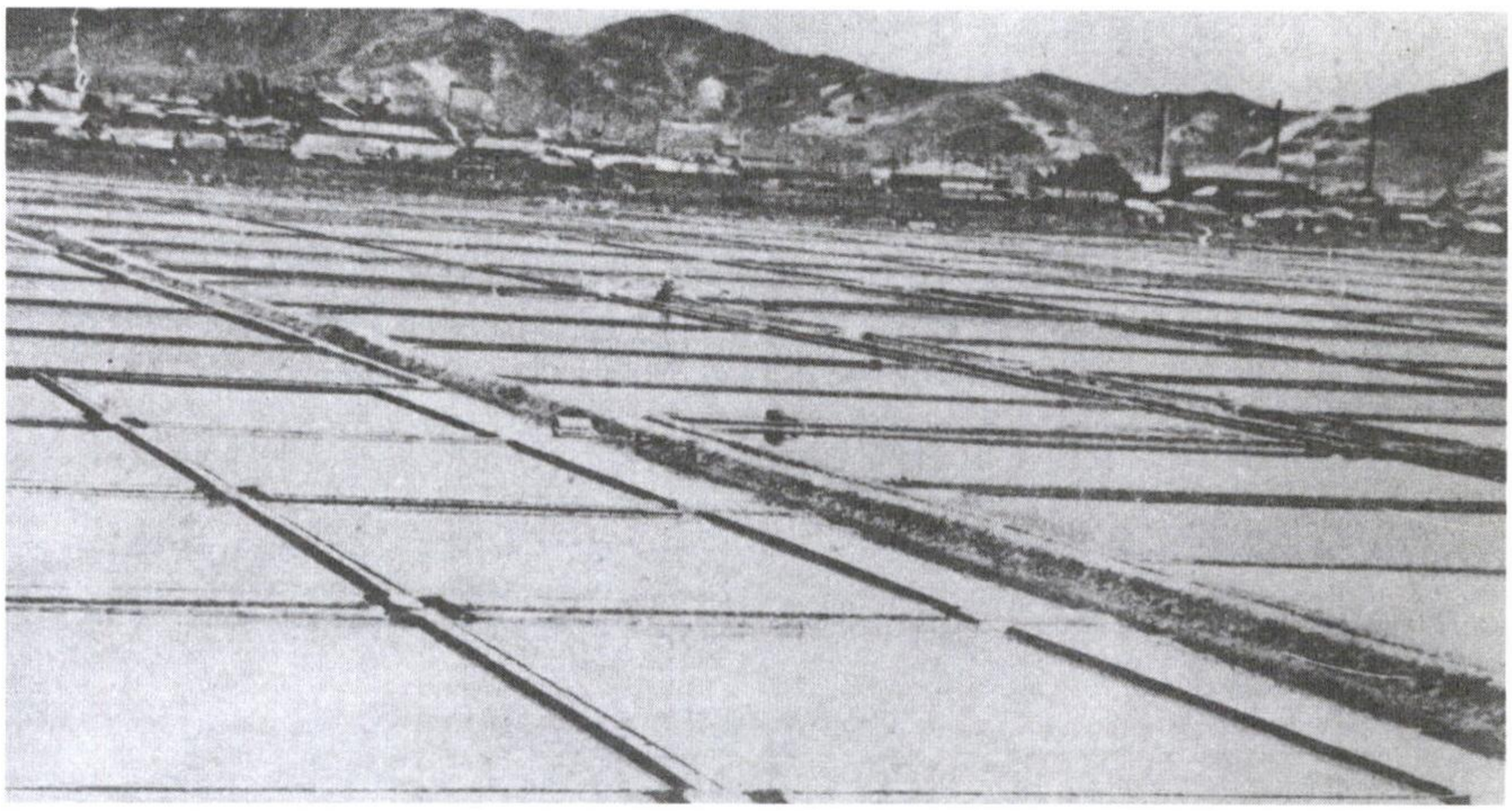
朱安 天日鹽田은 去二十一日부터 採製를 개시하였는데 同日의 收量額이 二百五十斤에 達하여 昨年보다 其成績이 良好하였으나 其後에 日氣가 不順함으로 一時 中止하였다더라.(『매일신보』, 1911-04-01)

朱安製鹽의 現狀

司稅局 朱安出張所에서는 本月 二日부터 多數의 □夫를 □入하여 本年의 製鹽準備作業에 着手한바 昨今 好天氣이므로 海水의 □ □이 意外에 速하여 □一區鹽田에서는 旣히 去二十日에 初鹽을 採收하였는데 昨年의 初鹽은 三月二十二日인즉 此에 比하면 二日이 早하였고 本年은 各區의 鹽田이 成熟하여 生産高는 多□의 增加를 □한다 하며 當所의 製造에 □한 □ □, □ □鹽 及 煎熬鹽은 皆賣却하여 良好해서 原鹽은 旣히 賣却을 終了하였고 煎熬鹽은 日日生産함으로 各方面으로부터 買受를 申請하는 者가 □ □하며 粉碎鹽은 在庫



〈그림3〉 초창기의 주안염전 2(앞의 사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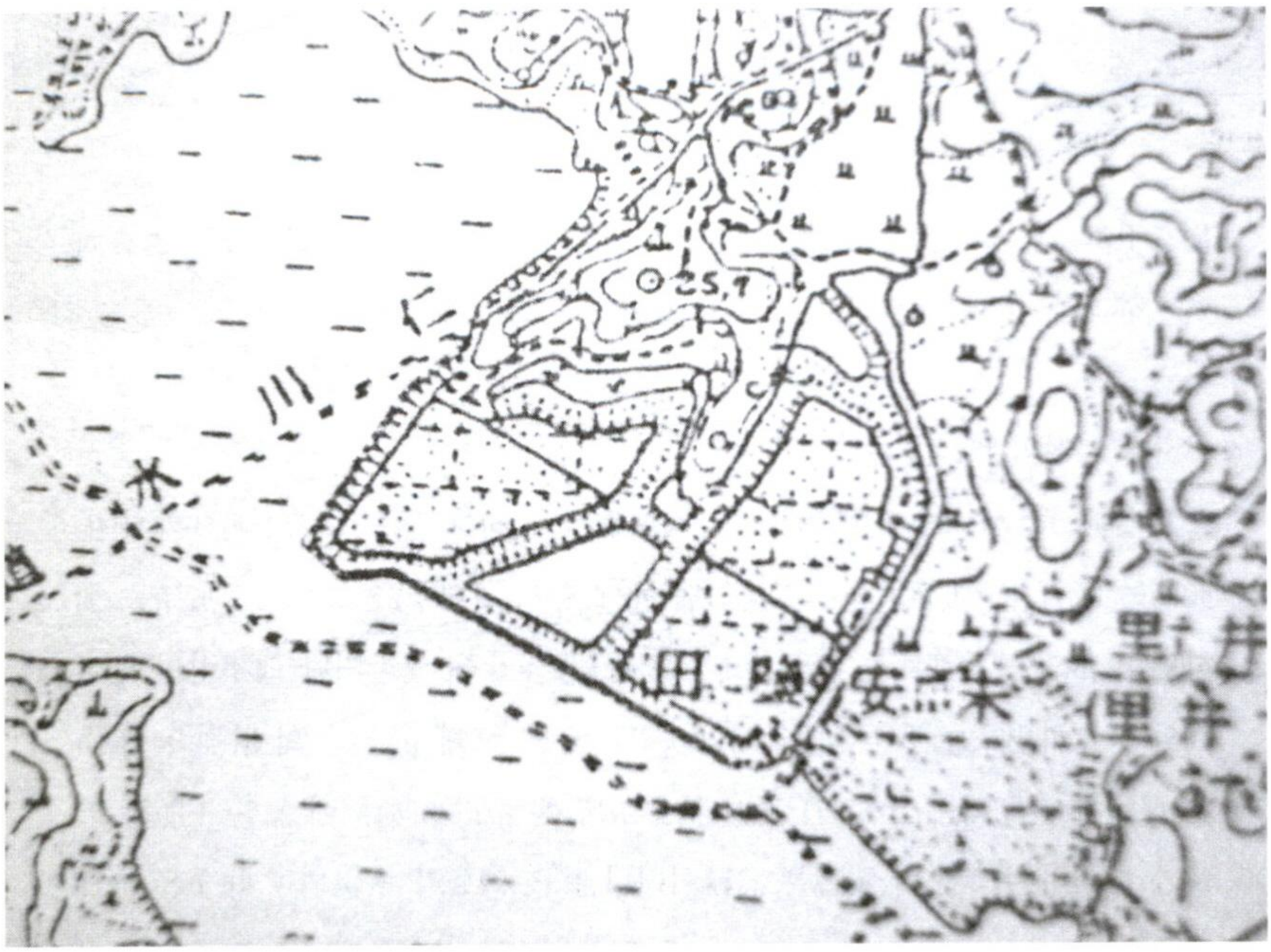
〈그림 4〉 주안염전 전경(앞의 사진집)

約三十萬斤인데, 此亦 日日 □出中인즉 昨年中 製鹽에 □한 者는 今後 數日內 賣□하리라더라.(『매일신보』, 1913-03-25) ※ □는 식별불능 글자임.

朱安製鹽의 狀況

總督府 司稅局 朱安出張所 本年 製鹽狀況을 聞한 □本月 二十四日까지 生産高는 三百九十七萬八千四百斤인데 此에 今秋 採鹽 豫想高百四十萬斤을 加하면 本年의 總生産高는 五百三十七萬八千四百斤에 達할지니 前年中의 生産高와 對比하면 一百五十萬四千七百六十九斤 卽 三割八□入□의 增加라. 本作은 採鹽 最盛期되는 五, 六月 中을 同出張所 開始 以來 前例에 無한 不順한 天候가 持續하여 本年의 製鹽은 悲觀이더니 其後 天候가 恢復되여 昨今은 每日 採鹽되는바 同出張所의 生産高가 以上과 如히 增加하였을뿐 아니라 各鹽田의

倉庫에 對하여 貯藏鹽을 實見한즉 一等鹽의 色潭이 純白□ □ 勿論 二等鹽도 亦色白하여 殆히 一等鹽에 近한 色潭을 有함이 多하여 同出張所에 在한 前"느 « 採收鹽標本과 今年의 採收鹽을 比較하면 品質 色潭이 □現□히 改良됨을 □ 하는 바야 □昨秋以來 天日鹽의 品質이良好하여 □鹽보다 效力이 强大함은 一般 消費者의 知□하여 □用은 漸次 天日鹽에 傾注하는 狀況이나 但 天日鹽은 他의 煎熬鹽 及 再製鹽에 比하여 色潭이 純白치 못함으로 需用者間에 批難의 聲을聞하는 事가 有한지라. 是以로 同出張所 本年의 製鹽은 特히 此点에 注意한 結果 品質 及 色潭은 輸入의 支那鹽보다 越히 優良한듯 하□ □ □ □ 煎熬



〈그림 5〉 주안염전 세부위치도(조선총독부, 앞의 지도)

鹽 及 再製鹽의 使用에 慣한 □用者는 堅粒의 細小한 天日鹽을 望하는 者가 有함을 因하여 出張所는 新式의 粉碎機를 据付하고 天日原鹽을 粉碎하여 是□需用者의 希望에 應할 方針이라. 該粉碎鹽은 煎熬鹽 及 再製鹽의 結晶粒과 殆히 同樣한즉 使用上에 便利하며 同出張所 製鹽의 買受希望者는 同所에 □□하며 又는 書面으로 申出하면 直接으로 極히 簡便한 節次에 依하여 販賣를 許可한다더라(『매일신보』, 1913-08-28)

朱安製鹽狀況

朝鮮 官營 天日鹽田의 嚆矢로 世人의 注意를 惹起하던 富川郡 朱安 天日鹽田은 明治 四十年 四月時의 □□顧問 目賀田明의 計劃에 依하여 當時 僅히 一町步 鹽田을 築造함에 不過하였으나 試驗의 成績이 極히 良好하고 品質 又 關東州 其他의 天日鹽 及 朝鮮 在來鹽에 比하면 遙히 優良함으로 明治 四十一年 七月 廣梁灣 鹽田의 築造와 同時에 此의 擴張을 行하여 現在의 鹽田 面積 九十八町步를 算할뿐 아니라 灣內의 干潟地로 鹽田은 豫定地에 編入된 것이 三百六十町步에 達하였더라.

▲ 製鹽狀況

製鹽期는 三月 下旬부터 十月 下旬까



〈그림 6〉 주안염전의 수차(인천시, 앞의 사진집)

지인데, 例年 二月 中旬부터 準備作業에 着手하여 間間히 採鹽作業을 行하고 三月 下旬에 至하여 비로소 少量의 採鹽을 見하고 五六 兩月에 及하여 製鹽의 最盛期가되며 七八 兩月은例年 降雨로 因하여 製出量은 減하고 九十 兩月에는 相當한 收量을 見하며 十一月에 至하여는 氣溫低下로 中止하는 것이□이며 且 本年은 四月以 降九月에 至하기까지 天候 極히 不良中에 在하였을뿐 아니라 其間 數回에 亘하여□□의 被害가 有하였음으로 其復舊修理에 忙□함과 旦製鹽作業의 進行을 妨한데 依하여 其採鹽□와 如한 것은 九月末日 現在에 置하여 昨年에 比하면 約半額에 達치 아니한 不□果를 見함에 至하였는데 今累年의 産鹽量을 據하건대 左와 如하더라.

	鹽産高	鹽田一町步當 産鹽高
明治四十四年	1,□06,36□斤	15,370斤
大正元年	3,873,6□1斤	39,520斤
同 二年	6,2□9,□89斤	63,670斤
同 三年	7,833,174斤	7□,920斤
同 四年	5,564,291斤	56,770斤
同 五年	2,9□3,000斤	30,034斤

此에 依의여 觀한즉 其生産高는 □年增加하였으나 大正 四年 以降 激減하여 同年 中은 三年에 比하여 約七割一分 本年의(九月末日 까지) 僅히 三割 七分六厘에 不過한 不況을 見하였으나 此는 天候의 不良에 □因한 者이오 本年은 實로 □鹽量 八百三十□에 □하여□□□□ 十五年間에 第三位의 多量□示하였는지라. 製鹽의 重要 時期된 四六九月에 皆히 甚하였으므로 若大한 打擊□□한 者이나 □來의□□에 依하건대 非常히 不良한 天候에 遭遇치 않으면 一箇年 壹千萬斤에 達케 하기 難치 아니 하리라더라.

▲ **製品販路**

朱安에 在한 鹽의 品質은 □年 改良의 積을 擧하여 現在에 對한 一等鹽으로 販賣하는 것은 純白의 結晶鹽으로 關東州 又는 山東省으로부터 輸入하는 天日鹽에 比하여 遙히 優良하고 二等鹽도 亦 支那鹽에 比하면 品質光澤이 共히 □□하여 各需要地에서 聲價가 隆隆하였는데 元來 朝鮮人은 煎熬鹽의 使用에 慣케된 結果로 天日鹽의 眞價를 不識하고 甚한 者는 高價를 □하□ 在來의 朝鮮鹽 及 再製鹽을 使用하는 他方도 有한 狀況이므로 朱安出張所에서는 自己의 天日鹽을 粉碎하여 此를 試賣하였더니 外見에 毫도 煎熬鹽과 異함이 無하고 價格과 如함도 百斤에 二十七八錢이나 低廉한 上에 鹹味가 頗 强한 故로 近年에 需要가 激增하여 各地의 注文이 多하고 此로 因하여 粉碎作業은 非常한 繁忙을 呈하는 □□□ 其販路는 京畿 沿岸이 主요 京元線이 此에 亞하고 京義京仁 湖南 等에도 亦 多少의 需要가 有하고 此外 船便에 依하여 京畿 黃海 □道 沿岸 及 漢江□ □으로 輸送하는 것도 不□한데 今秋는 南鮮 地方에 在한 在來鹽이 凶作인 故로 全南地方의 注文이 多한 模樣인□ 供給 不足의 □을 不免하겠더라. 要컨대 本年의 製鹽事業은 다만 朱安에 止치 아니하고 全國 一般에 降雨가 多量하고 寒氣가 早□한 結果 生産□이 激減하였은즉 關東州 及 山東省鹽의 □□를 見치 못함에 □□□□□□□□□ 接한



〈그림 7〉 주안염전의 소금담기(앞의 사진집)

昨今인즉 鹽價는 多少의 □□를 覺悟치 아니함이 不可함과 如하더라.(『매일신보』, 1916-10-12)

朱安鹽田擴張

大正 六年度 歲出豫算 中 新施設 事項 中 朱安 天日鹽田 造築工事費로 三十七萬四千二百十一圓을 計上하였는데 右는 二百町步의 擴張□定이오 前項 □工費 中 三十萬六千九百三十六圓은 鹽田 築造費오 其餘二萬七千二百九十五圓은 □□物의 新營□設□費이라더라.(『매일신보』, 1916-12-22)

주안염전의 변천과 한국의 근 · 현대사

여러 차례의 확장을 거듭한 끝에 주안염전은 총면적 212정보의 규모로 확대되어 1정보로 시작하였던 시험단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천일염전이 축조되고, 천일염이 생산되는 것은 과거 전오염 생산과 비교해 분명히 근대적 · 선진적이었다. 인천에 한국 최초의 여러 사례가 있는데, 주안염전의 축조는 근대를 맞이하는 인천 지역이 처한 위치와 중요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해방 이후 모든 물자와 마찬가지로 소금도 크게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관염전뿐만 아니라 민영염전의 축조가 허가되고, 1952년엔 소금 증산 5개년 계획을 세워 염전 증설을 적극했다. 이 때문에 소금 생산량이 급증해 1957년에는 오히려 과잉생산으로 불황을 겪기도 하였다.



〈그림 8〉 옛 주안염전의 현재 지도 (『전국교통정보지도』, 남북지도문화사, 2003)

1963년 염관리법과 대한제염주식회사법의 제정으로 염 전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안염전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염업주식회사가 운영하였다.

그러나 인천의 도시 확대과정과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맞물려 2백12정보에 달하던 주안염전은 1968년부터 폐전되고, 그 자리에 공단이 조성됐다.

옛 염전의 흔적은 없어지고 빼곡히 들어찬 공장으로 나타난 최근의 주안 부근 지도는 한국사회가 겪어온 현대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도심 가운데 갇힌 섬처럼 형성된 주안공단은 언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것 역시 한국의 현대사가 흘러온 자연스런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주안염전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는 우리나라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무한히 뒷받침한 발전의 땅이었으며, 그곳의 역사가 곧 한국 근 · 현대사를 압축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젠가 그 땅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그것은 또 당시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안의 주거지 경관의 형성과 인구특성

이영민 (이화여대 교수 ; 지리학)

I. 서론

인천에서 제법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안' 이라는 지명은 아주 분명한 인지認知 지역이다. 현재처럼 경인선 철도 노선을 따라 건축지역built-up area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도시연담화conurbation가 완성된 것은 대체로 80년대 이후의 일이며, 그 이전의 시기를 경험했던 인천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동인천과 주안, 그리고 부평이라는 세지역이 뚜렷한 가시적 도시경관 특성을 지닌 개별 지역으로 각인되어 있다.[1] 주안이 주는 지역 이미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

1) 70년대 중후반, 동인천에서 석바위 너머의 중학교로 버스 통학을 했던 필자의 심상지도(mental map)에는 경인고속도로 도화 인터체인지(도화1동)부터 석바위까지가 주안이라고 그려져 있고, 그 중심에는 지금은 없어진 시민회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주안의 공간적 범위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동서의 경계와 일종의 랜드마크로서의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대략 일치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안의 남쪽 경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사람들마다 사뭇 다른 것 같다. 경인국도를 사이에 둔 양쪽 블록만을 주안으로 보는지, 그 아래 신기촌 일대까지를 주안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엇비

제염업이 시작된 곳, 5공단과 6공단으로 대표되는 경인공업지역의 일부 지역, 그리고 대규모 토지계획사업을 통해 개발된 단독주택지역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안역이 있고, 또 시민회관이 있었다. 일종의 주안의 상징적 경관인 것이다. 천일제염의 소금밭으로서의 이미지는 적어도 현재의 주안의 경관 상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상전벽해를 실감하게 하는 지역변화이다. 공단으로서의 이미지나 단독주택지역으로서의 이미지는 현재의 주안 경관에도 그대로 관찰되는 것들이며, 주안 거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주안을 주안이게 한 요인인 공단 및 주택단지의 형성은 주안의 독특한 경관적 특징으로 자리잡았고, 인구의 흡인요인으로 작용하여 독특한 지역 기능을 담당케 하였다.

지역은 단순한 물리적 배경으로서만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은 아니며,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지를 틀거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2] 주안이 주안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주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 주안이라는 공간과 주안 사람의 활동이 상호 교직됨으로써 주안이라는 지역이 장소적 의미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주안을 주안으로 만들었던 주안 거주민들의 인구적 특징과 그들이 안착했던 거주지의 장소적 특징을 인천이라는 더 큰 규모의 공간과 관련시켜 대략 윤곽을 잡아보고자 한다. 흩어져 있는 모든 관련 통계자료들을 한데 모아

슷하게 의견이 갈리는 듯하다.

2) 상업, 공업 기능과 더불어 도시를 형성하는 핵심 기능으로서의 주거기능은 도시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도시경관적 가시성이 가장 광범위하다. 아울러 인구의 노동 재생산을 확보하는 안식처로서의 공공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투기 대상으로도 간주되는 사유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정리 · 분석하고, 또한 민속지적 방법을 시도하여 지역의 정성적 특징까지도 파악해야만 거주지로서의 주안의 지역성을 온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에게 주어진 분석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유사한 연구를 통해 밝혀 놓은 것들을 적극 참고하고, 최근의 통계자료 중 필자가 판단하기에 의미가 깊은 것들을 정리하여, 그것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주안은 다분히 인지적 지역 개념이다. 따라서 엄밀한 통계자료를 동원하여 그 지역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지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구 관할인 법정동으로서의 주안동은 8개의 행정동으로 세분된다. 이 글에서는 통계자료의 구득 여부에 따라 주안 1동부터 주안 8동까지를 주안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남구 전체를 주안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정리된 동별 자료가 구득 가능할 경우에는 주안동으로 좁혀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고, 동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남구 전체를 개략적으로 다루어 주안의 특징을 유추해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연구 결과나 통계자료를 필자의 의도에 맞게 편의적으로 취합하였기에 논의의 전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계자료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주지와 거주인구의 특성은 정성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후에 광범위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 및 정성적 접근을 통한 장소성의 해석을 장기간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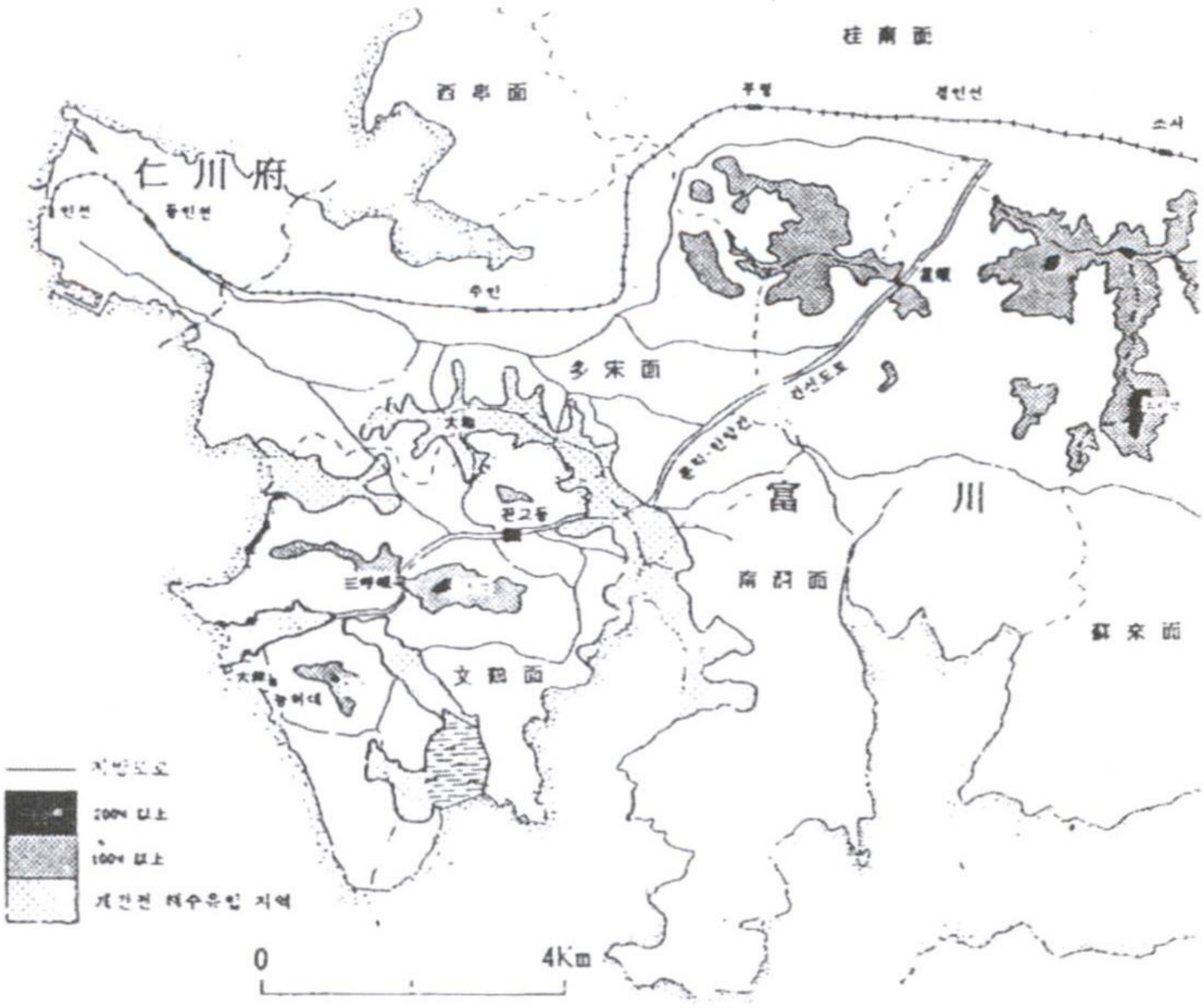
II. 경인지역 도시화와 주안의 인구 성장

도시의 고용 창출에 따른 인구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주거지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도시의 면적面的 팽창을 유발한다. 인천의 경우, 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러 공업단지가 설치되었고, 여기에 고용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졌다. 과거의 구도심 중심의 도시 권역은 60년대부터, 당시로서는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주안과 부평 지역에 공단이 조성되고, 그 고용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택지가 개발됨으로써 크게 확대되게 된다. 주안은 바로 그러한 배경 하에서 늘어나는 인구의 주거지로써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이다.

인천의 도시 기능은 경인간의 교통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형성되어 왔다. 개항과 더불어 형성된 구도심 중심의 인천의 도시 기능은, 비록 현대의 대도시와 그 규모를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독자적인 기반 위에 뚜렷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양문물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진입구로서의 도시 기능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였고, 따라서 당시에는 적어도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도권 넘어 한반도 전체를 배후지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천의 독자적 기능성은 경인 철도와 국도가 부설됨으로써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었고, 수도 서울의 관문, 혹은 서울의 배후지로서의 상대적 입지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다.(이영민, 1999)

개항기 구도심을 중심으로 근대도시 인천이 처음 형성되었을 당시 주안은 한적한 농촌으로서의 경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해안의 만입부가 현재의 주안 5공단과 6공단 사이로 깊숙이 침투하여, 그 양안에서 천일제염이 우리나

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장이 되었다. 또한 그 남쪽의 육지부는 저평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지역이 좁은 지협부를 따라 조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연안의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하여 인천 해안의 원지형을 복원해 본 지도를 보면 주안 일대의 원래의 자연상태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그림 1) 이는 1917년 지형도의 해안선을 토대로 만조시 해수의 침투가 이루어졌던 지점들을 해안선으로 그려본 지도이다. 이 지도에 의하면 주안 지역은 "大池"라 지칭된 해수 유입지에 의해 관교동, 문학동 일대의 인천 구읍과 분리되어 있으며, 반도로 돌출한 원인천 지역의 배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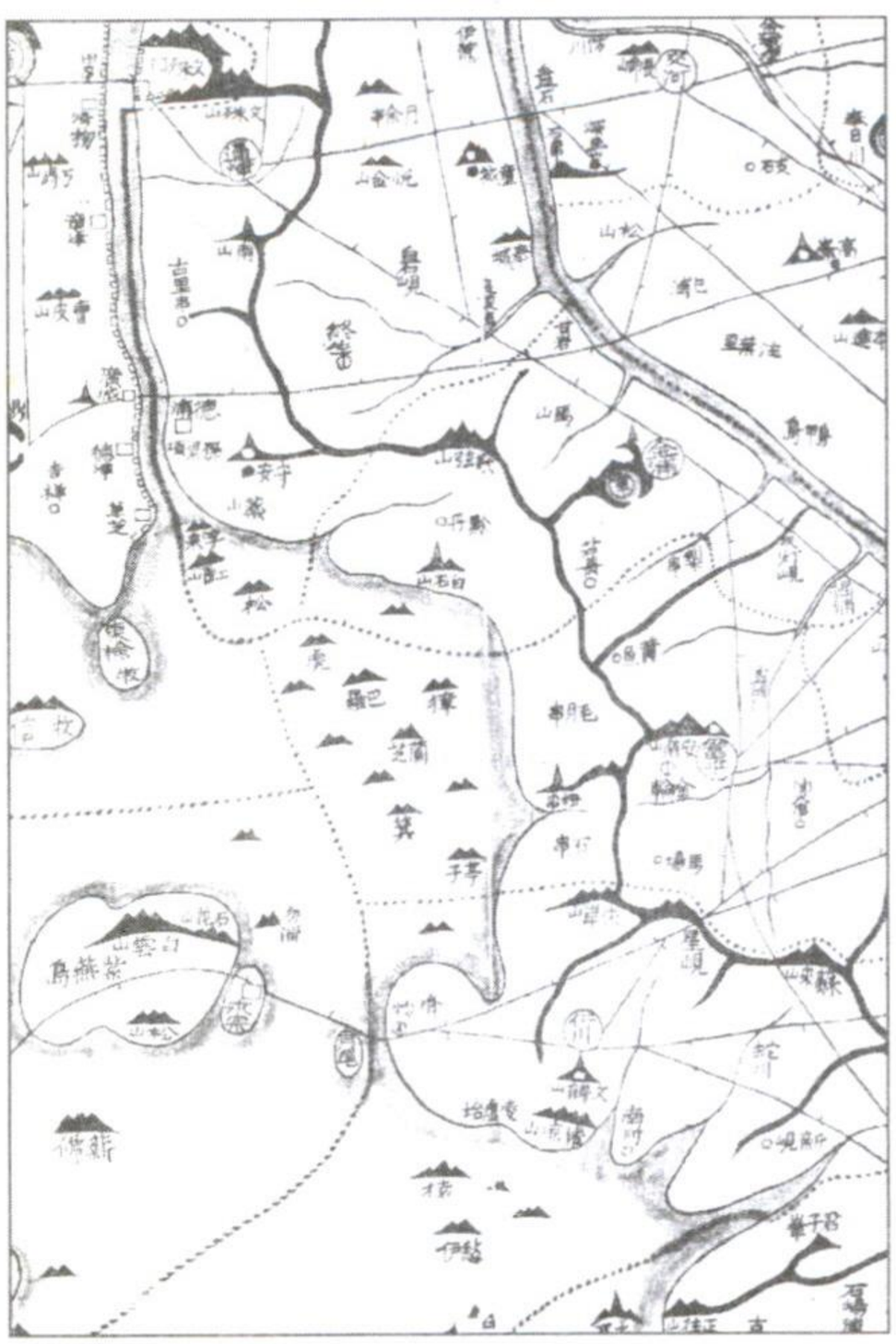


〈그림 1〉 인천의 해안선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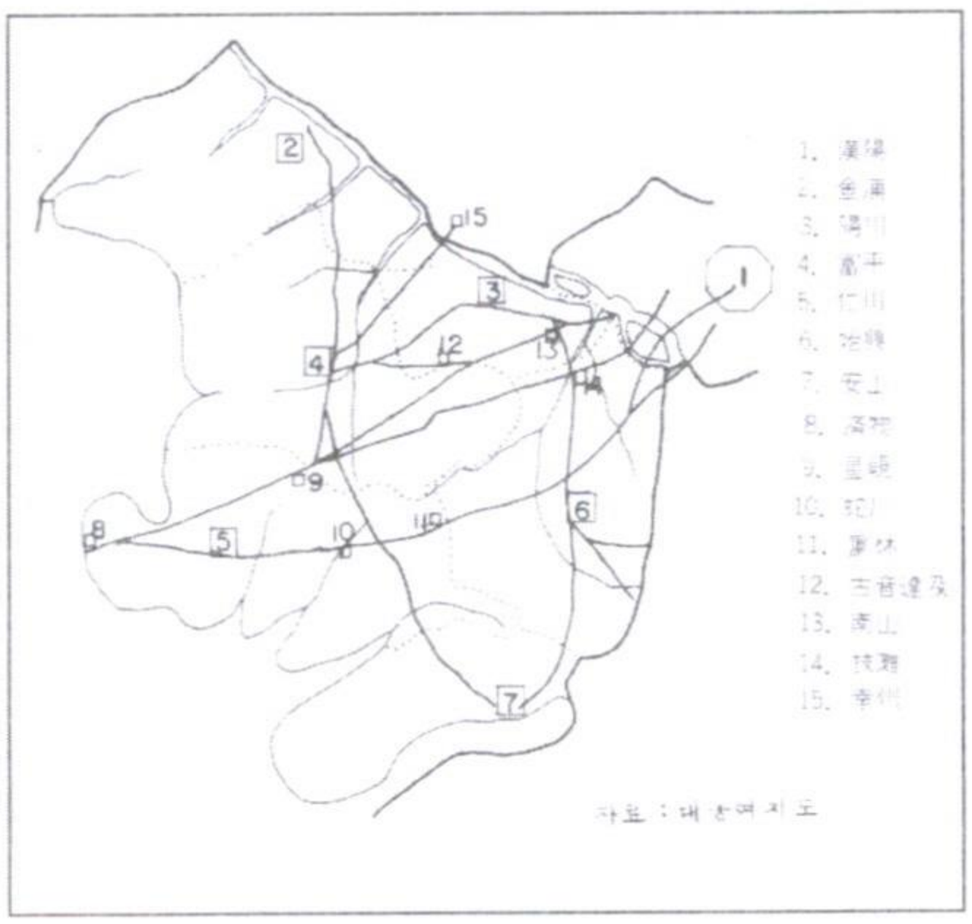
출처 : 인천시 · 서울대 박물관, 1990, p.13

타나 있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p. 356) 지도에서와 같이 문학일대의 인천도호부가 이 일대 지역의 중심지였던 시절 주안은 도호부의 북쪽 바닷가에 인접한 한적한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나 개항과 더불어 원인천이 새로운 인천의 중심지가 되면서 주안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원인천과 한양을 잇는 교통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적 조건 때문이다.

제물포에서 주안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도로망은, 비록 인천도호부에서 성현고개를 거쳐 한양에 이르는 당대의 중심도로보다는 중요성이 적었겠지만,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음을 대동여지도(그림 2)와 군현도(그림 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때의 주안은 지도상에 명기될 정도로 규모가 큰 취락이 분포하는 지역은 아니었을지라도, 도로가 통과하는 일종의 가촌으로서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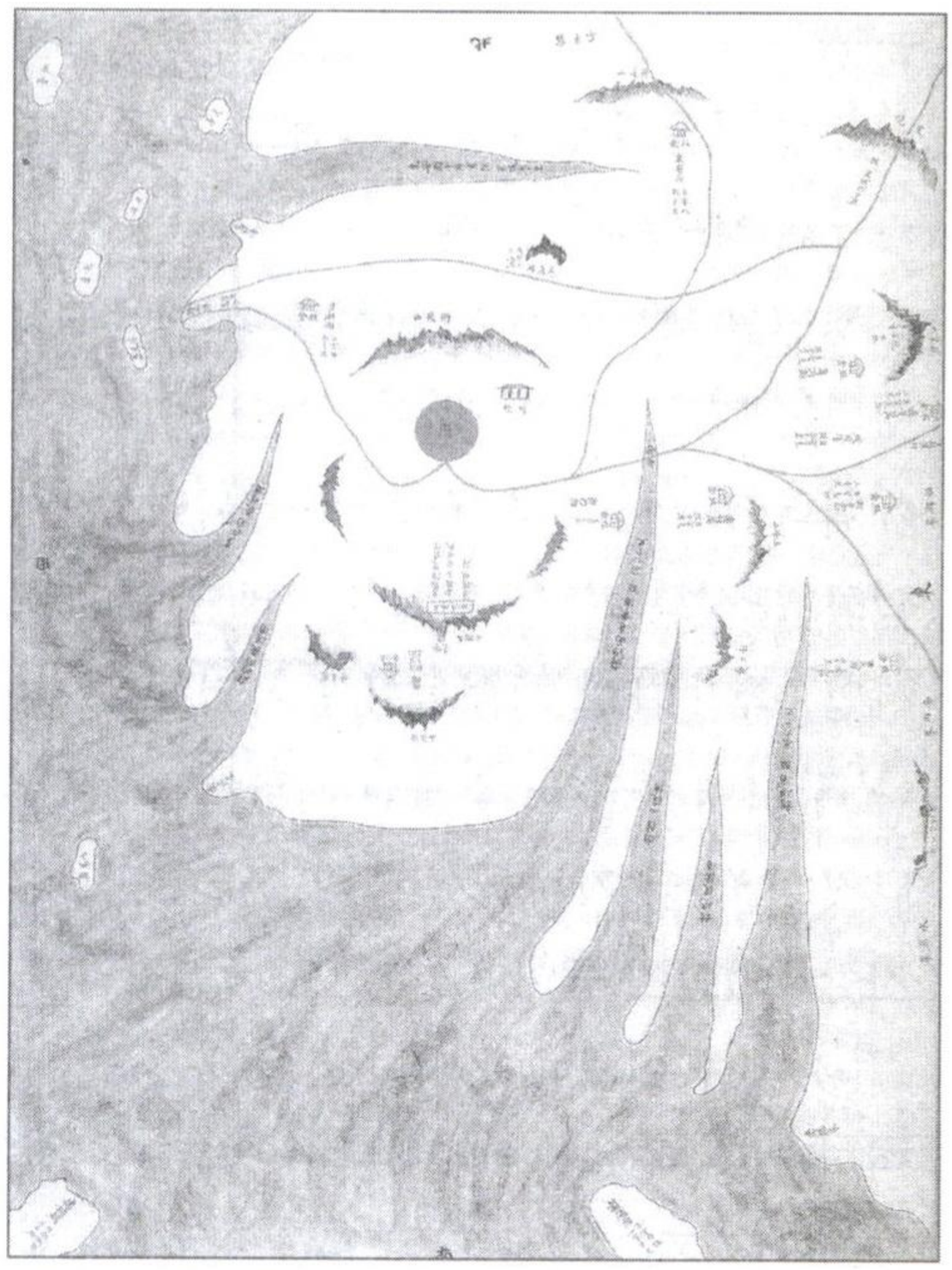


〈그림 2〉 대동여지도(인천), 1861년



〈그림 3〉 19세기의 도로망 (출처 : 이현아, 1980, p. 24)

하나마 교통 기능과 배후 농촌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취락 분포지로서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군현도 속의 인천부(1872년)
출처 : 인천광역시사 Ⅰ. 자연환경과 지리, p.140

이처럼 애당초 존재했던 제물포와 한양을 잇는 도로는 개항 후 인천의 중심이 문학산 일대로부터 바다가의 구도심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다. 1899년에 개통되는 경인선 철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인천을 포함한 경인지역의 지역구조를 급격하게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자못 크다. 경인간의 시간거리 단축은 도시화의 확산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경인선 라인을 따라서 취락이 확대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개항과 더불어 구도심으로 모여든 인구가 짧은 기간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변 외곽지역은 택지로서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숭의동이 그랬고, 그 너머 도화동이 그랬다. 일본강점기 동안 일본인들의 주거지로써 개발됨으로써 근대도시 인천의 시역은 크게 확장된다. 주안지역은 일본강점기 동안 본격적으로 택지로 개발되지

는 않는다. 다만 경인선 철도를 주변으로 병참기지화 전략에 맞물린 소규모 공장들이 새롭게 입지하게 되었고 그 주변지역에 소규모의 새로운 취락들이 생겨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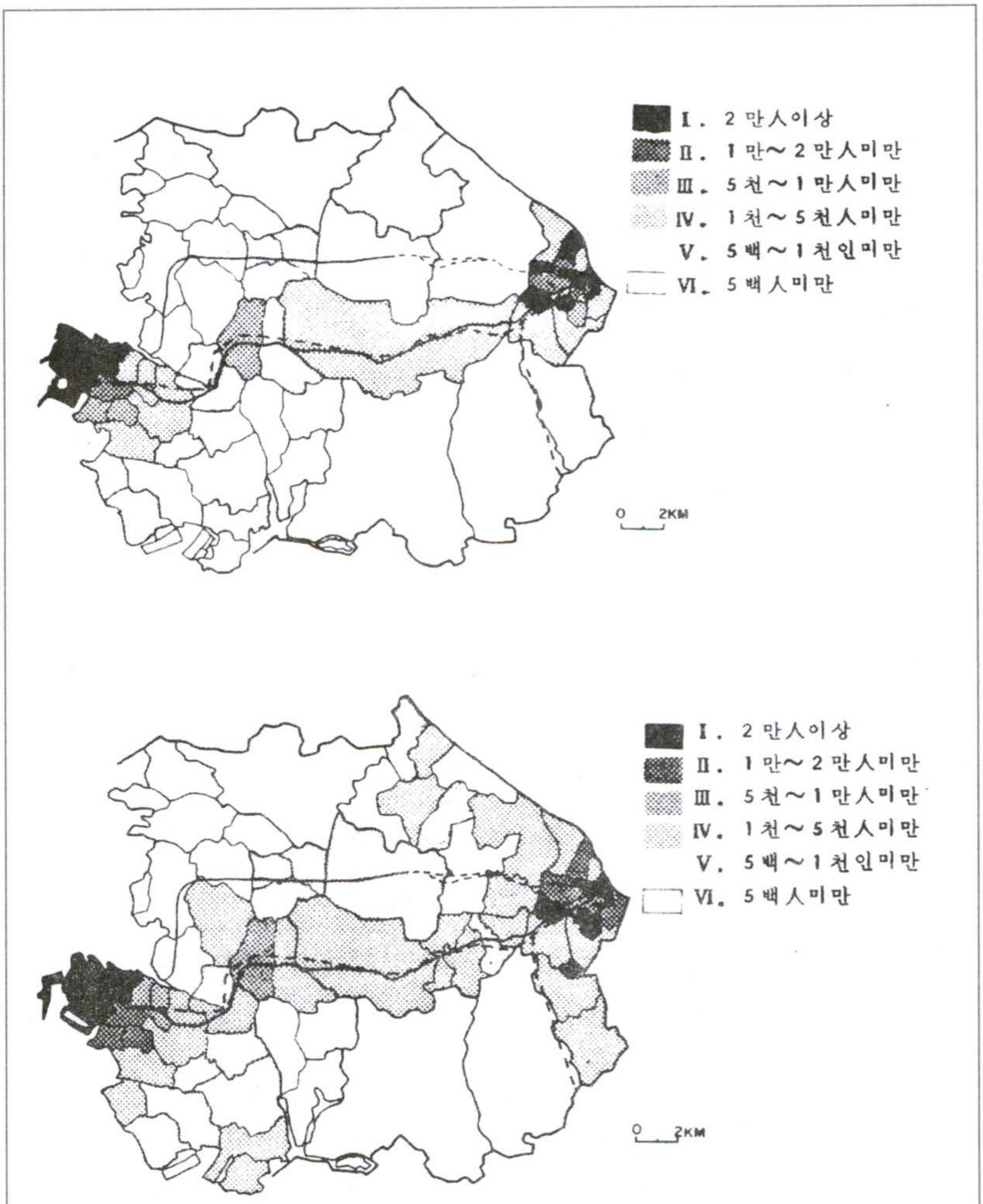
경인선 철도와 국도 노선을 따라 본격적으로 인구가 밀집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주지하다시피 60년대와 70년대 수출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인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공고되어 산업화, 도시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련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단 조성사업, 택지 개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주안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당시에 주안과 그 주변 지역에 조성된 공단은 1969년의 부평의 수출공단 4단지, 73년의 가좌동 일대의 수출공단 5단지, 도화동의 기계공업단지와 인천지방공업단지 등이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pp. 373-375) 특히 주안 북쪽의 옛 갯골 일대에 형성되어 있던 소금밭들은 바다에 근접하며 지세가 저평하여 공업용지로의 전용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러한 공단의 조성으로 고용 인구의 거주지를 위한 택지 개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했고, 근거리에 있는 주안이 주목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경인선 철도와 국도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기에 인천과 서울의 유입인구를 끌어들여 정착시키기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1960년대부터의 주안의 급속한 변화를 이끈 산업단지의 조성은 교통망의 확충을 동시에 요구하였다. 공업기능을 집적시킨 공업단지의 설치는 2차산업의 원료와 제품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교통망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65년의 경인선 철도의 복선화, 1969년 경인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등은 그러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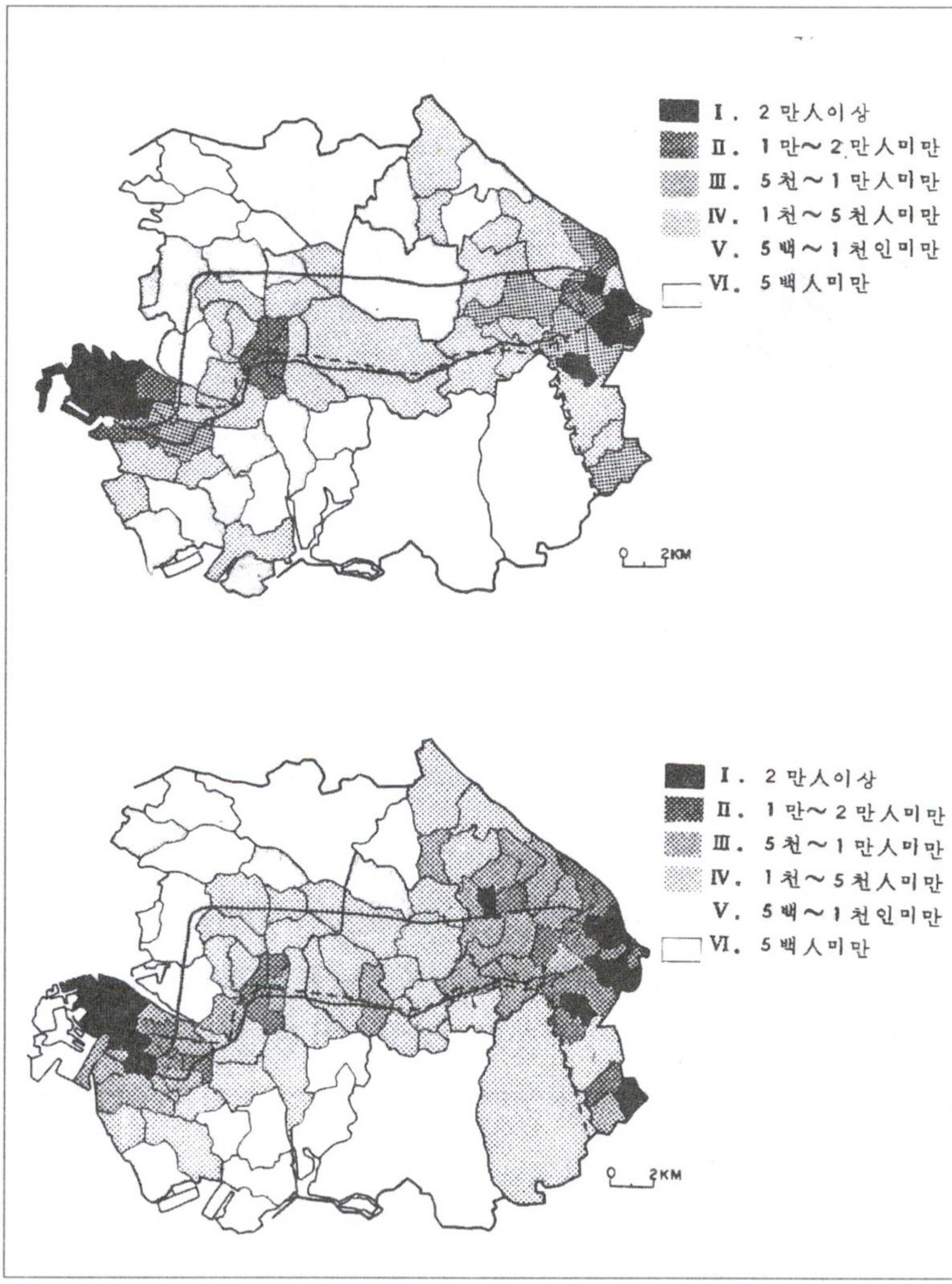
이 흐를수록 산업 물류의 수송은 물론이고 유동인구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게 된다. 1974년의 경인선 전철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인선 철도가 이제 통합된 수도권의 여객 수송을 위한 일종의 광역도시권의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교통망 확충 및 정비의 과정을 서울과 인천 간의 기능적 통합 및 경관적 통합의 결정직인 계기로 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인간의 간선 교통망과 인구밀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5〉~〈그림 7〉를 살펴보면 그 밀접한 관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지역에 산업단지가 아직 조성되기 이전인 1960년의 지도에도(그림 5 상단) 이미 경인간의 국도와 철도가 인구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의 구도심 지역과 서울의 영등포 - 노량진 지역이 인구가 집중된 중심지로써 자리잡고 있고, 그 사이 경인국도와 철도에 인접한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안과 부평 사이와 부평와 소사 사이의 지역은 여전히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직전인 1966년의 지도에서도(그림 5 하단) 큰 변화없이 이어진다. 다만 인천구도심 주변지역으로의 교외화가 미약하나마 진행되고 있는 점과 부평 인근지역의 인구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점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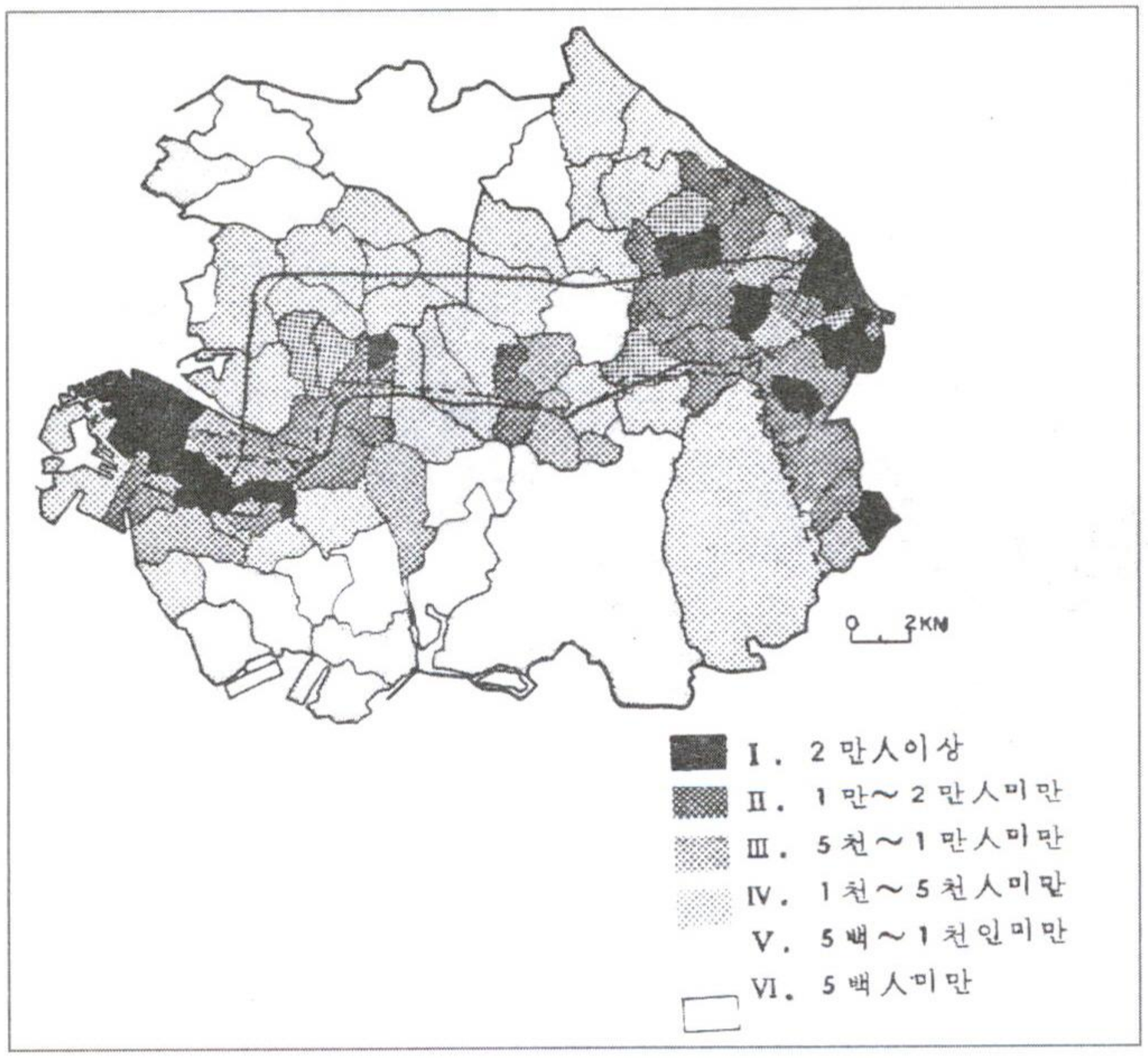
1970년대가 되면 주안의 인구 집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6) 아울러 부평과 서울 사이의 인구밀도가 기존 경인 철도 및 국도의 북쪽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9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산업단지를 그 주변에 입지시키고, 이에 따라 인구의 증가를 유발한 것이다. 이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 철도 및 국도 사이의 두꺼운 벨트 지역이 인구



〈그림 5〉 경인지역 인구밀도의 변화(1960년, 1966년) 출처 : 이현아, 1980, p. 46



〈그림 6〉 경인지역 인구밀도의 변화(1970년, 1975년) 출처 : 이현아, 1980, p. 49



〈그림 7〉 경인지역 인구밀도의 변화(1979년) 출처 : 이현아, 1980, p. 52

및 산업의 집중지로써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1974년 경인철도의 전철화는 경인선 철도를 일종의 대중교통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서울로의 통근권이 경인 교통 벨트를 따라 서쪽으로 확대되게 된다. 즉, 전철화와 동시에 기존 기차역들 사이에 새로운 기차역을 다수 건립하여, 서울로의 접근성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경인철도의 전철화는 또한 인천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인천 시역을 확장시키고 기존의 구도심과 부평 사이의 비도시화 지역을 도시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연지리적으로 부평과 인천은 일련의 산지에 의해 분리된 독자적인 생활권이었으나, 이제 그 경계선 상의 지역

들이 새롭게 도시화 지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1979년의 지도에서는(그림 7) 인천 구도심에서 부평에 이르는 도시화 벨트가 경인 철도와 국도 주변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정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물포역을 지나 주안, 동암에 이르는 인구 고밀도 지역이 경인 철도와 국도를 따라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80년대 이후 주안의 인구 분포 및 이동 특성

1980년대는 경인간 철도와 국도,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따라서 인천의 도시화지역이 넓게 확산된다. 인천에서 2차 산업 중심의 도시 성장이 완숙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는 곧 3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이희연, 1998) 즉, 2차 산업 같은 도시 기반 활동이 완숙단계에 접어들어 많은 고용인구를 창출하였고, 이제는 그렇게 늘어난 인구에게 제공되는 상업 및 서비스 산업 같은 비기반활동들이 급성장하여 도시 성장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표 1〉의 인천의 구단위 지역별 인구 변화는 위와 같은 도시화의 전개 패턴과 지역 구조의 변화를 추정 가능하게 해준다. 주지하다시피 개항 당시부터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중구, 동구 일대의 구도심 지역은 그 중심 기능을 점차 상실해 왔으며, 80년대 이후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인천 외곽지역으로의 도시기능 분산이 이루어진다. 이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의한 인구공동화 현상

을 의미한다. 인천의 도심 공동화 현상은 한국의 그 어떤 대도시보다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윤대심, 2000 ; 이영민, 1999) 80년대의 구도심 기능의 분산은 주로 경인간 간선교통망을 통해 구도심에 맞닿아있는 남구지역과 공단을 통해 독자적으로 성장해온 부평일대로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남구와 북구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6,70년대의 상황이 이어져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면 인천시역은 더욱 확장되어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특히 외곽지역에서의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진다.(최병목, 1997) 아파트 중심의 일종의 신도시로 개발되는 연수구, 기성시가지 남구에 이어져 상업 및 행정의 중심기능을 수용하게 되는 남동구, 공단에 인접하여 저소득층 인구를 흡입하게 된 서구, 그리고 기존의 북구에서 분구되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생겨나는데, 이들 신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인구수	증감율	인구수	증감율	인구수	증감율	인구수	증감율	인구수	증감율
인천시	1,084,730		1,387,491	28	1,818,293	31	2,362,132	30	2,562,321	8
중 구	84,285		83,672	-1	81,788	-2	75,044	-8	73,081	-3
동 구	162,639		146,397	-10	124,309	-15	100,382	-19	76,424	-24
남 구	487,106		618,176	27	458,334	-2	6430,723	-6	422,952	-2
북 구	350,700		539,246	54	616,896	14				
연수구							218,710	26	3,083	20
남동구					306,766	30	9,408	27	413,04	36
부평구							498,415	54	8,145	10
계양구							264,370		338,070	28
서 구					230,200		299,940	30	346,285	15
강화군							70,658		67,225	-5
옹진군							13,482		14,013	4

〈표 1〉 인천의 구별 인구변화 자료 : 통계청, 「인천통계연보」

설구 지역은 모두 대규모의 주택지역이 들어서거나 기존의 공업지역이 주택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인천발전연구원, 2001) 이상을 통해 대략 80년 이후의 인구 증가의 지역별 전개 패턴을 요약해 보자면, 구도심 → 기성시가지와 주변지역 → 외곽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순으로 인구의 급증이 이루어졌다.

2000년 현재 주안 지역의 개괄적인 인구 특성은 남구의 동별 인구 통계를 보여주는 〈표 2〉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안동을 포함한 인천 남구 전체에는 422,9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성비는 102로써 약간의 남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안동의 각 동별 성비의 경우 99에서 104 사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성비는 100.7을 보이고 있으며(이희연, 1998), 인천 및 인천 남구의 경우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남초현상은 대략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구의 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안동 안에서는 주안 5동과 8동, 2동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절대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인구수에 불과하며, 좀더 정확한 인구의 집중 정도를 파악하려면 인구밀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구밀도는 주안 7동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3동과 8동도 3만/㎢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7동과 3동, 8동은 주안의 남쪽 경계라 할 수 있는 승학산과 노적산 사이의 산록지역이다. 반면 인구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곳은 주안 1동이며, 이는 주안역 앞의 상업지역이기에 상주인구가 적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경인선 철도 북쪽의 주안 5동도 비교적 인구밀도는 낮은 편인데, 이는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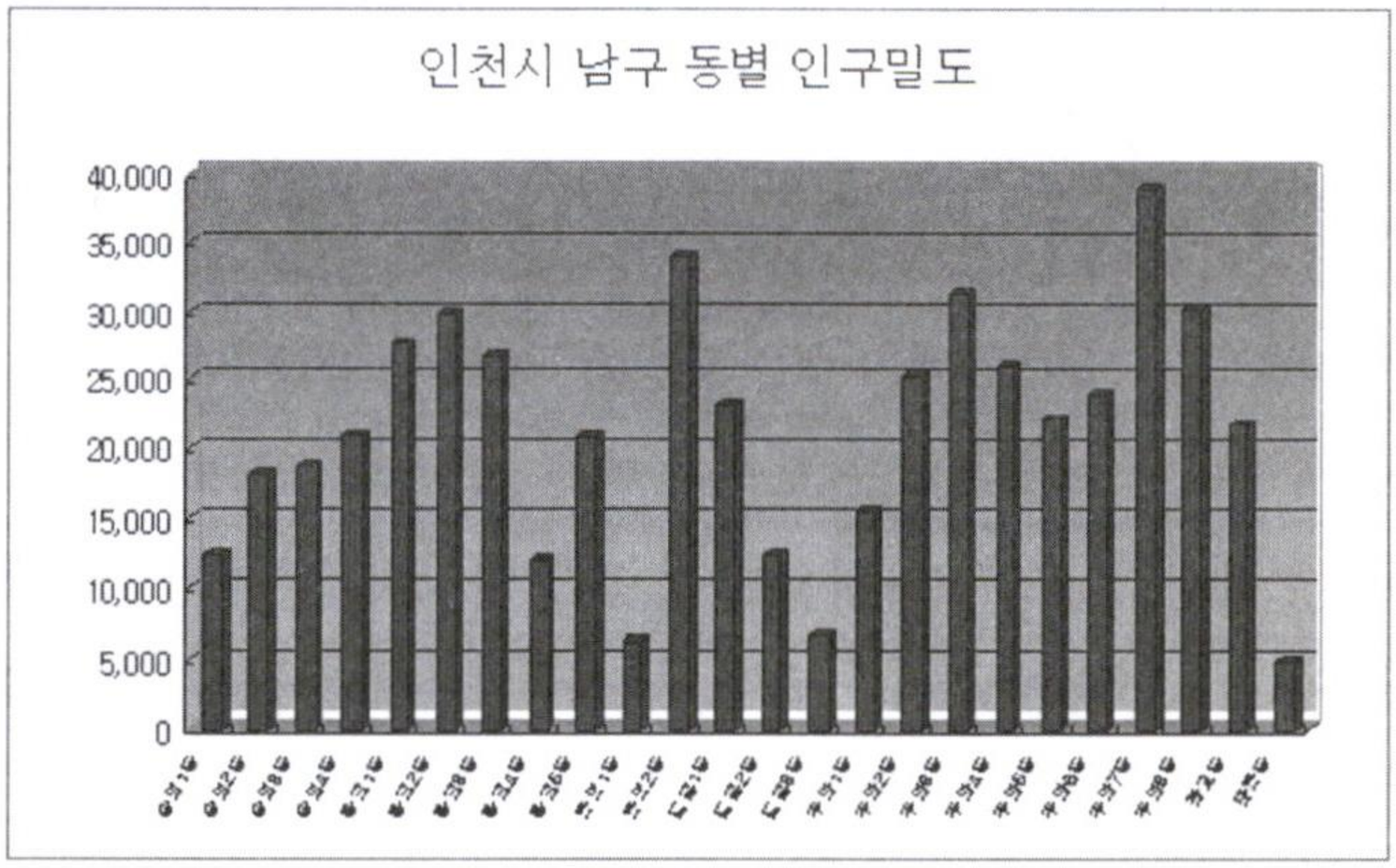
다. 공단 인접 지역으로서의 특색은 남구 관내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근에는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과 소단지 아파트들이 공장 부지 사이를 파고 들고 있는 중이다.

	인구			성비	인구밀도	면적(㎢)	세대수	외국인수
	계	남	여					
인천시	2,562,321	1,296,053	1,266,268	102	2657	964.53	829,164	16,552
남구	422,952	213,581	209,371	102	17,477	24.20	139,631	2,604
숭의1동	5,595	2,828	2,767	102	12,433	0.45	2,122	80
숭의2동	9,405	4,750	4,655	102	18,087	0.52	3,360	50
숭의3동	7,685	3,924	3,761	104	18,744	0.41	2,731	50
숭의4동	16,112	8,081	8,031	101	20,925	0.77	5,361	71
용현1동	16,879	8,681	8,198	106	27,670	0.61	5,709	169
용현2동	15,775	7,938	7,837	101	29,764	0.53	5,142	122
용현3동	12,012	6,133	5,879	104	26,693	0.45	4,244	44
용현4동	7,662	4,074	3,588	114	11,972	0.64	2,882	103
용현5동	37,731	18,953	18,778	101	20,731	1.82	11,553	171
학익1동	29,580	14,973	14,607	103	6,334	4.67	9,129	224
학익2동	26,739	13,476	13,263	102	33,847	0.79	8,494	79
도화1동	21,197	10,549	10,648	99	23,040	0.92	7,049	139
도화2동	18,455	9,429	9,026	104	12,470	1.48	6,269	109
도화3동	9,586	5,042	4,544	111	6,611	1.45	3,117	301
주안1동	9,453	4,743	4,710	101	15,497	0.61	3,415	104
주안2동	25,155	12,737	12,418	103	25,409	0.99	8,356	100
주안3동	14,392	7,331	7,061	104	31,287	0.46	4,674	40
주안4동	24,875	12,453	12,422	100	25,911	0.96	8,219	112
주안5동	25,908	13,204	12,704	104	22,144	1.17	8,847	317
주안6동	14,844	7,420	7,424	100	23,942	0.62	5,359	52
주안7동	20,180	10,053	10,127	99	38,808	0.52	6,528	67
주안8동	25,419	12,732	12,687	100	30,261	0.84	8,091	46
관교동	20,641	10,247	10,394	99	21,727	0.95	6,405	35
문학동	7,672	3,830	3,842	100	4,887	1.57	2,575	19

〈표 2〉 2000년 인천 남구 인구 통계 자료 : 통계청, 「인천통계연보」

주안 1동의 상업지역과 주안 3동, 7동의 산록 주거밀집지역 사이의 주안 2동, 4동, 그리고 6동은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중간 정도의 특성을 보인다. 단독주택지역으로 처음 개발된 이 지역은 여전히 단독주택이 우세하여 인구밀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최근 다세대주택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을 통해 주안지역의 인구의 밀집 정도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주안역 주변의 상업지역 → 주안역 북쪽의 준공업지역 내의 주택혼합지역 → 주안역 상업지역 남쪽의 전통 단독주택지역 → 주안 남단 승학산과 노적산 산록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 20년 동안의 동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주안 지역 전체와 주안의 각 동별 지역의 인구 및 주거지 특성이 좀더 소상히 드러난다. 동기간 동안 주안의 인구변화는 대략 인천 남구의 인구변화와 엇비슷하게 전개되나 90년대에 들어서면 주안의 인구 감소가 남구 전체의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전개되고



〈그림 8〉 남구 동별 인구밀도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구분	인구수(명)	증감율(%)	인구수(명)	증감율(%)	인구수(명)	증감율(%)	인구수(명)	증감율(%)	인구수(명)	증감율(%)
남 구	487,106		618,176	27	458,334	-2	6430,723	-6	422,952	-2
숭의1동	12,230		10,666	-13	9,915	-7	6,469	-35	5,595	-14
숭의2동	16,220		15,605	-4	14,117	-10	10,629	-2	59,405	-12
숭의3동	15,191		14,245	-6	12,514	-12	9,325	-25	7,685	-18
숭의4동	20,316		20,351	0	19,715	-3	18,166	-8	16,112	-11
용현1동	19,851		21,539	9	20,683	-4	18,051	-13	16,879	-6
용현2동	25,129		33,424	33	18,981	-4	317,670	-7	15,775	-11
용현3동	16,778		17,141	21	5,460	-10	12,479	-19	12,012	-4
용현4동	10,259		11,400	11	10,605	-7	8,242	-22	7,662	-7
용현5동					20,555		32,378	58	37,731	17
학익1동	17,620		20,066	14	25,737	28	19,476	-24	29,580	52
학익2동	12,282		13,478	10	16,938	26	23,949	41	26,739	12
도화1동	21,278		22,103	4	23,386	6	22,712	-3	21,197	-7
도화2동	15,379		20,743	35	21,449	3	20,077	-6	18,455	-8
도화3동	10,553		12,210	16	11,457	-6	11,192	-2	9,586	-14
주안1동	28,352		11,959	-58	13,671	14	10,648	-22	9,453	-11
주안2동	24,827		28,680	16	29,148	2	27,529	-6	25,155	-9
주안3동	33,826		15,573	-54	16,851	8	15,199	-10	14,392	-5
주안4동	26,421		29,696	12	29,476	-12	7,322	-7	24,875	-9
주안5동	14,055		25,551	82	26,453	4	28,621	8	25,908	-9
주안6동			19,221		18,302	-5	16,043	-12	14,844	-7
주안7동			35,038		21,408	-39	20,238	-5	20,180	0
주안8동					23,686		27,109	14	25,419	-6
관교동									20,641	
문학동	7,265		9,771	34	9,694	-1	27,199	181	7,672	-72

〈표 3〉 인천 남구의 동별 인구변화 자료 : 통계청「인천통계연보」

있음을 보여준다. 즉 199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주안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이후부터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5년 통계에는 주안 1동과 3동이 절반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나, 이는 오히려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의한 행정동의 분리 때문에 생겨난 숫자일 뿐이다. 이러한 폭발적 증가는 주거 양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단독주택들을 모아 허물고 다세대주택들을 많이 짓

게 됨으로써 주거 경관이 크게 바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 주택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택지 정리 사업 없이 소자본의 민간업자들에 의한 무계획적인 다세대 주택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마이카 시대의 주차 문제라던가, 개인이나 세대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등 거주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주안 지역의 인구가 대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게 된다. 특히 가장 최근인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주안의 전 행정동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은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주안 1동처럼 주안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주안 2동과 4동 같은 단독주택 특화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9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아마도 유출 인구의 많은 부분이 외곽의 아파트 중심 주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이는 직장과 주거지 간의 절대거리와 시간거리가 더욱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직주 분리가 심화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도시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안의 이같은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주안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계층의 인구가 왜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심층적인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안 지역 거주자들이 어디에서 유입되었으며, 어디로 유출되고 있는가를 대략 가늠해 보기 위해서 〈표 4〉의 남구를 중심으로 본 지역간 인구이동 상황

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는 2002년 현재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만을 포함하여 남구의 전입 및 전출 인구의 지역별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의 인구이동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인천 남구는 전입이 전출을 약간 초과하고 있으며, 전입과 전출의 지역별 비중은 대략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남구 인구의 전입, 전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은 아무래도 인접한 연수구와 남동구이며, 이는 남구를 포함한 이 세 개의 구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져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인구이동을 보이는 곳은 부평구와 서구인데, 이는 주안을 포함하여 공단이라는 고용 원천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이어져 있는 공단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 주택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지역들의 거주자들 간에 인구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케 한다. 반면 구도심 지역인 중구 및 동구와는 인구 이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남구와의 기능적 연결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총합	인천	서울	경기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옹진
전입	82302 (100)	69173 (84.0)	5888 (7.2)	7241 (8.8)	2742 (3.3)	2963 (3.6)	32640 (39.7)	8176 (9.9)	11626 (14.1)	4778 (5.8)	1683 (2.0)	3915 (4.8)	650 (0.8)
전출	80723 (100)	66494 (82.4)	5669 (7.0)	8560 (10.6)	2764 (3.4)	2426 (3.0)	32640 (40.4)	7941 (9.8)	9621 (11.9)	4851 (6.0)	1745 (2.2)	3873 (4.8)	633 (0.8)

〈표 4〉 2002년 남구 이동 인구의 전입지와 전출지 (단위 : 명(%)) 출처 : 2002년, 「인천의 사회지표」

IV. 주안의 주거지 경관 특성과 공간적 분포

주거지로서의 경관적 특성은 주택 형태에 따라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주택의 형태는 크게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간혹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을 추가하여 4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표 5〉는 주택형태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포 수를 인천 전체와 각 구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주안을 포함한 남구의 경우 가장 우세한 주택 형태는 아파트로써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연립 및 기타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이 각각 3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단독주택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대신 공동주택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이 곳 주안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이지은, 2002) 인천 전체의 경우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55.1%), 연립 및 기타주택을 포함하면 공동주택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81.1%) 여기에 비

단위 : 호

2000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기타주택
인천시	614,081	116,237(18.9%)	338,297(55.1%)	159,547(26(%)
중구	17,757	6,811	5,060	5,886
동구	18,171	10,259	5,270	2,642
남구	98,112	28,791(29.3%)	40,186(41%)	29,135(29.7%)
연수구	62,995	4,126	54,056	4,813
남동구	101,170	12,267	55,107	33,796
부평구	123,495	19,454	75,769	28,272
계양구	84,538	5,584	57,317	21,637
서구	83,590	9,077	44,838	29,675
강화군	19,538	15,675	694	3,196
옹진군	4,715	4,193	-	522

〈표 5〉 주택 형태별 가구 분포(199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하면 인천 남구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율이 아직도 높은 편이며, 이는 구도심과 기성시가지의 주거지가 갖는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재개발의 요구와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단위 : %

2000	합계 (인구수)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 (%)	영업용 (%)	주택이외의 거처(%)
인천시	2,422,097	28.4	48.7	11.1	8.6	3.1	0.2
중구	64,099	42.9	26.2	3.8	17.2	8.5	1.4
동구	71,028	63.0	23.9	1.0	6.6	5.4	0.1
남구	399,756	40.7	34.6	11.4	8.8	4.3	0.2
연수구	255,652	18.1	75.3	2.7	3.1	0.8	0.0
남동구	388,447	22.2	48.0	12.5	13.8	3.3	0.2
부평구	519,518	28.8	51.6	11.4	5.1	2.8	0.3
계양구	322,240	13.8	62.3	18.6	3.2	2.1	0.1
서구	329,892	20.9	47.5	11.1	17.3	3.0	0.2
강화군	58,606	78.1	4.1	11.5	1.3	4.6	0.4
옹진군	12,859	86.4	0.0	6.8	0.2	6.3	0.3

〈표 6〉 주택 형태별 가구원 구성비(199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표 6〉 주택 형태별 가구원 구성비를 보면 인천 전체와 남구 공히 주거환경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는 인천과 각 구별 총인구 중 각각의 주택 형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7%의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구는 그보다는 적어 34.6% 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남구의 경우 아파트의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독주택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표 5〉와 〈표 6〉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남구의 거주 인구수에 있어서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단독주택이 40.7%를 차지하고 있어 더 높게 나타고 있는 것이다. 즉, 〈표 5〉와 〈표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구의 아파트 호수(41%)는 단독주택 호수(29.3%)에 비해서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주 인구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단독주택(40.7%)이 아파트(34.6%)에 비해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안을 포함한 남구 지역이 전통적으로 단독주택지역이 넓게 차지하는 주거기능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상업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전통이 지리적 관성으로 남아 여전히 전통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안지역의 공동주택 분포는 〈그림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구 전체를 놓고 보면 외곽지역, 특히 용현동과 학익동, 주안 8동과 6동에 대단지 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주안 8동과 6동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기존의 7동과 1동에서 분리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주안 8동의 경우 승학산을 둘러싸고 있는 고층아파트 벨트의 한 부분이며, 6동은 주안 주공아파트 단지로써 현재는 2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저층 아파트 단지이나 재건축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곧 변신할 예정이다.

그리고 맨션이라고 표시된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은 아파트처럼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안 지역 전체에서 골고루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안 2동과 4동의 단독주택 지역 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은 그 분포 지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 주거 환경의 쾌



〈그림 9〉 인천 남구의 공동주택 분포

적성을 가장 위협하는 주택형태가 바로 이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은 그 경관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건축 지분 소유자의 이기심과 이를 부추기는 소규모 자본이 맞물려, 특히 단독주택 지역을 잠식해 들어감으로써 기존의 단독주택 지역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지워가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2동과 4동은 격자형 가로망으로 필지가 질서정연하게 구획되어있어 여타 지역의 조밀한 도로망과 구별된다. 여기에 용적률 높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채워진다면, 주차문제라든가 인구과밀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대략 아파트 밀집지역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그림 상에서도 확연하게 구분되나, 주안 5동의 경우는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뒤섞여있는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안역을 바로 남쪽에 바로 끼고 있다는 역세권으로서의 조건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인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층의 주거공간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또한 역세권이라는 조건은 주안남역 앞의 주안 1동처럼 상업지역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입지적 장점을 갖는다. 비록 축소되고 있기는 하나 주안공단은 여전히 이 지역의 북쪽에서 활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고려한 토지이용은, 만약 시장 기능의 자율성에 맡겨진다면, 매우 혼란한 모습으로 뒤섞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 지역의 쾌적성을 고려한 장소적 연계성은 거시적인 틀에서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적용될 때 비로소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주거생활은 이미 보편적인 한국의 대표 주거문화로 자리잡고 있다.(이지은, 2002) 신흥 주거개발 단지의 조성 시나 불량주택지역

의 재개발 사업, 기존의 단독 혹은 연립 주택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대부분 고층아파트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3] 이에 따라 도시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의 모습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공적 차원을 넘어 자본주의 투기 대상으로서의 사적인 차원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의 축적을 최대 목표로 하는 상업공간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경관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노동 재생산을 위한 안식의 장이며 공동체 활동의 뿌리하고 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이윤 추구의 논리가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주거지는 공공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일종의 집합적 소비재이기 때문이다. 공공성의 확보라는 대전제 위에 개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의 확보란 삶의 쾌적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물적 조건이 배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안 지역의 주거지들이 과연 공공적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은 무척 부정적이다. 주안을 포함한 인천 및 수도권의 주거지는 폭증하는 인구의 주택 수요을 충당하고자 체계적인 공공성을 고려할 겨를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 형성되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개발 논리에 따르면 주안을 포함한 인천은 외곽의 위성도시로 간주되었으며(권용우, 2002), 따라서 서울에 종속되는

3) 주안에서도 주안 6동의 주공아파트 대단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주안 5동 준공업지역 내에 소규모 아파트들이 파고들고 있고,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혼란스럽게 들어서고 있다. 문제는 공공성을 무시한 자본의 논리만이 판치게 됨으로써 주거지로서의 환경적, 심리적 쾌적성 측면, 즉 주거지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공공성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가 전진삼 선생이 표현한 그대로, "도시공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우려의 상황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전진삼, 2001: 174)

공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입지하는 적지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현재 주안지역의 기능적 혼재 상황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필자는 기능적 혼재라는 혼란한 상태의 주안 지역에서 공공성의 흔적들에 주목하며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의 변신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 주목하고 싶은 곳은 여전히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주안 2동과 4동 일대의 지역이다. 비록 노후화된 단독주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를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곳곳에 흩어져있는 작은 공원과 놀이터, 그리고 주차가 가능할 정도의 상대적으로 넓은 골목길들은 상당 부분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이었다고 보여지며,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개인만을 위한 고립된 거주 공간의 점유와 장식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다. 타자와의 원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거주지 공간구조의 설정이 요망된다 하겠다.

V. 주거지역으로서의 주안의 문제점 - 결론에 대신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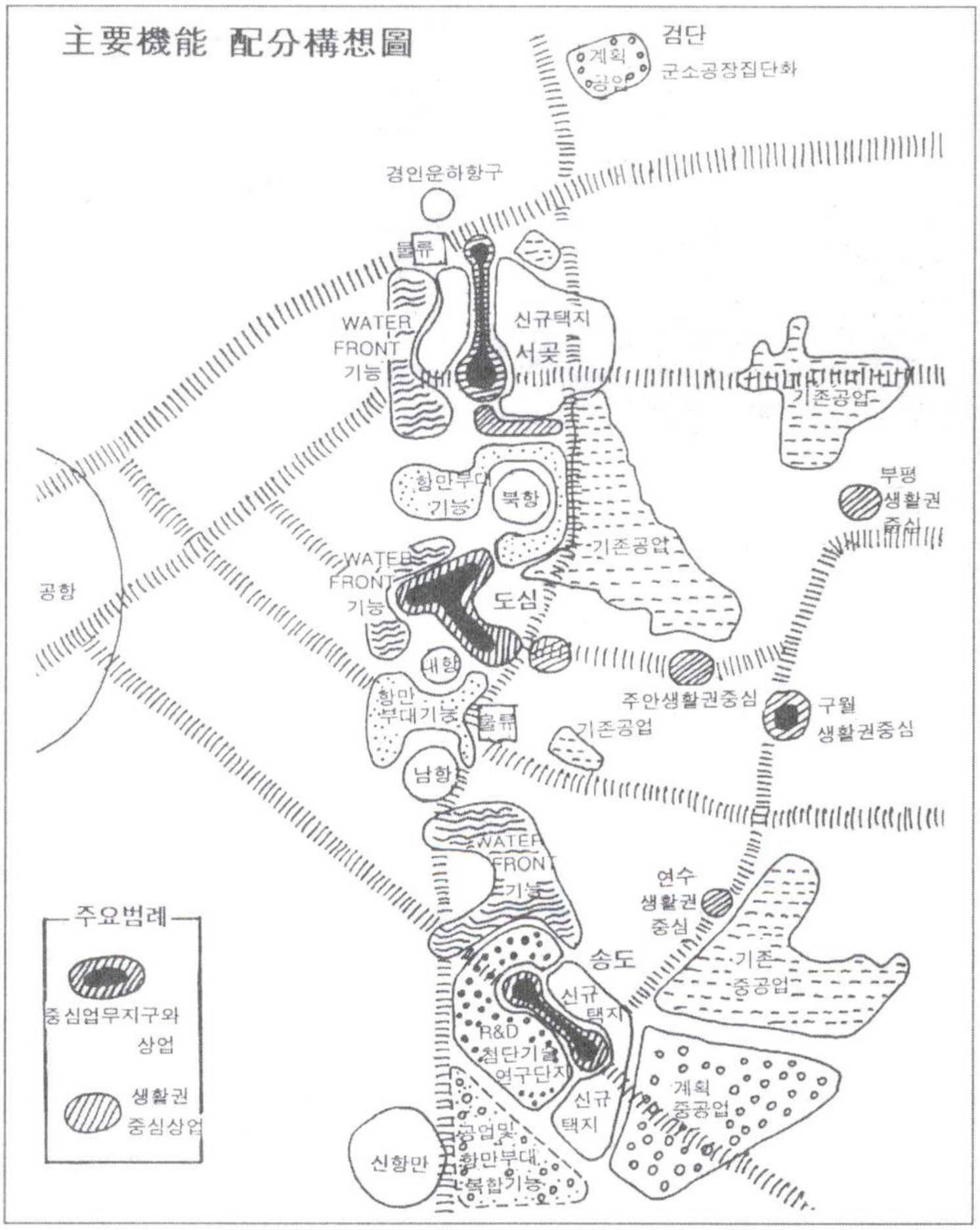
거주지는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들의 집합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거주자 집단의 휴식과 안녕을 제공하여 노동 재생산에 기여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주안에 거주지를 형성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휴식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주안 거주자들에게 있어 제대로 된 도시 주거 기능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

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천의 도시 구조와 주거기능의 효율적 공간 배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주거지역으로서의 주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도시 기능의 혼재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주안에는 상업기능, 주거기능, 공업기능 등이 동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준공업지역으로 주택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주안 5동과 주안역 전면의 상업기능지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주거지가 고립되어 가고 있는 주안 1동의 상황은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주택의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주안 전체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주거기능 전담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주안은 더 이상 인천의 교외지역이 아니며, 세계화 · 정보화 시대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도시 구조 속에서 지리적 중심점으로 새로운 관계적 위치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0) 서쪽으로 신공항과 항만, 동쪽으로 서울과 인접 위성도시, 북쪽으로 기존공업지와 동아매립지의 신개발지구, 남쪽으로 송도신도시가 배열되는 그 중심점에 바로 주안이 있는 것이다.(김대영, 2001) 즉, 그러한 사방의 도시 기능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심 기능들이 입지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다운타운으로의 경관적 변모와 고도화된 기능의 유치를 계획해야 하리라고 본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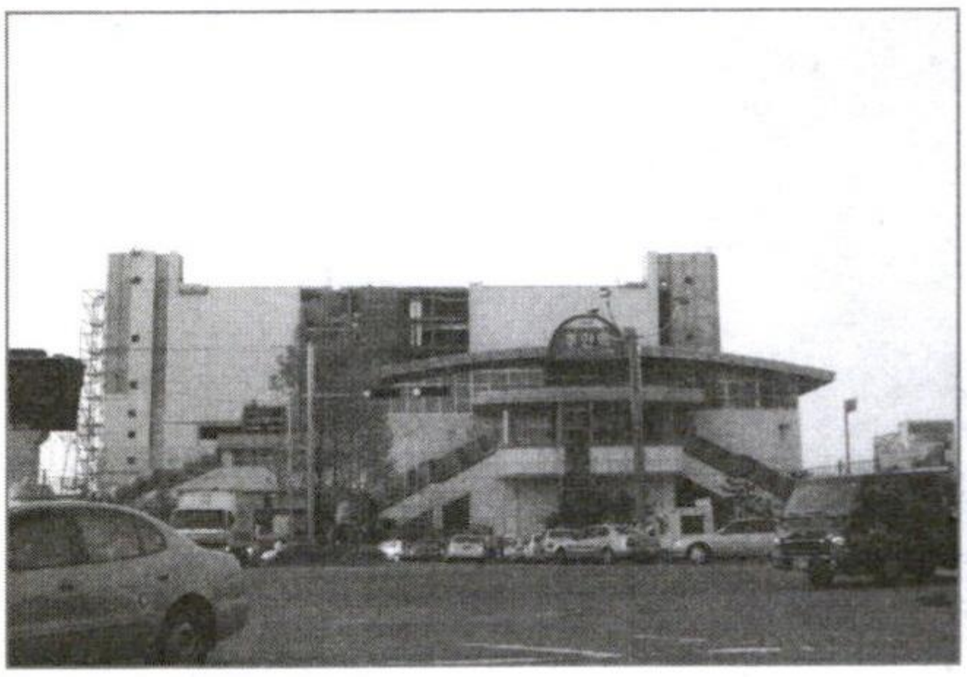
그렇다면 주안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은 어떻게 유지, 혹은 변화되어야 하는

4)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 확정과 관련하여 경인전철과의 환승역을 주안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주안의 지리적 중심성 및 도시기능적 중심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적절한 결절지라고 판단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착공에 즈음하여 주안을 포함한 인천 전체의 도시기능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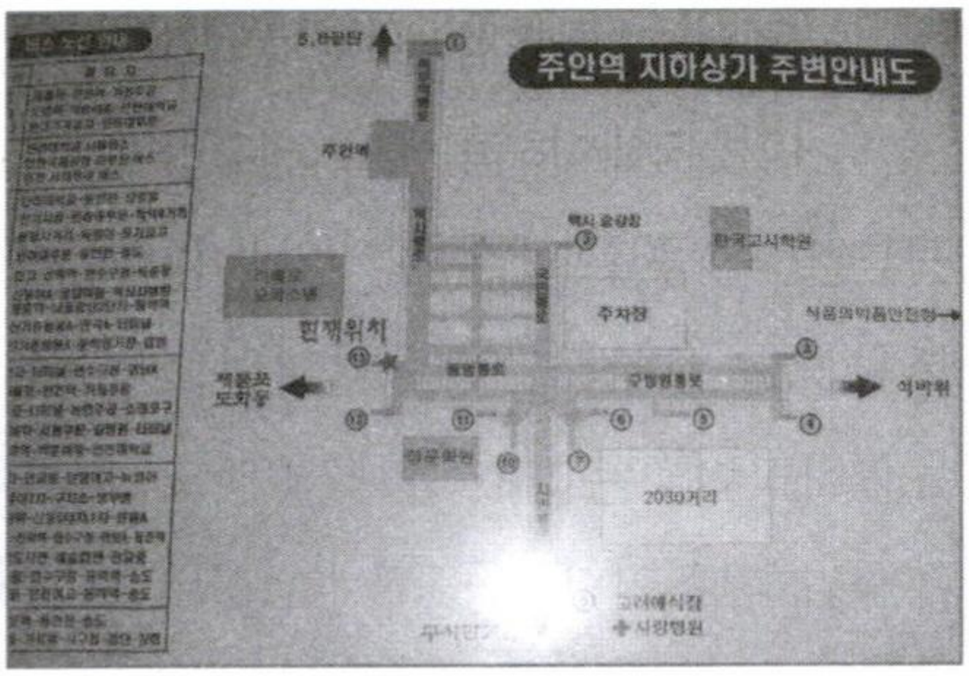
〈그림10〉 인천시 주요기능 배분구상도 출처 : 인천광역시, 1995, p.117

가? 최근 서구 대도시의 도심부 변화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쇠락을 거듭하던 서구 대도시의 다운타운[5]은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도시기능을 유치하고 거기에 고용된 전문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주거지를 인접한 곳에 위치



〈그림 10〉 주안역

주안에는 경인선과 경인국도가 가로지르고 있고, 경인선의 주안역과 경인국도의 시민회관은 주안의 상징경관이었다. 새롭게 옷을 입은 현재의 주안역은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광장과 복잡한 지하상가로 연결되어 모호한 공공기능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림 11〉 주안역 지하상가 주변안내도

주안1동 상업지역에는 다양한 기능과 경관들이 혼재해 있다. 주안의 대표적인 유흥지역을 '2030거리' 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시키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통하여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과밀화되고 노후되어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한 도심부의 주거지가 후기산업사회의 도시재구조화의 과정 속에서 세련되고 쾌적한 주거지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산업화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던 직주 분리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직주 근접의 도시 구조가 새삼 선호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안 지역 내에서도 구역별로 기능별 특화를 유도하고, 이중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인 주안 2동과 4동은 후기산업사회 도심주거단지로의 재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두 번째는 주안 일부 지역의 인구과밀화와 주택의 노후화 문제이다. 이는 특히 주안 남단의 문학산과 승학산의 구릉지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신기촌 일

5) 최근 인천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안과 부평을 "기성시가지"라는 용어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전통 중심지인 원인천 일대의 구도심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중심지라는 의미와 아울러 최근에 개발된 외곽의 대규모 주택개발지나 산업단지, 및 송도신도시와 같은 미래형 개발지역과는 구별되는 기존의 상업기능 중심지역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대(주안 3동, 주안 7동)에서 더욱 심각해 보인다. 이 곳은 도시계획에 의한 주안 개발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저소득층의 주거구역이었고, 따라서 구릉지를 끼고 무계획적으로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내구성을 갖는 주거지는 한번 조성되면 그 구조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결국 노후화된 불량주택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만 그 구조를 부분적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을 터인데, 이 지역은 민간에 의한 재개발의 과정도 소자본의 잉여창출에 급급하여 매우 무계획적이며 불편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택의 노후화 문제와 무계획적 재개발의 문제는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주안지역 전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의 노후화와 무질서한 재개발은 주거지의 쾌적성을 떨어뜨려 거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또한 아울러 거주민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인접한 외곽지역의 새로운 주거개발지와 거주환경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거주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물적 조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의식에 있어서도 공간적

단위:%

	매우심각	심 각	보 통 하지않음	별로심각 하지않음	전혀심각	잘모름
중 구	10.9	46.9	29.7	7.1	0.9	4.6
동 구	7.1	31.8	49.4	7.1	1.8	2.8
남 구	12.1	40.5	38.1	4.3	1.5	3.5
연 수 구	5.3	29.8	48.4	10.5	1.8	4.2
남 동 구	5.6	41.2	41.3	7.8	0.8	3.3
부 평 구	8.9	36.7	41.3	6.1	1.5	5.6
계 양 구	6.5	34.6	43.5	8.2	1.8	5.4
서 구	21.1	42.8	28.4	3.6	0.9	3.2
강 화 군	2.9	16.7	41.7	29.0	4.7	5.1
옹 진 군	8.5	18.3	40.8	16.9	8.5	7.0

〈표 7〉 환경오염요인(전반적인 환경오염) 자료 : 인천광역시「2002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그림 12〉 주안 1동 유흥가

주안역 앞의 주안 1동은 소위 역세권으로써 상업, 유흥지역이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주거지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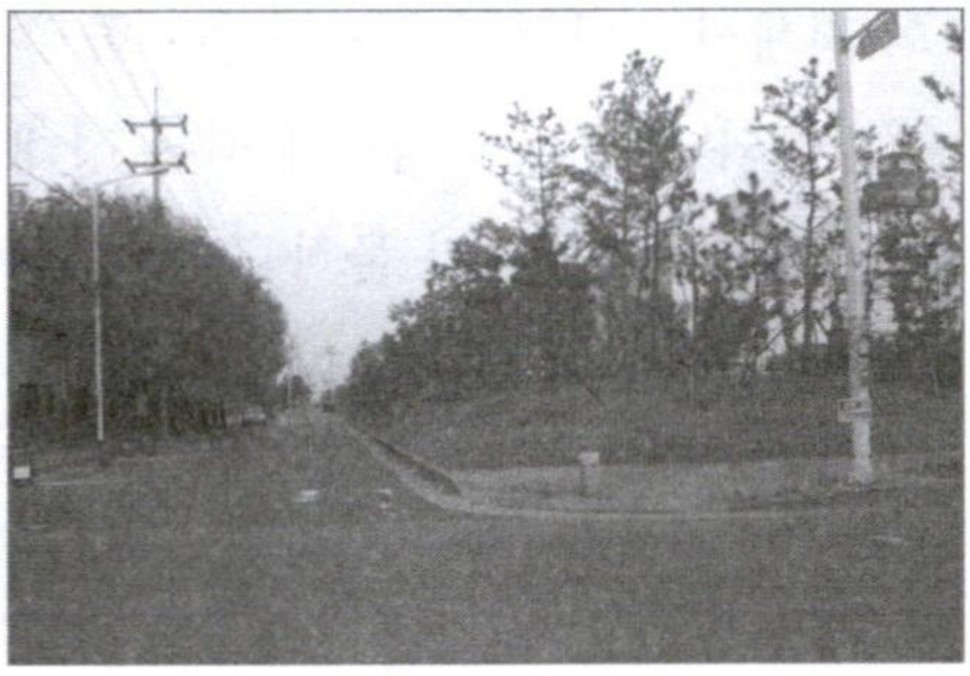
〈그림 13〉 주안역의 지역 분할

경인선 철도는 주안지역을 남쪽(주안 1동)과 북쪽(주안 5동)으로 분할하여 그 기능과 경관의 차이를 유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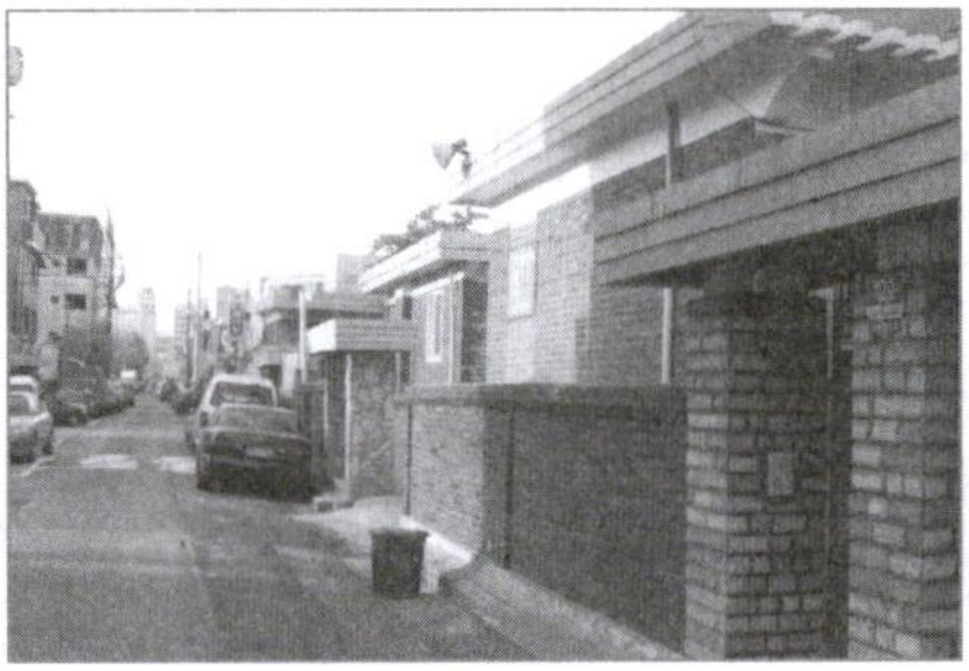
〈그림 14〉 주안5동 상업지역

주안 북역 밖으로 펼쳐져 있는 주안 5동에는 위와 같은 상업지역이 역에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고 주거-상업-공장 혼재지역, 주안공단 지역이 북쪽으로 가면서 특화되어 있다.



〈그림 15〉 주안5동 갯골 복개지

과거에 해수 만입부였던 이 곳은 현재 복개되어 그림과 같이 조경되어 있고 대략 주안5동의 공업지역과 주거-상업지역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공단조성 이전에는 소금밭이 이 일대에 널리 펼쳐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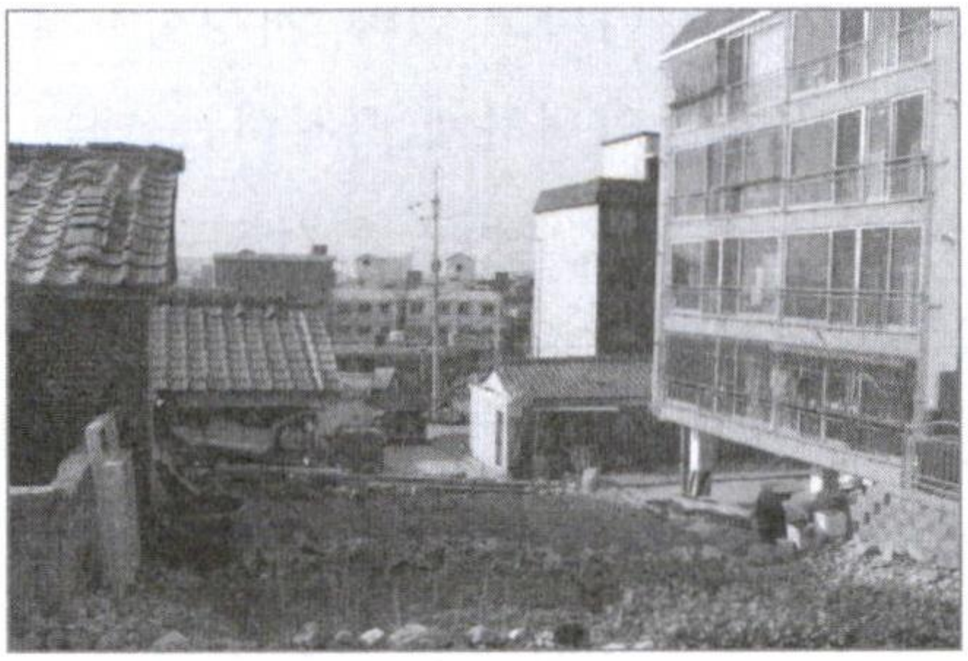
〈그림 16〉 주안4동 단독주택지역

경인국도 남쪽에 인접한 주안 4동과 2동은 격자형의 폭이 넓은 소도로망을 가진 단독주택 탁월지역이다. 최근에는 그림 왼쪽 끝에서와 같이 용적률을 높인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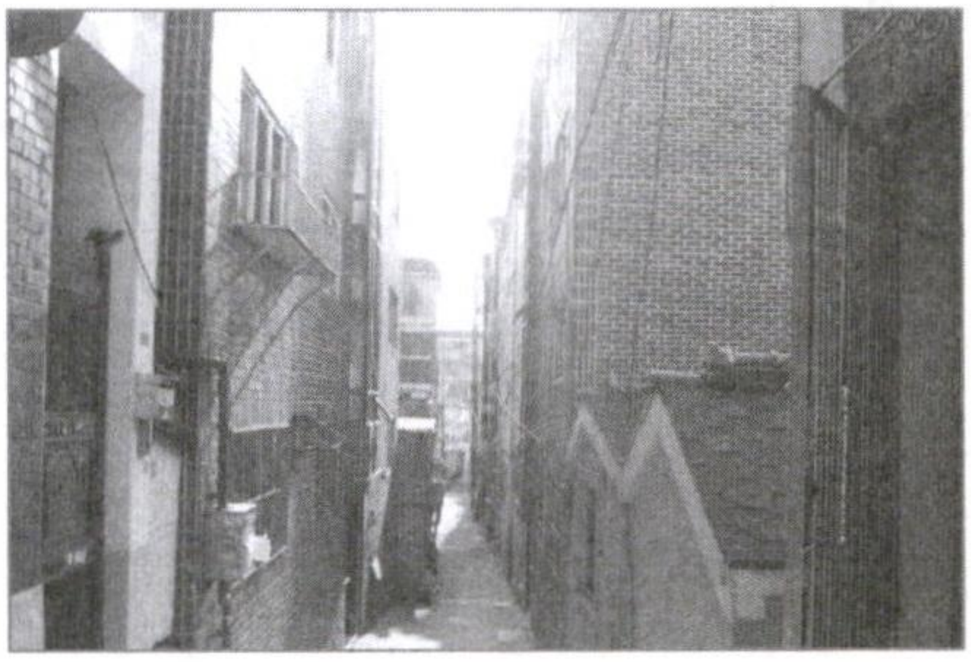
〈그림 17〉 주안8동 저층아파트와 근린공원

승학산 북쪽 산록의 주안8동에는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저층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주안2동, 4동에서와 같이 근린공원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주안3동, 7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해 보인다.



〈그림 18〉 주안3동 주거지역

주안의 남쪽 경계인 주안3동과 7동은 문학산과 승학산의 북쪽 구릉지와 대략 일치하며, 그 구릉지를 따라 주택과 인구의 밀도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텃밭으로 보이는 공터는 주거지로의 토지 이용이 잠시 유보된 공간일 뿐이다.



〈그림 19〉 주안3동 연립주택과 골목길

주안3동과 7동에는 구릉지에 형성된 구불구불한 소도로를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불평등이 고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또한 아울러 집합적 소비재로서의 모든 주거공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적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거주지로서의 주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문제는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이미 기성시가지로 편입되어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의 환경문제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녹지공간도 매우 부족하다.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조성된 주안 2동과 4동, 및 8동 내에 흩어져있는 소공원들과 놀이터들을 제외한다면, 주안지역 내에는 변변한 도시공원 하나 없다. 실제로 〈표 7〉의 2002년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 의하면, 남구 주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성시가지 내의 주거지가 대기오염이나 소음등의 환경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녹지 공간을 더욱 확보해 감으로써 도시기능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면,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의 문제는 주안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이나 문화 정책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문화는 인간 삶의 과정을 윤택하게 해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며, 또한 거주민들을 묶어서 범주화시키는 정체화 작업을 도와준다.(이영민, 1998) 인천 도심의 한가운데 자리잡은 주안의 거주지는 도심 근접성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리한 조건만 있을 뿐 도심을 다채롭게 수놓는 문화 시설이나 문화 공간이 거의 없어 보인다. 혹자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상업 시설만이 중심성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문화가 끼어

들어갈 자리가 있겠느냐고 한탄한다. 도시의 공공성을 힘주어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반문화적 문화 상황 때문이다. 또한 혹자는 주안 지역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문화, 역사 자원이 뭐 변변한게 있냐고 한탄한다. 물론 주안 지역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문화, 역사 자원은 그리 풍부하지는 않다. 하지만 반드시 고유한 전통의 지역 특성에 기대어야만 지역의 문화가 꽃피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도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성물인 것이다. 문화적인 마인드로 도시를 조망하고, 주거지를 가꾸어가는 노력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한국지리: 지방편 I』

권용우, 2002, 『수도권 공간 연구』, 한울 아카데미.

김대영, 2001, 인천의 도시구조 재편과 중심지체계 운영 전략-국제화, 네트워크 도시구조로의 전환, 『2001 인천재발견(하)』, 인천발전연구원, pp. 59-80.

남영우 · 이희연 · 최재헌, 2000, 『경제, 금융, 도시의 세계화』, 다락방.

윤대실, 2000, 인천시 인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1980-19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왕기, 2001, 인천시 공간구조 변화특성, 『2001 인천재발견(하)』, 인천발전연구원, pp. 217-239.

이영민, 1999, 인천광역시, 『한국의 도시』, 법문사, pp. 519-541.

이영민, 1998, 문화환경과 지역발전-인천지역을 사례로, 『지리학연구』, 32집, 4호, pp.121-134.

이현아, 1980, 서울-인천도시회랑의 지리학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이지은, 2002, 수도권 아파트 경관의 형성과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이희연, 1998, 『인구지리학』(4판), 법문사.

인천광역시, 2002, 『2002년도 인천의 사회지표』

인천광역시, 1995, 『인천광역시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도시성장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2, 『인천광역시사 1. 자연환경과 지리』

인천광역시 교원연수원, 1997, 『인천지역 지리조사: 1996-1997 중등 지리과 일반연수 분임연구 보고서』

인천시 · 서울대 박물관, 1990, 『인천-소래 · 인천-시흥 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

인천발전연구원, 2003, 인천광역시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IDI정책연구보고서 2003-09.

인천발전연구원, 2001, 인천광역시 아파트단지 행정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 IDI정책연구보고서 2001-02.

인천시민대토론회 준비위원회(엮음), 2000, 『왜 다시 인천인가-인천 · 삶 그리고 대안』, 다인아트.

전진삼, 2001, 시민공간과 도시철학, 『2001 인천재발견(하)』, 인천발전연구원, pp.171-197.

전진삼, 1996, 주안역과 그 주변의 문화적 접근: 주안역 주변, 그 비무장지대를 위한 담론, 『황해문화』, 통권 12호(96년 가을호), pp. 81-91.

최병목, 1997, 인천의 가구수 변화, 『황해문화』, 봄호, pp. 128-143.

최영준, 1997, 개항기 인천의 도시화와 경관의 변화,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국역사지리학 논고』, 한길사, pp. 377-419.

주안의 도시경관과 거리, 건축

전진삼 (건축비평가, 간향미디어랩 GML 대표)

1. 개요

시청의 이전에 따른 구월동 신도심의 배후 지역이자 인하대학교라는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가로 연결되는—경인선 철도의 인천 내륙을 잇는 주요한 교통결절점이기도 한—주안역의 강화된 위상으로 인하여, 너나없이 쾌속의 발전가능성을 점쳤던 인천의 내륙 중심 지역인 주안동 일대가 지난 20여 년의 도시성장 과정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역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월동 일대의 급격한 발전에 대비되는 주안동의 늑장 발전은 중구청 일대의 쇠락 일로로 치닫던 구도심과 달리 신흥 도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주안염전지구에서 공단지구 및 향락 소비문화지대로의 전개 등)에서 도시의 성장판이 멈춰버린 듯한 이상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그 같은 정황에의 인식은 주안동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 도로상의 거리풍경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각각의 가로 배면에 위치한 키 작은 주거지 모습이 때늦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들로 인한 동네의 스카이라인에 일대 변동이 일어나 정작 도시가 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린 듯한 현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원고는 주안 지역이 안고 있는 이 같은 이상 징후에 대하여 도시경관축선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각각의 건축적 상황의 기질을 판단해보고, 나아가 주안동 동네만들기의 개념과 이를 지원하는 행정부서와 주민간의 관계 및 바람직한 태도의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도시경관의 축

○접근 : 주안동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각각의 길과 건축이 만나는 경관의 특질을 검토한다. 더불어 남구 내의 인접 동, 타 자치구와의 경계지점에서 발하는 애매한 성격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특징 : 주안은 동서방향으로는 대체로 완만하고 평탄한 지형이며, 남북방향으로는 높낮이의 편차가 큰 지형적 특성(남고북저)을 갖는다. 1970년대 이래 30여 년에 걸친 도시개발 과정에서 낮은 산지들이 절토되어 현재는 지역 내에 산지가 없는 대신 일부 경사지에 그 특징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그곳에조차 아파트 단지 등 고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애초부터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도시경관을 지키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의 현장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안의 특징은 비교적 늦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만큼 계획적인 격자형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도시경관의 축도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1. 미추홀길

주안의 대표적인 남북 가로축이다. 송도신도시를 배후에 두고 있는 연수구와 통하는, 문학터널로부터 주안역에 이르는 이 길은 주안의 핵심가로 중 하나이다. 주안역광장 삼거리, 구 시민회관사거리, 신기사거리, 진흥사거리가 가로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건축의 경관적 특이성은 강하지 못하다. 진흥사거



리로부터 신기사거리에 이르는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건축행태가 무시되고 고층의 아파트 단지가 가로면에 진출해 있음은 단점으로 지적될만한 것이다.

신기사거리와 시민회관사거리 사이의 가로 건축은 저층의 상점건축이 주를 이루나 중간지대에 위치한 예식장 건물 두 동과 부속건물이 이색적인 가로 풍경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다시 주안역광장 삼거리로 이어지며 고려예식장의 건물로 연결되면서 미추홀길의 하나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근년들어 주안역 광장 삼거리와 시민회관사거리 사이의 가로에 복합영화상영관과 헤어숍 전문점 등의 경쟁적인 등장으로, 주안역에서 시민회관사거리 방향으로 도시의 활력이 급격하게 번져나가는 중에 있다. 더불어 새로운 건축행위도 잦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주안의 최고 상권과 연결되는 미추홀길은 결정적으로 길의 이름에 담긴 지역의 역사성과 무관한 가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적이 혼란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2-2. 경원로

석바위사거리와 승기사거리를 중심으로 남북을 잇는 가로축이다. 미추홀길과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고저차가 큰 가로의 특성을 갖는다. 가로변에 인

천고와 같은 학교시설이 있어 높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승기사거리와 석바위사거리 주변에 중 · 고층의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 전반적으로 퇴색된 옛 가로의 흔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곳은 석바위사거리를 중심으로 재개발되는 주상복합건물과 주안 주공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개발 분위기를 타고 있어, 현재 고층의 르네상스빌딩이 홀로 버티고 있는 이 지역의 스카이라인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송도신도시로부터 연수구의 외곽도로를 타고 남구의 경계로 넘어오는 이 가로는 현재의 안국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관교동 고개마루에서 석바위사거리까지를 원근감으로 조망할 수 있어 도시경관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한 리트머스지가 될 개연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르네상스빌딩 주변, 기존의 중 · 고층건물 측면이 이곳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도 쉽사리 살필 수 있다.

2-3. 한나루길



도화동과 경계에 있으며 경인로와 만나는 길이다. 용현동, 학익동, 주안3동 방향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진입

코자 하는 차량을 받아주는 길로, 길의 규모에 비해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길이다. 인천기계공고의 긴 담장이 가로 환경의 특이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가로에 면해서는 대체로 3 · 4층 규모 안팎의 쇠락한 입면의 저층 상업시설들이 상당수 분포되어 있어 가로경관의 질은 특히 불량한 편이다.

2-4. 주안역길



주안역과 광장 삼거리를 중심으로 경인선 철도라인과 평행한 동서방향의 가로축을 지지하고 있는 길이다. 철도역사에 인접하여 학원가 및 오피스텔 등이 이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주안역 광장과 맞닿아 있으며, 현재는 택시 승강장과 주차장이 광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곳에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안역에서 문학터널을 경유, 연수구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버스전용차로와 급행버스 등 신교통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역 광장의 절반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공영주차장이 폐쇄되고 그곳에 녹지대가 조성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쉼터 및 만남의 광장이 꾸며질 것이다. 그럴 경우 이 광장은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선이 주안역과 근접 배치되는 이점도 있지만 그와 함께 모처럼 공용주차장으로부터 회복한 역 광장이 복

잡한 이들 대중교통라인에 점거되어 졸지에 접근성이 자유롭지 못한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다.

철도역사라는 교통건축의 상징성은 물론이려니와 그로 인한 풍부한 유동인구가 이 길로부터 내륙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주안역 길의 대표 경관 가로로서의 발전 잠재성은 농후하다. 그러나 현재 가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경관의 질은 여러 시간대의 건축 단층이 확인되는 등 딱히 성장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듯한 인상도 강하다. 또한 15층 이상의 오피스텔 및 오피스가 광장의 주변에 건립되어 있어 향후 이 지역의 고층 건물 밀집도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 법원 앞 고가교 주변에는 고층의 아파트가 여러 채 세워져 스카이라인을 흔들고 있는데, 이는 주안 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에 의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면 이 일대의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평구 방향에서 남구로 진입하는 고가교 위에서 볼 때 이들 고층 아파트 단지 입면과 마주침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기적으로 이들 아파트의 색채계획에 대하여 자치구가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2-5. 경인선 철도 구간

도시경관을 가늠하는 중요한 축 가운데 경인선 철도 주변의 건축적 상황이 무시될 수 없다. 주안동 지역에 걸쳐 있는 철도구간의 좌우에 놓여 있는 건축물들의 상황은 외견상 특히 좋지 않다. 저층의 허름한 주택들과 다세대주택 및



고층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등이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 지는 주요 건물들이다. 대개는 철로변에 설치한 방음벽 시설로 가려져 있으나 비교적 철도라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주안이라는 도시이미지를 전달하는 전위에 이들이 위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들 철로변에 근접한 밀집 주거군은 외벽면의 색채계획 등 환경개선의 여지가 많은 곳임에 분명하다. 또한 철로변 방음벽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투시형 디자인의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재질 등의 활용에 대하여 철도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2-6. 석정로

주안역 배면의 길과 한 블록 뒤의 석정로는 그나마 주안역광장 삼거리의 분위기에도 편승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동네 분위기가 침체된 가로적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안동 전체에서도 이곳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늦음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주안역 북부 진입로에 연결되어 리모델링 공사 중인 대형 상업시설의 완공이 경인선 철도에 의해 지역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폭이 클 것이라고 기대된다.

2-7. 염전길

옛 주안염전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동서방향의 길이다. 현재는 공장지대와 주거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거리의 풍경이 지배적이다. 주안역을 중심으로 배면에 위치한 지역인 데서 오는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이 걸림돌이 되어 왔는바, 현재로서는 석정로와 함께 도시건축의 경관적 측면에서도 특이성이 없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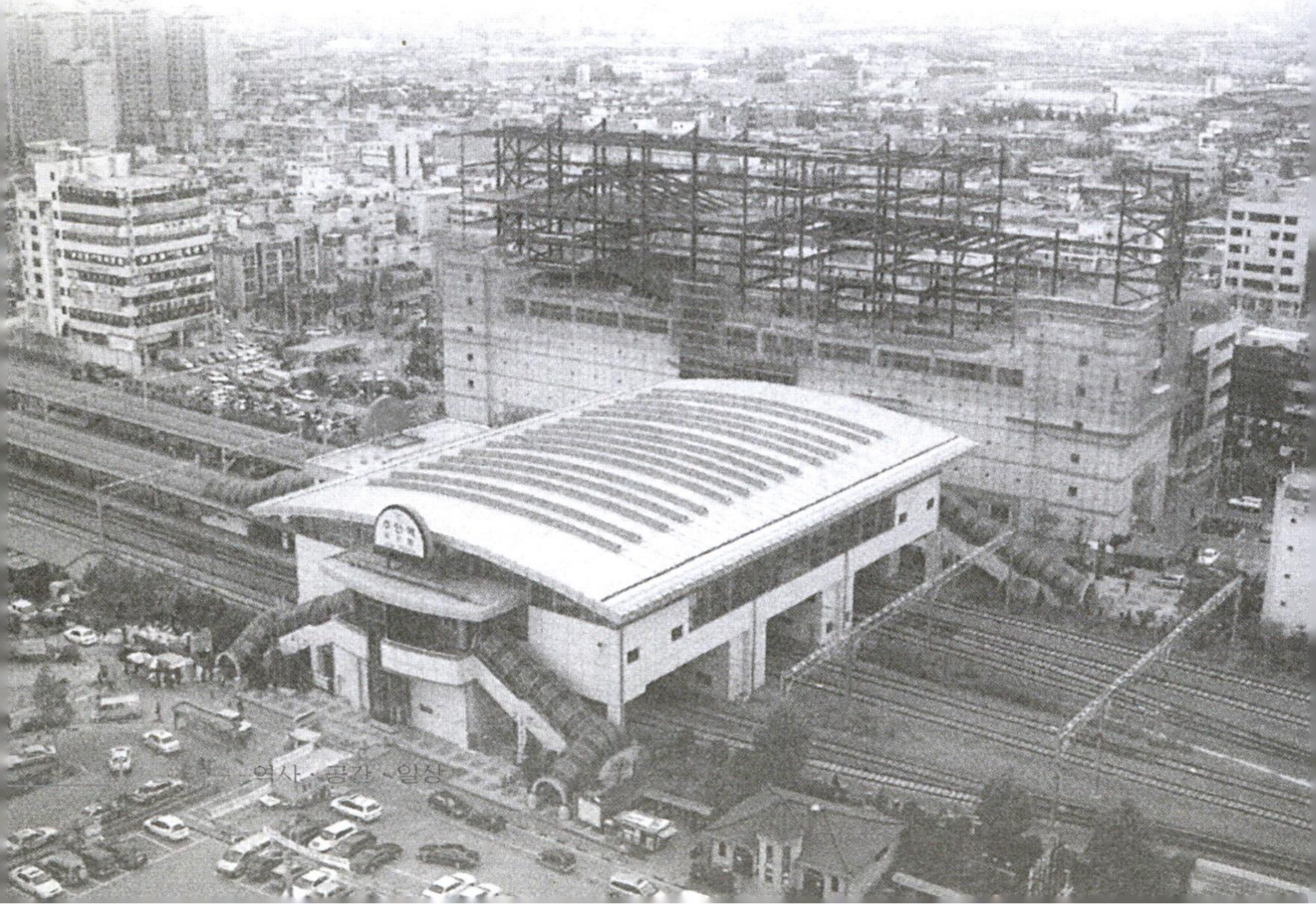
2-8. 경인로

주안의 대표적인 동서 가로축을 형성하고 있는 역사가 오랜 길이다. 이곳은 한때 인천의 테헤란로라고 불려질 만큼 금융권 사옥의 집중과 그것들의 가로 전면 배치로 인해 거리의 활력이 넘쳐나던 시민회관 사거리와 석바위사거리 구간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금융권 가로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성장이 정지된 가로로 인상지워지고 있다.

오랜 세월 도시성장에 따른 경인로의 확장과정에서 주변 가로 건축의 기형적 성장과 신축건축물들의 공존이 함께 이루어진 이 가로에는 시민회관 사거리에 대한생명빌딩, 교보빌딩 등 인천의 고층건축물 시대를 이끈 주요한 빌딩들이 자리잡고 있어 여전히 이 지역의 랜드마크적 스카이라인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인주로

비교적 늦게 주안의 도시성격을 확대시킨 용일사거리, 신기사거리, 승기사거리로 이어지는 동서가로축이다. 현재까지는 가로 건축에 이렇다 할만한 변화를 선도하는 중 · 대형 건축물들이 입지하고 있지 않아 평온한 가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은 경인로에 비할 바 아니지만 인천의 신도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구월동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향후 급격한 발전이 점쳐지는 지역적 특성을 갖춘 곳임에 분명하다.



2-10. 인하로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동서 가로축이다. 인하대로의 실질적인 진출입 도로이기보다는 인천의 중심대학가로 접근하는 상징성이 강한 가로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진흥사거리에서 제운사거리에 이르는 주변 가로의 발전이 더뎌 길의 명칭에 버금가는 도시건축의 징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경인로 및 인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좁은 것도 이 지역의 경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2-11. 제일시장길(도화동 지번)

경인로 주안사거리로부터 한나루길로 이어지는 길로 수봉산의 자연경관축을 품은 삼각주 형태의 도시 섬(island)을 이끄는 길이다. 개인적으로 경인로에서 분기되는 이 길의 건축상황이 주안동 일대의 도시이미지를 견인하는 중요한 상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롯데월드타워빌딩과 저층의 제일시장이 그 안의 중심된 경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바로 옆에 최근 공사 중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 시각에서 경인로와 제일시장길이 만나는 꼭지점에 해당되는 도화동 442번지 일대—지금은 2층 규모의 낙후된 건물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향후 개발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는 건축물의 상징성이 충분히 연구되어 지구단위계획 차원으로 도시설계가 전개되어, 이 지구 일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주안동 일대의 도시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는 지번상 주안동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도화동의 가장자리edge라는 점에서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아우르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3. 건축 상황의 진단

○접근 : 주안동의 오래된 거주형태의 실체라고 규정될만한 단독주거지를 살피고, 그것이 최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화 하는 경향을 일별하고, 중 · 저층의 상업시설들의 상황과 중 · 고층의 업무시설 등에 나타난 건축 표징을 검토한다.

○특징 : 주안동 일대의 건축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모텔건축의 미학' 에 지배당하고 있는 기이한 경관구조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주목할 만한 건축물이 부재한 주안에서 그나마 몇몇 모텔건축의 디자인 언어는 건축의 현재성과 리얼리티의 실체를 담고 있어 눈길을 줄만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여 모텔건축의 미학이 전적으로 옹호될 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다.

또한 몇몇 단독주택지의 신 · 증축 주택과 교회건축에서 이 지역의 희망적 조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의 점증과 홍보 및 지원 여부에 따라 주안의 도시이미지가 질 높은 거주문화의 표본도시로 향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3-1. 저층 주거시설



주안동 일대는 대부분 1~2층의 저층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최근 1970년대에 걸쳐 지어졌던 개량형 단독 국민주택들이 건축물의 노후화와 사회적으로 투기성 부동산 개발 심리에 편승하여 필지합병을 통한 개발방식이 성행하는 추세를 타고 대거 다세대 주택지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다. 문제는 이들 건축된 다세대주택 혹은 공동주택이 그것의 특성을 일별하기엔 애매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양질의 주거시설을 공급하려는 의지에 앞서 부동산의 재화 생산성에 급급한 민간의 개발패턴으로 인해 주안에서 이 시대의 공동주택의 표본으로 삼을만한 좋은 사례를 갖춘 경우를 찾는 행위는 무의미하다.

이는 주안지역에만 국한된 특이한 현상은 물론 아니다. 오래된 단독주거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치구의 인식결여가 도시동네의 개발바람을 탄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기본 요구에는 손을 들어준 격이 되었으나, 그렇게 해서 개발되어진 동네 풍경은 디자인 인식이 결여된 주거지 개발패턴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집에 대한 주민 계도가 특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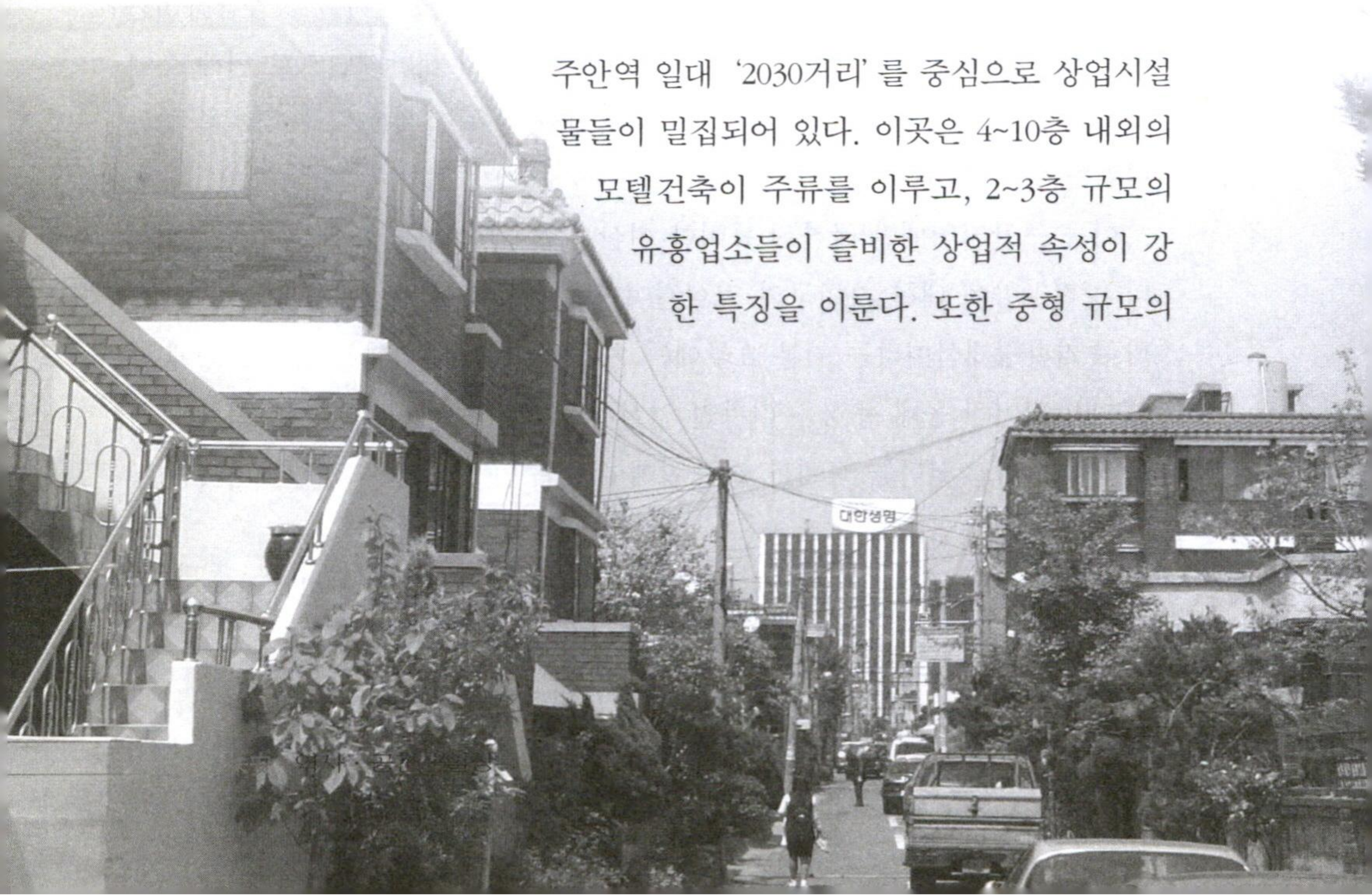
이는 법조항에 묶여, 무엇이 도시동네의 바람직한 발전모형인가에 눈을 뜨

지 않는 일선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처리방식도 되돌아보아야함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별히 주안동 515-8번지의 근년에 리모델링된 단독주택 '소월재' 의 경우는 기존 저층 주거의 형식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일부 증축과 집의 대수선을 통하여 동네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킨 좋은 사례라는 점에서, 앞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권장을 위해서라도 주목할만한 사례로 추천하고자 한다. 이후 이 같은 모범 사례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 혹은 자치구 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과 필요하다면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 제도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중 · 저층 상업시설

주안역 일대 '2030거리' 를 중심으로 상업시설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곳은 4~10층 내외의 모텔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2~3층 규모의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상업적 속성이 강한 특징을 이룬다. 또한 중형 규모의







사랑병원건물과 고려예식장 등 다양한 성격이 도시의 혼잡도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몰려드는 인파의 속성도 이 같은 건축물들의 성격과 다르지 않아 시간대의 차이를 두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북적인다.

특히 인하대 학생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주 중과 예식장 및 거리의 주점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주말의 뚜렷한 공간 이용자의 차이는 '2030거리' 의 프로그램이 흥미를 끄는 부분이다. 딱히 대학문화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문화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애매성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 · 저층 상업시설 건물들의 내외부에 드러나는 표정도 혼성의 도시적 성격으로 겹겹이 쌓여, 인천 전 지역에서조차 잡종성의 대표적인 가로 문화로 대외적 이미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이곳의 도시이미지가 고착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주안의 도시이미지가 주안역 일대의 상업적 속성으로 인해서 도시의 활력이 더해지고 강렬한 느낌을 외지인들에게 주기 위한 전략적 개선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면, 중 · 저층 상업시설 간판 등의 디자인 통합과 건물 조형의 개별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3-3. 중 · 고층 업무시설

미추홀길과 경인로가 만나는 시민회관 사거리를 중심으로 비교적 고층의 건축물들이 포진해 있다. 주안동 일대의 도시 스카이라인은 이곳으로부터 동서로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몇 해 전 시민회관이 헐리고 그 자리에 근린공원이 생겨 도시의 여백으로 시민에게 돌려진 바 있는 곳이다. 최근 미추홀길의 주안역 방향으로 고층건물들이 집중적으로 신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도시 스카이라인의 축은 발전성향이 위축되어 있는 경인로보다 미추홀길의 남북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등장한 업무시설의 고층건물에 나타나는 디자인의 특이성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기존의 고층 건물들이 보여주는 형태언어는 유감스럽게도 국내외 주요 건축물의 카피 혹은 차용의 수준(시저 펠리 작(作)의 아류 혹은 알도 로시 건축의 카피 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최근 지어지는 15층 이상의 오피스텔 및 오피스 등에서 건물외관의 디자인이 다양

해지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지만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나마 있어온 신성타워빌딩과 같은 상업시설들은 차제에 외관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야 할 만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4. 도시동네의 표정관리

○접근 : 실제적으로 주안의 동네분위기를 리드해나갈 주요한 시각적 대상의 선별을 통하여 자치구의 환경문화적 정책 방침을 검토해본다. 보행자와 차량이 섞이는 길의 관계, 집과 담장의 경계에 대한 이해, 간판 등 시각장치물, 야간 경관 조명에 이르기까지 도시건축의 주요한 요소들을 아우르는 것이다.

○특징 : 주안동은 비교적 격자패턴의 도시형 주거지가 발달된 장소적 특징을 갖는다. 그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하는 골목길도 함께 발달되어왔다. 최근 공동주택의 급증과 함께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온 동네의 골목길이 비좁을 정도다. 자치구에서도 거주자 우선 지정주차제도를 도입하거나, 지역 단위의 공용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자치행





정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골목길의 확장을 통한 주차공간의 확보와 마을 분위기를 밝게 하려는 담장 허물기 운동이 권유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실천은 미미하다. 또한 지역 발전의 정지 현상이 오랜 만큼 가로의 시각장치물들도 세월의 단층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4-1. 골목길과 담장

주안동은 지어진 지 30년 내외의 단독주택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각각의 택지 사이를 잇는 골목의 체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해 골목길마다 주차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긴 하나, 점차 거주자 우선 지정주차제도의 정착과 마을 공용의 통합주차장의 시설 정비로 대처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의 한가로운 골목길의 문화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이곳도 타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 있어온 단독주택지의 경우 집의 벽체와 담장이 붙어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체로 사람의 평균 눈높이 이상의 견고한 담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분적으로 주택의 신 · 증축 행위를 통하여 등장하는 최근의 단독주택들은 담장의 높이가 현격히 낮아진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디자인된 담장과 식재가 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채로운 것이었다. 다세대 주택들은 최대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상 별도의 담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신 건물 1층에 필로티 형식을 띤 주차장을 시설하여 통행인의 눈높이에서 개방감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발하고 있음도 특기할 만한 것이다. 또한 법정 조경면적의 확보가 전제되었겠지만 부분적으로 거주민의 자발성이 돋보이는 예쁜 화단 가꾸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와 함께 벌이는 담장 허물기 운동과 무관하게 거주민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골목길 가꾸기의 상황으로 시 혹은 구에서 주민들을 계도하는 방향에 다양한 시선이 필요함을 담고 있는 것이라 사려되는 것이다.

4-2. 간판과 쇼윈도우

대체로 가로변 상점 간판의 무분별한 설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부분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가 함께 도시이미지 특화에 신경을 쏟아야 할 대상이다. 이는 상점건축의 쇼윈도우 디자인 패턴과도 맞물려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럴 경우 도시설계 차원에서의 자율적 디자인 계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공 등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인천 전체의 디자인 통합 조정작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자치구 차원의 CI 작업이라도 가능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거리 간판의 수준은 전국적 기업 혹은 지역 및 자가 업소의 정보전달에만 국한되어 있어 형태, 색상, 재료 등등에 있어서 시각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로써 도시 가로의 경관이미지가 저급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될만한 것이다.

4-3. 야간 경관 조명과 가로등

주안역 일대의 상업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야간 경관 조명시설의 수준을 검토하고 도시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는 그나마 업소들의 호객행위에 전전긍긍하는 야간조명으로 그 효과는 도시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기능성이 약하다. 적어도 주안동의 가장 핵심적 교차 가로로 부상해있는 시민회관사거리의 주요 고층건축물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 조명의 시범사업을 벌여볼 만하다. 그 경우 도시의 랜드마크적 스카이라인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빛 설계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가로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디자인 등에 자치구의 역량이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알아보고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대

화를 통해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5. 제언

5-1. 자치구 도시건축가 제도화

주안동 일대의 도시건축적 상황은 바람직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각각의 가로가 지닌 경관축은 선명한 특색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그 배면에 있는 주거지와 연관해서도 도시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상업 간판의 난삽한 퍼레이드와 그 주변의 투기적 도시의 표정은 자칫 이 도시의 정체성을 지워나가는 악역으로 전횡될 소지가 많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슬기롭게 제어하고 계도하는 바람직한 도시성장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도시환경디자인의 방향을 리드하며 일정한 권한을 실은 '자치구 도시건축가' 의 위촉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제안한다.

자칫 '자치구 도시건축가' 제도의 정착이 기존의 도시건축 관련 심의기구와 상충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 경우 충분한 연구검토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나 근본적으론 기존 심의기구 시스템의 전면 수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2. 동네 만들기의 주민 지원 제도화

신도시를 제외하곤 도시의 자생력을 견인하는 것은 관련법과 제도 이전에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자기 집과 동네에 어떤 모습으로 기여하고자 하느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동네의 표정이 일거에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담장 허물기 운동도 그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비추어볼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담장을 허무는 목적이 주차장의 부족과 동네 골목길 분위기의 쇄신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우회적인 접근, 즉 기존 담장의 보수 등 노후화된 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와 자치구가 주민의 의지를 보조하는 제도도 일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순전히 주민 자발적인 의지력에 의하여 동네가 바뀌어가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3. 낮과 밤의 고른 도시경관의 질 유지 제도화

도시경관의 설계가 성공하려면 낮과 밤에 걸쳐 공히 효과적이어야 한다. 이는 적절하게 개인 소유 건축물들의 협력을 유도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예상된다. 특히 야간 경관 조명의 경우 전력사용비 및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야간 경관 조명설계의 경우 일반 유흥가 조명시설들과 달

리 도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추출하여 그것으로부터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함으로 야간경관 조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특화시키는 등, 사전 조사연구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6. 맺음말

"사람들은 좀더 기능적인 면의 충족을 위하여 공동체의 삶을 대변해줄 건물을 원하며, 기념비성과 즐거움과 자부심 그리고 자극적인 사건들을 바라는 열망이 충족되기를 원한다." 이는 근대건축 초기 세계적 건축가들의 집단행동인 CIAM 8차 회의(1951)에서 '도시의 심장' 이라는 의제의 주요개념을 요약한 내용이다.

나는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도시의 기념비성에 착안한 '사건으로서의 건축적 성취' 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시 성장의 열망에는 이처럼 주민들에게 자극적일 수 있는 건축적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안동 일대의 환경개선사업이 자치구 자체 역량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이 같은 한계는 도시동네의 발전에도 제동을 거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만들기 의지와 행동을 결집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전교육과 지원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주안의 도시경관은 (남구 전체가 직면해 있는 공통의 문제점으로서)

도시의 성장판이 일시 멈춰버린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금껏 평지에서 저층의 건축 상황을 유지해온 이 지역 일대가 자칫 난개발의 요주의 장소로 지목될 수 있다(이미 그 같은 증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는 것하고 통하는 시각이다. 건물의 '기념비성' 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부터 '즐거움과 자부심 그리고 자극적인 사건들' 을 기다리고 키워가는 민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주안의 도시구조와 공간

- 주안역세권의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

이형복 (도시계획과 연구위원, 전 인천발전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1. 들어가는 글

도시민은 시간 속에서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또 도시공간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 만큼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도시공간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탄생의 시기를 거쳐 성장을 하고 풍요했던 시기를 지나 언젠가는 소멸한다. 이것은 동서양의 고금을 떠나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변 여건에 따라 성장과 멈춤을 반복하면서 긴 시간 속에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인간과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주안역이 위치한 지역은 1907년 이전까지 충훈리라고 불렸지만, 기차역과 염전이 들어서면서 주안이라 불리기 시작하였고 사람이 모여들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주안도 점차 변해갔고,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염전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도시의 틀을 갖추었으며, 1968년

남구 개청의 시작과 함께 현대적인 신흥도시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안 역시 하나의 도시로서 급격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특히 산업단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생활터전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긴 시간 동안 수행해왔다. 주안은 2004년 현재 행정동 8개를 가질 정도로 도시의 물리적 팽창을 거듭했다.[1] 이에 따라 주안역세권은 남구의 중심시가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인천의 구도심(중 · 동구)에서는 도시 중심기능의 이전 및 주거지의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중심시가지의 공동화를 초래, 심각한 도시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인철도 개통과 함께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주안 중심시가지 역시 변해가는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아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고 도시 쇠퇴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비록 주안은 주거지의 교외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인천시 전체의 중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업무기능이 구월부도심지역으로 속속 이전됨에 따라 상권지역의 침체와 도시기반시설의 쇠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주안 역시 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도시의 중심시가지는 문화, 상업, 행정, 교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시설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문화적 · 역사적 축적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유효하게 확보 이용하는가가 도시가 성

---

1) 2002년 현재 주안동(행정동 8개동)은 남구 전체 면적의 24.21㎢ 중 6.17㎢로 약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7개의 행정동(숭의동 2.15㎢, 용현동 4.05㎢, 학익동 5.46㎢, 도화동 3.85㎢, 관교동 0.95㎢, 문학동 1.57㎢)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역시 163,763명으로 남구 전체 인구 432,716명 중 37.8%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에 비해 차지하는 인구가 많은 고밀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하는 데 있어 중요할 것이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나 상인들이 홀로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창의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성격의 문제이며 또한 국가 차원의 도시정책 · 지역개발 등과도 관련되는 복잡한 주제이다.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해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공간의 기능형태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며,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안지역에서 최근 들어 미추홀길 중심으로 복합쇼핑몰 2개소가 개장 예정이며, 9개관 규모의 복합영화관이 개장하였고, 앞으로 2개 극장 17개관이 개장 예정이어서, 주안역세권은 영화, 문화, 쇼핑이 복합된 도시공간의 형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의 하나로서 '2030거리'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 시지정 특화사업으로 선정, '2030가' 로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특색 있는 '2030거리' 로의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주안역세권은 확실히 새로운 경제활성화 요소와 지역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남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안역세권이 침체의 기미가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도시구조 특성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재생가능 잠재력을 모색해보고, 주안역세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대책으로써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한정된 주안역세권의 도시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어 단일용도 편중이 아닌 주변지역의과 연계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남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활기찬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에 본 글의 목적을 둔다.

2. 주안역세권의 의미와 역할

일반적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연구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도시교통의 특성에 따라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도시철도의 결절점이 되는 역을 중심으로 여객과 화물이 집산하는 공간적 범위인 역세권의 개념을 이용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역세권과 유사한 개념의 도시공간구조인 판매시설의 상권, 또는 도시시설의 시설이용권 등을 이용한 연구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간구조 속에서 역세권이 갖는 비중과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안역세권 역시 남구 내에서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는 도시구조 안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의 근대화 및 산업화를 거치면서 소비사회가 도래하여 주안역 주변으로도 현대적인 상권이 형성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근의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의 학생들과 공단지역의 근로자들이 전철을 자주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재의 상권이 형성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인천광역시의 3대 상권(동인천역, 부평역, 주안역) 중 하나이며, 남구에서 가장 번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안역세권의 범위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주안역까지 미추홀길을 중심으로 좌우 600m 정도이고, 주안역 북편으로 석정로와 주안역 사이의 염창1길~염창4길 사이의 블록을 범위로 볼 수 있다. 역의 북쪽으로도 상

권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미미한 상태로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형 상권으로 남쪽의 상권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인철도 개통과 함께 주안역세권은 교류의 중심지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만남의 장 역할과 주변지역에 있어서 핵심지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승교통시스템 추진 정책에 의해 주안역세권은 만남의 장이기보다는 간선교통시스템 이용을 위한 환승역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간단하게나마 지금까지의 주안역세권의 역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철도역사가 교통의 중심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소도시와 농촌 배후지간의 교통결절점으로서, 도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안역사 역시 서울을 잇는 관문의 역할과 주변의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중심시가지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규모는 작지만, 주안역의 역전 광장을 중심으로 만남의 장이 조성되었고, 집회 및 문화행사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추홀길을 중심으로는 양호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져 지역경제를 선도하였고 인천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셋째로는 청소년을 위한 휴식·여가의 공간 역할을 들 수 있다. 역세권과 유흥 및 향락업소는 불과분의 관계인지도 모른다. 많은 지방의 역주변으로 유흥가가 형성되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주안역세권에 형성된 상업지는 다른 역 주변의 상업지와는 달리 적극적인 구정의 지향에 따

그림1. 주안역세권 현황 및 잠재력



라 건전한 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청소년을 위한 휴식 · 여가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3. 주안역세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성장잠재력

최근 젊은층은 새로운 문화와 여가문화를 위해 주안역세권보다는 구월동 등에 형성된 새로운 문화여가공간을 선호하고 있다. 주안역세권이 다시금 젊은층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신선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주안역세권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린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안역세권의 미추홀길 주변은 전문학원가와 '2030거리'가 위치하고 있어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와 연계된 도시공간이나 공공서비스시스템 및 문화공간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젊은층의 급격한 여가문화 변화에도 원인이 있으나, 도시시설의 노후화와 지역상권의 정체성 부족 등으로 인한 주안역세권의 매력상실이 젊은층의 유동인구 감소 추세를 부추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1) 주안역(주안역 + 주안역 지하상가)

교통결절점으로서 주안역의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03년 12월 현재 78,200명/일이며, 전체 이용객 중 지상이 31,280명(40%), 지하가 46,920명(60%)이다. 남광장과 북광장의 이용은 남광장이 54,740명, 북광장이 23,460명으로 7: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이용객 비율은 지상보다는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지하로의 이용률이 높고, 주안역 전면광장인 남광장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주안역 북편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적어 주안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히 남북균형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통량 측면에서 주안역사거리의 교통흐름을 보면, 오전 첨두 교통체증시간Rush Hour, 7~9시 법원 방향으로의 택시 불법 주정차와 버스정류장의 문제로 인해 상당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주안역에서 환승을 위한 511번 버스(인하대↔주안역)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인하대학교 통학생들이다. 버스 정차횟수는 540회로서 다른 주안역 경유버스보다 상당히 높은 배차율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주안역 공원 앞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 정차시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 특히 동시간대에는 여러 대의 511번 버스가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까지 생겨서 계속적인 정체를 발생시키고 있다.

『2002년 인천시 통행 실태조사』를 통해 주안역의 문제점을 보면, 주안역 접근수단분포에서 도보와 시내버스(지선)에 의한 수단이 3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내버스(간선)가 18.3%, 지하철 14.2%, 승용차 3.3%의 순이었다. 택시에 의한 접근은 0.8%로 상대적으로 적어 접근별 교통수단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안역의 환승여건을 보면 평균 환승거리가 약 358.6m로 인천역이나 동인천역, 제물포역에 비해 평균 환승거리가 길고, 평균 환승소요시간은 약 4.9분으로 인천광역시내 경인전철 구간 중 높은 편에 속해 환승주차장의 조정 및 교통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 가장 중요한 상권의 하나이며, 백화점 기능을 대신해온 주안역 지하상가[2]는 면적이 12,411㎡으로 49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출구 13개소에

버스정류장 7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지하상가의 주된 상품은 귀금속, 의류, 악세사리로 10~20대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인포파크에서 조사한 자료[3]에도 주안역 지하상가는 10~20대의 유동인구가 지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안역 지하상가의 문제점으로는 시설 노후와 출입구 협소 및 장애우 및 노약자에 대한 서비스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보행통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업시설(간이가판대 및 의류디스플레이 기구) 등이 보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통행 쾌적성을 낮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상가 내 유입 인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시설노후화로 인해 화재발생시 화재위험이 높고 대피동선이 길어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과 같은 참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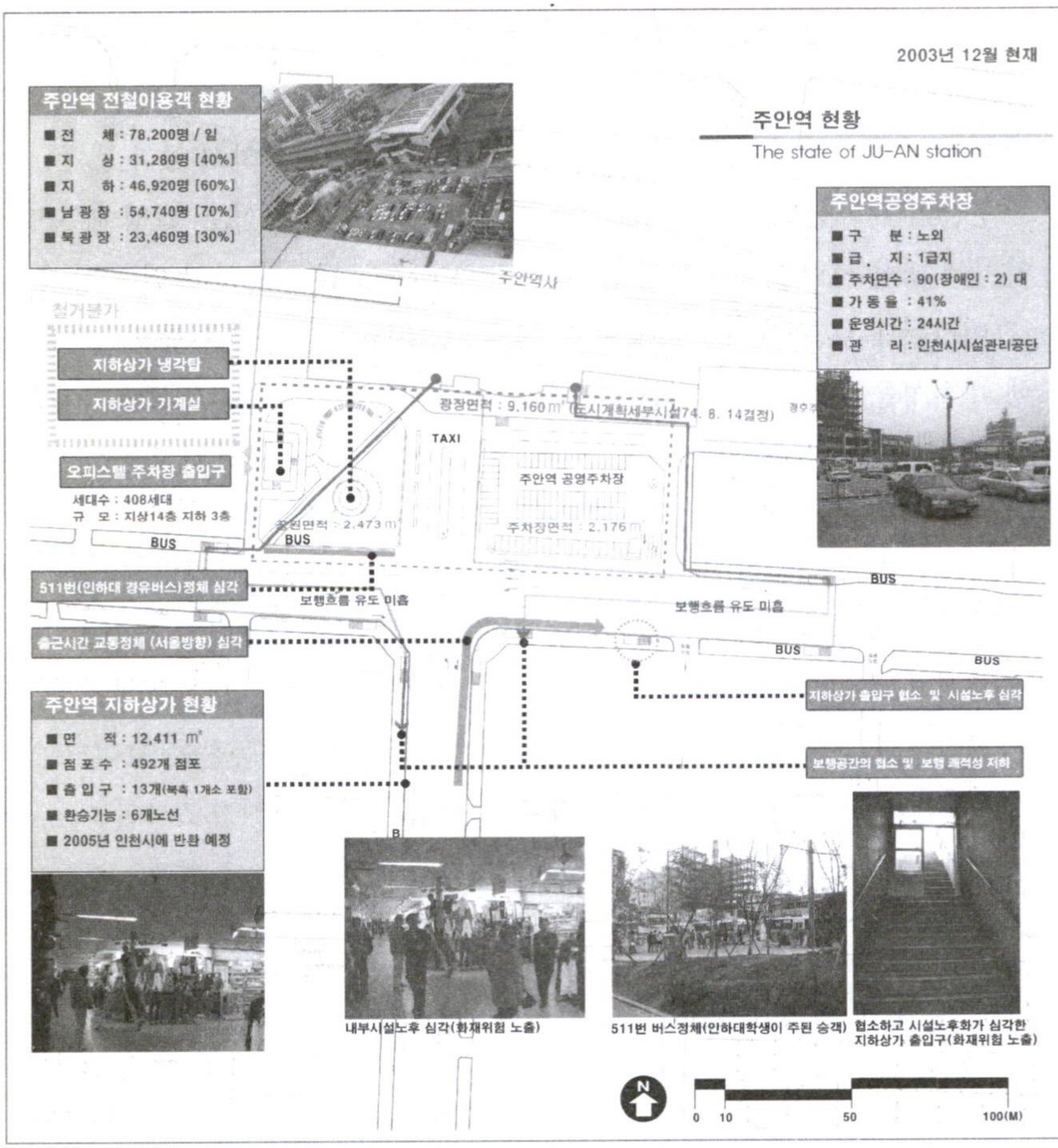
그리고 현재 역전의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는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주안역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노외주차장은 1급지에 해당하는데, 90대(장애인 주차면수 2대 포함)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41%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가동률만을 고려한다면, 주안역 공영주차장은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 '2030거리'

2) 2005년 주안역 지하상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시에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재개장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의 정비 및 상가리모델링이 가능하다.

3) (주) INFOPARK 정보사이트 http://www.ip21.net/menu-2/menu2_frames.htm

그림2. 주안역 현황


2003년 12월 현재
주안역 현황
The state of JU-AN station
주안역 전철이용객 현황
■ 전 체 : 78,200명 / 일
■ 지 상 : 31,280명 [40%]
■ 지 하 : 46,920명 [60%]
■ 남 광 장 : 54,740명 [70%]
■ 북 광 장 : 23,460명 [30%]
주안역사
철거분가
지하상가 냉각탑
지하상가 기계실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구
세대수 : 408세대
규 모 : 지상14층 지하 3층
광장면적 : 9,160㎡ (도시계획세부시설74. 8. 14결정)
TAXI
주안역 공영주차장
주차장면적 : 2,176㎡
광장면적 : 2,473㎡
BUS
511번(인하대 경유버스)정체 심각
보행흐름 유도 미흡
출근시간 교통정체 (서울방향) 심각
주안역공영주차장
■ 구 분 : 노외
■ 급 지 : 1급지
■ 주차면수 : 90(장애인 : 2) 대
■ 가 동 율 : 41%
■ 운영시간 : 24시간
■ 관 리 :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출입구 협소 및 시설노후 심각
보행공간의 협소 및 보행 쾌적성 저하
주안역 지하상가 현황
■ 면 적 : 12,411 ㎡
■ 점 포 수 : 492개 점포
■ 출 입 구 : 13개(북측 1개소 포함)
■ 환승기능 : 6개노선
■ 2005년 인천시에 반환 예정
내부시설노후 심각(화재위험 노출)
511번 버스정체(인하대학생이 주된 승객)
협소하고 시설노후화가 심각한
지하상가 출입구(화재위험 노출)
N
0 10 50 100(M)

1999년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 이후 청소년들에게 해방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2000년 조성한 '2030거리'는 어느덧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상업지로 자리매김을 했다. 주안역과 주안역 지하상가에 인접한 이곳은 유동인구 중 20~30대의 젊은 층 인구가 65%를 차지하고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구월동으로 문화여가공간이 대거 이전함에 따라 지역 경제 쇠퇴가 일어나고 있어, 생존을 위해서는 특화아이템 및 확실한 아이덴티티 부여가 요구되고 있다.

'2030거리'는 이공삼공1거리(삼호빌딩~동성장여관), 이공삼공2거리 (SK텔레콤~인천사랑병원), 그리고 이공삼공안길로 크게 나뉘어진다.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지만 '2030거리' 내에서 정확한 구획의 시각적 확인은 아쉽게도 어려운 상태이다. '2030거리' 내 지적상 도로 폭은 약 6~10m 정도로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보행환경으로도 적당하지만, 불법주정차와 상가시설물의 도로 점유, 전기시설의 도로 점유로 인하여 지적상의 도로 폭에 비해 유효도로 폭은 겨우 40% 정도에 그쳐 쾌적한 보행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특히 보행환경뿐만 아니라 전신주 및 가로 사이를 횡단하는 각종 전선으로 인해 '2030거리' 내의 가로경관 훼손이 크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전신주지중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경관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가로 내 각종 광고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가독성 저해와 쾌적한 가로경관에 방해가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2030거리'는 남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가로지만, 특색 있고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조형물조차 전무하고, 다른 가로

들과 구분지을 수 있는 바닥포장이 미흡하여 가로의 차별화 부재 및 특화거리로써의 특화아이템이 부족한 상태이다. 더욱이 '2030거리' 는 보행을 위한 공간이지만 보행자들의 휴식을 위한 스트리트퍼니처나 음수대, 공용화장실, 만남의 광장 등 가로 서비스 공간이 전무하여 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안역세권 중에서도 핵심공간이라 할 수 있는 '2030거리' 는 젊은층의 먹거리와 놀거리의 대표적인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특징 없는 가로경관과 불법주정차, 상업시설의 무단 도로 점유 등의 각종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4. 주안역세권 재생계획에 대한 제안

최근 '도시재생' 이라는 말이 주변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도시재생' 을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까지 다루고 있다. 도시재생이 분명 종래의 '도시재개발' 과 동일축상에 있는 키워드임에는 틀림이 없다. '도시재개발' 은 개발 연대의 유산으로 무계획적인 난개발의 강한 이미지를 강하게 남기고 있는 듯하다. 한편 '도시재생' 은 이것과는 달리 잃어버린 도시의 가치와 매력을 높이는 조금은 광역적인 시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의 범주 안에 역세권이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도시재생' 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역세권에 대해 비중을 두고 다양한 재생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4)]

주안역세권 역시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 시점에서 잃어가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역세권에 대한 재인식과 평가를 통해 역세권의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알아본 주안역세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주안역세권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안역세권 재생계획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스침에서 만남으로" 주안역

경인전철선상에 있는 많은 인천의 역세권들은 종합적인 역세권 계획의 결여로 인해 중요한 교통결절점인 역과 환승을 위한 교통시설 그리고 역 주변 상업지의 거점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역 앞의 환승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철도를 중심으로 양분된 상업지역을 연계시키는 시설미비와 주변 지역의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계획에 의해 상업 업무기능도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역 중에는 중요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택시의 접근도로조

---

4) 영국은 1980년 이후 대처 수상에 의해 영국의 정체현상(영국병)을 돌파하기 위한 시책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주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통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의 레이건 정권하에 '작은 정부'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특히 포스트공업사회의 전환 안에서 도심부, 공업도시, 항만도시 등의 급격한 쇠퇴를 배경으로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 첨단산업,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현재는 미국 역시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PPP를 통해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는 2001년 내각대신 총리 산하에 도시재생본부를 설립하여 국가가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2년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도시계획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현재는 5차에 걸쳐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차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중요역에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이동거리 단축을 위해 환승교통시스템을 구상중에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주변상권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물리적 계획에 그치고 있고, 역세권 상인들과도 마찰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안역세권 역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동인구의 흐름을 모아줄 수 있는 공간 내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역전광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환승교통시스템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다.

도시의 상징으로서 광장은 도시인들에게 있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도시 내의 마당이며 시민들의 흐름이 모이는 공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시민은 광장을 통해 규범과 지역문화를 형성하며,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 한줄기 숨통과 여유를 찾기도 한다. 주안역 역시 유동인구의 흐름을 모아주는 공간으로 역전광장의 조성을 통해 남구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부여하고, 또한 남구의 문화활성화와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현재의 역 앞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역전광장을 제안한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다음 세대의 도시생활지원 인프라로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광장, 역이 교통수단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지역주민들간의 만남, 방문객과의 만남, 문화와의 만남, 남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안마을마당'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본다.

그러나 인천시가 주안역에 환승교통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안마을마당』을 구체화 할 때는 우선 네 가지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하상가 출입구 재조성을 통해 광장의 인구유동을 지하로 연계시키며, 지하상가의 채광 및 화재, 구난발생시에 긴급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하상가 중심부와 연계시켜 주변 출구로의 편리한 동선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는 주안역사와 연결데크(연결브릿지) 설치를 통해 주안역 지상개찰구 이용 유동인구의 유동 편리성 확보와 보행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는 이용률이 낮은 현재의 역전 공영주차장을 대신하여 인근 경호주차장을 입체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자가용 환승이용객을 대신 수용해야 한다.

넷째는 시에서 계획 중인 주안역 환승교통시스템 계획은 간선교통연계(인천지하철1호선, 영종도국제공항 등)와 주요지점의 지선교통연계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하며, 기존 주안역 연계교통망은 승강장 위치조정 및 노선변경 등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전제조건이 만족되는 역전광장과 인천시의 계획적인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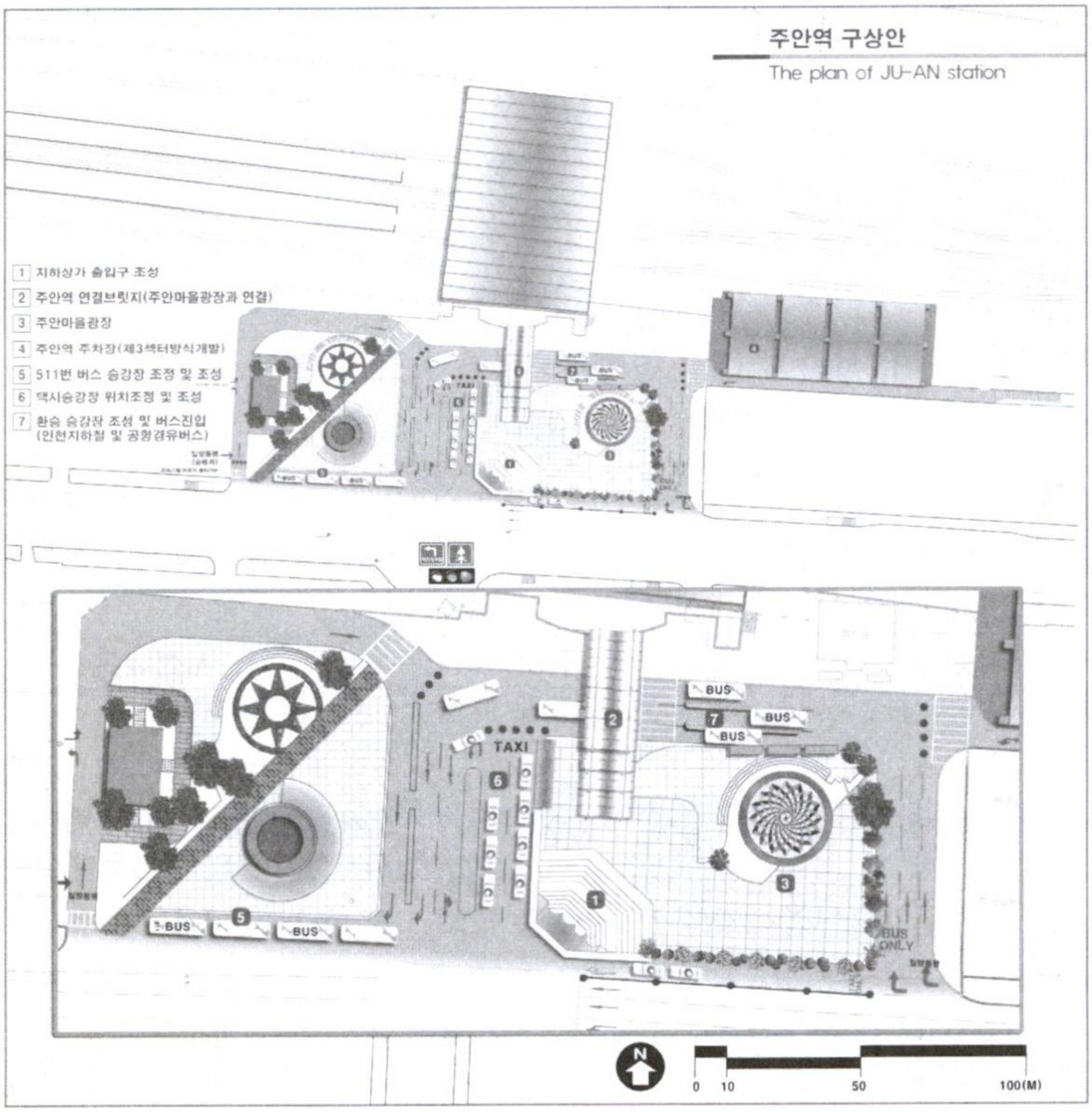
표1. '주안마을마당' 구상안 (조성부지면적 : 1,856㎡)

시설분류	개 요	규 모	시설내용
신규시설	소공연장	전체면적중 37%	수변공간 및 조경공간 계단식 관람대
	지하상가 출입 계단	전체면적중 14%	높이 3m, 길이 12m의 부채형 계단 (자하상가 출입문 방풍실 설치)
	주안역 연결 데크	전체면적중 12%	계단형 데크(연결브릿지)
변경시설	공영주차장 → 경호주차장 입체화	대지면적 : 1,703㎡ 4층 (160대) 계획	제3섹터방식으로 경호주차장 입체식 공영주차장 개발
조정시설	택시승강장	전체면적중 3%	택시승강장

승교통시스템이 어우러진다면 틀림없이 주안역은 인천을 대표하는 중앙역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며, 주안역세권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새로운 남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2) 청소년 문화를 리드하는 '2030거리'

그림3. 주안역 구상안



일반적으로 지방 중심도시의 중심상업지는 긴 역사 속에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키워왔으며,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역할, 지역민들간 만남과 교류의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역할, 새로운 경제활동을 집적시키고 신규사업을 발아시키는 역할 등을 꼽을 수가 있다. 비록 주안이 여타의 지방도시보다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중심상업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흥도시 안에서 자리매김을 한 인천의 중심상업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천의 중심상업지를 대표하는 주안의 '2030거리' 는 이용계층이 조금은 편중된 감은 들지만 지역의 젊은이들간의 만남과 교류의 커뮤니티 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온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의 젊은층은 새로운 문화와 여가를 쉽게 접하기 위해서 주안역세권보다는 구월동 등의 새로운 문화여가공간을 선호하고 있어, 주안역세권이 젊음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신선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주안역세권 나름대로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2030거리' 와 인접해서 복합쇼핑몰 2개소가 개장 예정이며, 영화관 티지(8개관)와 맥나인(9개관)으로 인해 많은 수의 쇼핑객과 영화관람객이 '2030거리' 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안역 북광장과 연결되는 아이존(9개관)이 개장 예정중이어서 주안역세권이 쇼핑과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2030거리' 의 특화아이템으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주변 영화관과 연계할 수 있는 영상의 거리로 테마를 부여해볼 만하다.

주안역세권 중에서도 핵심공간이라 할 수 있는 '2030거리' 는 젊은층의 먹거리와 놀거리의 대표적인 상권인 만큼 '2030거리'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컨셉 부문에 있어서는 거리 내 음식상가 밀집지역에 사람들의 음식취향 변화에 맞추어 월드푸드존으로, 유흥업소밀집지역에는 나이트클럽과 주점들의 양성화와 특성화를 위해 뮤직 댄스존으로 가로 및 공간별로 소테마를 부여하여 좀 더 '2030거리'를 구체화해야만 예상되는 영상고객의 유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2030거리' 계획으로 우선 차량은 기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하되 보행흐름이 많은 일정시간대는 출입시간을 통제하고, 가로의 형태는 1차로만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나머지 공간은 인도 공간으로 확보한다. 자동차 통행로의 형태는 곡선형태를 주어 속도 감소효과와 보행안정성 확보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이용객에게는 편리성 제공을 위해 필히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주차장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인협의회와 남구청이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업소 이용객에게는 주차할인권 등을 제공하여 재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특히 현재의 협소한 가로는 장기적으로 건물 신축시 건축선 후퇴를 적극 유도하여 충분한 가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추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퇴건물에 대해 용적률 상승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인들의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는 가로의 정비를 통해 다른 상권과 차별성을 부여하여야만 하는데, 상징적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특색이 없는 현재의 보도에 대해서도 바닥패턴 및 점토벽돌, 점돌 등을 바닥재로 포장하여 다른 가로와의 차별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행 흐름이 많은 곳과 대로와 인접하여 가시성이 높은 곳에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2030거리'의 인식도를 높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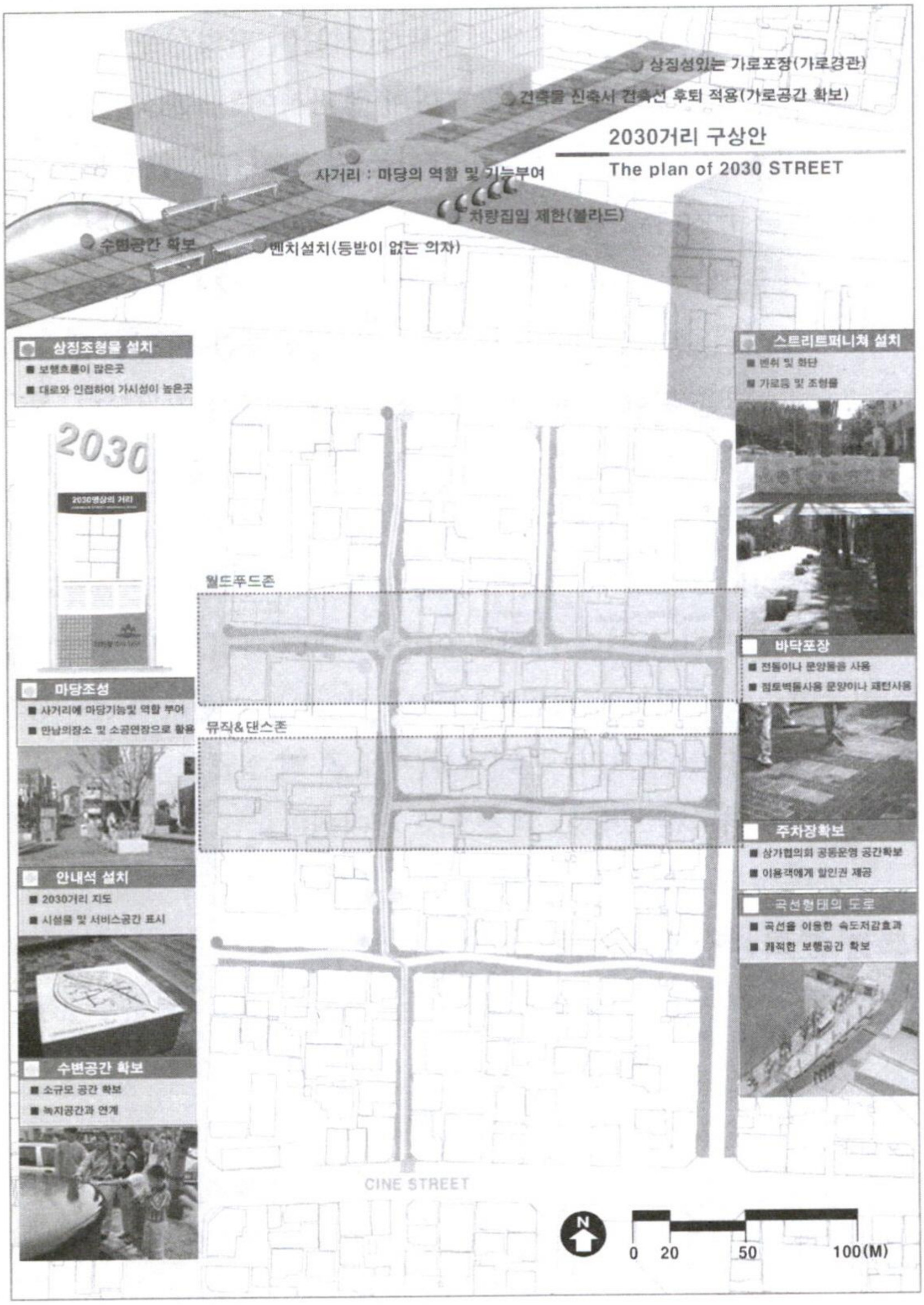
'2030거리' 내 안내석 설치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이드맵 안에는 공공시설물 및 서비스공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벤치 및 화단, 가로등, 조형물 등의 스트리트퍼니쳐 설치시에는 '2030거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적인 측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측면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목재벤치의 경우 파손율이 높고, 파손시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2030거리' 조성의 취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이다. 그러나 '2030거리'는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나 축제를 위한 공간이 전무하다. 특히 저녁이 되면 청소년을 위한 행사는 뒷전으로 밀린 채 밤마다 쏟아지는 광고전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동아리 댄스공연이나 소공연 등이 지정된 공간보다 가로 내 광장에서 관객과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문화공간 마련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2030거리' 내에서도 이러한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가로내 광장[5]을 마련하여 젊은층의 유입을 활성화시킨다면 '2030거리' 본래의 취지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으며, 중심상업지의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새로운 문화공간과 특화된 공간

5) '2030거리' 중심이 되는 사거리에 마당기능 역할을 부여하여 만남의 장소 및 소공연장으로 활용하며, 바닥재를 활용하여 가로내 광장으로서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

그림4. 2030거리 구상안



미추홀길 일대는 중심시가지로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옛 시민회관 쉼터 일대는 인천소프트타운으로 지정되어 사무근로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주5일제 근무로 여가활동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남구구민의 경우는 찾아오기 쉬운 중심시가지에 문화시설 부족하여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주안역세권을 떠나 타구나 타도시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옛 시민회관 쉼터는 인천내 연극공연 공간의 부족으로 소극장 공간마련이 여러 번 검토된 지역이다. 특히 옛 시민회관 쉼터 주변은 과거 인천 문화의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시민회관의 이전 후 남구내에 문화공간의 위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구 차원에서 옛 시민회관 쉼터에 연극 및 문화를 위한 공연장을 계획 중에 있어 문화도시 남구로써 재도약의 원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2030거리' 의 젊은층의 유입에 따른 이벤트공간 마련과 인천 내 연극공연 공간 마련 측면에서 옛 시민회관 쉼터의 일부분에 문화공연장 건설을 구상해 본다. 문화공연장은 지상공간과 지하공간 분리를 통해 현재 잘 조성되어 있는 지상의 녹지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역사적으로 시민회관의 공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층형의 건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요시설로는 소공연장, 전시공간, 공공서비스 공간, 문화사랑방 등을 도입한다. 더불어 주변의 주부직장인과 서울통근으로 인해 탁아시설을 원하는 남구 주민을 위해 공공 보육시설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는 도시에서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기능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주안역세권의 근린생활시설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옛 시민

회관 사거리 중심 반경 1Km안에 개인병의원이 타 지역에 비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주안감리교회 주변으로는 7개 병의원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침체된 주안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병의원들의 계획적인 집적화를 통해 클리닉 테마를 특화시킬 수 있다면 현재 개인병의원들의 경쟁력 감소도 해결하고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인이 종래의 치료의학보다는 예방치료에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한의학 및 운동처방과 같은 예방클리닉으로서 집적화를 고려해 볼만한 가치도 있을 것이다.

중요역의 역세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교통의 편리성을 이용하는 학원가이다. 미추홀길 서측이 학원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그리고 일반 입시학원보다는 간호학원, 고시학원, 자격증학원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학원들이 여타 지역보다 많이 위치해 있다. 주안역부터 대한생명구간까지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학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26%로 높은 편이지만 많은 수의 학원들이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타역세권에 비해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학원 밀집빌딩을 지정하여 집적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전문학원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학원난립을 제한하여 인천에서 특색있고 쾌적한 교육존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재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학원 활성화와 더불어 교육기자재, 서점 등의 교육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학원관련 산업의 유치 및 소프트타운과 연계한 IT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작 등의 교육산업 육성도 고려해 볼만하다. 결국 주안역세권은 학생 및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실천이 수반된다면 전문학원 중심의 통합적 균형 발전이 가능한 지역으

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글

인천에는 중앙역이 없다. 서울에는 서울역, 부산에는 부산역, 대전에는 대전역, 광주에는 광주역이 있다. 이처럼 어느 도시든 그 도시를 대표하는 역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아쉽게도 인천에는 인천역이 있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주안역이 중앙역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 주안역은 지금까지 인천 중심시가지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했으며 일과 만남을 위해 찾는 인천시민에게 사랑을 받아온 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모터리제이션 사회의 도래에 의해 차량의 보급이 늘고, 광역교통망 시설 확충에 따라 경인철도에 있는 모든 역들의 그러하듯이 예전에 비해 주안역의 역할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더불어 주안역세권 역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모두 입을 모으고 있다.

주안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우선 역전광장과 환승을 위한 도로공간 확보의 가능성 등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문제와 침체 되어가는 중심상업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의 고유문화 브랜드개발, 도시마케팅사업, 지역정체성 제고 방법 등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의 문제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

역주변에서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고도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은 주민의 의향이 집적되어 사업채산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인 개선만을 통해 침체되어가는 역세권을 살리기에는 충분치 못한 점이 많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한 주안역세권의 도시재생을 통해 상인에게는 사업실현성이 높고, 시민에게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만 진정한 역세권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세권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필히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과 관계주민의 협의하에 종래의 계획과 제도에서 벗어난 참신한 발상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행정적으로는 역세권의 종합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제도 확립과 재원확보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주안역세권의 재생전략으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 영화 · 연극, 생활의료, 교육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부여하였다. 정리하자면 주안역은 역전광장 인 '주안마을마당' 조성을 통해 주안역세권의 핵심공간으로 만남의 장소적 특성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와 문화의 만남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주안역세권의 심볼로드라고 할 수 있는 미추홀길은 영상거리로 특화시키고, 주안의 핵심인 '2030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소년 및 젊은층의 문화여가공간으로 이미지화시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한다. 또 미추홀길 서측으로 조성된 학원밀집지역은 요리, 애니메이션, 간호 등의 전문학원존으로 특화시켜 인천에 있어 쾌적한 리쿠르트 · 전문학원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계획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참여에 의한 이벤트나 행

사 등을 통하여 다른 도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행정은 가로내 정비를 위하여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간판의 개선 및 불법주정차 금지, 상품의 도로무단적치 금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청소년 및 젊은층의 문화를 시대적인 트랜드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길거리 공연허가제, 댄스페스티벌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극적인 행 ·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안역세권 전체를 영역으로 할 수 있는 남구만의 문화축제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몇 일간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최를 통해 남구문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주안역세권의 도시재생계획은 구 단독 사업계획이라기보다 문화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 · 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남구 모든 구민이 함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즉 서두에서 말한대로 남구 구민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주안의 공간을 창조하고, 또 새로운 주안이라는 공간 속에서 21세기라는 새로운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경인일보 특별취재팀(2001),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 다인아트
2.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3. 유형식(1996), 「역세권개발개념 도입을 통한 시가지정비 · 개발계획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인천광역시(2002), 『2002년 인천시 통행 실태조사』
5. 인천광역시 남구(2004), Vision남구 도시재생프로젝트
6. 인천발전연구원(2001), 『2001 인천再발견』
7. 鹿島出版會(2002), 『역재생』
8. 東京市政調査會(1999), 「都市問題-역주변의 마찌쯔꾸리」, 제90권 제11호

2004년 봄, 주안의 사회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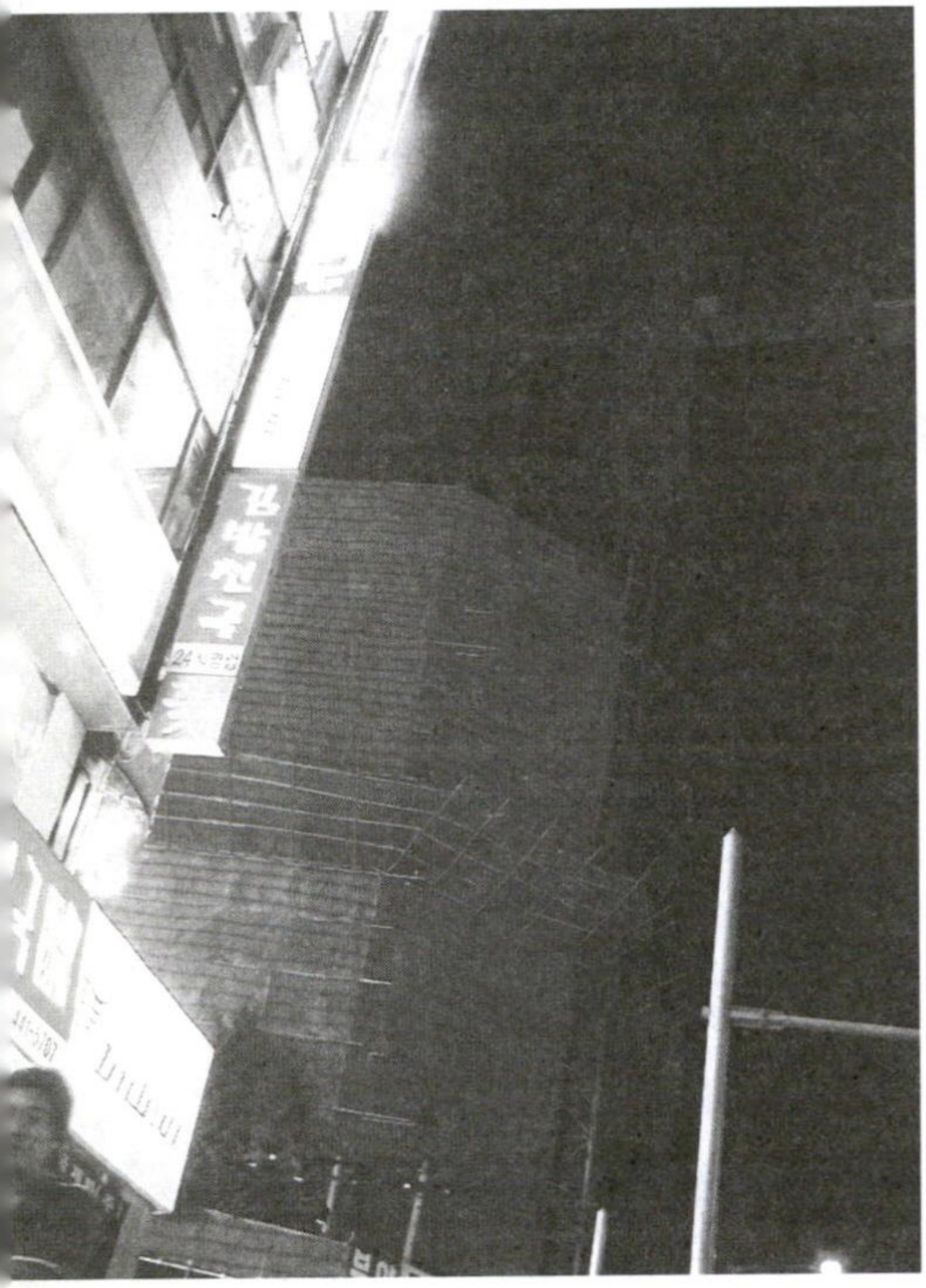
- 자기선용의 물질 조건 탐구 -

■ ■ ■

오남규 (스페이스 빔 학예팀 편집위원)

몽유의 나날들

인천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경인선 전철이 지나는 주안역 일대에 관한 기억은 별로 없다. 지나온 내 청춘의 나날들 속에 주안은 재수 시절 다니던 닭장 같던 한샘학원이 어느새 한층 요란해진 주변 주점과 오락실 소음에 둘러싸여 정문학원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는 정도의 밋밋한 사실성에 머문다. 허름하고 볼품없던 구舊역사를 허문 자리에 수년 전 산뜻한 금속성 외장을 뽐내는 새 역사가 세워졌고, 주안역 광장으로부터 미추홀길을 따라 경향플라자, 고려웨딩타운, 인천사랑병원, 교보생명 등의 기존 거대 건물들의 높이를 넘보며 몇몇 복합상가 및 영화관 건물, 정보산업 관련 건물 등이 이미 영업중이거나 신축중이더라는 그저 그런 현상적 눈대중에 불과할 뿐인 사실성. 옛 시민회관이 있던 자리, 지금은 아담한 쉼터로 조성된 그 자리 어느 모퉁이 벤치에 앉아 나는 십



수년 전 시민회관 지하에 있던 전시관으로 고등학교 선배들의 그림들을 나르던 일을 하품이 절로 나는 추억으로나 떠올리고 있다. 나는 이걸 삼십여 년에 걸친 알량한 선택적 지각의 결과라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싶다.

그러나 사실 주안은 심심찮게 그때그때 내 생활의 동선動線을 따라 습관적으로 스치거나 잠시 서성이는 장소가 되어 왔다고 말해야 맞다. 두 해 전에 주안의 전前역인 도화역 근처로 거처를 옮기고 난 뒤로는 아예 이웃해 살게 되기까지 했다. 주안역에서 출발하는 용산행 급행 전철을 타고 내리는 와중에, 구월동 예술회관역 근처의 활동 근거지로 볼일을 보러 오가는 길에 주안을 경유하지 않기란 힘들다. 그러니 일주일에 3~4회 남짓 그곳을 재빨리 휘돌거나 느릿하게 비껴가며 내 일상의 궤적이 이래저래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 부정할 수 없는 '물질적 현재성' 을 어떻게든 곱씹어볼 요량쯤으로 넌지시 이 글의 운을 떼야겠다.

한데, '물질적 현재성' 이라? 나의 곁에 혹은 당신 곁에 그저 그렇게 있어 왔고 또 그렇게 있을 것 같은 일상의 도시, 거리.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그 공간-장소성이 시간의 톱니와 맞물려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

는 오늘이라는 현재성에 일단 주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사건' 이 있다. 이 세계의 표면으로부터 물질적 효력을 발산하며 느닷없이 솟아오르는(우발성), 나아가 그 가운데 신체적 무의식의 형상으로서 욕망이 고개를 들고 자리잡히는, 그러면서 그 양태를 반복(규칙성)할 때 무릇 인간사적 사건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다. 쳇바퀴 돌듯 반복-순환하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수많은 사건의 연쇄로 지각-경험되고 있음을 상기하라.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할 필요도 없이 내가, 당신이, 우리가 자신의 몸을 통해 시시각각 토해내고 있는 이 세계와의 상관적 물성物性 모두가 기실 사건의 존재(론)에 바탕하고 있음을 깊이 헤아려볼 수도 있으리라. 요컨대 사건은 절대적 우발성 그 자체다. 이 세계는 그러한 사건의 우발성을 존재론적 전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없다면 세계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는 드러나지 않는 선험적 차원에서 그러한 사건이 출현하는 장소의 기원이다. 더욱이 이 장소는 인간사적 의미와 가치의 원리적 요소가 배양되고 조직화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규칙성' 을 내장하고 있다. 사건의 출현은 어디까지나 이 장場의 규칙성에 의해 조정되고 구속되며 지배받는다. 이런 규칙성은 일종의 어둡게 지층화된, 오래도록 침전된 장기기억의 형태로서 우리의 동시대적 지각과 인식을 제한하는 테두리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이때의 규칙성은 역사적 실증성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 뿐이며, 우리가 쉽사리 파악하기 힘든 '객관성' 의 총체적 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만약 거기에 우리의 사유가 제대로 육박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름의 점도와 속력을 가지고 나름의 공간적 윤곽-형태와 시간적 궤적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운동성에 그야말로 눈을 뜨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나는 물론 여전히 알량한 선택적 지각의 소유자다. 이 마뜩찮은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글쓰기 자체의 진정성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을지는 분명, 미지수다. 하지만 어쩌랴. 내 몸을 담보삼아 현실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실존의 방식이란 이 글쓰기의 경우, 나의 물질적 현재성이 얼룩지는 이 도시와 거리의 국지성을 일단 파고드는 것일 게다. 그럼으로써 그 국지성 안에서 반복되는 물질적 현존의 양태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실 그 양태들은 우리의 소小도심을 채우는 고만고만한 중소자본의 이기적 재현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뭔가 바뀌지만, 결국 제 자신의 억압적 본질만을 지루하게 반복해대는 이 도시, 거리의 일반성. 그 암울한, 나아가 천박하기까지 한 재현의 규칙성에 적어도 나는 이미 질려버린 상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어떤 실존적 전체성의 함의와 덕목이 지렁이마냥 꿈틀대고 있다. 도시적 번잡함과 소란스러움을 먹이로 하여 끈적거리는 지렁이똥을 싸듯 느릿느릿 구불구불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그것은 어떤 역설의-위반의 루트다. 이 루트를 따라 우리네 삶의 개별적 진실과 거짓들이 복잡하게 뒤엉키며 이른바 네트워킹된다. 이런 네트워킹 자체가 곧 '실존적 전체성의 망' 을 이룬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욕망과 이기심, 생존욕구 등에 따라 날카롭게 갈등하고 대립하며 살지만, 또한 그것들의 동시다발적 접속 양상과 포함 관계에 따라 서로 연계되고 순간순간 동일시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인간사의 차가운 진실이 그러하듯 매우 지속적이거나 대단히 안전하며, 정말 믿을만한 건 아무 것도 없다. 역설과 위반의 루트도, 그로 인한 실존적 전체성의 망도 지극히 불연속적이고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대에 부응할 뿐이며 거듭 변화무쌍할 따름이다. 쥐죽은 듯 하수관을 흐르는 검은 구정

물처럼, 우리 삶의 저변을 흐르는 그 무엇을 제법 실체화하여 가둘 수는 없다는 게 이제껏 내가 깨달은 냉정한 실존의 생리다. 그러한 흐름은 흐름 그 자체로서 솟구치거나 곤두박질친다. 또한 우리의 예상을 어긋나 출몰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기억임과 동시에 망각이고, 연속이자 단절이다. 실존의 장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의 혼란한 자기긍정과 부정의 외침들 속에서, 이곳 도시의 재현적 악순환 속에서, 그로 인한 불쾌감과 짜증, 환멸 속에서 겨우 가늠하고 있지 않은가?

광포했던 지난 20세기 역사 전반에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란 동물의 몸과 마음에 촘촘이 서리게 된 실존의 영상은 아마 위와 같은 것일 테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동물 일반에 부여된 섭리와 극렬히 대비되어 맞닥뜨리게 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존재론적 국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자기 안에 자연(성)을 가급적 숨기거나 억압하고 심지어 거세함으로써 자기 밖의 인공(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반복적으로 자기화-실체화하여 살게끔 세속화되어 있다. 둘째, 이를테면 기하급수적인, 게다가 자기증식적인 말과 이미지의 쾌속 교차로 한가운데 서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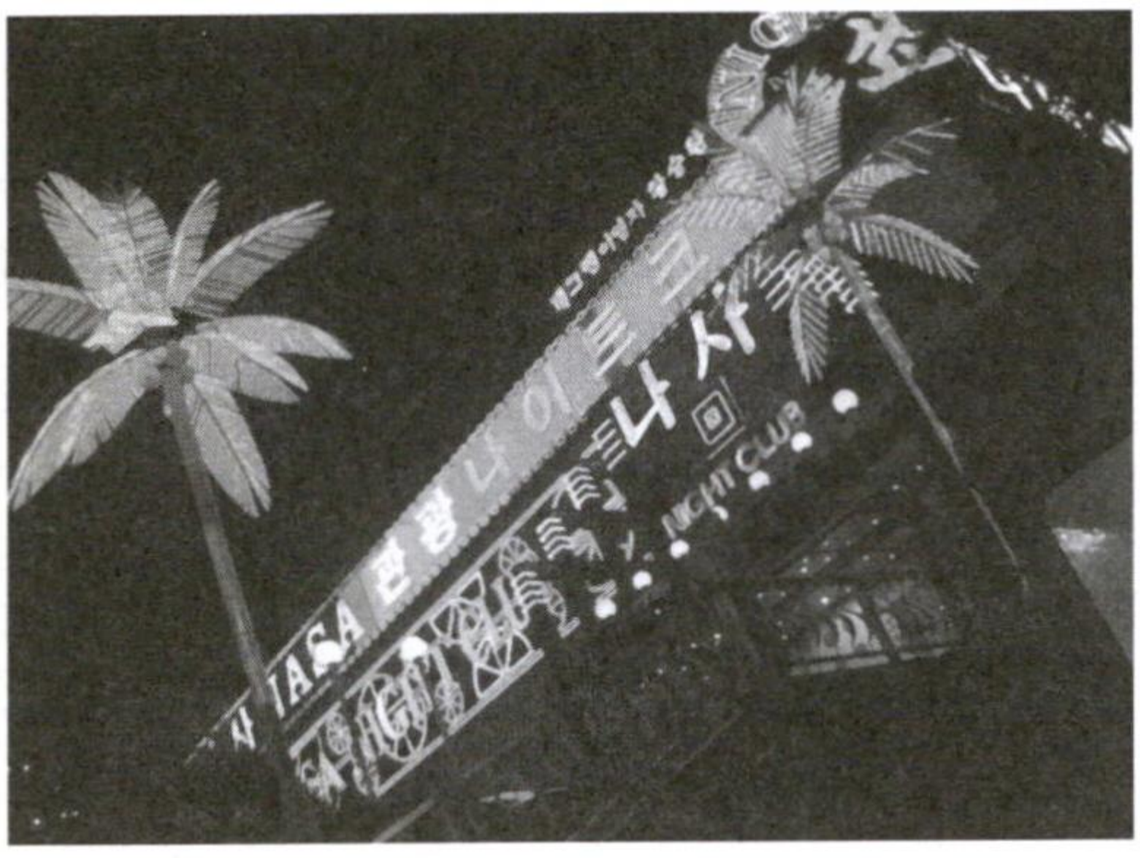
기를 위태롭게 직시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셋째, 자기분열의 양상을 노골화하고 있다. 즉, 그와 같은 강퍅한 상황에 맞서 나름의 심리적 저항선을 구축하다보니 그 양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 안에 유폐된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느라 분열을 방법화하여 쓰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 절규의 방편이나 급진적 해방감에의 도취 경로로서 어쩔 수 없이 그리 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인, 우리는 이를테면 (자기 안의) 지극한 자연(적 이상)과 (자기 밖의) 부단한 인공(적 현실)의 피치 못할 엇갈림과 뒤틀림 속에서 배태되는 모순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존재론적 모순의 일반성과 거듭되는 심화 경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보태지는 못한다. 다만 현대 문명의 구조적 불평등, 위험의 확대 재생산, 첨단화된 전쟁, 대량 학살 등으로 오늘날 인류의 삶 자체는 지역적 정황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심각한 정서적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여겨진다. 만성질환을 안고 살듯, 현대 문명의 온갖 병폐를 온몸 구석구석 앓고 있는 우리에게 존재라는 물질성의 근원적 토대 위에 구현될 법한 이 삶의 정상성과 평화는 나날이 불안에 침윤되어가는 무엇으로 떠올려지기도 하지 않은가. 여하튼 그렇게 상처 입는 우리-존재의 분열적 현실 인식과 판단의 틈새에서 뻗어나는 천차만별의 심리적 전회와 탈주의 궤적, 이것을 나는 앞서 말한 역설과 위반의 루트와 같은 의미선상에서 '몽유로夢遊路'라 부르려 한다.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의 완강한 구획과 배치의 권능을 구불구불 가로지르는 마음의 행로로서, 하지만 우리 각자의 몸을 통해 반드시 물적 자취를 남기는 기이한 실존의 길. 그 길 위에 당신은 서 있지 않은가?

이제 오늘 하루의 일상을 곱씹어보며 천천히 뇌어 보자. 나의 곁에 혹은 당신 곁에 있는 일상의 도시, 거리. 있는 듯 없는 듯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어떤

어지러움, 시끄러움, 부산함, 밟고 밟히는 걸음들. 휘청거리는, 지끈거리는 두통 같은, 기어이 쏠리고야 마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부끄러운, 애써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시간들, 나날들. 건조한, 삭막한, 황량한, 동시에 축축한, 질퍽한, 늪과 같은 이곳-주안에서 지렁이산책마냥 이어지는 이 몽유의 행로를 발견하고 개척해보자. 이 글은 그러한 실천을 염두에 두고 연필로 그려보는 한 장의 때 절은 '인식지도cognitive map' 에 불과하다. 꿈이면서 꿈이 아닌, 자기 종속의 퇴로와 해방의 활로를 동시에 그득히 품고 있는 바로 여기 지금의 이 길들로.

소요의 사막

지치고 힘들고 답답할 때면 사람들은 으레 어떤 '바깥' 을 떠올리게 된다. 지루하고 숨막히는 일상을 잠시라도 등지고 찾아 나서는, 편안하고 달콤한 휴식 같은 바깥. 실은 나도 그런 바깥을 찾아 나서고 싶다. 간절히 떠나고 싶다. 무릇 주안은 바깥이다. 다만 일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 속에-내재되어 일상적 사건의 계열들을 따라 돌출되는 바깥이다. 따라서 배낭을 짊어지는 등의 수고스러움 없이 언제나 누구라도 이곳 주안에서 손쉽게 바깥을 만끽할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서 서성이든 어느 곳을 향해 가든 주안은 자신에게 내재되는 바깥으로의 진입과 탈출을 동시에 허용한다. 더욱이 우리의 점증하는 생활의 속도와 맞물려 그러한 진입과 탈출은 이른바 동시적인 상반相反충동으로 표출되고 팽배되기 일쑤다. 즉 들어오고 나가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동시에 거듭거듭



몰沒-밀리고 몰-박힘에 따라 관성화된 충동의 양상으로 일상 전반을 아우르게 되는 것이다. 내재되는 바깥의 돌출적 양태는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비유컨대 일상의 표면으로부터 민망할 정도로 벌겋게 발기되어 치솟는 천연덕스러운 바깥. 이 도심의 자잘한 물질적 현재성 그리고 현존의 양태는 그로부터 파생된다고 본다. 혹 밖이 아닌 안으로 확인될만한 여백이 있다 해도 바깥은 기어코 그걸 잠식해버릴 것이다. 이렇듯 전면화하는 바깥의 위력 때문에 주안은 이곳을 경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과 차량, 전철 등의 교통이 지나게 되는 물리적 경계선을 심리적 차원에서 최대한 이완시키거나 지워버리기까지 한다. 그럼으로써 일상에 내재되는 바깥의 정서적 파장과 각인은 한층 더해진다. 대부분의 물리적 경계선이나 장벽 따위는 그런 효력에 의해 한껏 모호해진다, 유동한다, 나아가 사라져버린다. 그 와중에 공간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즉각 흡수하고 곧바로 방출할 만큼 거듭 탄력을 얻고 급속히 팽창하게 된다. 바다 속을 유영하는 해파리의 몸짓마냥 독을 뿜는 촉수를 놀려대며 흐물흐물해지는 것이다. 이는 내재되는 바깥으로서의 주안에 대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지각 습관이 물질적 구성의 차원으로 효과적으로 전이되면서 시시각각 펼쳐지게 되는 일상의 장관壯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주안이라는 국지적 도시공간의 마력은 위와 같은 내재적 접근의 내

용만으로는 무척 생경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겐 워낙 체질화된 물질적 지각 습관과 도시적 재생산의 양상 일부를 새삼스레 바깥이라는 단어로써 볼썽사납게 부각시키는 데에 대한 심정적 불편함, 불쾌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소시민의 정서와 인식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주안을 그저 인천의 주요 전철역사가 자리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주거지와 상업지가 조화로이 연계된 사통팔달의 도심으로서 지각-경험하고 거기에 익숙해 있을 따름이다. 더욱이 주변의 대학과 산업공단 등지로부터 유입되는 풍부한 젊은 유동인구, 주안역을 경유하여 서울로 이동하거나 인천 전역으로 흩어지는 그 많은 인파와 세대간의 자연스런 교차 및 행렬 등은 이 도심을 적이 살아 있게 하지 않는가. 그런 움직임이 뿜어내는 현상적 활력은 좋든 싫든 거기서 비롯되는 우리네 일상을 그 자체로서 긍정하게 하는 것이다. 마을버스정류장(주안 동부) 쪽에서 가지를 뻗으며 미추홀길을 따라 형성되어온 2030거리의 환락은 앞에서 말한 내재되는 바깥의 돌출적 양태, 그것의 뚜렷한 현상적 물증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그러나 이 도심을 헤집는 왁자지껄한 자기위락과 해소의 미시서사微視敍事들은 주로 늦은 저녁이나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고 국한될 뿐이다. 어쩌다 과음을 한 다음날도 우리네 일상은 아마 꿋꿋하게 잘 돌아갈 것이다. 아무튼, 벌건 대낮에 둘러보는 주안 일대는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저기 생뚱맞게 치솟은 모텔 말고는 대체로 근면한 일상의 풍경을 내보인다. 사람들은 잰걸음으로 지하상가를 오가고 근처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도 가고 교회나 성당에도 들르며, 버스정류장과 전철 플랫폼을 통해 어디론가 제각기 오늘 하루만큼의 일상의 퍼즐을 부지런히 옮기고 열심히 맞추고 있다.

이처럼 주안은 우리 몸의 반복과 순환의 연장延長으로 이루어지는 나날의 일상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자연스레 스며든다. 이 스며듦, 그것에 대해 우리 자신은 굳이 골몰하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이 국지적 도시공간의 마력이란 기실 그와 같은 침투력에 다름 아니다. 우리에게 스며드는 주안은 주안의 살아있는 물질적 구현의 이상이자 현존의 실제와 같다. 우리 각자는 공히 주안이 되어 주안을 오간다. 이는 곧 우리 각자의 개별성이 주안으로 통합되어 외면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인(따라서 일상적인, 너무나 일상적인) 형태의 '익명성' 은 그렇게 양산된다. 무릇 주안은 익명성의 공장이다. 또한 교차로다. 아울러 시장이면서 동시에 배설구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 도시공간의 완강한 구획과 배치의 권능이 주안이 갖는 그와 같은 도시 기능을 주도, 육성,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나 사회 같은 거대한 익명적 통합의 체계 및 추상공간의 작동보다 주안이라는 생활공간의 익명적 침투와 파급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끊임없이 스며들어 형성되는 자아의 익명성은 주안을 매개삼거나 터전삼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대중' 으로서 훌륭히 조직해준다. 그럼으로써 그 도시 공간에서 매일 되풀이되는 대중적 소통과 교환 상황들이 별 문제 없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끔 한다. 익명성은 우리 몸에 습관의 형태로 구축되는 도시 및 시민 기능의 통상적 신호체계이자 접속단자다. 따라서 그 익명성의 체질화와 효율적 전이 과정을 통해 우리네 삶이 영위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소시민적 습성의 총체(정서와 인식, 행동 일체를 아우르는)는 빈틈없는 습관의 자명성 안에 포섭되고 나아가 고착화된다. 그에 따라 오늘 우리 몸이 토해내고 있는 상관적 물성(물질적 현재성 나아가 현존)의

낱낱(양태)은 무릇 지극히 '통속화된 재생과 부활의 신비'를 한껏 자아낸다. 즉 이 거리를 오고가는 등의 가장 초보적인 사회적 물질대사 행위마저 이를테면 알싸한 '미시적 숭고의 형상'으로 매일 쉬지 않고 복제되어야 하는,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되고야 만다. 나아가 그 자잘한 형상들은 방대한 '공시적共時的 재현의 규칙성'으로 포괄된다. 웅장한 소리 없는 소리를 내며 그야말로 장엄하게, 도시공간의 거듭되는 탄력과 급속한 팽창의 중심에는 이와 같이 제법 우주적인 복잡계 신화가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아주 틀리지 않다면 아뿔싸, 주안은 무엇보다도 '익명성의 우주'라 일컬어질 만하다. 제 우주적 속사정을 결코 드러내는 법이 없는, 다만 우리의 개



별성을 숙주로 삼아 무한히 번성할 뿐인, 그런 비정한 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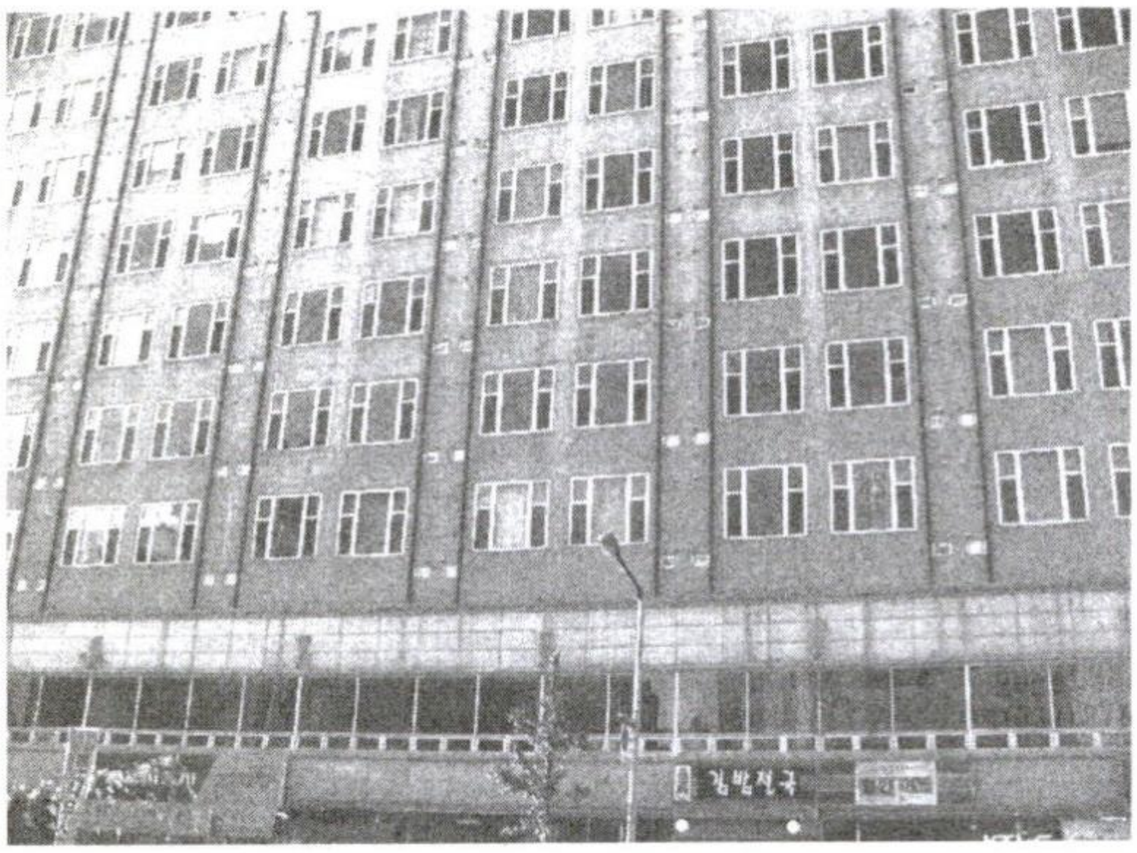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어디로 가는가? 바보 같아. 주안에 있어, 주안으로 가잖아. 너무나 친숙한 이 바깥, 오늘도 어김없이 황홀히 돌출되어 있는, 한없이 점멸하는. 여기-주안으로 와. 주안에서 만나자. 주안에서 널 기다릴 테야…… 어느새, 불현듯, 그토록 일렁거리던 불빛들과 건물들이, 차들이 사나운 모래바람이 이는 저 먼 지평선 너머로 와르르 밀려 사라져간다. 어떤 극단에 이른 바깥이 사막으로 전복되어버렸다. 도시가 지나치면 간혹 사막이 되기도 하나보다. 사방이 죄다 똑같은 사막이다. 어디로 가지? 당장은 나침반도 없고 낙타도 없는데. 탄탄한 블록 위는 아니지만 이 한량없는 모래 위를 일단 걷는 수밖에 없다. 터벅터벅 한참을 걷다보니 역시 목이 마르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참 묘하다. 이 고즈넉함, 한가로움. 뭐라 설명하기 힘들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마치 산책을 나선 기분이다. 난 지금 여기-사막을 '소요逍遙하고' 있다. 지나친 도시의 바깥 어느 정점으로부터 다시 움푹 깊숙이 꺼져 들어간 안쪽 그 어디쯤에서 희미하게 한 줄기 몽유로가 새어나오고 있다.

투쟁의 섬

사실, 누구나 '현실'을 말한다. 현실이 중요하다고, 결국 남는 것은 현실뿐이라고. 사막의 현실이란 무엇보다 목마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배고픔일 게다. 물과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으므로, 우리가 우선 말하게 되는 현실이란 굶주림에 대한 회피하기 힘든 생리적, 정서적 반응으로

부터 촉발된다고 본다. 허기가 극단에 다다르면 그 자체는 공포가 된다. 이 강렬한 체험은 곧 체험 주체를 둘러싼 구체적인 물질 조건 및 정황, 그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을 낳는다. 그리고 그 자각이 각자 나름의 '현실감'으로, 그것에 기초한 각자 나름의 '현실참여'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먹고살기 위해 벌이는 모든 형태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현실참여의 기반을 형성한다. 우리의 노동은 굶주림에 대한 공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로써 이뤄지는 다양한 물질조성과 생산의 방식에 다름 아니다. 굶어죽지 않기 위해, 그 공포로부터 멀리 벗어나기 위해 지역을 막론하고 대대로 사람들은 피땀을 쏟아가며 노동을 해왔고, 굴곡 많은 잉여적 생산의 기록들을 남겨왔다. 오늘 우리는 굶주림에 대한 원초적 공포가 깊이 가라앉은 사회적 빈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현실을 말하고 있다. 주안은 무릇 그렇게 현실을 말하고 있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좀더 많은 잉여-이윤을 남기기 위해 수시로 보이지 않는 사투私鬪가 빚어진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 '투쟁'이 되고, 이곳-주안은 일상적 투쟁의 밀림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빈곤은 어쩌면 죽음보다 두려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잉여적인 모든 것을 둘러싼 인간적 면모가 이토록 경쟁으로, 투쟁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걸까? 잉여가 있다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그것이 얼마든지 '교환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상식일 것이다. 이 상식의 역사적 실현은 알다시피 '시장'이다. 그것에 도착倒錯된 갖가지 애증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시장엔 굶주림의 해결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또 다른 물질적 상호욕구와 필요 나아가 교류에 대한 인간사적 진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원활한 잉여생산물의 교환을 통해 상호 증진될 수 있을 법한 노동 및 노동생산물의



'사용가치' 가 시장기능의 핵심이고 실제라면 시장은 참 좋은 것이다. 우리의 '살림' 이 좁다란 배타성과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나 공동체적 이해와 번영의 물적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물질에 대한 인간적 도구화의 열망이 좀더 창의적인 사용에, 이 사용을 아우르는 인간의 노동이 좀더 활력적인 활동에 있다면 우리의 오늘은 참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또 알다시피 우리의 오늘은 그런 행복과 무관하다. 이백여 년 전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 의 마력 따윈 더 이상 시장에 없다. 그가 추구했듯, 인간의 교환성향을 자연적 자유 체계의 원리에 따라 실현시켜주는 그런 시장은 오늘 우리에겐 적잖이 낯설다. 더욱이 분업을 발달시킴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시장은 농담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오늘 우리의 시장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좀처럼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거듭 반목할 따름이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주안은 반목의 시장이다. 이 시장은 동시대 여타 주류 시장의 논리가 그러하듯, 철저하게 교환에 의한 교환을 위한 교환에 따른 상품시장이다. 이곳에서 교환되는 것은 더 이상 사용가치가 아니라 '상품-교환가치' 다. 그것은 또한 잉여가치이기도 하다. 교환이란 결국 잉여생산의 역사적 증대 과정을 기반삼아 그 자체만을 위한 생산력의 폭증과 그와 연계된 사회적 경쟁, 독점체제의 강화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오만가지 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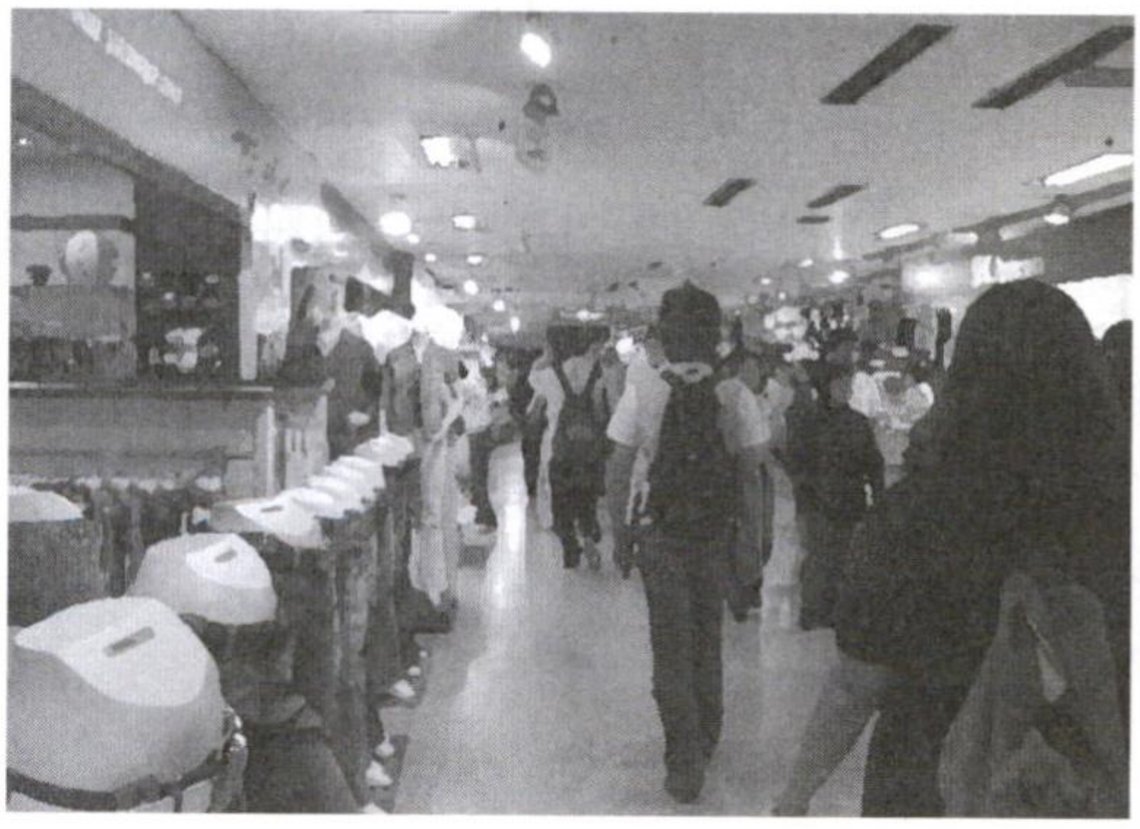
의 남발과 분탕焚蕩으로 이 도시공간에 들고나는 교환가치들은 단 하루라도 들끓지 않는 법이 없다. 이곳-주안은 우리의 순진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조정적이거나 자기발전적인 순수자유시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개인들에 의한 자유로운 거래와 교환의 장소라는 형식상의 정의와는 달리 내용상으로는 갖가지 선택과 서열화, 배제의 원리가 작용한다. 거기에 밀려들고 들러붙고 헤집어놓고 빠져나가길 거듭하는 수많은 미시권력형태와 중소자본이 서로 뒤엉켜 가열되는 갈등과 암투의 열기는 단기적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바쳐지는 자기쇄신의 몸부림, 가중되는 출혈경쟁 등으로 표출된다. 더욱이 그와 같은 양상이 비롯하는 우리 일상의 인과율은 익히 알다시피 화폐에 의한 '등가等價적 가치 재현' 의 고리들로 이어져있다. 하지만 유념하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대인-우리는 화폐적 가치에 철저히 스캐닝당한 존재이기에, 엇비슷하거나 제법 적당한 값으로 모든 사물의 가치를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그 전통적 재현의 논리를 믿는다. 아니, 결국 믿지 않게 됐다.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는 가치 일반에 대한 투명한 척도로서의 화폐가 아니라 그 자체가 무한히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화폐를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하게 되었기(물처럼, 밥처럼, 생명인양)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에 화폐가 지닌 가치 추상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상성의 도래와 확산이 오늘 우리가 선 이 작은 도심에도 그대로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른바 사물-상품을 뛰어넘는, 꿰뚫는, 녹여버리는, 날려버리는 상품-화폐의 초월적 권능 아래 이 도시공간은 벌써 점령당했다. 보이지 않는 화폐전쟁의 포화 속, 도심은 심리적 아수라장이다.

주안 일대의 지하상가엔 의류, 화장품, 장신구, 신발, 문구 및 팬시용품 등 살 것도 많다. 지상엔 동어반복처럼 엇비슷한 카페, 커피전문점, 주점, 식당,

노래방, PC방, D · V · D방, 댄스클럽, 화상경마장, 중소규모 멀티플렉스 등등 놀아볼 곳도 많다. 이 미로 같은 상권 안팎엔 형형색색의 모텔들, 사우나, 사설 학원, 지방행정관청, 대형 오피스텔, 금융 및 보험회사 지점, 미용실, 예식장, 병원 등 볼일 볼 곳도 많다. 이 모든 사물, 공간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질긴 화폐-실에 꿰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물게 자리한 공공시설도 부분적으로 예외가 아니다. 주변의 조악함 때문에 조금은 안쓰러워 보이는 교회와 성당도 전적으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런데 그 가치들의 교환은 대부분 화폐가치에 점철된 계산과 투기, 그에 따른 가치세탁과 표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소외되고 박탈되는 가치환원의 결과로서 공공연히 흡수되고 집적되고 집중되고 확장된다고 여겨진다. 나는 이 양상을 앞서 말한 도시공간의 거듭되는 탄력과 급속한 팽창의 원동력으로 파악한다. 아마 부단한 잉여가치화의 계열을 따라 치닫는 '자본' 의 정체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상품가치에 적극 대상화되어 있는 자신의 노동력을 어쨌든 '지출' 함으로써 살아갈 수밖에 없다(숙명처럼). 이 같은 지출에 얽힌 문제적 상황은 대부분 '임금노동' 의 형태로서, 필요노동(사회 전체의 기초 생산성과 거품 없는 살림 유지를 위해 요청되는)을 가볍게 초과하는 '잉여노동의 무한한 가치증식' 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분히 맹목적이라는 데 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아예 목졸라버리기라도 할 듯, 대량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결과야 어찌됐든 생산력 자체의 기술적 진화 및 기계-전자화로 인해 사용가치에 대한 소박한 희구希求를 훨씬 뛰어넘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제법 만끽하면서 산다. 화폐적 추상과 상품-화폐적 교환 시스템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스스로를 부합시켜 나갈수록, 우리의 삶이 이른바 화폐적 고부가가치의 연쇄적 실현을 통해 진정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매혹은 화폐적 교환가치 속에 고밀도로 응축, 응집되어 섬세하게 수치화되는 방대한 잉여물질의 양에 있기 때문이다(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이 세계의 잉여물질 총량을 신속히 시뮬레이트하여 손쉽게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 아니다). 무릇 모든 형태의 잉여는 우리 살림의 연장이자 바깥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용가치의 슬기로움은 물질적 가치의 소통과 거기에 깃든 정신적 가치, 즉 '차이의 교류와 연대' 로까지 번져 우리네 살림의 연장적 효용성과 윤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은가. 모든 잉여는 적절히 잘 활용하면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생태' 에 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 이 도심에 만연된 잉여는 극히 소외된 형태의 잉여, 다시 말해 자연을 자신의 외부로서 대상화하여 유린하는 자본, 그것에 종속된 잉여다. 더욱이 그러한 자본의 욕망은 이제 자신의 내부로부터 새로운 외부를 창출해냄으로써 잉여(가치) 자체를 더욱 착취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치증식에 눈이 먼 잉여노동은 노동해방은커녕 더더욱 효율적인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을 뿐이다. 필요한 만큼 연장된 잉여의 절제된 사용 따위는 여기서 도무지 바랄



수 없게 되었다. 잉여와 결부된 우리의 현실감과 참여의지는 이 도심에서 유독 배타적 이기심의 교환으로, 화폐적 이윤율에 도착된 정서적 부침浮沈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내밀기 일쑤다. 지나친 도시가 자신의 사막화를 자초했듯, 그 도시의 지나친 잉여가치가, 더욱이 이를 숭상하고 부추기는 시장이 우리를 제각기 수많은 외딴섬으로 만들어버렸다. 고립무원에 가까운 상태에서 우리는 지칠 겨를도 없이 자신을 다그치며 몸부림친다. 우리는 각기 외로운 투쟁의 섬이 되어 이곳-주안을 떠다니고 있는 셈이다. 다른 이들과의 소통은 자꾸 유보되거나 단절되고 결국 포기되기까지 한다. 어떤 도착적 교환의 환상만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다. 주문(呪文)을 외듯, 우리는 말한다. 나의 사용가치를 초월하여 나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라. 화폐가 수렴하는 더 높은, 더 넓은 잉여가치를 가슴 속에 무한히 품어라.

초월의 욕망, 욕망의 미로

지나친 도시의 사막을 거쳐 지나친 시장의 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안이라는 국지적 공간을 쉬지 않고 휘돌아나가는 동시대성, 그 '시간의 내재적 초상' 을 어렴풋이나마 드러내고 곱씹어보려 나름대로 애를 써봤다. 그런데 시간의 내재적 초상이라? 참 어렵고도 확신이 안서는 말이다. 감히 누가 제 손아귀에 쥐듯 그걸 보았다 말할 수 있는가. 주안은 그 물리적 특성상 철로와 간선도로를 오가는 대규모 교통량과 그에 상응하는 유동인구를 현상적 근간으로 하여 파악될 수밖에 없다. 사실 누구라도 그곳에서 당장 제 자신의 지각의 촉



수를 뻗어 채집할 수 있는 물질적 현재의 총량은 극히 미비하다. 이쪽 저쪽에서 수없이 밀려들어왔다 밀려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막의 모래알만큼이나 그지없다. 그 방식이 포착이든 추적이든 재조합이든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세한 먼지처럼 희뿌옇게 남는 휘발된 시간의 지문뿐이다. 더욱이 그 단일성도 찰나일 따름이다. 그 지문 위엔 방금 몰려드는 또 다른 상대적 시간-간격이 무수히 겹쳐지고 문질러진다. 이러니 소위 주안에 대한 동시대적 고찰의 하나로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이어지는 이 글쓰기는 그토록 무심하고 냉정한 시간의 진행, 그 가없는 흐름을 낑낑 거스르는 '국지적 몽유' 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껏 거슬러 도착한 지점에서 다시 떠밀려가기가 다반사지만, 애써 버티기라도 해야 한다. 두 팔과 두 다리로 몸통을 힘껏 지탱하고 느릿느릿 이동시켜가며, 할 수 있는 한 마치 기어가듯이 천천히 다시 거슬러가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몽유란 어차피 구불구불한 역설과 위반의 행로다. 나아가 마찬가지로 동시대적 시간의 무상성無常性에 맞서는 끈끈한 '자기반추反芻행위' 에 다름 아니다. 이곳-주안을 염두에 두고 볼 때도 이 도시공간을 경유하는 물질적 현재의 온갖 흐름들에 분열적으로 틈입함으로써 이를테면 '잠시 멈춤pause' 을 시도해볼 수 있는 자기인식의 기술이란, 결국 여기서 일컫

게 되는 몽유이고 거기에 결부된 반추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몽유란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이든 일단 스스로 거슬러 자신에게 유입시킨(또는 접속시킨) 흐름들을 왕성하게 먹고 그에 상응하는 현실 인식과 판단으로 자잘하게 뭉쳐지는 '촉촉한 자기분열의 거름-똥' 을 싸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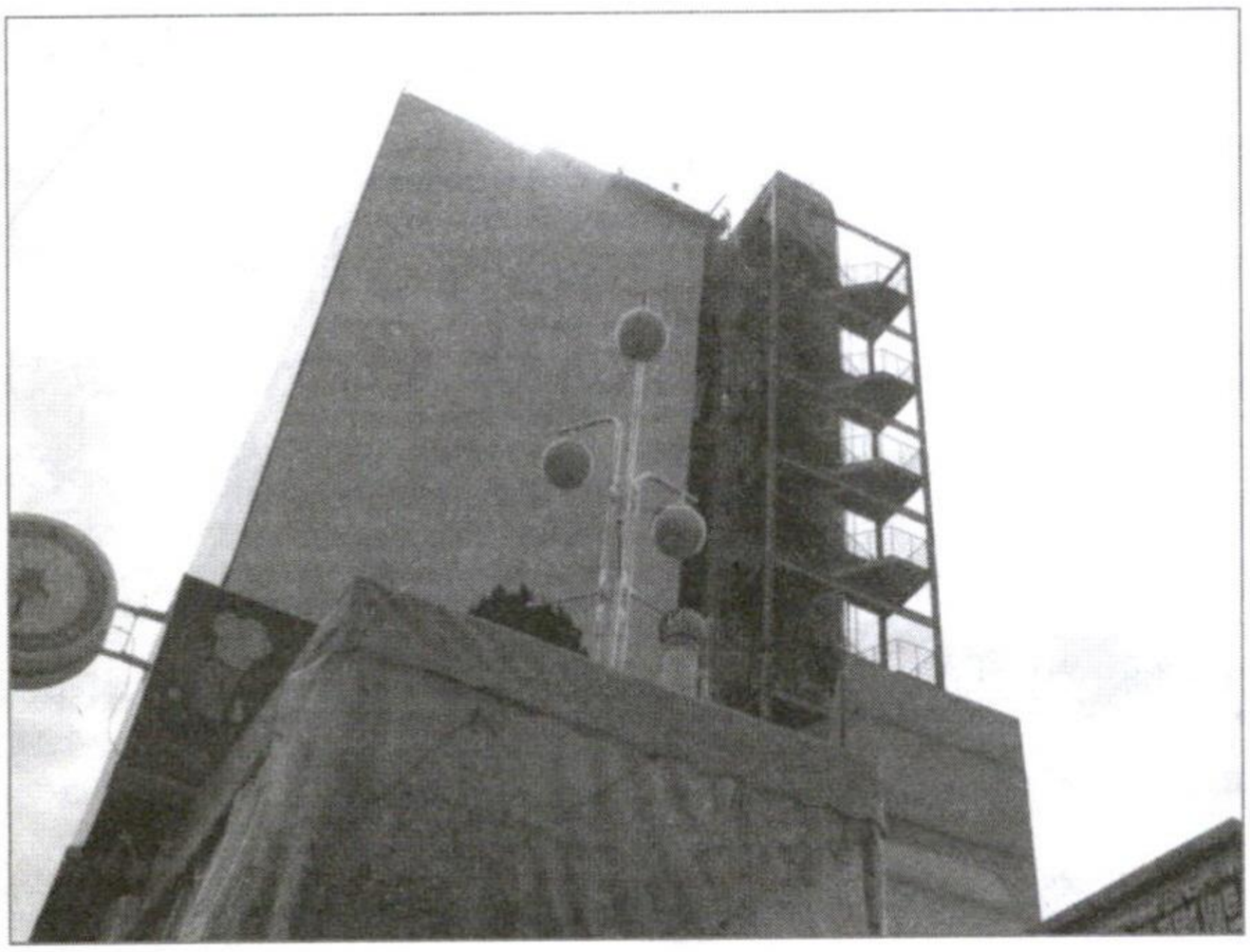
앞에서 슬쩍 흘려두긴 했지만, 이는 무릇 흙 속의 지렁이가 제 가느다란 몸을 꼼지락거려가며 수행하는 생태행위를 그대로 빼닮았다. 몽유주체는 지렁이를 닮는다. 아니다. 아예 지렁이로 '변신한다' 고 해야 맞다. 이즈음 이 글에서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지렁이-되기다. 지렁이는 암수한몸雌雄同體으로 한 개체의 몸 안에서 정자와 난자 모두를 만든다. 그러나 제 몸 안에서 자가수정自家受精을 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지렁이와 정자를 맞바꾼다. 근친교배가 유전형질의 악화와 퇴행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이 녀석의 생리 속에 각인된 탓이다. 지렁이가 가진 그러한 생태적 본질은 몽유의 실존적 원리를 그대로 응변해준다. 지렁이가 일깨워주는 바에 따라 몽유 또한 그 동기와 결행, 수행과정 전반에 있어 자신의 고유함-차이, (스스로 생성하는) 완결성에 뿌리박는다. 하지만 그 수행의 목적은 다채로운 이질적 유입과 접속의 방향을 향해 무한히 열려있다는 점. 더욱이 그럴수록 좋다는 점, 이것이 몽유의 실천적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지렁이가 살갗으로 숨을 쉰다거나 두더지처럼 흙 속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 자체(자신을 이루는 생태-환경)의 숨구멍을 열어준다는 점, 지렁이의 피가 혈액의 응고를 막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 등의 생태 사실은 몽유의 실존적 덕목으로 그대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이러한 수행과정을 거쳐 결국 지렁이가 남기는 흙 속의 숨구멍마냥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몽유로다. 이 루트는 우리 자

신의 물질적 한계상황, 이를 해체하는(갉아먹는) 시간의 인정사정없음, 앞서 말한 이곳-도시의 재현의 악순환, 우리 삶의 모순과 비정상성 등에 대한 실존적 결행이자 수행의 궤적이라고 되새겨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궤적의 주목할 만한 속성은 그것이 유독 자기 내재적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지렁이 수준의 하등동물로까지 제 몸을 바꿔가며 벌이는 그와 같은 수행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수행은 일단 적이 엉뚱하고도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처절해 뵌다(지렁이의 몸짓은 이러한 상호 모순적인 감정의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짙은 자기 연민의 정이나 비애감에 젖어있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 내재적 인식과 실천 방식이 자폐적인 성향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몽유는 일단 우리-사회적 개체에게 부여될 법한 어떤 의무나 책임에서 비롯되는 바가 아니라고 파악된다. 의무나 책임의 소산이라면 시쳇말로 그렇게까지 스타일을 구길 이유가 뭐 있나. 또한 그래서인지 무엇보다 개체의 생리적 진실 내지는 욕구에 기초하여 수행의 실마리를 잡아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 같은 자기생리를 딛고 일어나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수준의 동기, 다시 말해 '인식론적 동기'라 할만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기왕 앞에서 얘기된 바의 맥락을 좇아봄으로써 대답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맥락이란 개체 안에 유폐된 자연과의 접촉을 향한, 나아가 망각되고 훼손된 인간 본질의 현실적 복원과 재정립을 향한 우리-현대인의 근원적, 보편적 바램에 다름 아니다. 몽유-수행이 지니는 인식론적 동기는 무릇 그 바램 이상의, 이하의 것도 아니다.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이해로도 그 진정성만큼은 그다지 오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 본다. 어쨌든 몽유는 내재적 지향을

지니되 상존尙存하는 루트를 따라 상투적 족적足跡을 반복하는(그러다 점차 내부로 함몰된 나머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최대한 바깥으로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워진, 사라진, 막혀버린, 꺼져버린 루트의 재개척과 모색에 힘쓰고자 한다. 이 점이 중요할 듯싶다. 그리고 이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몽유는 결국 어떤 '자기 내재적 초월' 의 경지에까지 도달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무릇 지렁이로의 위반적 전락이 초월로의 가능한 상승의 길을 열게 된다. 진리는 자기 바깥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초월은 탁월한 자기변신과 수행의 노력 앞에 실현되는 궁극적인 대가가 되고, 이 대가적 초월의 영상 속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동시대성, 그 환한 시간의 내재적 초상일 테다. 비록 그마저도 섬광처럼 번쩍이는 빛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요컨대 그러한 쉽지 않은 '사건(깨달음 같은)' 은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해 진정 '욕망할' 만한 무엇이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혁명이나 초월의 가능성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시쳇말로 통 서프라이즈가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주안역 지하상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 어느새 굶주림에 대한 공포와는 멀찌감치 떨어져 살 수 있게



된 이 온유溫柔한 일상 자체가 우리가 바라던 혁명이 아니었냐고 반문해보기도 한다. 톡 쏘는 콜라 때문에 목구멍을 타고 갑자기 트림이 올라온다. 여전히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얼마 전 신문보도가 영 믿겨지지 않는, 이천사년 오월 초순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두 시쯤. 봄볕이 따갑다. 나는 미추홀길을 사이에 두고 주안 동/서부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바야흐로 폭발하는 욕망, 흘러넘치는 소통의 욕구가 우리에게 가장 이론의 여지가 없는 동시대상同時代像이다. 욕망은 진정 해방되었는가? 소통은 다양한 접속의 계기와 흐름을 타고 우리 안팎에 진정 노닐고 있는가? 그러나 한편에선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연을 가슴에 묻고 자살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욕망은 욕망이되 뒤틀리거나 소외되는 욕망이요, 소통은 소통이되 왜곡되거나 막다름에 부딪힌 소통이기 쉽다. 그만큼 우리 삶의 조건이 열악하다는 방증일 테다. 그 많은 패스트푸드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의 현실은 종식되지 않았다. 더할 나위가 없을 정도의 물질적 충만함, 그 한가운데에 허리 꺾인 빈곤의 현실이 방치되어 있다. 대량생산이 종종 그에 비례한 대량손실로, 대량소멸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토록 불안정한 삶의 조건이, 그에 대한 맹렬한 두려움과 좌절들이, 타오르는 분노들이 이 도심 곳곳으로 내달리다 서로 부딪치기 일쑤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져 아예 땅바닥을 뒹구는 우리의 자화상. 소리치며, 우는지 웃는지 소매를 붙잡고 늘어질 때가 한두 번은 아니다. 한없이 점멸하는 이 도심의 밤거리에서 우리는 불현듯 응시하게 된다. 우리의 욕망이 마치 미로처럼 이 도심 안팎에 서로 엉키고 뒤틀려 제 자신을 수놓게 되는 슬픈 장관. 이즈음, 여기저기 길들이 굽고 휘고 뚫리고 끊기고 막히고 넘어지고 쪼그라들기를 반복한다. 무릇 몽유로는 그러한 도심-욕망의 미로와 다르지 않다. 다만 그 미로 속에서

더 깊이 자기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을 적극 막아내고자 한다. 나아가 그 가없는 환멸과 체념의 루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이른바 '가능한 횡단과 우회와 접속' 의 루트를 지렁이마냥 개척하고 연결하고자 할 따름이다. 앞서 말했듯, 몽유로는 자기 종속의 퇴로와 해방의 활로를 동시에 품고 있다. 얽히고설킨 이 도심의 미로 속에서 퇴로와 활로의 구분은 당연히 쉽지 않다. 몽유주체가 바라는 활로의 가능성이 일시적이기 쉽고 미로의 지도 자체가 매번 급변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몽유의 행로로서 발견되거나 개척되는 표층과 심층의 구분은 딱히 도움이 되지 못한다. 표층의 외침과 소란함도 심층의 침묵과 고요함도 다 같이 아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이곳-주안을 매개삼거나 터전삼아 살아가는 개별 몽유주체, 즉 지렁이는 대부분 부드러운 흙이 아닌 딱딱하고 거친, 게다가 매우 지저분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상대로 하루하루를 생존해야 한다. 연한 살갗이 얼마든지 찢길 수도 있음은 물론이고, 인파 속에서 구두에 밟히거나 혹독한 복사열 때문에 말라죽을 수도 있다. 도시 지렁이의 몽유는 실상 '목숨을 내건 산책' 이다. 우리가 놓인 이 삶의 순환적 국면들(일상)의 실상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말이다.

몸의 정치경제학, 사용인가 교환인가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는 소통이 안 되는 물질이다. 사전적 정의를 빌려 되새겨보건대,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이루는 육신에다 그 자연적 바탕이 무엇보다 그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나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을 따름

인 것이다. 물론 거기에 살아있는 목숨, 즉 생명이 깃들어 있으니 숨을 쉬고 움직이며 그 전체에 따듯한 체온이 흐른다. 더욱이 알맞은 구강口腔구조 및 발성發聲기관의 도움으로 다양하고 섬세한 분절음을 내고 이를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다. 그러니 알다시피 우리는 말音聲記號을 만들고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으며, 기록은 물론 저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자신의 문명적 습성에 대한 통상적 이해일 뿐이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말없이 덩그렇게 지금 여기에 있다. 무릇 몸은 매번 어떤 '문제제기問題提起적 상황' 아래 놓인다고 본다. 감각을 통하여 부단히 의식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런 객관적 실재로서의 '자기 사용의 문제' 가 매순간 첨예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살아있는 물질로서의 나의 몸을 '어떻게 써야하는가?' 우리의 삶은 자기-몸의 사용에 있어 회피하기 힘든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기 일쑤다. 더욱이 '타인과의 소통(문제)' 은 유독 난제難題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보통은 말을 잘 주고받음으로써 소통의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언어적 소통은 우리 몸이 이루는 사용, 그것의 '현실' 에 있어 일부분에 속한다. 그 효용성이나 범위, 사용비율, 소통적 기여도가 무척 높기는 하되, 그것만으로는 '우리 몸이 사용되는 동시대적 실제' 모두를 아우르지는 못하는 것이다. 아주 비근한 예로 섹스를 떠올려보자. 침대 위에 있는 남녀는 일단 각자 몸의 사용에 있어 가장 노골적인 문제적 상황 아래 놓인다고 여겨진다. 과연,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저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나? 본격적인 상호교합은 그 주도적 국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성실한 '노동교환' 을 통해서만 마무리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단순한 신체적 갈급이나 낭만적 사랑의 정서를 최대한 물리치고 본다면, 섹스라는 문제적 상황 아래

에서 우리 몸의 사용은 먼저 '철저한 노동의 수행' 을 통해 현실화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마련되는 '갖가지 잉여적 생산(감정과 교감 목록의)과 그것의 수평적 교환과정' 을 통해 어떤 감동적 실재감이 이해당사자 서로에게 각인된다고 할 수 있다. 무릇 섹스의 현실감, 그 리얼리티는 우리 몸의 정직한 사용이 아우르는 '노동-생산-교환-소통-연대라는 오중순환五中循環의 실제-고리들' 을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단호하게 말해 몸의 정직한 사용이 없다면 섹스도 없는 셈이다.

그런데 정작 현대인-우리는 자신의 몸을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그 몸-들의 사용이 아우르는 오중순환의 실제-고리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나아가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아있는가? 기왕에 섹스 얘기가 나왔으니 그걸 아예 안주로 삼자. 오늘 우리의 몸-들은 많은 경우, 섹스가 없이 산다고 본다. 이는 물론 자기 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사용한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왜 정직하지 못할까? 그건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 오늘 이곳-주안의 밤거리에서, 또는 대한민국 전역의 환락가에서 몸-들은 사용되기보다는 '교환된다.' 그렇다면 교환 자체가 정직하지 못함의 근원이라도 되는가? 물론 아니다. 우리는 오늘 어차피 교환만으로 이 삶이 펼쳐놓는 대부분의 국면에 대처하고 있으니, 그도 그리 나무랄 바는 못 된다. 문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벌이는 그 교환적 현실의 공리公理들 속에 앞서 말한 오중순환의 실제-고리가 온전히 자리하여 작동할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 그리고 생산 현실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임금노동자들, 게다가 근래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야기되고 분출되는

온갖 대립과 반목, 사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교환 현실은 어떠할까? 이건 참으로 암담한 지경이라고 말하고 싶다. 교환은 이 사회에서 발생되고 진전되는 모든 가치를 쉬지 않고 빨아들이고 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교환의 놀이터, 롤러코스터, 대규모 콘서트장이라고 일컬어볼 수 있다. 우리는 너나할 것 없이 교환의 자유를, 그 기치를 내세우며 시도 때도 없이 열광하지 않는가. 그것이 마치 우리 인간됨의 변함없는 본질인양, 그래서 대단히 정의롭고 평등한, 따라서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가. 그리하여 당연한 상식이 된 교환, 그러한 교환의 시장. 그것은 정부의 주도력과 사회의 암묵적 합의, 개별 자본가 사이의 이기적 결탁 등으로 한층 공고해진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소시민들에게 시장은 현대의 장엄한 물질 성전聖殿으로 아른거리기 쉽다. 그러나 우리 몸의 사용은 단지 교환만으로는 그 정상적 운용運用의 조건이 확보될 리 만무하다고 본다. 오로지 교환만이, 그 성질과 속성만이, 그것을 숭상하는 제도와 담론만이 난무하는 현실 상황은 기실 몸의 정상적 사용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소외시키며 변질시키는 난감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그로써 우리의 몸은 여지없이 망가져갈 수 있다. 그것의 사용가치는 점차 망각되고 박탈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만약, 그 교환가치마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파산을 맞이하게 된다. 그 다음은? 자해하거나 혹은 자살하거나, 하여간 아주 나빠지는 것이다.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죽어버리는 극단적 행위는 당사자가 맞닥뜨렸을 정서적 공황의 끔찍스러움 이전에, 아기였을 때 우리 몸이 뿜어내는 원초적 순진함, 따듯함, 발랄함, 부드러움 등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비통함보다 억울함의 눈물이 울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토록 환한 생명의 기운이 흘러넘치던 우리의 몸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러야 한단 말인가. 곰곰이 헤아려 볼진대, 우리는 본래 교감과 소통에 관한 무한한 잠재력을 타고 나는 동물이다. 이 동물이 펼쳐내는 세밀하고 정교한 동시에 힘차고 날렵한 몸의 놀림들(춤과 같은). 그 생산성, 연장적 잉여들, 더욱이 그로부터 날개를 펴는 '물질상상력' 은 차마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몸의 능력을 소유한 착한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걸 증명해보라고? 의심스럽다면 이제껏 인류의 삶이 일궈낸 저 방대한 물질문화의 형상들, 거기에 깃든 놀라운 정신들을 찾아보고 느껴보라.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할까.

우리 몸의 정직한 사용은 곧 현실에 대한 물질 상상으로 진작되고 구축된다

고 본다. 따져보면 몸은 그 자체가 정신에 반영되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물질은 자연이라는 방대하고 심원한 자기순환식式 화학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분자교환 및 배열, 전환, 조합 등의 내재적 공정(그 자체로서 심오한 메커니즘이다)을 거쳐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자연사물이 된다. 우리 몸은 그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연사물 중의 하나다. 다만 물, 공기, 광물 등의 무기물과는 달리 고유의 생활기능을 지닌 생명에 속한다. 생명의 생활기능이란 생물학이나 생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물질대사행위를 가리킬 것이다. 헤아려볼진대, 우리 몸은 생명이 지니는 그러한 원리적 보편성의 토대 위에 고유의 '인간학적 관점' 이 관철되어 이루어진 어떤 '물질 집약의 상태, 나아가 재순환의 실재' 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몸이 시시각각 토해내는 상관적 물성이란 그러한 집약과 재순환에 뒤따르는 무엇이다). 여기서 인간학적 관점이란 부단히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해명하고 규정해보려고 애가 닳도록 몸부림치는 인간적 본질과 속성에 결부되어 있다. 무릇 몸이 이루는 물질 집약과 재순환의 현상적 표면(현실)은 인간(학)적 고민과 번뇌로 요동친다고 본다. 그러니 몇 번이고 헤아리며 곱씹어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몸의 사용을 놓고 매번 얼마나 '절박해' 질 수밖에 없는지. 더욱이 그 절박함이 우리 삶의 순환적(동시에 한계적인) 국면들을 통해 얼마나 첨예한 '실존성(그 자체가 포괄하는 문제제기적 상황)' 으로 뭉쳐져 우리 몸에 직접 육박해 들어오는지를. 현실에 대한 물질 상상은 기실 이와 같은 실존의 국면 속에서만 어렵사리 실현될 따름이라고 본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몸의 절박한 사용의 결과가 낳은 최초의 도구제작으로부터 오늘날 고도의 잉여적 집적과 확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놀랍

고도 거침없는 물질 상상의 서사를 이어왔다. 그 벅차오르는 서사 한가운데, 여기 도시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그러한 상상의 결과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다. 주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주안에서 습관화된 물질 상상을 진작시키고 그 관성적 결과들(재현의 잉여들)을 구축해낸다. 좋든 싫든, 이곳-주안은 우리 각자의 끈질긴 생계와 크고 작은 살림의 기초가 부단히 마련되고 순환되는 장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표층의 산만함과 천박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아예 외면하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안은 이미 말한 상관적 물성이 현상 차원의 구체적 역동성을 지니고 표출되는 장소다. 우리가 가장 피부로 와 닿도록 느끼게 되는 이른바 '방금운화(方今運化)의 세계' 가 바로 여기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몸을 뛰어넘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국지적 도시공간의 연장적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어 살 수는 없다는 말이 성립된다고 본다. 오히려 몸 자체는 부산이든 제주도든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실적 공간 표면에 '등록되어 각인된' 자신의 일상 자체, 앞서 말한 그 반복과 순환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나날들은 스스로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주안이라는 냉정한 인공의 터전은 오늘도 돌이킬 수 없이 나름의 도저한 인과율에 따라 그 모든 물질적 현재의 흐름들을 흡수하고 배출한다. 무릇 이 상태가 곧 우리 몸의 국지적 사용이 이루는 가장 첨예한 문제적 상황이자 현실이라고 본다. 심히 마뜩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를 수긍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침대 위의 문제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아니면 엇비슷하게라도 스스로 물어볼 수 있을 게다. 과연,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이 도심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덧붙여 기왕에 이룩된 이 도시적 물질 상상의 결과들이 우리 몸의 사용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

는 방향으로 일궈질 수는 없는 걸까?

이제 우리는 이 도심에서의 일상생활이 몸의 사용을 둘러싼 문제제기적 상황의 노골성, 그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물론 섹스에서도 마찬가지다. 하긴, 섹스는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의 일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은가. 그러나 그렇듯 팽배된 긴장감이란 굳이 이런 글을 통해 논쟁적으로 불러일으켜지지 않는 이상, 차라리 낯선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고 본다. 몸의 사용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인식이 의외로 심하게 무뎌져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와 관련되어 정작 우리의 인식 요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인과율이다. 헤아려보건대, 인과율이 지배하는 물질세계는 몸의 사용과 직결된 '충만한 경험의 장' 이면서도, 그 사용의 해당 실제들을(나아가 그것들이 모여 이루는 현실 단위까지) 관성적 기대감과 성취 안에서 공전空轉시키는 '필연적인 환원의 장' 이기도 하다. 우리 몸은 인과율의 세계에서 뚜렷한 사용의 경험을 이룸과 동시에 그 경험의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동시대 인과율의 세계는 일찌감치 전자매체에 포섭되어 그에 따라 섬세하게 구조화된 세계다. 이곳의 현실은 무릇 미디어적인 어떤 것, 아니 '미디어 자체' 로서 양산된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는 물질과 그것에 상관적인 모든 것들을 광범위한 추상적 대상세계로 흡수하여 재편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힘에 의해 재편된 모든 것들은 광학과 복제기술, 극소전자공학 등의 급속한 발달 이후 우리가 각종의 스크린이나 모니터 상에서 여실히 확인해볼 수 있듯, 전자기호, 다시 말해 매끄럽고 가벼운 '이미지' 로 전환되어 표출된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무한히 자기를 복제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알다시피, 이미지가 가진 자기복제와 재현의 마력이 동시대의 물질 인과율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했지만, 동시대의 인과율이 우리 몸을 비롯한 모든 물질 사용 및 그 노력에 대한 필연적인 환원의 장으로 거듭되듯, 이미지 역시 충분히 그러하다. 미디어에 의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파급되는 동시대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 위력적인, 파괴적인 '물질 환원의 전자기적(電磁氣的) 권능' 이라고 일컬어볼 수 있다. 이토록 물질이 환원되는 그만큼, 그에 결부된 수많은 사용의 서사 따위는 아주 쉽게 잊혀지고 버려질 수 있다고 본다. 몸의 사용을 둘러싼 문제제기적 상황의 노골성, 그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우리 삶의 순환적 국면들 속에 분명 실존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나 통상의 물질 인과율에 따라 주조되는 표층-현실에서는 전혀 현실이 아닌, 그저 불필요한 무엇쯤으로 낙인찍히기 쉽다. 물질 인과율과 합치된 이미지의 드러나지 않는 전횡專橫이 그 모든 사용의 문제와 실제를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어느새 우리에게는 몸의 사용은 온데간데없고(적잖은 경우엔 몸 자체까지도), 원인도 결과도 매번 이미지로부터 이미지까지만 남는다고 본다. 너무 심한 말일까? 하여튼 여기서는 전혀 별개의 논의대상으로 치부될 듯한 이미지와 그것이 포괄하는 동시대적 재현의 메커니즘이, 실은 매우 공고한 바탕을 깔고 우리 일상의 물질 인과율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인과율은 정말 도저하다.

암담하게도 우리 몸의 사용은 적이 요원한 희망사항쯤이 되어버리는 걸까? 일상의 물질 인과율과 합치된 이미지의 재현 메커니즘은 실상 그로써 작동의 한계선을 긋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익명성이나 교환-잉여가치, 욕망 등의 실제-현실로까지 확산, 전이되어 우리를 좀더 한숨짓게 만든다

고 본다. 이미 현실화된(익숙해져버린) 설상가상의 지경으로 파악되거니와, 이른바 이미지에 의한 물질 환원과 인과율적 확대 재생산 속에서 우리 몸은 기어이 이미지로 압축되고 평면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지가 되어버린 몸은 그 자체로서 투명한 익명성의 기표가 되어 떠다닌다. 몸은 더 이상 불투명한, 그것만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물질이기를 포기당하는 것이다. 이제 몸-이미지는 무한한 교환의 가능성, 그를 위한 소통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오늘날의 시장으로 나와 상품으로 거래될 경우,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이 화폐가 수렴하는 잉여가치로 증폭된다. 이 '증폭-울림' 은 부단히 복제되고 재현되는 잉여가치의 효율적 증식을 알리고, 나아가 그를 자양분삼아 생성되는 반성 없는 욕망의 출현을 예감하게 한다. 사용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몸-이미지의 궁극적 활성상태는 바로 그 같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욕망을 욕망하는 욕망' 의 한량없는 날뜀이 우리의 극렬한 현실로서 무한히 도열되고 팽창되기에 이른다. 이 국지적 도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나날들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장엄한 광경을 연출한다.

몽유의 사건, 사건의 몽유

어느 시인은 "희망은 작용하는 거짓말" 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나는, 아울러 우리는 어떤 희망을 얘기한 걸까? 우리가 선 이 국지적 도시공간의 사회생태적 전환과 그 건강에 대한 희망과 전망? 그런 공간에서의 몸의 사용 문제를 필두로 한 자기회복 내지는 복권復權에 대한 희망과 노력? 이렇게 진지하게 정색

을 하고 있는 것만이 희망의 전부는 아닐 테니까, 굶주림과 빈곤에서 벗어나고픈 소망? 돈에 대한 열망? 남다른 잉여-부가가치의 추구? 아니면 엉뚱한 익살과 자기수행의 목소리, 몸짓을 담아 몽유가 밝히는 희망? 변신을 통한 희망? 산책에서 마주치는 희망? 글쎄, 잘 모르겠다. 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다 할 희망을 얘기하거나 서로를 위안하려 애쓰지는 않았으니까. 헤아려 보건대, 이제껏 우리가 나눈 얘기는 무턱대고 희망에 부쳐질 만한 것들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우리의 얘기는 함부로 희망을 말할 수도, 뻔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이 삶의 '양도될 수 없는 조건'을 자기인식의 발판으로 삼아 제기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조건이란 무릇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 각자의 몸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서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가 겪어내는 경험의 총체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삶이 그를 통해 이루는 그 자신의 가능성이자 한계라고 여겨진다. 삶이란 몸이 태반에서 밀려날 때부터 거기에 기입되었다가 몸의 성장에 따라 점차 펼쳐지게 되는 시



간의 형식과도 같다고 본다. 시간의 형식으로서의 삶은 몸을 통해 연장적 효용성을 꾀하게 되며, 또한 그를 통해 한계적 유한성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그 생생한 서사와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살림이다. 요컨대 살림은 우리 '희망의 유물적 근거'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선용善用' 함으로써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할 것이다. 우리가 품는 삶의 당위當爲란 오직 그것뿐이라고 본다. 이른바 주어진 몸의 정직한 사용 문제는 그러한 선용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삶의 당위적 쟁점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몸을 잘 써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름대로 살림을 이루고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게 아닌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쟁점은 원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존재에 대한 부단한 인식론적 요청으로서 제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적 자기처분 및 소유에 대한 권리 정당성 요구로서 제기되는 바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양도될 수 없는 삶의 조건으로서의 우리 몸, 그것의 사용가치는 그 같은 요청 및 요구의 진정성과 맞물려 실로 명백해진다. 그리고 그만큼 간절해진다. 나아가 새삼 소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작은 국지적 도시공간을 무대로 하여 나날이 표출되는 우리 몸의 사용은, 더욱이 그것이 아우르는 동시대적 실제-현실은 한마디로 척박하다. 이와 함께 그곳에서의 우리 살림은 주객이 전도된 채 나날이 기형화되어가고 있다고 파악된다.

지금껏 우리가 나눈 얘기를 근거로 짤막히 헤아려보자. 이곳-주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매고 살게 되는 교환 개념은 실상 우리 몸의 사용의 현실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한 고리-사슬에 불과하다. 이는 비유컨대, 생명을 이루는 다양한 정보(DNA, RNA) 및 작용사슬(단백질)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오로지 교환만으로는 우리 삶이 뒤틀려나가기 십상이다. 삶은 그 자체로서 자기파괴에 가까운 증상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우리 살림은 뜻하지 않은 자학의 몸살을 앓게 된다. 살림이란 우리 인간에 의해 사물화된 물질 사용의 개별 실제들, 그것을 토대로 하여 건립되는 일정 단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물질적 현재의 흐름을 거두어들이고 마름질해내는 '삶의 기술' 에 다름 아니다. 거기에는 우리 몸을 비롯한 모든 물질의 연장적 효용성(잉여의 생산 및 제작)과 교환의 합리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살림은 상호필요에 근거하여 교환가치를 늘리고 아우를 따름이다. 그러니 그 자체로서 제한적 자기소유지분임과 동시에 확대적 사회-공공지분을 뜻한다. 요컨대 살림은 '사회적 물질순환' 과 '인간학적 최적화最適化의 추구' 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적 소유와 이윤에 대한 부단한 선취의식이 부각될 때, 그것이 역사적 정당성을 입고 이데올로기화될 때, 살림은 경제행위의 대상으로 묶여 그저 총량화된다. 그것은 배타적 교환을 위해 포획되어 목이 잘린 자연사물의 집합적 양태가 된다. 시장은 그렇게 총량화된, 다시 말해 수치화하기 쉬운 살림의 도살장이 된다. 그곳에서는 점점 계산과 투기의 양상이 노골화된다. 그에 따라 시장은 상호필요보다는 세력관계에 의해 붙잡히고 이끌어진다. 어떤 특정한 힘의 누적과 그에 빌붙는 위선의 욕망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된다. 그곳은 급기야 참을 수 없는, 그러다가 체념을 서두르게 만드는 소외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거대한 경제와 자본의 그늘 속, 도살된 살림과 함께 우리의 희망도 별다른 가망이 없게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더더욱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지독한 거짓말에 불과한 희망 따위는 아예 제쳐두고서, 좀더 근사한 다른 궁리窮理를 해보는 편이 나

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궁리라? 그런데 왜 궁리하는가? 어찌하여 다른 어떤 궁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 따위 희망을 손아귀에서 놓지 못하는가? 정말 이렇게 묻는다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거짓말에 불과한 하나의 희망을 저버리고 나니, 그 역시 거짓말인 또 다른 하나의 희망이 움트게 된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희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하다. 한낱 거짓말일 뿐인 희망은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삶에, 일상에, 현실에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수태하고 출산하기를 반복하며 우리에게 다가서고, 아주 천천히 스며든다. 이는 주안이라는 국지적 도시공간이 우리를 대상으로 하여 벌이는 침투행각에 버금갈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주안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공교로운 습관의 형태로 고착화되는 그만큼, 거짓말인 희망은 우리에게 스며들어 그 희망에 내재된 자기요청의 내용에 걸맞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변화는 우리 각자의 '자기선용의 맥락' 에 닿게 마련이다. 우리의 희망이란 알게 모르게 그 선용의 욕망을 차단하고 좌절시키는 '도시적 욕망의 배치와 재현의 규칙' 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안이 우리를 사실상 옥죄고 묶어두는 힘으로 작동할 때마다, 희망은 황당한 거짓말처럼 그 힘에 작용한다. 우리의 몸은 그 희망의 작용하는 거짓말 속에서 조금씩 제 자유로움을 찾고 거기에 눈뜨기 시작한다. 무릇 앞서 얘기한 몽유의 동기가 샘솟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궁리를 하는 그만큼의 희망을 스스로 수태하고 스스로 출산하게 된다. 우리는 부지런히 새끼를 치는 암수한몸의 희망-지렁이다. 지렁이 아기들은 우리 자신의 아기들이다. 그리고 그 아기들은 곧 거짓말 같은 몽유의 자손들에 다름 아니다. 혹 징그럽다 저어할지도 모르는 이 아기들. 그러나 우리가 아기였던 그 시절에 우리 자신이 그랬듯이, 순진하고 따듯하고 발

랄하고 부드럽다. 이와 같은 선명한 생명성은 우연한 실수를 통해 새로움을 유발시키는 생명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하나의 새로운 사건'으로 터뜨린다. 거짓말인 희망 속에 스스로 작용하여 샘솟는 몽유는 요컨대 하나의 사건이다. 도심은 몽유의 거짓말로 소리 없는 소동을 빚곤 한다. 그곳은 참말과 거짓말의 비등점沸騰點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불현듯 몽유의 사건이 터지는 장소가 되고야 만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 못하고, 자신에게 응시되고 자각되는 그 사건의 몽유를 자신이 궁리하며 이어보려 애쓴다. 이곳-주안이 그러한 수고를 마다할 수만은 없는 엄연한 자기선용의 실존공간임을 그저 냉소하지는 말자. 그러니 저기 횡단보도로 때마침 수십 명의 아기들이 뽀얀 살갗을 내민 채,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 그것도 산책이라고. 희망과 몽상과 망상 사이사이, 오늘 주안의 내일이 엿보이는 듯하다.

〈소설〉

똥막대 한 자루

- 주안 신기촌 한동팔전 -

■ ■ ■

글 · 조혁신 (소설가) / 그림 · 한희란(건국대 회화과 졸업)

1.

송림동 부처산에 터를 잡고 애면글면 입에 풀칠하며 뒤퉁스럽게 하루하루를 넘긴 것이 벌써 가을 문턱이다.

지난날들이 몇 해 같은 풍파 속이었지만 어느덧 8번지 사람들과 하찮은 발단으로 왜각대각 소리지르며 다투는 일도 예사롭게 여길 만큼 풍경분식 주인 한기준은 이곳 삶에 닳고닳았다. 별 개똥철학 같은 소리지만 풍파를 겪을수록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생살이란 죄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어 섬기며 뱃속이야 묵은 장을 담가놓은 듯 쓰리고 앞일이 캄캄하지만 겉으로는 허허실실 떠넘기는 것이 종국에는 편한 일이라 여겼다. 손님이 뜸해 벌이가 신통치 않은 날이면 몸이 달아 안달하던 그였지만 이즈막에는 오히려 성질이 느긋해져 가게청에서 걸상을 깔고 앉아 팔다 남은 막걸리 한 통을 꺼내어 낮술 한잔 걸치



고 홍얼홍얼 유유자적하는 날도 부쩍 늘었다. 그러나 겉모양으로는 무사태평이지만 가슴속은 양은냄비에 물 끓듯 그리 편치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즈막 기준의 고민이란 바로 인간이 남기고 간 흔적, 다름 아닌 똥, 유식한 말로 인분 치우는 일이었다. 기준이 세든 건물의 화장실은 재래식 변소였는데 쓰는 사람이 많아 한 달이 채 못돼 변을 퍼내야 했다. 변소간 치우는 것이야 똥구멍을 봉하지 않은 이상 누구나 당해내는 일인데 무슨 죽는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산동네에서 분뇨차라 일컬어지는 똥차를 불러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함께 세든 옆방 순희 엄마는 인분이 변소통 위로 볼록 솟아 뒷구멍에 닿도록 똥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니, 똥이 변소 천장까지 닿든 말든 사방 벽에 똥칠을 하든 말든 아예 신경을 딱 끊은 눈치였다. 그러니 변변찮은 분식점이지만 음식 장사라고 하는 기준이 제때 똥을 치워야 했다.

어쨌든 기준은 똥 치우는 일로 옆방 순희 엄마와 뇌꼴스런 신경전을 벌이느라 그야말로 똥을 쌀 일이었다. 일칭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우소'라 일컬어지는 변소간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근심거리가 기준에게 생겼던 셈이다. 그러나 변소 치우는 일로 하여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하직한 줄로만 알았던 동팔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상봉이었으며, 그와의 만남의 매개가 바로 똥이었다는 사실이 좀 더 희극적이었다.

2.

가게를 차리고 난 지 한 보름이 지났을까.

"화장실이 넘치는데 입때 치우지 않구서 뭐 하구 있어."

변소간에 다녀온 아내가 짜증 섞인 소리를 했다.

"뭔 일인데."

"변소에 한번 가보시지. 똥이 똥침 찌르겠어."

기준이 변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자 아니나다를까 똥 더미가 피라미드를 쌓아올린 듯 변소 구멍 위로 원추형으로 솟아올라 있었다. 아내 말마따나 영락없이 똥침을 놓을 기세다. 엊저녁까지만 해도 며칠 여유가 있어 보이던 것이 그새 장마철 잠수교처럼 위태위태해져 범람 직전이었다. 기준이 부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옆방 순희네 다섯 식구와 풍경분식에 찾아오는 대중없는 객들까지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내남없이 싸지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변소가 찬 것이다.

기준은 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이 알려준 정화조 청소회사에 분뇨처리차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했다. 주소를 말하고 언제쯤 분뇨차가 오냐고 묻자 전화통너머 담당직원은 곧 보낼 테니 기다려보라고 했다. 그러나 금방 보낸다는 똥차는 한나절이 되도록 오지 않는 함흥차사다. 그사이 여학생 손님 하나가 아저씨 화장실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왔다. 기준은 화장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변소간을 일러주기도 민망한 터라,

"급하시지 않으면 딴 데 가서 볼일을 보시지요……"

하고 말끝을 흐렸다.

"급해서요."

급하다는데 어쩌겠나. 게다가 처녀가 애 낳을 듯 오만상을 찡그리는데. 기준은 죄지은 양 맥없이 손가락을 앞으로 한번 찌르고 왼쪽으로 한번 꺾어 찌르며 똥 폭격을 맞은 변소간을 일러주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해지자 기준은 정화조 처리회사에 재촉 전화를 하고 벌컥 소리를 질렀다.

"보내준다는 똥차는 왜 안 오는 거요!"

그러나 역시 좀 더 기다려 보라는 말뿐이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는 우선 똥구멍을 찌를 기세로 덤벼드는 똥 덩이라도 뭉개 놓아야겠다는 심사로 똥막대로 쓸 막대기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개똥도 약에 쓰려거든 없다는 조상들의 말씀에 담긴 삶의 진리를 절감했다. 흔하게 굴러다니던 나무막대는 두 눈을 까뒤집고 찾아도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결국에는 어른 팔뚝만한 막대를 하나 구할 수 있었지만, 기준은 한동안 부처산 골목골목을 이 잡듯 뒤지는 발품을 팔아야 했다.

똥덩어리는 쉽게 뭉개지지 않았다. 부엌에서 뜨거운 물 한바가지를 퍼와 들이붓고 한바탕 똥물을 튀겨가며 들쑤시자 똥덩어리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기준은 구린내와 암모니아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나 한 손으로는 얼굴에 달려드는 파리를 떼어놓으랴 막대를 든 다른 손으로는 변소구멍 안을 헤쳐 놓으랴 콧구멍을 틀어막지도 못했다. 얄궂게도 파리떼는 꼭 기준의 입술께로만 달려들었다.

'이놈의 파리새끼들…….'

그는 입술로 착 내려앉는 파리를 떨어내느라 손사래를 쳤다. 하긴 인분의



영양소를 맛있게 빨아먹고 있던 놈들의 터전을 들쑤셔놓았으니 파리떼도 성난 벌떼처럼 달려들 법도 한 일이었다. 변소간 똥을 휘저으며 그는 과거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뇌까리던 푸념들을 언뜻 떠올렸다. 그 옛날 어머니는 서울 봉천동 고개 난민촌에 신혼살림을 차렸었는데 동네에 공동 변소가 겨우 세 칸이라 아침마다 볼일 보려는 사람들로 줄이 섰고 똥 한번 싸는 것이 육이오 난리를 겪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것이었다.

"내가 느그 아부지 만나 고생한 야기를 하자면 만리장성을 쌓고도 벽돌 한 장은 더 남는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푸념은 항상 '만리장성' 타령을 화두로 시작되었고, 약방에 감초 격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차마 자식들에게 불알 두 쪽 차고 장가들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는지, "느그 아부지는 달랑 숟가락 젓가락 몽둥이 하나씩 들고 장가들었다"는 것이다.

"싸는 놈은 쌨고 쌨는데 똥 치우는 놈이 없어 똥간 문짝을 열면 천장까지 쌓인 똥이 왈칵 덤벼들려고 했다니껭. 겁이 나서 나오려던 똥이 다 쏘옥 들어가더라. 고때 변비에 탁 걸려 내 여태껏 고생한다. 글구 쎄빠질 느그 큰외숙모가 변비약을 지어와설랑 사나흘 나눠 먹어야할 걸 한꺼번에 다 먹으라고 쎄바닥을 잘못 놀렸어. 내 고 말만 믿고 그 독한 약을 한 입에 처먹구 이틀 밤낮을 물똥 피똥 다 쌌고 애 낳을 년 맨시롱 헛배만 남산만치 불러 넘들이 제명에 못산다고 했다. 내 그때 용수로 돌팔이한테 중환침 한 대 맞지 않았으면 너그들 낳지도 못하고 벌써 저 세상 가부렀어."

비록 유복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촌에서는 맘놓고 변을 보던 터였는데 서울로 시집을 온 시골아낙인 어머니는 영감 할멈 어른 어린애 할 것 없이 신문지

를 손에 움켜쥐고 발을 동동 구르며 식전부터 변소 앞에서 늘어서 있는 달동네 삶을 감당치 못했던 것이다.

기준이 소년시절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전설 같은 하소연, 그것이 인생철학이라면 인생철학이랄 수도 있는 삶의 가르침은, "먹고사는 것두 힘든 일이지만 날 때부텀 똥구녕 없는 병신이 아닌 이상, 있는 놈 없는 놈 할 것 없이 제때 똥 싸지르는 것이 젤로 힘든 일이다." 바로 이것이었다. 나이 삼십 줄에 이른 오늘에서야 그때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톡톡히 실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곤욕을 치렀기 때문인지 어머니는 변소에 똥이 찰라싶으면 동네에서 집집마다 똥을 푸던 동팔을 불러 자주 변소를 치웠고, 비록 재래식이긴 했지만 기준네 변소간은 동네 변소간 중에 가장 청결할 수 있었다.

기준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경황에 불현듯 동팔을 떠올렸던 것은 팔자에도 없는 인분을 밀가루 반죽하듯 뒤적거리던 끝에 나온 것이었지만, 졸지에 가세가 기울고 연고도 없는 동네로 쫓기듯 흘러들어 서툰 몸짓밖에 취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어렸을 적 기억의 한 자락을 되새겼기 때문이었다.

3.

한동팔(韓童八). 그가 기준이 소년시절을 보냈던 신기촌 네거리 동네로 언제 어느 결에 흘러들었는지는 모호한 일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유히 흐르

는 승기천 천변 농지 한쪽에 판자로 벽을 치고 지붕을 삼은 판잣집이 세워졌고 동팔이 그곳을 거처로 삼고 동네를 얼씬거리기 시작했다는 사실밖에는 알려진 게 없었다. 하여튼 동팔의 판잣집은 집이라 해야할지 궤짝이라 해야할지 가늠하는 것이 주체스러울 정도로 초라했다. 짤막한 체구의 동팔이 허리를 구부정해야 겨우 들락날락할 수 있는 출입문이 곧 방문이자 문지방이었고 방은 잠자리이자 부엌이었다. 양쪽 벽에는 창문이랍시고 각각 구멍을 뚫어 맞창을 놓았고 창틀도 없는 구멍에 여름철에는 모기장을 쳤고 겨울에는 요소비료 비닐포대(고물장수가 폐비닐 포대를 삼십 원을 쳐주었으므로 공짜는 아니고 반나절 품팔이로 쌀 한 되와 함께 얻어 온 것이다.)로 구멍을 덮어 바람을 막았다. 사방 외벽과 지붕에 시커멓게 아스팔트유를 먹여 먼발치에서 보면 관처럼 생겨먹어 영 삭막했으나 나무판자가 쉽사리 삭거나 썩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요령을 부린 것이었으며, 집 뒤편 문학산 기슭 공동묘지 풍광까지 염두에 둔 배산임수의 풍수를 부린 셈이다. 살림살이 역시 지극히 초라했는데 문간에 세워둔 똥통 두 개와 장대 양쪽 마구리에 똥통을 매달 수 있게 철사 갈고리를 건 똥지게, 끝에 바가지를 매단 똥막대가 전부였다.

그가 동네에서 처음 똥지게를 진 날! 드디어 동팔은 똥통을 꿴 똥지게를 한쪽 어깨에 척 걸치고 "똥 퍼, 퍼어" 하고 목청껏 일갈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명창 조상현 깜냥을 할만큼 퍽 구성졌다. 때문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구성진 소리 덕에 동네 집집마다 뒷간 치우는 일은 동팔이 도맡다시피 했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은 동팔의 그 구성진 소리는 적이 인정하면서도 똥 푸는 직업을 천하게 여긴 터라 동네에서 그를 당연히 겉돌게 했다. 동네 사내들은 곧잘 동네 공터에 모여 여름에는 보신탕 끓여먹는 개판, 겨울에는 막걸리 추렴

윷판을 벌였는데 동팔을 패거리에 껴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동네 여자들도 그를 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자들은 홀아비인지 노총각인지 정체 불분명한 동팔이 갑자기 실성이라도 해 바지춤을 훌렁 까고(용하게도 나중에 여자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달려들까 지레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종일 외로웠고 고독했다.

한동팔의 신상에 대해 관심을 둔 사람은 없었지만 그나마 동팔의 이름 석자와 그가 청주 한씨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다. 그것도 기준의 어머니가 "고향은 어디요? 양친은 살아 계신지? 이름은 뭐요? 시방 연세는 얼마나 잡쉈오?" 하고 이것저것 캐물어서 겨우 퉁명스런 대답으로 이름 석자를 알게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청주 한씨라는 것은 기준 어머니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다. 그녀는 기준네가 청주 한씨이고 한씨들은 대개 청주 한씨이므로 한동팔도 청주 한씨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종씨라는 친근감 때문이었는지 기준의 어머니는 변소 치우는 일을 꼭 동팔에게 맡겼고 집안 잔치나 제사가 있으면 남는 음식과 대궁밥을 동팔에게 챙겨주곤 했다. 때문에 기준은 변소를 치워달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밥이며 반찬을 전해주러 어느 누구보다도 동팔의 집을 자주 들락거렸다.

비록 어머니 심부름으로 동팔의 집을 방문하곤 했지만 기준은 동팔이 주변을 얼씬거리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 반대머리가 벗겨지고 주독이 올라 인디언 추장처럼 불콰하게 달아오른 동팔의 몰골이 몹시 혐오스러웠고 그의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시척지근한 변소간 냄새가 역겨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준은 괘달머리적은 동팔의 성격이 더 밉상스러웠다. 동팔은 기준의 양친이 청주 한씨 일가 된다며 평양 나막신처럼 살갑게 대해도 무덤덤한 태도로 응

대했다. 기준네 변소를 치울 때마다 기준 어머니가 새참이나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그는 결코 눈곱만큼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굵은 모가지를 수탉 같이 꼿꼿이 세우고 허리를 곧추 세운 채 양반다리를 틀어 앉아 주인이 시녀에게 숭늉 대령해라 하는 투로 기준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천연덕스럽게 먹어치웠다. 잘난 것도 없는 동네였지만 일면 똥 푸는 일은 가장 천한 직업으로 인식되던 시절이라 동네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실거리고 아양을 떨어야 똥지게라도 한번 더 짊어질 형편인데 동팔은 기준의 양친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팔푼이 같은 똥치기가 그렇게 수탉처럼 꼿꼿하게 나오니 마을 사람들이 그를 달갑게 여길 리가 없었던 것이다.

어른들이 동팔을 눈꼴사납게 여긴 만큼 눈치 빠른 동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드러내놓고 그를 업신여겼다. 물론 아이들이 동팔에게 거는 수작이란 똥지게를 어깨에 메고 똥통에서 인분이 넘치지 않도록 몸 중심을 잡으며 한드작 한드작 걸어가는 동팔의 뒤를 쫓아 그의 이름 동팔이에서 따온 별명인 똥파리(아이들이 '똥팔이' 하고 부르던 것이 자연스럽게 '똥파리'로 굳어진 것이다.)를 연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개중에 감때사나운 녀석들은 동팔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지곤 했는데 돌멩이가 똥통에 정통으로 맞으면 아이들은 "오십 점!" 하고 소리를 질렀고 똥통에서 똥물이라도 찔끔 튀면 "백 점!"하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동팔은 행여 인분이라도 쏟을까싶어 발만 동동 구른 채 아이들의 돌팔매질을 고스란히 맞으며 "똥물 처멕일 놈들! 잡히면 똥물에 삶아 먹는다." 하고 눈을 부라리곤 했다. 그러나 두억시니 같은 생김새와는 달리 그는 행여나중에라도 묵은 원한을 아이들에게 푸는 법이 없었다.

어느 가을 오후였던가. 동팔은 집장사로 한몫 단단히 잡은 십장 최씨 집 변소를 치우고 있었다. 그는 목덜미에 수건을 걸치고 똥통 한 통을 가득 채우고 남은 똥통을 들고 최씨 집 변소로 들어갔다.

"기준아, 똥파릴 골려먹자."

대구상회 정씨집 아들 석호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기준과 석호는 제법 커다란 돌을 똥통에 빠뜨렸다. 똥 건더기가 넘치도록 가득 담긴 똥통에 돌덩이가 풍덩 날아들자 최씨 집 대문간으로 똥물이 튀었다. 아이들은 골목 안으로 줄행랑을 쳤고 때마침 귀가하던 최씨는 자기 집 대문간에 똥물이 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불문곡직하고 동팔의 멱살을 틀어쥐더니 다짜고짜 뺨을 후려갈겼다.

"야 새끼야, 네 뱃가죽이 두껍지. 마빡을 똥통에 처박아뿔라."

최씨는 가마솥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동팔의 뺨이 벌겋게 부어오르도록 후려갈겼다. 뺨을 때리는 품새는 처음엔 장난조로,

"이놈아 자슥 봐라. 목에 기브스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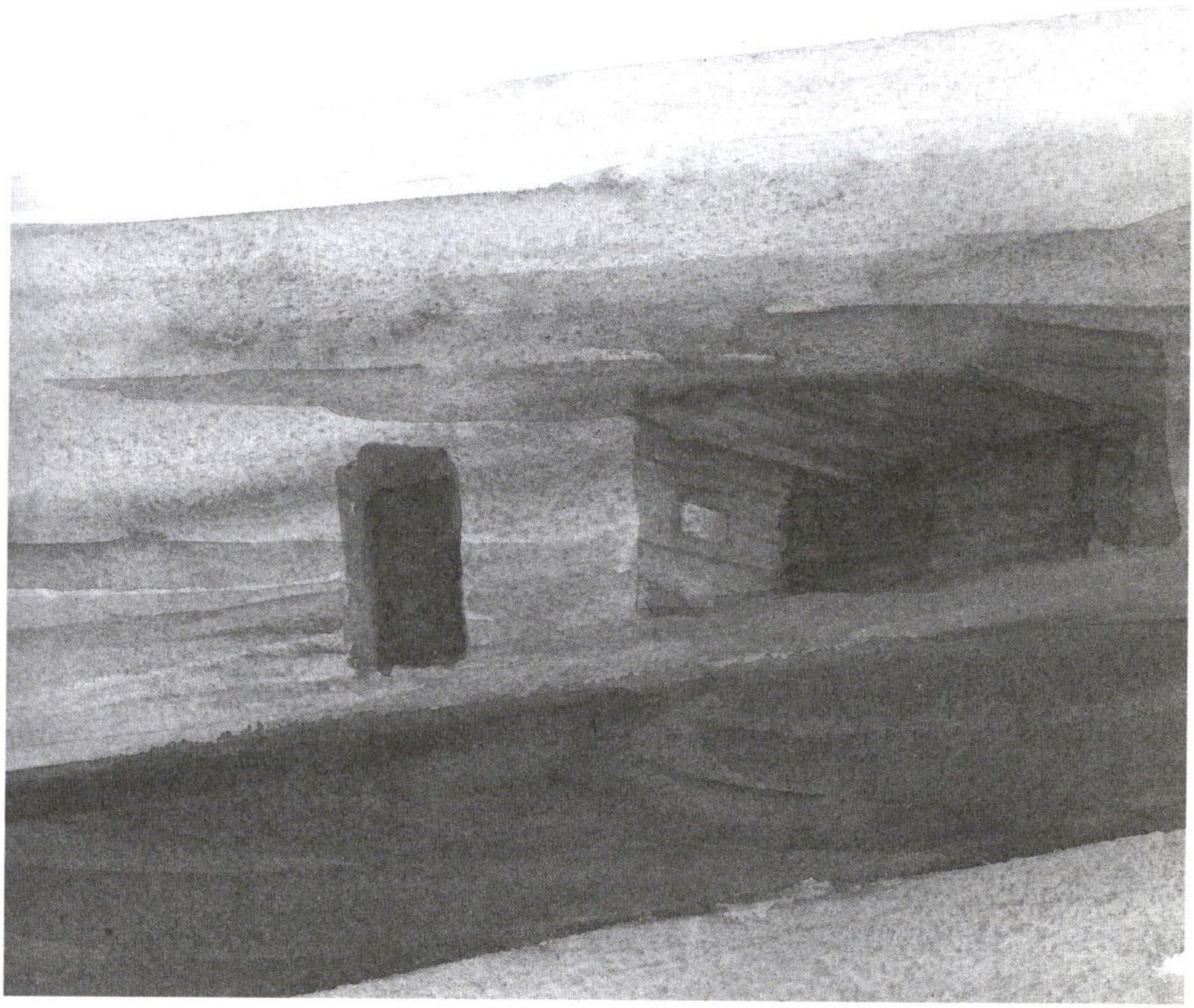
하고 툭툭 건드리는 것이었다.

"……"

동팔이 아무런 대꾸 없이 흘기죽죽 노려보자 최씨는,

"눈에 힘 빼라, 자슥아. 쎄바닥으로 바닥 핥아라. 광날 때까지 핥으라 안카나!"

하고 부아 오른 소리를 지르더니 차츰 중중모리 장단으로 신명이 오른 무당이 날뛰듯 철썩철썩 뺨을 내갈겼다. 골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준은 죄책감으로 풀이 죽었으나 석호는 희희낙락했다.



최씨가 집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그는 근처 공사장에서 모래를 퍼와 똥물이 떨어진 자리에 뿌리고 그것을 삽으로 쓸어 담았다. 그리곤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곤 대문을 두드리며,

"일 끝냈으니 돈줍쇼".

문 두드리는 소리에 최씨가 파자마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이놈아가 어따 주둥아릴 함부로 놀리노! 넘의 집 문간에 똥물 퍼 질러 놓고 무슨 돈을 달라카노!"

"한 통에 백오십 원 씩 열통 폈으니 천오백 원 주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씨는 동팔의 뺨을 올려붙였다.

철썩!

"천오백 원!"

철썩! 철썩!

동팔의 돈 내놓으라는 외침과 최씨의 손찌검이 반복되었다. 동팔이 쓰러져 죽든 최씨의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든지 해야 결판이 날 것 같았던 일방적인 상 앗대질은 최씨 마누라가 뛰쳐나와 변소 청소 값을 내어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후에 마을에 똥 난리가 났을 때 동팔이 최씨 집 변소만을 쏙 빼놓고 치우지 않아 톡톡히 복수를 한 것은 한참 지난 나중 일이다.

최씨에게 흠씬 얻어맞은 동팔은 경중경중 솟은 잡풀들이 하느작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고 기준은 먼발치에서 동팔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팔이 기준이 숨어 있는 골목을 지나칠 때 기준은 동팔의 울대가 울컥 꿈틀대는 것을 보았다. 멀어져 가는 동팔의 그림자가 저녁 해에 늘어져 기준의 발부리에 닿을듯 말듯 했다. 후에 기준은 교내 미술대회에서 똥

지게를 진 동팔의 뒷모습을 그려 연필 한 통이 부상으로 주어지는 가작상을 받았고 그것은 학창시절 내내 그가 받은 유일한 상이 되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왔다. 기준이 사는 마을 빈터에는 슬라브지붕을 얹은 집들과 개량식 물매를 놓은 기와집들이 처마를 잇대고 들어섰고 개천 근처 빈터에도 연립주택들이 들어찼다. 주민들이 연탄재와 쓰레기를 몰래 버리던 빈터('쓰레기 버리는 놈 삼족을 멸한다'는 경고 팻말이 박힌 곳.)에도 집짓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건축 붐이 일자 동네는 활기가 넘쳤다. 일을 마친 막노동꾼들은 동네 골목 네거리 대구상회 평상에 틀어 앉아 날두부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느라 해 저물도록 시끄러웠다. 여전히 동팔은 외톨박이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쥐구멍에도 볕이 드는 법이어서 동팔에게도 호사한 시절이 찾아들었다.

그 해 초여름,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두꺼운 솜옷을 겹겹이 껴입은 누가 봐도 한눈에 반쯤은 정신이 나갔음직한 여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미친 여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기준 또래 아이들 귀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기준을 비롯한 아이들은 양손에 돌멩이를 주워들고 여자를 뒤쫓으며 돌팔매질을 해댔다.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여자의 뒤통수에 정통으로 맞았고 선지피가 터져 흘렀다. 그때 동팔이 여자와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아 섰다.

"그만둬!"

"……."

순간 아이들은 돌멩이를 움켜쥔 손을 허공에 멈칫한 채 우물쭈물 뒤로 물러섰다. 동팔은 입고 있던 런닝구를 찢어 대충 지혈을 하고 여자와 아이를 이끌

고 줄행랑 놓듯 제 집으로 향했다. 그 날 저녁 동팔은 쌀을 팔고 장을 보느라 부산을 떨어댔다. 이튿날에는 기준의 집에 불쑥 찾아와서는 기준이 어머니를 불렀다.

"뭘 멕여야 젖이 잘 나옵니까?"

"젖이라니?"

"떡애기가 쭉쭉 빨아먹는 젖 말요."

"산후에는 끼니마다 쇠고기 넣고 푹 끓인 미역국 먹여야 몸조리도 되고 젖도 솟지만… 근데 누가 애 낳았나?"

동팔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떠올리며 인사도 없이 팽하고 뒤돌아 신기촌 시장을 향해 댓바람으로 달음박질쳤다.

어느새 동팔과 여자는 한 살림을 차리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이러쿵저러쿵 불만이 터져 나왔다.

"거지발싸개 같은 놈이 동네에 흘러들더니 이젠 애까지 딸린 거지 계집까지 들여다놓고 버젓이 살림을 차리니 별 우스운 꼬락서니 다 보겠다."

"이대루 모른 척 앉아 있으면 동네가 거지소굴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동네에서 긴급반상회인지 임시반상회가 소집되었고 주민들은 당장 동팔의 일가를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법석을 떨었다. 그 중에서 최씨가 가장 악담을 퍼부었다.

"동팔이 고놈아 눈꼴 시려서 못 보겠다 아이가. 오 갈 데 없는 놈 불쌍타 해서 받아 주었더만 지도 사내자슥이라고 좆 꼴리는 데로 꼴값을 다 떤다. 이 자슥이 고마 동네에서 쥐인 행세하려는 거 아이가. 퍼뜩 쫓아 뿌려야칸다."

"동네에 해 끼친 게 없는데 매몰스럽게 내쫓을 수야 있나. 이젠 제 한 입도

아니고 안식구하고 새끼도 딸렸는데."

기준 아버지가 동팔을 두남두고 나섰다.

"고게 어디 제 자슥이가? 애비 모를 호로자슥이제. 동네 챙피해 죽겠다. 동네에 거지새끼들 우글거리고 집 값 떨어지면 우짤끼고?"

"맞다. 맞어!"

집 값 운운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동팔 일가를 내쫓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던 참이었다.

"예끼, 이 사람들! 우리 사는 꼬락서니는 뭐 잘난 게 있나? 공사판 미장이 아님사 뱃놈 나부랭이 아닌가. 제법 방귀께나 뀌고 산다고 불쌍한 사람 괄시할라들면 죄받는 겔세. 동팔이 입때껏 해 끼친 것 없으니 좀더 두고봄세."

기준 아버지의 몬존하게 타이르는 말에 주민들의 기세는 한풀 꺾였고 누군가 동네 사내들이 모이기도 힘든 일이니 소주 추렴이나 하면서 얘기를 매듭짓자고 했다. 사내들은 대구상회 평상으로 몰려가 소주잔을 기울였고, 불콰하게 취기가 오를 즈음에 기준 아버지는 목청을 가다듬고 동팔 일가의 문제가 다시는 불거져 나오지 못하게 단단히 못을 박았다.

"동팔인 나와는 청주 한씨 종씨고 촌수를 따지자면 동생뻘 되는데 못난 동생 때문에 동네에 심려를 끼쳐 미안허네. 술 한잔 낼테니 내 낯을 봐서 형편을 좀 봐주시게."

주민들은 미주알고주알 불만이 없지 않은 모양이었으나 공술을 얻어먹은 터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어쨌든 똥치기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졸지에 마누라와 아들까지 거느린 한 집안의 가장으로 벼락 출세한 동팔의 살림은 활기를 띠었다. 동팔의 안방지기

로 들어온 여자는 비록 가끔씩 정신이 오락가락 했지만 동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개천 너머로는 일절 발길을 옮기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의 부숭부숭 부었던 얼굴은 동팔이 신기촌 시장에서 자반고등어를 사다가 세끼 밥상에 구워 올리고 미역국을 끓여 대령하고 쌀밥을 지어주는 통에 미추룸하게 혈색이 돌았다. 절구통을 거꾸로 엎어놓은 몸맨 두리였지만 여자는 무척 바지런해 궤짝 집 앞에 텃밭을 손수 일궈 호박, 옥수수, 상추 등 푸성귀와 채마를 심었다. 동팔은 푸성귀밭 옆에 판자로 변솟간을 지어 올렸고 변솟간 옆에는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고 인분을 삭여 퇴비를 만들고 푸성귀밭에 퇴비를 뿌렸다. 푸성귀가 솟고 넝쿨이 뒤엉키고 옥수수단이 경중이 오르듯 동팔도 어느덧 단란한 일가를 이룬 것이었다. 그 사이에 동팔은 새로 얻은 아들 작명을 부탁하러 기준의 집에 찾아와서는 기준의 부친에게 대뜸,

"형님, 우리 아덜 이름 좀 지어주시오."

하고 천연덕스럽게 비나리치며 아우 행세를 했다.

기준의 부친은 아들 기준과 돌림자를 붙인 기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으나 속으로 반쯤 정신이 나간 부랑자 여자를 마누라랍시고 들여앉히고 한술 더 떠 어떤 건달패의 씨인 줄도 모르는 아이를 아들이랍시고 작명을 부탁하는 꼬락서니가 얄망궂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시버시를 이뤄 흔전거리며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이 흐뭇해서,

"자네들은 천생연분일세!"

하고 인사도 없이 내처 달려가는 동팔의 등짝에 대고 한마디했다.

곰팡이 핀 곳에도 햇볕이 드는 법이고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고 아내와

자식을 들인 후로 동팔의 일은 이상하게도 잘 풀렸다. 변소간과 정화조를 청소하는 똥치기들이 집단 파업을 일으켜 동네마다 변소간 치우는 일로 골치를 썩이는 일이 생긴 것이다. 새로 지은 집들은 수세식 화장실에 정화조를 묻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재래식 변소를 쓰는 집들은 몇 주 동안 똥을 치지 못하자 똥 난리가 났다.

예기치 않은 똥 난리로 동네의 천덕꾸러기였던 동팔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고 기묘하게도 이때만큼은 동네 주민들이 동팔을 각별히 여기는 것 같았다. 동팔은 신기촌 일대에서 석바위까지 똥지게를 걸머메고 발바닥에 불이 붙도록 똥을 푸러 다녔다. 비록 몇 주 동안이었지만 그가 똥 푸는 일을 업으로 삼은 이래 가장 수입이 짭짤했던 때였다. 물론 똥 난리 중에도 동팔은 최씨집 변소간은 끝내 치우지 않아 최씨집 식구들의 똥줄을 타게 했고 과거 억울하게 최씨에게 치도곤을 당한 것을 속 시원히 앙갚음했음은 물론이다.

4.

분뇨차는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나타났다. 며칠동안 기준의 골머리를 썩혔던 변소간은 몇 분만에 깨끗이 치워졌다. 바닥을 드러낸 변소간을 내려다보자 기준은 가슴이 후련해졌다. 그러나 변소간 한번 치우는 값이 육만 원이라는데 기준은 말문이 막혔다.

"뭔 육만 원이나 해요. 전엔 삼만 원이면 치웠는데."

기준은 똥값을 깎을 요량으로 뻗댔다.

"변소통이 깊고 변이 많아서요. 이것두 많이 깎아 드린 거요."

"그래두 정화조도 삼사만원이면 치는데."

"아저씨, 정화조보담 재래식 변소가 치울 게 더 많소. 더구나 재래식은 똥 속에서 신문지 비니루 생리대……, 온갖 잡것이 죄다 딸려 나와 호스도 막히기 다반사고 얼마나 고역인지 아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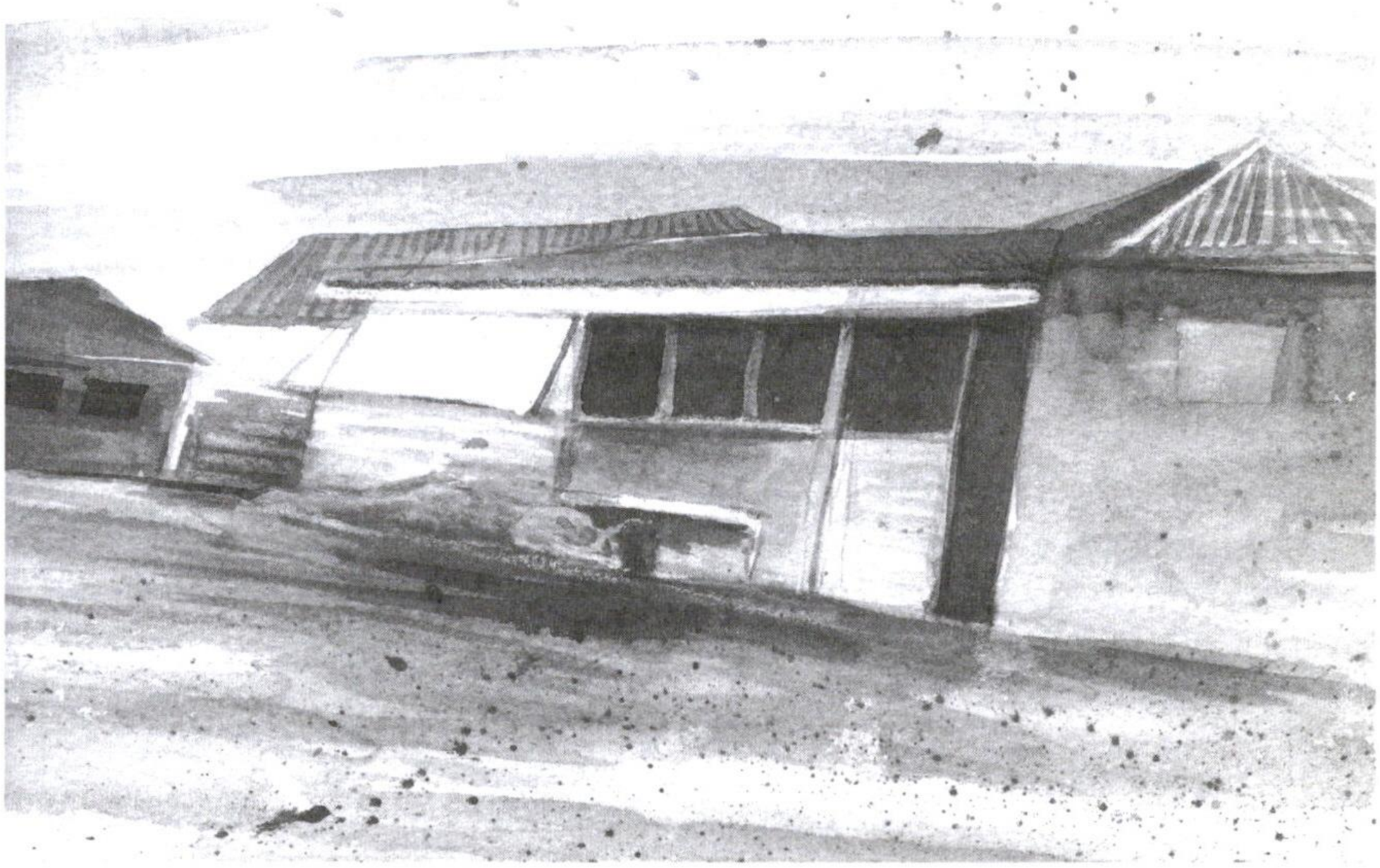
한동안 똥값 흥정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오만 원에 낙찰을 보았다. 기준은 제값을 주었는지 더 주었는지 몰라 속이 켕겼지만 며칠 동안 속을 썩인 변소간을 치우자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순희 엄마는 낮엔 일을 나가 밤늦게 들어와 좀처럼 얼굴을 맞대기가 힘들었다. 변소를 치우고 사흘이 지난 아침, 기준이 소피를 보고 변소간에서 나오던 중에 공교롭게도 볼일을 보러 나온 순희 엄마와 딱 마주친 것이다. 순희 엄마는 기준과 열없는 눈인사를 주고받고 변소간으로 들어갔다. 기준은 가게문을 비시시 열고 열린 틈으로 고개를 쏙 뺀 채 순희 엄마가 일을 마치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남세스러운 일이었지만 똥값을 받아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주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기준은 어렵사리 말을 꺼내 사흘 전에 분뇨를 치웠는데 똥값이 오만 원이며 우선 우리가 냈으며 함께 변소를 쓰는 처지지만 아무래도 장사하는 형편이라 바깥 사람들이 변소를 자주 들락거리니 이만 원만 내라며 딴에는 선심 쓰듯 말했다.

그러나 순희 엄마는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투로 귀넘어들으며 딴소리를



늘어놓았다.

"아니 똥 치우려거든 멀었는데 왜 벌서 치웠우? 미리 말을 하던가."

"워낙 꽉 차서요."

"아유, 난 돈두 없고 우리 식구들은 새벽같이 일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니 똥오줌 깔길 사람두 없구. 뭐 싼 게 있어야 똥값을 내던가 말던가 하지."

순희 엄마는 암상궂게 뻗대더니 꽁무니를 내뺐다. 그 이후로는 순희 엄마는 기준과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아예 기준의 그림자라도 나타난다 싶으면 심술궂은 얼굴로 오만상을 찌푸리며 기선을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희 엄마는 기준이 들으라는 듯 퍅성을 부리며 변소간 앞에서 고래고래 악을 쓰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디서 담배를 꼬나 물고 지랄이야!"

갑작스런 소란에 기준이 변소간 앞에 가보니 단골로 자주 기준네 분식점을 찾아오던 여학생 둘이 놀랜 토끼처럼 한쪽 벽에 움츠리고 있었고 육덕한 몸집의 순희 엄마가 학생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아저씨 장사하려거든 정신머리 똑바루 차리고 해요. 학생들이 몰켜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수. 원참,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것두 여학생들이 담배나 피우고 별일이야."

어쨌든 똥값 문제로 발단이 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난 후로 기준은 아예 순희 엄마에게 똥 치우는 값을 나눠 내자는 말을 일절 꺼내지 못했다.

똥값 흥정! 세상에 참 별일이다. 사람 입 구멍으로 밥 한술 들어간 것이 위장에서 뒤죽박죽 반죽이 되어 어두컴컴한 굴속 같은 창자를 거쳐 온갖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 끄응 하는 시름없는 신음 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똬리를 틀며

나오는 것이 똥 아닌가. 그런데 이리저리 탈 없이 뒤섞여야 할 똥을 치우는 일이 말썽을 부린다.

기준은 변소간을 치울 때마다 오륙만 원 하는 것을 혼자 부담하는 것이 억울할 노릇이었다. 변소간은 왜 그렇게 빨리 차 오르는 것인지. 기준은 분뇨 처리를 최대한 늦춰볼 요령으로 변소구멍을 중심으로 불룩이 솟아오르는 것들을 막대기로 흩뜨려놓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똥 치우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똥 푸는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적잖이 위안이 됐다. 당연 어렵게 골목에서 아쉬운 대로 주워온 똥 막대기는 기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살림살이가 된 셈이었다. 기준은 똥막대를 쓴 후에는 반드시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서 변소 구석 모서리 벽에 세워 두었다.

5.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 같은 동팔의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해 가을 어느 날 해질녘이었다. 파업을 주동했던 청소원 넷이 동팔의 집에 들이닥쳐 저녁밥 한술을 막 뜨려는 동팔의 멱살을 움켜쥐고 바깥으로 끌어냈다.

"인생이 불쌍해서 무허가루 똥을 퍼도 모른 척 했더니 배은망덕하게 뒤에서 칼을 꽂아."

"잘못했슴다……."

"이 새끼가 주둥이는 살아 갖고. 뭐, 잘못했다고!"

사내들은 돌아가며 동팔에게 호된 매질을 했다. 동팔은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사내들의 주먹을 고스란히 얻어맞았다. 홍분한 사내 하나가 몽둥이로 동팔의 머리를 후려치려는 순간 동팔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사내를 붙들고 애걸복걸했다.

"애 아부진 잘못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두 변소를 치워달라기에."

"이건 뭐야!"

사내의 발길질이 동팔의 아내 옆구리를 냅다 질렀고 동팔의 아내는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사내의 몽둥이가 동팔에게 날아드는 순간 우두머리 격인 영갑이란 사내가 가로막았다.

"고만해라. 이만하면 됐다. 지도 사람새낀데 알아들었겠지."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동안 동팔은 일을 나가지 못했다. 그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몸을 크게 상했는지 허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걸음도 불편했다. 동팔의 불행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동팔이 인분을 지어 날러 버리던 장소인 휴경지 수렁이 매립이 된 것이었다. 동네 골목길로 덤프트럭이 며칠 밤낮으로 줄을 이어 들어왔고 문학산 기슭에 있던 도자기 공장에서 실어온 폐도자기와 이빠진 그릇들이 휴경지 수렁을 순식간에 메워버렸다. 그 위에 흙이 덮어지고 중장비들로 땅이 다져졌다.

주민들은 매립공사장에 새카맣게 몰려들어 전라도 신안 앞 바다 보물 건지듯이 쓸만한 그릇을 줍느라 포크레인 사이를 누비며 법석을 떨었다. 매립지에 택지가 조성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주민들은 택지가 조성되고 길이 뚫리고 넓혀지면 땅값과 집값이 널뛰듯 크게 뛸 것이라고 입이 함지박처럼 벌어졌다.

둘 이상이 모이면 온통 땅값 집값 오르는 일로 화제를 삼았다. 그러나 변소간 인분을 지어다 휴경지 수렁에 부리는 일로 생업을 이어온 동팔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식전부터 동팔이 기준의 집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준이 부모의 호의에 한번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그가 반쯤 벗겨진 머리를 떨군 채 연신 허리를 굽실대고 있었다.

"애 엄마가 허리가 걸린다며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먹고 드러누웠습니다. 약이라도 한번 써봤으면……."

동팔은 잠시 울음 없는 눈물을 흘리며 코를 풀었다.

기준 어머니는 장롱에 숨겨두었던 지폐 몇 장을 꺼내와 동팔에게 쥐어주었다.

"한데서 몸풀고 몸조리를 못해 허리가 아픈 게지. 붕어찜이나 고양이를 달여 먹으면 허리 아픈 데 즉험이라구먼."

동팔 아내가 매질을 당한 일을 모르는 기준 어머니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날 오후, 기준은 근처 도자기 공장에서 흘려보낸 붉은 폐수가 흐르는 승기천에 첨벙 뛰어들어 그물질을 하는 동팔을 보았다. 태풍주의보가 내린 날이라 하늘은 잔뜩 흐려있었고 며칠째 비가 들어 그물에는 손바닥만한 붕어들이 잔뜩 감겨 올라왔다.

"그건 공장 폐수 때문에 못 먹는다."

기준은 진정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으나 동팔은 그를 흘깃 쳐다보고는 다시 그물질이다. 동팔은 그물에 걸려 오른 놈들 중에 잔챙이를 솎아내고는 제법 통통히 살이 오른 붕어를 둥구미에 골라 넣으며 말했다.



"비 쏟아지려나 부다. 어여 집에 가라. 감기 걸릴라."

기준은 호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고 쪼그리고 앉아 검붉은 잉크가 뒤섞여 흐르는 개천물을 바라보았다. 풀숲에서 연녹색 개구리가 폴짝 뛰어올랐다. 기준이 개구리를 잡으려 손을 뻗치자 개구리는 풀숲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아저씨, 기태는 잘 커요?"

"옹알이 한다. 귀여워 죽것다."

"개구리보다 귀여워요?"

"뭐라? 아기보고 개구리새끼가 무슨 소리냐!"

"난 개구리가 가장 귀여운데……."

"맞다. 개구리보다 귀엽다. 하하!"

동팔은 징그러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빗방울이 들더니 곧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준은 그물질을 하는 동팔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내달렸다. 발 밑에서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 개구리를 밟은 모양이었다. 기준은 논길 위로 뛰어오르는 개구리를 밟지 않으려고 어기적어기적 뛰었다. 그러나 발 밑에서 자꾸 뭉클뭉클한 것이 밟혔다. 왠지 동팔의 너털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예감이 시끄러운 빗소리와 개구리 울음 속에 묻혀 들었다.

휴경지 수렁이 매립된 후 똥을 내다버릴 곳이 없어진 동팔은 동네 개천에 인분을 버렸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될 줄은 몰랐다. 공교롭게도 최씨는 개천 옆 공터에 집을 한 채 지었고 그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자기 집 옆에 똥을 내다버리니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다.

"호로자슥아, 어디다 똥을 버려샀노! 네 뱃가죽이 두껍나? 확 창쌔기를 뽑아

뿔라. 냄새나서 몬 살겠다."

"개천물이 흘러 가는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요."

"뭐라카노? 이 자슥이 주둥이는 살아갔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씨의 절굿공이 같은 주먹이 동팔의 턱에 꽂혔다.

그러나 평소 같으면 꿈쩍도 못하고 치도곤을 당했을 터였지만 이번만큼은 동팔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똥을 푸는 것이 생업인데 똥을 내다버릴 장소가 없어진 이상 앞뒤를 잴 수도 없었고, 동네 개천 아니라 동네 한복판에라도 똥을 버려야 했다. 더군다나 혼자 몸도 아니고 아내와 애까지 딸렸기 때문에 더는 물러설 곳도 없었다.

동팔도 최씨의 멱살을 틀어쥐고 맞대놓고 버텼다. 최씨의 목소리가 원체 크고 포악스러워 뭔 구경거리가 났나 싶어 사람들이 최씨 집 앞으로 새카맣게 모여들었다. 어른들 허리 틈에 끼여 동팔과 최씨의 싸움을 지켜보던 기준은 속으로 동팔이 제발 힘을 냈으면 했다. 그러나 동팔은 단단한 체구의 최씨를 당해내지 못하고 최씨의 주먹질 한방에 넉장거리로 나가떨어졌다. 최씨는 욕을 하며 동팔을 짓밟았다.

"니 함부로 깝죽이지 말랬지."

"최가 네가 참아라. 생각 있는 놈이사 동네 개천에 똥 버릴 생각을 했겠나. 동팔이 자네도 아무리 궁하다손 쳐도 동네 앞 개천에 똥물을 버리면 쓰나."

대구상회 주인 정씨가 매질을 하는 최씨를 간신히 뜯어말렸다.

"맞다. 똥내가 진동한다구. 최씨가 심하기도 했지만 이번 일은 동팔이가 잘못한 거여."

누군가 맞장구치자 득의양양해진 최씨는 헛기침을 하며 동팔이 밥통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똥통을 걷어찼다. 똥통은 똥물을 쏟으며 개천 아래로 굴러 물속에 첨벙 빠져들었다. 순간 맥없이 흙바닥에 늘어져 있던 동팔이 벌떡 일어나 똥바가지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는 남은 똥통에서 똥 한바가지를 푸더니 구경꾼들을 향해 빙그르르 한바퀴 똥물을 흩뿌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방성통곡을 했다.

"나를 잡아묵어라! 잡아묵어! 개천은 흘러간단 말여!"

동팔이 똥 한바가지를 더 뿌리자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똥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한결같이 욕지거리를 해댔다.

"저 개아덜 놈 봐라! 어따 똥을 뿌리노!"

누군가 혀가 떨어져라 끌탕을 차며 말하자 동팔은 똥통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더니 바닥에 힘껏 팽개쳤다. 구경꾼들은 거미 떼처럼 흩어졌고 동팔은 똥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발한 채 한동안 우두망찰 서 있었다.

이후로 동팔의 존재는 동네에서 잊혀졌다. 동네 개천 근처에 마저 남은 논에서 가을걷이가 끝나자 동팔의 궤짝 집터를 비롯한 농경지가 매립이 되었다. 알게 모르게 동팔의 집은 헐렸고 또 알게 모르게 동팔 일가는 동네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그 해 가을과 겨울 청와대에서 총성이 울렸고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다. 어수선한 세월 통에 동팔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언젠가 살가죽이 터지도록 추웠던 겨울 아침, 동팔이 동네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동네 여자들이 우려했던 일(동팔이 바지춤을 까고 동네 여자들에게 덤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침내 비스름하게 벌어진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한 동팔이 옷을 훌렁 벗고 알몸이 된 채 시커멓고 북실북실한 거웃을

만천하에 드러낸 채 동네 네거리 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쏟았던 것이다. 사내들이 모두 일을 나간 터라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으로 날뛰는 그를 붙잡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

누군가 동팔의 벌거벗은 몸에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동팔은 담요를 걷어 차내고,

"엄니! 배고프요!"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부모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찾네."

"어디 부모 없는 사람 있겠나."

"날도 추운데 저 지랄하다간 얼어죽는다. 누가 좀 말려라."

"동네에서 송장 치우는 거 아닌지 몰라."

"석호야, 네는 왜 술을 팔아갔고 이 난리를 일으키노?"

동팔에게 소주를 판 대구상회 정씨 마누라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술 달라고 뻗대는데 내사 우야겠노. 일수가 사나우려니까 젠장."

기준은 여자들의 수군덕거리는 소리를 한쪽 귀로 흘리며 낯을 찌푸렸다. 어쩐지 눈물이 자꾸 쏟아질 것만 같았다.

6.

변소간을 치우고 뒷정리를 하는데 송림슈퍼 철수 엄마가 말을 건네 붙였다.

"한씨 변소 치웠우? 얼마 들었우?"

철수 엄마는 유독 동네 일에 사사건건 관심이 많았다.

"한 오만 원 합디다. 육만 원 할 때도 있구요."

"미리 얘기를 하지. 좀 싸게 치울 수도 있는데. 싸게 변소 치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처를 알려줄까?"

송림슈퍼 철수 엄마는 기준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주었다.

한달 후 기준은 철수 엄마가 일러준 곳으로 전화를 넣었다.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는 변소간 치우는데 얼마요 하는 물음에 딴 데 보담 한 일이 만원 싸다고 답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내는 커다란 정화조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

"예서 불렀수?"

하고 가게문을 열고 들어오는 늙수그레한 사내는 다름 아닌 동팔였다.

"동팔 아저씨 아닙니까?"

"나를 아요?"

"저 기준이에요. 한기준. 신기촌 청주 한씨 집 둘째."

"아, 그래 기준이구먼. 기준이여!"

동팔은 기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동팔은 풍경분식 변소간을 치우고 기준은 일을 거든답시고 동팔 옆에 붙어 강산이 두 번 넘게 바뀐 저간의 사정에 대해 물었다. 아니, 오히려 동팔이 기준

의 집안 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왔다. 기준의 부친이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몇 해 전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했을 땐 동팔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했고, 어머니는 시집 안간 여동생과 함께 예전 그 동네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자,

"한번 꼭 찾아 뵈야 하는데 반백이 다 되도록 사람 구실도 못했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

기준은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게 많았으나 동팔은 회사에 출근부를 찍어야 한다며 변소간을 치우기 무섭게 저녁에 들른다며 차를 몰고 급히 떠났다.

그 날 저녁 동팔과 기준은 기준의 가게청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하하! 똥 푸는 것두 기술이라면 기술이제. 사람 죽으란 법은 없더구먼. 우연찮게 영갭이 형님을 만났는데…… 기준이 너두 알지. 옛날 똥치기들이 파업을 부려 동네에서 제때 똥을 못 퍼 똥난리가 났던 거. 그때 파업을 주동하고 감옥소에 끌려가 콩밥 먹은 아저씨 말야."

"예. 그 일 땜에 아저씨가 괜한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려, 그려. 영갭이 형님한테 매두 맞았지. 하여간 집 헐리고 오갈 데 없이 얼어죽게 생긴 우리 식구들을 영갭이 형님이 방 한 칸을 거저 내주고 식구덜을 거둬주었어. 내가 맞을 짓을 했지만 아마 매를 때린 것 때문에 미안했던 모양야. 마침 그 형님이 다니던 청소용역회사에 자리가 하나 났고 형님 소개로 똥 푸는 일을 다시 시작한 거야."

"참, 아주머니는 건강하셔요?"

"……."

동팔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술만 쫑그리다가 한참 뒤에 말을 꺼냈다.

"기태 엄마는 아이만 남겨두고 사라졌어. 실성이 도졌던 게지. 애 엄마가 떠나고 살길도 막막해 세상과 인연을 끊으려 약병을 품고 살았어. 하지만 똥막대한 자루도 쓸모가 있는 법이여. 그러니 질긴 사람 목숨은 오죽하겠냔 말이지. 비록 똥 푸는 천한 놈이지만 고것도 애비라고 애오라지 의지하는 자식놈도 있고……."

"잘하셨어요. 전 아저씨가 죽은 줄만 알았어요. 아저씨가 동네를 떠난 그 해 겨울은 장독이 터지도록 추웠잖아요. 눈두 많이 오고."

"그래, 지랄맞게 춥구 눈두 많이 내렸지."

"아주머니는 찾아보셨어요?"

"찾기야 찾았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 입소문을 따라 정신병자 요양원하구 복지시설을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성도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무슨 수로 찾겠나. 매번 허탕만 쳤지. 헛걸음질 칠 때마다 잊어야한다고 다짐을 했어. 그런데 그럴수록 왠지 얼굴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앞에 떠오르더라."

"꼭 만나 뵐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으면사…… 살아있으면사, 언젠가는 만나것지……."

동팔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뜨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기준은 동팔의 빈 술잔에 소주를 한 잔 가득 부어 주었다. 소주잔을 거머쥔 동팔의 갈퀴 손이 흐리마리 떨렸다. 낮에는 몰랐었는데 동팔에게도 세월은 어쩔 수 없었는지 반 여남은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었다. 기준은 동팔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넘치는 것을 외면하며 술잔을 들었다.

"내가 다 늙어갔고 뭔 청승이냐! 하하! 오랜만에 노래 한 곡 뽑을까?"
쓸쓸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기준에게 동팔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좋죠."
동팔은 소주를 한잔 더 들이키고 흠흠, 목청을 돋웠다.
"똥 퍼! 퍼어!"

〈구술〉

주안에서의 삶과 기억

- 유제환 문화원장과 중앙극장 -

■ ■ ■

이재숙 (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인천에서 시작한 젊은 시절

- 학산문화총서는 인천 남구를 동별로 나누어 하나식 그 역사 및 일상을 짚어나가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그 첫번째로 주안의 역사와 일상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주안이라면 원장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기에 오늘은 원장님께 그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주안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내가 이렇게 주안에 대해 얘기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고향인 충청도를 떠난 1945년 바로 해방되던 그 해였습니다. 그 때 바로 인천에 왔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왔으니까 상경치고는 무모한 무작정 상경이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완전히 무작정 상경한 것은 아니고, 그 당

시 중구 중앙동에 삼촌이 계셨어요. 삼촌은 그곳 중앙동에서 양회가게를 하셨는데, 저는 올라와서 거기서 1년 정도를 심부름을 하면서 지냈지요. 그러다가 지금의 서울공고가 된 학교의 초창기 입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4학년 때 6 · 25가 발발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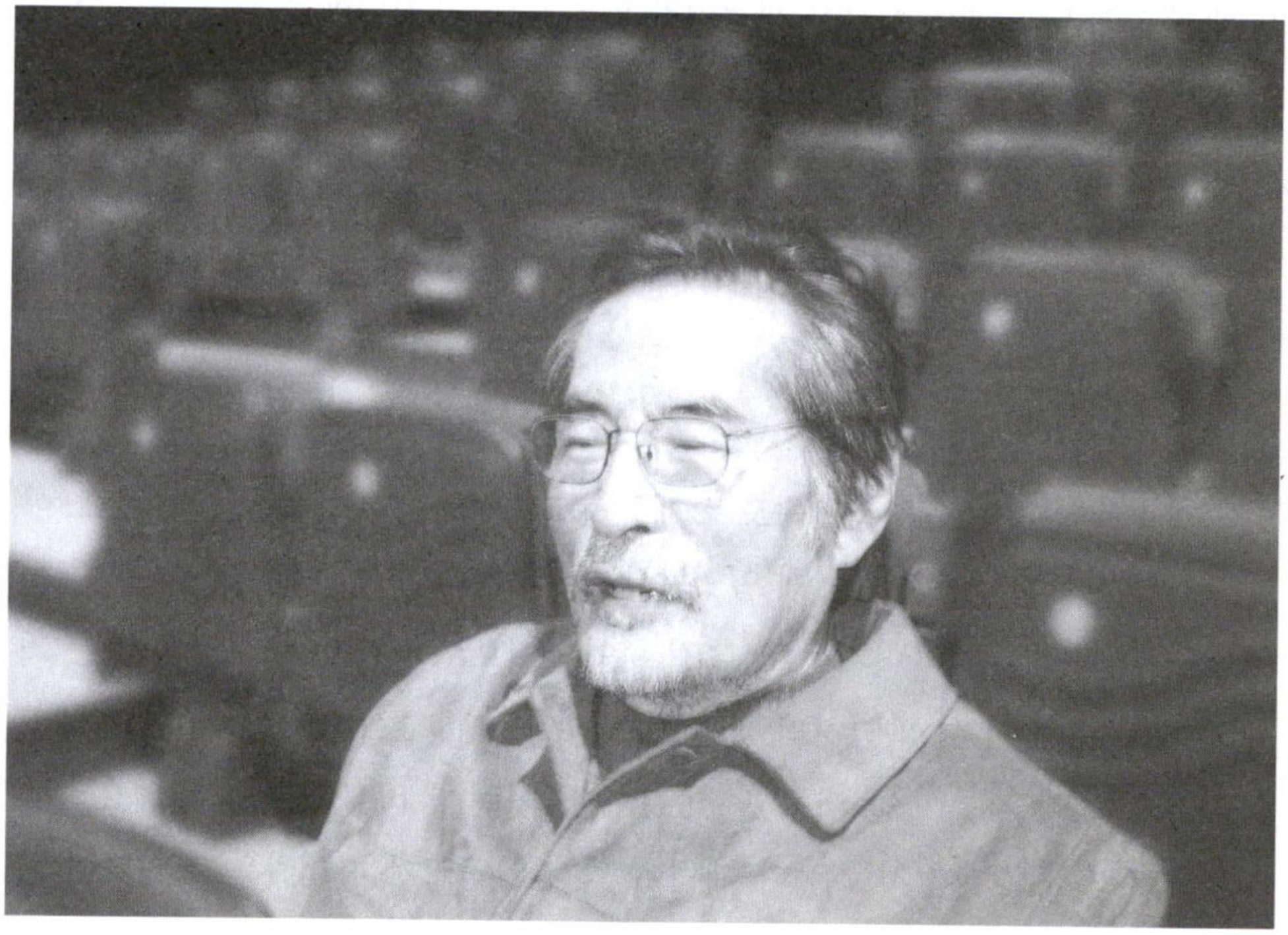
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원입대를 했습니다. 저도 전쟁이 일어난 얼마 후에 피난지에서 자원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하고 보니 제주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해군으로 차출이 되어서 진해에 배치되었습니다. 진해에서 다시 해병대로 차출이 돼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일선 배치되었습니다. 김해 비행장에 내려서 강원도 인제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투입되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도솔산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강원도 속초에 주둔하다가 원산상륙작전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청진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결국 중공군의 참전으로 밀려내려 왔지요. 그때 후퇴 시에 박격포 사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었고. 진해 해군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다가 1953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제대를 했지요.

제대한 후에는 다시 인천으로 내려와서 신흥동에서 시멘트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에 화수동에서 인천극장을 하는 분들이 양회를 사러왔는데, 우연히 그 분들과의 대화중에 인천극장이 화재가 났는데 그걸 복구해서 경영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더군요. 그때 제 수중에 어느 만큼의 돈이 있어서 그걸 사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극장과의 질긴 인연이 되었군요.

기억나는 인천의 풍광들

- 네, 고향을 떠나 인천에 정착하던 과정이 바로 해방과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그 무렵이었군요. 제대 후 인천에 다시 정착하여 극장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인 극장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당시의 인천 모습을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네, 옛날 인천, 옛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 지금으로부터 50년쯤 전의 인천이니 아주 오래된 옛날은 아니



지요. 그러나 그 사이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드문드문 남은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차 희미해져 가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구하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만, 옛날에는 인천의 어느 곳에서도 지금의 서구 지역과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돼 있었냐? 지금은 매립이 되고 연결되어 있지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단절되었는데, 옛날에는 인천 바닷물이 지금의 동암역 일대인 십정동과 주안 일대까지 들어갔어요. 거긴 다 갯벌이었고 염전지대가 많았지요.

그때까지 서구 쪽으로 가려면 나룻배를 타야 했어요. 인천교가 생기고 그쪽을 '개건너' 라고 하는 건 한참 후의 일이지요. 인천교가 생긴 데는 갯고랑이 넓기 때문에 나룻배가 있었고 개건너가 있었지요. 개건너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거긴 전부 고구마, 땅콩 같은 게 심어져 있었고 다 농사짓는 곳이었어요. 강화나 이쪽에 물건 같은 것을 팔 때는 이 나룻배를 이용해서 왔다갔다했어요. 그게 개발이 되면서 인천교가 생긴 거지요.

- 주안염전은 몇 년도까지 있었나요?

그게 1960년대인데 경인고속도로 개통하고 그때, 그 직전까지 있었어요, 아마. 서구 쪽에 칠구염전이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수지예요. 짠물이 들어왔을 때 가둬놓는 곳이거든요. 그걸 주안염전으로 끌어들여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인천의 살아있는 역사인데. 사실 얼마 안 된 일인데도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역사일 텐데요.

저수지며 갯고랑이 지금은 다 매립이 되서 인천교가 다리라는 개념도이 없

어져 버렸지요. 그래도 70년대까진 그 개념이, 아니 1980년대 초반까지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곳이 전부 공단이 돼버렸어요. 산을 깎고 염전을 메워서 공장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게 바로 주안 5, 6공단이지요.

-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게 1968년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도 염전이 있었어요?

네, 그때까지도 있었지요. 사실 신포동 일대도 다 매립된 지역이예요. 일본 사람들이 개항장을 만들면서 매립한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인천의 역사가 매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로 따지면 다 바다였던 곳이, 이게 올라오고, 산이었던 것이 깎여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인천이 형성되었지요.

- 당시에 이웃하면 살던 사람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배를 타고 충청도에서 인천으로 올라왔지만, 저 같이 충청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쟁 때는 배를 타고 피난 온 황해도 주민들이 많이 내려왔구요. 돈만 있으면 배로 다 넘어온 거지요. 황해도가 가까워서 제일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내려온 피난민들이 여기저기 피난민촌을 무지 많이 세웠어요. 지금 중구의 화수동과 만석동 일대가 다 피난민촌이었고, 일부는 송림동으로 멀리는 송도나 소래 지역으로도 피난민촌이 형성되었지요.

극장을 운영하던 시기

- 다시, 원장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인천극장을 인수하고 극장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15년 동안 인천극장을 운영하다 보니 자연 서울의 영화계 쪽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서울에 영화관계로 왔다갔다하다가 신필름이라는 회사와 연결되어 영화판권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경기도와 강원도의 영화 배급권을 사가지고 영화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수년간 참 쏠쏠하게 재미를 봤습니다. 1950-60년대가 우리 영화의 황금기였잖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 때도 영화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었지요. 어쨌든 내친 김에 1964년도쯤엔가 유한영화사라는 것을 직접 설립했습니다. 영화 배급도 하면서 영화 제작까지 하기 위해 만든 영화사이지요.

첫 작품이 〈아빠는 크레이지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후 한 5, 6년간 영화를 몇 편 제작했는데, 〈슬픔은 파도를 넘어〉라는 작품은 문희라는 여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10여 작품을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을 하면서 인천에서는 계속 극장을 운영했어요. 1975년도에 인천극장을 운영하면서 백마장의 백마극장도 경영을 맡았습니다. 서울 청량리에 있는 대왕극장이라는 극장의 경영에도 참여했었구요. 그러다 결국 영화 제작 때문에 큰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인천극장을 비롯한 사업체를 정리하게 되기도 했죠.

그 후 중앙극장의 전신인 아프로극장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앞 10m 정도를 철거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매수하게 되었죠. 수리를 해서 1976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엔 건물도 없었고 아주 한산했었죠. 그런데 그 쪽이 앞으로 단독 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설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곧 극장이 잘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우리 극장이 개관한 다음, 제일시장이 생겼고 그 옆에 도화시장도 생겼지만, 당시에는 인천에서 변두리 지역 취급을 받고 있었지요.

초창기에는 중앙극장이 있는 곳이 워낙 변두리라는 인식을 받다보니까 영화수급 받는 데도 애로가 많았어요. 영화는 영화사와 배급사, 극장이 같이 나눠먹는데 영화사에서 변두리에 관객이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화를 안 주려고 한 거지요. 그런 와중에 경광영화사라는 제일 큰 배급사를 운영하던 이태원 씨를 알게 되었는데 그 분이 나를 믿고 영화를 대주어서 그 때부턴 차츰차츰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고, 1980년대 말부터는 완전히 기틀을 잡아서 인천에서는 제일 수입이 좋은 극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후, 1998년까지는 영업이 그런대로 잘 되었습니다.



- 중앙극장을 개관하신 1976년 무렵이면 주안 지역이 한창 개발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에 대해 좀 더 말씀해주시지요.

개발 초기만 해도 주안에는 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보건소 자리에 남구청 하나만 달랑 있었고 인천시민회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인근 지역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러다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주안역 근처로 차츰차츰 상가가 들어서더니, 뒤이어 고려예식장이 생겼고 그 후로 상권이 부쩍 성장하게 되었어요. 남구청 아래가 전부 배밭이었는데, 그 곳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고 주변이 상가로 변모하면서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었지요.

주안 사거리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국민주택들이 들어섰고 주안초등학교 주위에 시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기촌 남쪽방향으로도 연립주택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이어서 신기촌에도 상가들이 생겨났습니다. 동쪽방향으로는 빌딩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금융회사들인 한서증권, 쌍용투자증권. 제일투자 등의 금융기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인천의 주요한 사무공간으로 변모했지요. 코스모스 호텔과 삼성생명 건물이 들어선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는 주안사거리 시민회관 앞에서 거의 매일 데모가 벌어졌지요. 최류탄이 터지던 게 기억납니다. 손님들이 극장으로 피해 들어왔던 기억도 나구요.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백기완 씨가 주안에서 강연회를 했을 때도 데모가 일어났는데, 손님들이 지나다가 코가 매워서 쫓겨 들어오는 바람에 표 없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지요. 불안하고 부산했던 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주안 지역에 새로운 도시상권이 형성돼가기 시작했는데, 10년 전부터는 구월동으로 상권이 옮겨가면서 주안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그 세월이 채 10년도 안 되었군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몰려들만한 것이 주안에는 부족했어요. 주안사거리를 기점으로 시민회관과 그 남쪽으로 주택지가 많다보니까 통행인들이 많은 것뿐이었지,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일만한 것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백화점이나 유통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주안역 북 광장에는 은성쇼핑이란 것이 있었는데, 10,000평이나 되는 쇼핑센터가 손님이 들지 않아서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활발하게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것들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저 전철 통행인들만 많았을 뿐, 그 곳에서 소일하거나 돈을 쏟아놓을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버린 거지요. 그러다 1990년대 구월동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15년, 한 20년 정도 분주하게 발전했던 주안은 이제 영 기운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일들과 앞으로의 바람

- 마지막으로, 중앙극장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재미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주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 필요한지 평소에 생각하신 바를 들려주면서 마무리할까 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천의 극장에는 정원제가 없었어요. 입석이 보편화돼 있었



단 얘기지요. 극장이 만원이 될 때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미어터지도록 꽉 찼는데, 서로 부딪치고 밀치고 하면서도 영화들을 보았고, 고개 너머로 보는 영화가 그 나름대로의 묘한 재미가 있었어요.

중앙극장에 상영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800평정도 될까요. 〈거지왕 김춘삼〉이 개관 작품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볼거리들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극장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20일 동안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주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아파트도 없었고 15평, 20평의 국민주택들이 중앙극장 옆으로 몇 백 세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공고 학생들이 많이 보러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옛날 남구청 주변 배 밭 인근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주택들이 들어

서면서 금방 주택가로 변했습니다. 그 곳 주민들이 극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지어진지 20년이 지난 주안현대아파트가 주안에선 첨 들어선 아파트인 셈인대, 그 이후로 신기촌에 쌍용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주변으로 차츰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극장 손님들은 더 많아져 그야말로 중앙극장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지요. 그러다 구월동이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구월동 쪽에 극장이 없었기 때문에 주안 쪽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오곤 했었어요. 그러다 구월동에 신세계와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점이 생기면서 주안 상권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GV가 생기면서 결정적으로 많은 영화관객들이 주안에서 구월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인천의 오래된 개봉관들과 동시상영 영화관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도 생각해보니 얼마 지나지 않았군요.

중앙극장의 전성기 때를 보여주는 것이, 〈로버트 태권브이〉를 상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위해 몰려든 아이들로 중앙극장에서 제물포역까지 줄을 섰을 정도였어요. 이 영화도 20일 정도 상영했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 20일동안 매일같이 관객들이 제물포역까지 줄을 섰었지요.

극장을 증설해보려고 인근 땅 400평 정도를 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79년이었는데, 때마침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지요. 시국에 대한 불안이 사업포기의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 또 한 번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고려예식장 옆에 극장을 건립할까 하다가 포기했었지요. 이유는 당시에 그쪽 상가가 영세한 탓이었죠. '2030거리' 가 그나마 지금처럼 살아있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던 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활성화가 주안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도 들어서고 이곳에서 올해 새로운 미디어축제도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중앙극장을 정리해서 맥나인이라는 복합상영관을 개관했는데, 따지고보면 이것도 이 지역, 주안을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이 빚어낸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작은 사업시도가 이곳 주안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평생 영화제작과 극장운영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어찌하다보니 남구학산문화원의 중책까지 맡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주안에서 뼈를 묻으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학산문화원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려나가서 주안 지역이 살아 꿈틀대는 지역으로 변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안朱安이라는 도시공간의 현재와 미래

■ ■ ■

이현식 (문학평론가,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 이어져 있다. 시간에 단절이란 있을 수 없으며 시간의 비약이란 것도 현실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는 종종 아름다운 추억처럼 다가오고 미래는 현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인양 그려지는 것일까. 시간은 물과 같이 흘러가지만 인간의 기억과 상상은 그 과정이 생략된 단편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시간의 변화 속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는 정작 그 변화의 속도를 잘 체감하지는 못한다.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 세월들을 돌이켜 보면 많은 것이 변하였음을 문득 깨닫는 순간들이 있게 마

련이다.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전자 메일이 없던 시절은 지금부터 기껏 10년 안 쪽에 존재하고 있다. 커피숍에서 무작정 친구를 기다리던 시대, 연애 편지를 보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리던 때가 그렇게 오래 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은 저멀리 떨어진 옛날처럼 느껴진다. 시대가 바뀐 것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어느 때와 현재의 시점,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의 간격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물의 상像들은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우리 머리 속에 떠올려지므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현실의 시간은 그런 간격이나 틈이 있을 리 없다.

한편, 그런 시간의 간격들은 영화나 TV드라마 같은 곳에서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불과 몇 초만에, 아니면 하나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몇 년, 몇 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훌쩍 건너뛰기도 한다. 그렇게 그려진 세월의 변화는,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시간의 응축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의 변화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형의 죽음과 그것이 유골로 바뀌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건너뛰어 존재하는 삶의 과정들일 것이다. 그런 변화를 있게 한 삶의 과정이 있었기에 미래는, 혹은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 울림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도시의 미래나 비전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미래는, 그리고 비전은 세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그것은 그냥 장밋빛 환상이 되기 쉽다. 현재와 관련이 없는 미래라

는 것도 그냥 가상의 허구이기 쉽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미래로 가는 과정은 끝없는 현재의 지속일 뿐이다.

특정한 도시 공간의 비전을 말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도시 공간은 매우 구체적인 삶의 터전을 전제해야 가능하다. 그냥 도시가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삶의 터전에서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그 장소가 형성되기까지의 과거와 현재를 무시하고서는 불가능하다. 미래의 변화는 현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이 빠져있는 미래는 힘을 갖기 어렵다.

남이 보기에만 좋은 청사진, 겉만 휘황찬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현재로부터 그런 미래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지도 않는다. 종종 그런 그림들이 마치 우리가 가야할 미래인 것처럼 속삭이는 경우도 있지만 달콤한 만큼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이글은 주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다. 주안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먼저 떠오른 생각들이 앞에 말한 그런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주안의 미래에 대한 빛나는 그림, 현실을 일거에 바꿔낼 수 있는 찬란한 비전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럽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는 미래가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 나는 주안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주안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거듭 생각하고자 한다. 거기에서 주안의 미래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이다.

2. 주안, 딜레마적 현실

(1) 내가 기억하는 주안

주안은 그 이전에는 염전이었다고 하지만 불행히도 나이가 적은 나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1970년대 주안역은 시골역과 같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주안에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면서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이다. 인하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것이 1971년 12월 31일이었지만 학생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1980년대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부터였다. 그 전까지 주안역은 허름한 시골역이었다. 1974년 경인철도가 전철로 바뀌고 서울과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유동인구는 점차 늘어갔다.

주안이 오늘날처럼 하나의 역세권을 형성한 것은 아마도 내가 대학을 다닐 무렵이었던 1980년대였던 것 같다. 그 시절 인천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동인천의 신포동에서 '놀았다'. 신포동의 거리에 나가면 동창회가 따로 필요없을 정도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신포동의 커피숍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미팅을 했으며, 그리고 술을 마셨다. 하기야 술은 그보다 더 값싼 용동 큰우물 쪽이나 애관극장 뒤편 고모집, 이모집, 영주집 같은 곳에서 더 자주이기는 했으나 신포동이 우리들의 놀이터임은 분명했다. 신포시장 뒷골목에서 칼국수를 사먹고 튀김에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따금 주안역 앞에서 만나자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신포동까지는 거리가 멀고 주안역 근처에도 '놀 데'가 많은데 굳이 신포동까지 갈 필요가 있

겠느냐는 말들이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이 맞았다. 나 역시 남구에 살고 있었고 동인천까지 가기에 멀기는 했다. 게다가 친구들이 동인천 근처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주안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으므로 그 편이 낫겠다 싶었다. 주안역 근처에도 근사하면서도 값싼 커피숍이 있었으며 막걸리를 파는 민속주점이 있었다. 신포동의 '우리만두' 집이 주안분점을 냈던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상징적이다. 신포동이라는 인천의 중심과 견줄만한 곳이 주안역 앞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는 도시를 폐허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활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한다.

써클 모임도 주안에서 자주 있었다. 서울로 대학을 오가거나 인천이 아닌 수도권에서 인하대로 통학하는 대학생들로 주안역은 언제나 붐볐다. 주안역에 나가면 번듯한 극장이 없어서 아쉽기는 했으나 책방도 있고 다닐만한 학원도 있고 젊은이들이 드나들만한 술집도 있었다. 술집에서 젓가락을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고 80년대 억압받는 젊음들은 주안의 뒷골목에 토사물을 게워내기도 하였다. 주안에는 젊음의 열정을 발산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또래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주안역 앞에서 시민회관 사거리 주변까지 드문드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도 늘어났다. 주택가가 상가로 변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모여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1986년 5월 3일 개헌쟁취를 위한 거대한 시위가 일어났던 것은 주안 시민회관 앞이었다. 주안은 동인천을 대체할 새로운 도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한편, 주안역 저편에 있는 학원가에는 떳떳하게 젊음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들의 운명을 저주하며 몰래몰래 숨죽여가면서 주안을 드나들고 있었다. 주안은 재수생, 삼수생들이 가슴 속에 담은 상처들을 달래주는 장소이기도

했으며 자신의 처지에 울분을 토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런데 주안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기묘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분할해 놓는다. 남부 주안역을 바라보고 왼편은 학원가와 복사집과, 분식집이 골목에 들어차있고 오른편은 온갖 주점과 커피숍과 여관 골목, 그리고 어느새 그것들은 한정식집과 카페들로 바뀌어 석바위까지 이어진다. 석바위의 법원 · 검찰청이 만들어내는 어두운 시대의 밀실문화와,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접대문화가 속칭 '카페골목' 을 만들어냈다. 어쨌거나 주안은 시민회관으로부터 주안역으로 가는 대로를 중심으로 공간이 나뉘어진다. 공간이 나뉘어지는 만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상도 달랐다. 왼편은 재수생들과 중고생들의 고달픈 일상이 자리잡고 있다면 오른 편은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젊은이들의 유흥가였다. 때로는 그 공간이 섞여 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성인 흉내를 내며 유흥가를 드나들었고 그런 와중에 원조교제의 '원조' 라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얻기도 했다.

아직 주안역에 지하상가가 생기지 않았던 시절 주안역 고가다리를 넘어 북부역으로 가면 그러나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른바 주안공단(정확한 이름은 수출산업공단 6공단, 또는 주안국가산업단지이다)이 위치한 그곳은 매우 을씨년스럽다. 좁은 차도, 허름한 건물과 작은 점포들이 거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과 노동자의 그것만큼 닮아 있다. 아무리 그들이 시대의 억압에 저항하며 불우한 청년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은 대학생이었다. 주안역 앞의 그 홍청거림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철길을 넘으면 거기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있다. 오히려 훨씬 더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그곳이다. 작은 가게들, 허름한 시장, 쌈직한 식당들과 옷

가게들, 그리고 대폿집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80년대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인천의 공장들에 위장취업할 때 주안공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주안 북부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공장을 다녔다. '상록수서점' 이 있었던 것도 그 무렵이었다. '광야' (카톨릭회관 옆), '새벽' (인하대 후문), '만두리' (인천대 앞) 같은 인천의 사회과학 서점 중 하나였던 그곳은 당시 유행했던 많은 인문사회과학 책들과 함께 노동운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취급하였다. 속칭 '골목집' 이라는 노동자들의 쉼터 겸 아지트도 그곳에 있었다. 젊은 시절 주안역 언저리를 오가며 주안이 내게 남긴 기억과 이미지들은 그런 것들이었다.

(2) 주안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남구의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1988년 남동구, 1995년 연수구가 신설되어 남구로부터 분구되어 떨어져 나갔다. 남동구와 연수구는 신도시적 성격이 강하다. 새로 개발된 택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이로써 남구는 전통적인 중심 시가지와 주택지를 중심으로 구區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주안이 있다. 주안은 1970년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주거지역과 주안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1999년 개통된 인천도시철도는 인천의 고질적인 도시문제였던 도시의 남북단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양구와 부평구, 남동구를 거쳐 연수구에 이르는 남북관통 노선으로 건설되었다. 경인전철과는 부평역에서 연결되며 이에 따라 부평역은 경인국철과 인천도시철도가 만나는 환승역이 되었다. 인

천 지하철이 없었다면 특히 연수구의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 주안역을 이용했을 터이지만 이제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부평역을 통해 서울로 가고 있다. 그만큼 주안역의 유동인구는 줄어들었다. 게다가 그동안 개통된 제2경인 고속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88올림픽도로와 연장되는 매립지 도로 등으로 경인국도와 경인고속도로가 전부였던 서울로의 도로 연결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이런 도로 연결과 철도, 지하철의 개통은 더욱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주안을 관통하는 경인로나 경인고속도로는 그 역할이 조정되고 있는 국면인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인천시가지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아예 도심 간선도로로 재구축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변화들은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필연적인 현상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주안역의 유동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경인로를 오가는 교통량도 예전과 다르게 되었다. 인하대학교의 후문가는 박리다매薄利多賣라는 대학상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서 서울의 대학생들도 한 번 쯤은 찾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주안역 일대는 더 이상 대학생들이 찾는 곳은 아니게 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주안이 누려왔던 영화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 변화와 도시 발전의 자연스런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도시공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인천은 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월동 일대를 신도심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월동 일대는 시청을 비롯해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경찰청 등이 입지해있으며 대형 백화점과 종합버스터미널, 은행, 대기업의 지점들, 그 외 유흥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 중심을 따라 중앙공원이 길게 이어져있다. 어떻게 보더라도 구월동 일대는 이제 인천의 도심 기능을 떠맡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는 연수구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계획된 신도시로서 연수구는 공원, 도로, 교육 등 생활 여건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인천발전연구원이 2003년 실시한 시민설문조사에서 연수구는 인천시민들이 이사해서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혔다. 교육 여건이나 교통, 쇼핑, 여가생활 등이 편리하도록 도시 전반이 잘 계획되어 있다. 연수구 주민들은 인천 안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

반면 동인천 일대는 이제 구도심으로 더 이상 인천이라는 거대도시의 중심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나는 가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동인천의 거리를 하염없이 걷곤 한다. 걷다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유를 찾는다. 거리의 모습이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족들의 애틋했던 모습들, 또 어린 시절 내 모습이 오롯이 생각나는 것이다. 그만큼 동인천은 변하지 않았다. 낡은 상가와 집들이 변하지 않은 채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다. 주안도 마찬가지이다. 주안은 내 청년 시절의 추억을 머금고 그 자리에 서 있다. 주안역 앞 경향빌딩이 높이 올라가고 교보빌딩이 들어섰으며 시민회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정취는 그대로이다. 낯선 곳이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도시의 모습을 나는 낭만적으로 말했지만 주안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을 자아낼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예상이 예상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므로 장사는 더욱 안 되고 집값은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며 공부할 만한 학생들은 이사 가고 그러면서 점차 주안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계기로 송도신도시를 야심차게 건설하고 있다. 자급자족적인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로 교육, 문화, 환경, 보건, 안전 등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잘 사는 외국인들의 거주 비율도 높이겠다고 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기지로,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센터로 키워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비전을 보다 보면, 그리고 그 비전들과 오늘의 주안의 모습을 대비해 보면 우울한 상상은 더욱 심화된다. 아니 우울한 상상이 아니라 위기감마저 든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동인천역 주변의 구도심이 퇴락해 가는 전철을 주안도 밟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다. 차라리 위기감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감으로 다가온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주안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주안의 미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요소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주안과 관련한 외적 요인들이고 내부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인철도로 인한 도시의 단절이다. 주안은 엄밀히 말

두번째, 인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인천 전체의 시각에서 주안이 차지하는 위치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욕심 같아서는 인천의 중심 상권도, 교통의 중심지도 주안이 된다면, 그리고 주안의 퇴락한 공단에 새로운 첨단 사업을 유치해서 공단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하고 단독주택 지역도 재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면 좋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성급한 욕심이다. 현재 인천의 여건에서 그것이 실현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욕심들은 인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폐쇄적인 지역중심주의의 소산이다. 주안이 오늘과 같은 위치에 이른 것도 크게 보면 인천이라는 도시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앞으로의 변화 역시 인천 전체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도시는 여러 조건이 맞을 때 비로소 조금씩 변화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의 개발 논리에 주안의 미래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 계획의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고도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서 자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그것인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모습일까?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자본이 들어올지도 의심스럽다. 도시야말로 자본주의적인 경제 논리, 시장의 논리가 정확하게 관철되는 곳인데 번듯한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과연 주안에 들어서게 될 것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도시 재개발을 통해 기존 시가지를 깨끗이 밀어버려 정리하고, 흔히 도시계획가들이 하는 말로 '털어내서' 완전히 새로운 계획하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개발 독재 시절에나 통하는 논리였다. 물론 지금은 도시계획 제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

을 완화해서 자본을 유입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개발업자와 부동산업자의 배만 불리고 정작 거기에 입주한 상인이나 주변의 주민들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이다. 그런 변화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공이라는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 주안은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창출해나가야 한다.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안은 인천의 도시 여건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바뀌어왔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상권이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 지하상가까지 들어섰다. 주택가에는 빌라라는 이름의 다세대 주택이 마구 들어섰으며 좁은 이면 도로는 주차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미래의 주안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원칙과 방향을 세워 이제 도시를 가꿔가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주안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구월 신도심이나 송도 신도시와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을 때 주안의 미래는 현실감 있는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2) 그렇다면 미래 주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래 내용은 내 나름대로 10년 후 달라진 주안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본 것이다. 관념적인 언어로 설명하기보다 보다 구체화된 형상을 통해 주안의 모습을 담아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결코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니라

해 두 가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주안의 남쪽과 북쪽은 전혀 다른 공간이다. 불과 철길 하나로 주안은 나누어져 있다. 철길 아래쪽은 그래도 화려한 상가지역을 형성하지만 철길 위쪽은 연립주택과 소형아파트와 궁색한 상가가 뒤죽박죽인 도시의 변두리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공단이 퇴락하면서 이곳은 긴장감 넘치는 활력도 잃고 더욱 주변부화되고 있다. 그 전에도 이런 단절과 분할은 문제였지만 그 단절과 분할이 도시의 쇄락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각하다. 그 외에 고질적인 주차문제와 좁은 이면도로, 복잡하고 지저분한 버스 정류장, 광장의 기능도 주차장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안역 앞의 공영주차장, 안전이 위협될 정도의 퇴락한 상가들, 어지러울만큼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상점의 간판들, 주안북부역과 맞붙어 흉물처럼 서있는 대형 상가 빌딩이 주안의 오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주안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역 주변의 상가들이라면 모두 겪고 있는 문제들일 터이다.

어쨌거나 주안의 미래는 이런 문제들과 결부되어 고민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힘들다.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첫번째가 도시를 보는 이념과 철학을 세우는 일이다. 다시 말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곳에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을 정립한 연후에 의지를 갖고 차분히 실천해 가면 해결될 길이 보이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안팎의 문제를 안고 있는 주안을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살려나가고 재구축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3.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1) 미래를 위한 도시의 철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도시의 비전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방향이 비전이므로 더욱 그렇다. 철학이 없는 비전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철학과 이념이 있어야 많은 주장들 속에서 자기 중심을 세울 수 있다. 주안의 미래를 놓고서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저런 주장이 주안의 미래와 관련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데(거기에는 아주 세부적인 실천 방안도 있고 거창한 마스터 플랜도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떻게 자기 중심을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야 원칙에 따라 실천할 수 있다. 물론 그 이념과 철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철학과 이념이 빈곤한 것은 문제이지만 다른 이념, 다른 철학은 생산적인 토론을 낳게 되므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래의 주안을 위해 어떤 철학이 필요할까.

우선 기존의 발전 모델로부터, 발전에 대한 조급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주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주안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발전의 도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주안이 안고 있는 도시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지혜롭게 해결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뒤떨어진다는, 혹은 우월적인 지위를 누려야 되겠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쉽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라는 무한 경쟁의 늪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언컨대 주안의 미래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고 생각한다. 실제 일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그것을 어떤 신념과 플랜을 가지고 만들어 가느냐는 주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그리고 남구청과 인천시 당국의 몫일 것이다.

× ×

2014년인 올해로 꼭 예순 살이 된 김씨는 오래간만에 주안역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서울에 사는 그의 친구는 전철로 내려오는 게 편하다고 주안역 앞 광장을 약속장소로 잡았다.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한 김씨는 아파트 생활이 싫어서 주안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다른 친구들은 시골의 전원주택을 선호했지만 도심지라서 생활하기도 편하고 전원주택 못지 않게 마당도 딸려 있고 옛 정취가 배어있는 주안의 단독주택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요즘은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도 수월하고 골목들도 깨끗이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구청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어준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공원 속에 집이 들어앉은 것마냥 좋았다. 군데 군데 조그만 공원도 심심치 않게 있고 생활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정 겸 문화센터 겸 소일거리로는 그만인 점도 매력이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방 역할도 한다고 들었다. 남구가 다세대 주택 일부를 차례로 매입해서 만들어낸 것이 주안의 생활도서관이라고 한다. 가끔 자원봉사활동 삼아 그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해주는 일도, 생각해 보니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었다.

주안역까지는 멀지 않아 천천히 산보 삼아 걷기로 했다. 옛날 시민회관 쉼

터는 이제 그늘을 만들 정도로 나무도 자랐고 분수도 있어서 가끔 산책삼아 가는 곳이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까먹는 젊은이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그 옆 조그만 공연장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음악회다 연극이다 해서 사람들이 조촐하게라도 모이고는 하는 장소이다. 큰 아이는 결혼한 지 5년만에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를 얻었다고 신나했지만 김씨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짠 바닷바람도 싫었지만 예전에 살던 정취라는 게 없었다. 그곳에는 왠지 허둥지둥 바쁘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정이 없었다. 그래서 요즈음은 조금 생각있는 젊은 사람들이 중구의 구도심이나 이곳 주안 일대로 이사오는 추세라고도 들었다. 교육 때문에 송도에 산다는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많지만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방송이 워낙 충실해서 그것도 과거와 같지 않다고 한다.

옛 시민회관 사거리부터 주안역까지는 인천시가 지정한 걷기 좋은 거리여서 기분 좋게 걸을 수가 있다. 가로수도 울창하고 가로수 사이사이에 꽃나무들도 색색으로 아름답게 피어있어서 보기 좋았다. 인도도 널찍하게 넓혀 놓고 걷다가 힘들면 중간중간에 멋들어진 벤치에서 쉴 수도 있다. 얼마 전에는 길가에 예쁘게 생긴 공중전화박스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 보니 공중화장실이었다. 걷기 좋은 거리라는 말이 단순한 말치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주안의 지하상가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중저가의 옷만 파는 상가로 리모델링되어서 주말이면 사람들이 꽤 많이 찾는 모양이다. 인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도 이제 소득수준이 꽤 높아져서 젊은이들이 배낭여행 삼아 우리나라를 자주 찾는다고 들었다. '도깨비투어' 라고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이니 쇼핑이 그들의 주목적인 셈이다. 주안역 앞 사랑병원 근처의 영화광장과 영화관, 그 뒤편의 먹자골목들도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한다. 2000년 초반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이제 아시아 문화산업을 주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니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인도 곳곳에 일본어와 중국어로 된 주안 상가 안내 지도들을 보면 이곳에 중국인들이 꽤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도블럭도 걷기 좋게 잘 깔려 있으면서 보기에도 상쾌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러고 보니 안내지도나 보도블럭이나 화장실 안내판이나 모두 이곳 주안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져있는 것을 김씨는 뒤늦게 발견했다. 조금 의식적으로 상가의 간판들을 보니 그 역시도 가지런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주안이 이전과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바로 그런 간판들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인하대 후문가만 가보더라도 활력은 있어보였지만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간판 탓이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입구들도 깨끗해서 보기 좋았다. 남구가 이곳만큼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같았다.



주안역 광장이 저만치에 보인다. 그 뒤로 현대식 영화관이 들어선 건물 벽 대형 전광판에는 곧 개봉할 영화 예고편들과 뉴스들이 스쳐지나가고 있다. 최근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심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반대운동을 펼치는 가운

데 설문조사를 통해 설치 쪽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제의 그 에스컬레이터였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주안 북부역으로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 남구로서는 의욕을 갖고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주안공단은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아트빌리지 건설이 한창이다. 공단을 문화시설로 바꿔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특구로 바꿔가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현재 인천에서 주안역 광장만큼은 정말 광장이라는 이름에 값한다는 말들을 한다. 전철에서 내리면 곧바로 광장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여느 광장과 다르게 광장의 바닥면이 시민들의 발모양만을 본떠 부조공법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이다. 독특한 바닥 모양을 가진 그 광장은 몇군데서 상을 받기까지 했다고 한다. 광장이라는 추상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들었다. 그 광장에만 갓태어난 아기부터 100살이 넘는 고령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총 2010명의 남구주민의 족상(足相)을 새겨 넣었다고 하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2010년에 조성되어서 2010명이 참여했고 남구는 1년에 한번씩 그날을 기념해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한다.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어서 인천사랑병원 옆의 영화광장과 함께 남구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약속시간이 얼추 된 것 같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줄곧 서울에서 살아온 김씨의 친구는 전화로 이제 고향인 인천으로 내려와 살까 하는 생각을 잠깐 비치기도 했다. 김씨는 그 친구도 아마 이 길을 걸으면 이사할 생각을 굳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4. 주안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천의 미래발전상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자를 유치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편 되돌이켜 생각해 보자. 왜 성장하려고 하는가. 왜 발전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것쯤은 말하지 않아도 능히 알 수 있는 바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성장 플랜이 성공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익이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더 구체적으로 인천의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곧바로 연결된다.

나는 그 길이 성장의 혜택을 인천의 시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온갖 노력들의 가치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거대 도시를 다시 분할시키는 일이므로 위험스러운 일이기까지 하다. 다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또다른 강남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수립중에 있다. 노후화되고 퇴락해가는 구도심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이런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일이다. 게다가 그것이 재개발이 아닌 재생(再生)이라는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 도시의 모습, 그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겠다는 것이 도심

재생의 큰 뜻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개발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재개발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의 힘으로 도시의 활력을 얻겠다는 것인데 반해 도심 재생은, 물론 자본의 힘도 끌어들여야 하겠지만 공공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인고속도로의 도심구간 간선도로화나 동인천역 북광장의 조성은 공공의 재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광장과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고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사업들은 모두 공공의 몫인 것이다. 만약 주안 역시 도심 재생이라는 관점의 사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앞에서 그려낸 주안의 모습은 그런 재생 사업의 일환이다), 그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하고 충당할 것인가. 나는 그 길이 경제자유구역의 과실을 도심 재생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거둬들이는 세수의 상당부분이 이런 구도심 재생 사업에 투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럴 때에라야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한 의의도 있다.

과거 인천은 개발과 성장의 논리로 공단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도시가 황폐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역사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천이 새로운 도시 발전의 미래 모델을 창출한다면 이런 곳에 그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주안이, 구도심이 서로 상생하는 것, 정녕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지혜와 관심이 중요한 때이다. 주안의 미래는 그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성큼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 책임편집 : 이희환
인하대학교 국문과 강사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남구 학산문화원 기획위원

학산문화총서 1

朱安 - 역사 · 공간 · 일상

초판 1쇄 인쇄일 / 2004년 12월 10일
초판 1쇄 발행일 / 2004년 12월 15일

발행인 / 유제환
기획 · 편집 / 이희환
발행처 /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58(용현동 81-8)
tel. 032)866-3993, 880-4763
www.haksanculture.co.kr
제작공급 / 다인아트 032+430+0268

값 / 10,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전체 면적 중에서 주안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5%에 달하여 나머지 7개의 법정동인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도화동, 관교동, 문학동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에 있어서도 주안은 남구 전체의 인구 43만여 명 중 약 38%에 달하는 16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공간이다. 그러나 남구 전체가 그런 것처럼 신도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에 비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지역이 온존하고 있는 도시환경과, 점차 열악해져가는 주거 및 생활환경,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교육, 업무 기능의 이전과 반비례하여 성장하고 있는 오락 및 문화기능의 확대 등으로 도시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큰 혼돈을 겪고 있다.

값 10,000원